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 청 태종조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역사비교언어학
김현정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 청 태종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주 원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역사비교언어학
김 현 정

김현정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박 상 철

부위원장 고 동 호

위 원 송 재 목

위 원 연 규 동

위 원 김 주 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 태조 누르하치부터 청 태종 홍타이지의 승덕 1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만문원당』과 이를 청 건륭제 때 중초해 편찬한 『만문노당』을 자료로 하여, 그중에서 홍타이지가 한에 즉위한 천총 원년(1627)부터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 승덕 원년(1636)에 이르기까지의 청 태종조 부분에 대해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개수된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는 서지·표기적 측면의 변화와 음운·형태·통사·어휘 차원의 언어학적 현상을 살펴보고 이차적으로는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문원당』은 만주어 문자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만문원당』은 문자적으로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 과도기적 만문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 만주 문자의 변천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무권점 만문은 로마자 소문자로 전자하는 유권점 만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올바른 전자 방식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이어받아 무권점 만문의 전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보완·발전시켰다.

해당 부분의 언어적 변화는 음운적, 형태·통사적, 어휘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음운적 변화는 자음의 경우 만주어 고유어는 b와 f의 혼용, 구개음화, 어말 n 유동 현상이 나타난다. 『만문원당』에 반영된 중국어 차용어 자음은 당시 만주인이 접했던 중국어 방언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일부 자음은 구개음화가 완전히 완료됐거나 한창 진행 중인 상태를 보여준다. 『만문원당』의 모음의 경우, 모음의 교체와 탈락 및 첨가, 단모음화, 장모음화, 개입자음

g의 유동 등이 나타난다. 형태·통사적으로는 『만문노당』에서는 시제와 부정을 나타내는 어미가 합쳐져 축약되거나 두 형태소가 중첩을 통해 하나의 형태소로 통합되고 구·절의 어순이 차이를 보이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는 『만문원당』에서 사건의 주요 내용과 인명, 직위 등을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만문원당』의 기존 내용을 보완하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 개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는 크게 중앙집권화,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만주족 정체성 형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홍타이지가 천총 원년에 출병한 버일러들에게 답신을 하면서 ‘우리(be)’라고 썼던 부분을 『만문원당』에서 지우고 ‘나(bi)’라고 고쳐 쓰고 있다. 이렇게 개수된 것이 『만문노당』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사왕분권’으로 세 버일러와 통치 권한을 공유하던 홍타이지가 차츰 장유의 서열을 극복하고 황권을 강화하려고 한 시도를 드러낸다.

또한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관찰된다. 먼저 ‘조선의 한(solhoi han)’이라는 표현을 ‘조선의 왕(solhoi wang)’으로 고쳐쓰고 있는데, 이는 ‘황제—왕’의 중국식 황제제도를 청의 ‘한—버일러’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조선은 청과 동등하게 ‘한’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보다 낮은 ‘왕’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개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을 앞둔 천총 9년에 이르러 ‘후금(aisin gurun)’을 ‘조선국(coohiyan gurun)’보다 높여 쓰거나, 자신들을 상국(wesihun gurun)으로 지칭하며 조선보다 높여쓰는 대두 관념이 나타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찍이 명에 대해 적용했던 대두 관념이 조선에 대해서는 천총 말기에 이르러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명에 대해서는 화친 등 글의 내용에 따라 대두의 상대적인 정도를 조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는 『만문노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만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 금(aisin)과 여진(jušen)을 만주(manju)로 고쳐 씌으로써 청의 팔기 체제에 근간을 두고 정치·군사 집단으로 인식되던 ‘만주인’이라는 관념을 한족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 개념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만문원당』은 개수를 통해 추후 편찬되는 역사기록의 사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하나가 『만문노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두 등을 통해 볼 때 『만문원당』에는 『만문노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청의 고유한 국제 정세 인식이 담겨 있다.

주요어 : 만문원당, 만문노당, 개수, 홍타이지, 만주, 여진

학 번 : 2015-30034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
1.2. 기존 연구	7
1.2.1. 서지학적 연구	8
1.2.2. 언어학적 연구	11
1.2.3. 번역 작업	12
1.2.4. 역사적 연구	14
1.3. 논문의 구성	23
제 2 장 서지와 표기	25
2.1. 『만문원당』의 표기법 변천	25
2.2. 무권점자 전자 원칙	30
2.2.1. 기존의 전자 원칙	30
2.2.2. 본고의 전자 원칙	35
제 3 장 언어학적 특징	51
3.1. 음운론적 특징	51
3.1.1. 자음	52
3.1.2. 모음	95
3.2. 형태·통사적인 특징	122
3.2.1. 형태적 특징	123
3.2.2. 통사적 특징	134
3.3. 어휘적 특징	143

제 4 장 조선 관련 기사 개수 분석	149
4.1. 개수의 시점	149
4.2. 개수의 실제	154
4.2.1. 서술 시점 변경	154
4.2.2. 국호 수정	159
4.2.3. 정보 추가	160
4.2.4. 윤문	172
4.2.5. 삭제	174
4.2.6. 대두(擡頭)	177
4.2.7. 소결	185
4.3. 개수 분석	186
4.3.1. 중앙집권화	186
4.3.2.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196
4.3.3. 만주족 정체성 확립	210
제 5 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7
Abstract	225

[부록 1]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1
[부록 2]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 청 태종조	60
[부록 3] 『만문노당』의 미반영 기사: 청 태종조	132
[부록 4]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 청 태종조	133
[부록 5] 『만문원당』의 텍스트화 (일부 예)	134

표 목 차

표 1 건륭연간 중초 7종 (김두현, 2008: 263)	4
표 2 『만문원당』의 종이 채질 및 문체 (松村潤 2001: 28~29)	8
표 3 『만문원당』의 자음·모음 무권점 표기 (김혜 2019: 29)	27
표 4 무권점 만문의 주요 특성	29
표 5 김주원·이형미(2017: 17)의 무권점자 전자 원칙	34
표 6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U 대응 사례	38
표 7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hat{U} 대응 사례	39
표 8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ddot{O}/\ddot{U} 와 \ddot{u} 대응 사례	40
표 9 『원당』 무권점자의 반모음 W 대응 사례	40
표 10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E 대응 사례	41
표 11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SI 대응 사례	41
표 12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check{S} 대응 사례	41
표 13 『원당』 무권점자의 어미 - Pi 대응 사례	42
표 14 『원당』 무권점자의 어미 - Bi 대응 사례	42
표 15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G/H 대응 사례	42
표 16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D 대응 사례	43
표 17 『원당』 무권점자의 TE, DE 대응 사례	43
표 18 『원당』 무권점자의 De, Ge, He 대응 사례	44
표 19 『원당』 무권점자의 $k\hat{U}$, $G\hat{U}$, $H\hat{U}$ 대응 사례	44
표 20 『원당』 무권점자의 Du 대응 사례	44
표 21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C 대응 사례	45
표 22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F 대응 사례	45
표 23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K 대응 사례	46

표 24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Y 대응 사례	46
표 25 『원당』 무권점자의 ‘양성자+음성모음’ 조합 전자 예	47
표 26 『원당』 무권점자의 ‘음성자+양성모음’ 조합 전자 예	48
표 27 『원당』 무권점자의 ‘무권점 t/d+음성모음’ 조합 전자 예	48
표 28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앞 받침 k 전자 예	49
표 29 『원당』 어두 B/P와 『노당』 f의 대응 사례	53
표 30 『원당』에서 fiyan의 표기 변천	53
표 31 『원당』의 G와 『노당』의 j의 대응 사례	56
표 32 『원당』의 j와 『노당』의 k/g의 대응 사례	56
표 33 『원당』의 j와 『노당』의 d의 대응 사례	58
표 34 『원당』의 어말 n 유동 사례	63
표 35 『원당』·『노당』의 성백인(1990) 어말 n 유동 사례	66
표 36 만주어 방언의 어말 n 탈락 분포 (Joseph, 2018: 222~223)	68
표 37 통구스 제어에서 어말 n 유동 사례 1	69
표 38 통구스 제어에서 어말 n 유동 사례 2	69
표 39 『원당』의 역행 동화 사례	69
표 40 중국 중고음·근고음 기준 『원당』의 중국어 차용어 성모	72
표 41 唐作蕃(2018)의 『중원음운』 성모 체계	73
표 42 『원당』·『노당』 간 s — dz 대응 (김혜 2019: 149)	83
표 43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사례	85

표 44 중군(中軍)의 『원당』의 표기 변천	92
표 45 한대훈(韓大勳)의 『원당』의 표기 변천	93
표 46 정흥현(定興懸)의 『원당』의 표기 변천	94
표 47 행산(杏山)의 『원당』의 표기 변천	94
표 48 『원당』·『노당』의 동일 단어 모음 교체 사례	95
표 49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모음 교체 사례	100
표 50 puho의 『원당』의 표기 변천	100
표 51 『원당』·『노당』의 oo — ao 대응 (김혜, 2019: 103)	101
표 52 『원당』·『노당』의 동일 단어 모음 탈락 및 첨가 사례	102
표 53 퉁구스 제어에서 어말 o의 유동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103
표 54 퉁구스 제어의 어말 모음 유동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103
표 55 『원당』 단모음과 『노당』 非단모음 대응 사례	106
표 56 ibiyada의 『원당』의 표기 변천	107
표 57 『원당』·『노당』에서 ekiyehun의 표기 유동	108
표 58 『원당』·『노당』에서 funiyehhe의 표기 유동	108
표 59 『원당』·『노당』에서 abide의 표기 유동	108
표 60 『원당』·『노당』에서 baibi의 표기 유동	109
표 61 퉁구스 제어의 반자음 w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110
표 62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단모음화 사례 ..	111
표 63 『원당』·『노당』의 외래어 인명 단모음화 사례	112
표 64 『원당』·『노당』의 장단모음 대응 사례	113

표 65 『원당』·『노당』의 omihon의 표기 유동	116
표 66 『원당』·『노당』의 hiyoošun의 표기 유동	116
표 67 『원당』·『노당』의 šusiha의 표기 유동	117
표 68 『원당』·『노당』의 šušu의 표기 유동	117
표 69 『원당』·『노당』의 jooli-/joli- 표기 유동	118
표 70 퉁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탈락 예 (朝克 1997: 44~45)	120
표 71 퉁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약화 예 1 (池上二良 2001: 412)	120
표 72 퉁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약화 예 2 (池上二良 2001: 412)	121
표 73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장단모음 유동 사례	121
표 74 『원당』과 『노당』의 단어 경계 축약 사례	123
표 75 『원당』과 『노당』의 - ha bi/-habi 분포	125
표 76 『원당』과 『노당』의 - ha bi/-habi 시기별 분포	125
표 77 『원당』의 donjiha akū/donjihakū 분포	128
표 78 『원당』·『노당』의 donjiha akū/donjihakū의 시기별 분포	128
표 79 『원당』의 udu udu/ududu 분포	129
표 80 『원당』·『노당』의 udu udu/ududu의 시기별 분포	130
표 81 『원당』의 junefi/juwe nofi 분포	131
표 82 『원당』·『노당』의 junefi/juwe nofi의 시기별 분포	131
표 83 『원당』·『노당』의 접미사 유동 사례	133
표 84 『원당』·『노당』의 어순 뒤바뀜 사례	134

표 85 『원당』·『노당』의 절 단위 어순 변화 사례	139
표 86 『원당』·『노당』의 격 어미 표지가 다른 사례	140
표 87 『원당』·『노당』의 시제 및 양상 차이 사례	141
표 88 『원당』·『노당』의 일반 어휘 차이 사례	143
표 89 『원당』·『노당』의 인명 차이 사례	146
표 90 『원당』의 unggihe 개수 표기 차이	150
표 91 『원당』 6-101의 개수 표기 양상	152
표 92 『원당』·『노당』의 아민 버일러의 한 알현 장면 문구 대조	194
표 93 『원당』·『노당』의 후금 한 대두 양상 차이	210
표 94 『원당』·『노당』의 청나라 한 대두 양상 차이	210

그 립 목 차

그림 1 부처(fucihi)의 대두 (천총 원년: 원당 6-32)	19
그림 2 taidzu (원당 8-223)	150
그림 3 동일 기사 내 개수 시기 차이 (원당 6-101)	151
그림 4 『원당』 6-136의 개수 시기 양상	153
그림 5 juraka의 unggihe로의 개수 (원당 6-4)	154
그림 6 be의 bi로의 개수 (원당 6-16)	155
그림 7 solhoi han의 solhoi wang으로의 개수 (원당 6-67)	156
그림 8 jušen의 manju로의 개수 1 (원당 8-223)	157
그림 9 nenehe genggiyen han의 묘호 taidzu로의 개수 (원당 8-223)	157
그림 10 간접화법으로의 개수 (원당 6-90)	158
그림 11 aisin의 manju로의 개수 (원당 6-59)	159
그림 12 jušen i juwete amban의 manjui amban으로의 개수 (원 당 6-80)	159
그림 13 jušen의 manju로의 개수 2 (원당 8-223)	160
그림 14 중복 변개 기사 (원당 6-26~27)	161
그림 15 행간의 정보 추가 개수 사례 1 (원당 6-55)	162
그림 16 행간의 정보 추가 개수 사례 2 (원당 6-67)	163
그림 17 solhoi han의 solhoi wang lii dzung으로의 개수 (원당 6-71)	164
그림 18 『원당』의 ‘홍타이지’ 피휘 미적용 사례 (원당 10-680)	166
그림 19 후금 한의 서신 (천총 9년: 원당 9-288)	178
그림 20 조선 왕의 답신 (천총 9년: 원당 9-362)	178

그림 21 천총 9년 원당 9-110	179
그림 22 원당 6-49	181
그림 23 천총 2년 기사 (원당 6-252)	181
그림 24 천총 3년 기사 (원당 8-5)	182
그림 25 천총 3년 기사 (원당 8-18)	182
그림 26 천총 4년 기사 (원당 7-72)	183
그림 27 천총 4년 기사 (원당 7-75)	183
그림 28 천총 4년 기사 (원당 7-124)	184
그림 29 승덕 원년 기사 (원당 10-339)	184
그림 30 원당 6-3의 개수 양상	189
그림 31 li geyo (원당 6-27)	191
그림 32 홍타이지의 황권 강화 개수 (원당 6-90)	193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93 p. 94	표 43 [표 46], [표 46]	[표 45] [표 47], [표 47]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는 청 태조 누르하치부터 청 태종 홍타이지의 승덕 1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내각본)』을 자료로 하여, 그중에서 홍타이지가 한으로 즉위한 천총 원년(1627)부터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 승덕 원년(1636)까지의 내용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두 단계로 나뉜다. 일차적으로는 청 태종조 부분의 내용을 서지·표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언어학적 특징을 음운, 형태·통사, 어휘적으로 분석한다. 이차적으로는 청 태종조 가운데 조선 왕조와 관련된 내용의 개수 양상을 살펴보고, 청의 민족 및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양상이 나타내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 대상인 『만문원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喬治忠, 1994: 92; 최동권, 2007; 김선민, 2012: 144)에 따르면, 이 만문당안은 누르하치가 건국하기 9년 전인 1607년부터 시작하며 홍타이지가 황제에 즉위한 승덕 원년인 1636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만문당안에 기록된 최초의 사건은 1607년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천명 원년(1616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 일은 소급해 적은 것이다.¹⁾

1) 喬治忠(1994: 92)은 『구만주당』(『만문원당』)의 1615년 기록에 누르하치를 sure amba genggiyen han이라고 부르는데 이 존칭은 1616년에 누르하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이는 『구만주당』이 1616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고 주장한다.

廣祿·李學智(1965)에 따르면, 『만문원당』은 중화민국 20년(1931년) 3월에 북경 고궁박물관 문헌관이 청내 내각대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37권 짜리 만문당안을 가리킨다. 이 만문당안은 청나라 최초의 역사 기록이며 여기에 담긴 기록은 모두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회고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청 태조인 누르하치가 거병한 이래 세력을 키워가던 초기에는 명과 조선에 공문을 보낼 때 주로 한문을 이용했고 건주여진 내부적으로는 주로 몽문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만력 27년(1599년)에 이르러 누르하치는 몽골 문자를 고쳐서 만주어를 표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어르더니 박시와 가가이 자르구치를 통해 만주 문자를 창제해 반포하게 된다. 이어 청 태종인 홍타이지는 천총 6년(1632년)에 다하이에게 지시해 부친이 만든 만주 문자에 동그라미와 점을 더해 보다 정확한 음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자를 무권점자 또는 구만문, 노만문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유권점자 또는 신만문이라고 부른다.

『구만주당』이라고도 불리는 이 만문당안의 주요 내용은 누르하치가 여진 각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운 뒤, 명나라와 전쟁을 했던 시기의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이 만문당안은 기사가 많고 중복이 있으며 문자 측면에서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 무권점 만문에서 유권점 만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만문, 몽골 문자가 뒤섞여 쓰여 있다. 최동권(2007)에 따르면, 특히 몽골 부족과 왕래한 편지를 수록한 곳에서는 몽골문이 직접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만문에 한 두 개의 몽골 문자가 뒤섞여 있다. 기록 방식은 주로 편년체로 쓰였지만 일부는 기사본말체로 쓰인 것도 있다. 학자들은 이 책이 발견된 이후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廣祿·李學智, 1965). 순치원년(1644년)에 청 황실의 입관과 함께 이 만문당안도 북경으로 옮겨져 자금성의 내각대고에 소장됐다. 입관 전 만문당안은 원래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무권점당자』, 『무권점당안』, 『무권점당』, 『구만주당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건륭 6년(1741년)에 이르러 당시 만주인들은 이미 무권점 만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륭 황제는 ‘계고우문(稽古右文)’을 기치로 만주인들이 무권점 만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廣祿·李學智, 1965), 오르타

이(Ortai, 鄂爾泰)와 시오이 유완명(Sioi yuwanmeng, 徐元夢)에게 제안해 이를 정리하고 고증해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건륭 황제는 이 작업을 마친 뒤, 건륭 6년 때 『무권점만문자서』(tongki fuka sindaha akū hergen i bithe)를 편찬했다. 『무권점만문자서』에 따라 이 당안을 정리하는 작업은 장정을 새롭게 한 것에 불과했고 원본을 새롭게 초록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당시 초록을 제안한 시오이 유완명이 상주문을 올린 해 병사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루지 못한 만문당안 중초 사업은 33년 후 그의 손자인 대학사 슈허더(Šuhede, 舒赫德)가 건륭 39년에서 건륭 40년(1775년)경에 제의하게 된다. 슈허더는 만문당안이 낡아서 훼손되기 쉽고 무권점자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중초할 것을 제의했고 이 작업은 건륭 43년(1778년)에 완성됐다(김선민, 2012: 145~151).

『만문노당』은 위의 37권짜리 만문당안을 바탕으로 132명에 달하는 인원이 베껴쓰는 작업에 참여해서 원본의 글자 그대로 무권점자로 베껴 쓴 것과 원본의 자음에 따라 유권점자로 옮겨 쓴 것 두 가지로 작성되어 무권점자 만문당안의 저본과 정본, 유권점자 만문당안의 저본과 정본 모두 네 가지의 중초본이 만들어졌다. 이어 이듬해인 건륭 44년(1779년)에 무권점자와 유권점자 당안의 부분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성경(盛京) 숭모각(崇謨閣)에 소장했다(김선민, 2012: 145~151). 건륭 연간에 7종으로 중초한 만문당안 중 현존하는 것은 1~6번까지이며, 그 표지에 만문으로 각각 ‘tongki fuka akū hergen i dangse(무권점 만문의 당안)’, ‘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유권점 만문의 당안)’라는 제목을 붙여 일반적으로 무권점자당과 유권점자당²⁾이라고 부른다(김두현, 2008: 262~263).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No.	중초본	문체	보관
1	무권점자당 저본	무권점 만문 흘림체	북경 중국제일역사당안관
2	유권점자당 저본	유권점 만문 흘림체	
3	무권점자당 내각본	무권점 만문 정자체	

2) 김두현(2008)은 ‘유권점자당’이라고 부른다.

4	가권점자당 내각본	유권점 만문 정자체	
5	무권점자당 송모각본	무권점 만문 정자체	심양 요녕성당안관
6	가권점자당 송모각본	유권점 만문 정자체	
7	가권점자당 상서방본	-	소실된 것으로 추정

표 1 건륭연간 중초 7종 (김두현, 2008: 263)

『만문노당』은 청나라 사람들이 비밀 창고에 소장하면서 기밀로 유지됐으나 청나라 말기 외세의 압박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일본인에게 발견되어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廣祿·李學智, 1965). 『만문노당』은 송모각본과 내각본으로 나뉘는데, 송모각본은 유권점자로 된 만문당안을 영인한 것이고 내각본은 송모각본보다 늦게 발견된 무권점자와 유권점자, 과도기적 문자가 뒤섞인 만문당안 원본과 중초본으로 구성된다.

먼저 송모각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에 당시 선양의 고적지와 역사 문헌을 조사하던 일본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이 선양 고궁의 송모각에 소장되어 있던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으로 된 청 태조와 태종 시대의 만문당안을 발견했다. 그는 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912년에 다시 선양에 가서 총 180권의 유권점자 『만문노당』을 모두 촬영해 일본으로 가져갔고, 이듬해 이를 정리해 총 36권의 영인본을 여러 부 만들어 『만문노당(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이라고 제목을 붙여 학계에 최초로 공개했다(廣祿·李學智, 1965; 김두현, 2020: 14~1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 2017: iii~vii). 이들은 현재 京都대학 문학부 도서관과 東京대학 종합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김두현, 2020: 14~15). 이로써 건륭 연간에 중초된 유권점자로 된 송모각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만문노당』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국가를 형성해가던 1607년부터 청 태종 홍타이지가 대청국을 선포한 1636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iii~vii)에 따르면, 청의 건국기이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후금과 명, 몽골, 조선의 다각적인 국제관계 전개 양상을 전하고 있다.

내각장본이 모습을 드러낸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내각장본 『만문노당』

의 원본과 중초본은 송모각장본보다 늦게 발견됐는데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황제 푸이가 퇴위한 뒤에도 황실은 그대로 고궁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내각대고에 보존되어 있던 『만문노당』의 원본과 중초본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17년 나이토 고난이 내각대고를 참관하던 중 『만문노당』 원본을 보게 되고 1929년 논문에서 이 사실을 소개한다. 1924년 푸이가 고궁을 떠나고 1925년 10월 고궁박물관이 설립된 후 1931년 내각대고 당안을 정리하던 중 37권의 『만문노당』 원본³⁾과 중초본을 발견했고 1935년에 건륭 연간에 중초되지 않은 세 권의 당안을 발견했다(廣祿·李學智, 196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 2017: viii~ix).

『만문노당』 원본은 1933년에 고궁박물관의 귀중품과 함께 상해로 옮겨졌다가 1935년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으나 1936년 2월 다시 상해로 보내졌다가 이후 남경으로 운송됐으나 1948년 말에는 대만으로 옮겨졌다. 중국 공산당에게 패한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가져간 보물 중에 포함됐다(최동권, 2007). 1969년 대만고궁박물관은 총 40권의 『만문노당』 원본을 정리해 10권으로 나누고 『구만주당(舊滿洲檔)』이라는 제목으로 영인 출판했다. 최동권(2007)에 따르면, 『구만주당』이라는 명칭은 이들 자료의 구분 기준을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으로 삼지 않고 만주족이 입관하기 전 기록과 건륭 때 복제한 기록으로 삼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후 최근 들어서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구만주당』의 원본 자료를 다시 촬영해 『만문원당』이라는 서명으로 출판했다. 이전의 『구만주당』보다 사진의 선명도가 높고 책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만주당』과 각 지면의 쪽수가 달라져 『구만주당』과 『만문원당』을 활용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김두현, 2016: 352).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은 청나라의 초기 역사를 담은 귀중한 실록 사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들 사료는 초기 청나라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과 청나라 간 주고받은 상당수 서신

3) 앞서 언급한 37권짜리 만문당안인 『만문원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다른 사료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는 실려 있어서 역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 역주회 역, 2017: iii~iv).

본 연구에서는 청 태종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두 자료의 문자와 음운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차적으로는 조선 관련 기사의 기록 양상을 통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청나라가 여진(jušen)이란 민족에서 만주족, 몽골족, 한족을 아우르는 복합 다민족 국가의 민족으로서의 만주(manju)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홍타이지가 중국식 황제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앙집권화의 토대를 만들고 향후 독재적인 황제 권력의 기틀을 쌓는 과정을 좇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명(nikan)을 넘어서고 조선(solho, coohiyan)⁴⁾을 지배하려고 한 시도를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개수한 흔적을 통해 밝혀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 실린 내용 중에서도 청 태종 홍타이지의 치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청 태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청 태종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자와 번역 작업 이외에 그 언어적 특성을 밝힌다거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등의 심화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 태종 홍타이지의 치세 기간에 해당하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 태종조 『만문원당』의 특성을 다각도로 조명해볼 것이다. 이는 본문의 내용과 함께 [부록 1]에서 전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청 태종조 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두 문헌의 동일 부분의 쪽수를 명시한 대조표를 [부록 2]에서 실었다. 그 외 『만문원당』의 기사 중 『만문노당』

4) solho와 coohiyan은 모두 ‘조선’으로 해석되는데 두 명칭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coohiyan은 『청어노걸대』에 따르면 朝鮮의 한자음 음차로서 당시 조선에서는 ‘초한’으로 발음했다. 『동문유해』에 보면, 高麗를 ‘솔호’라고 적고 朝鮮을 ‘초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solho(또는 solgo)의 어원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데, 한국을 가리키는 몽골어 solongos와의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몽골어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견해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krdict.korean.go.kr)에 따르면, 몽골어에서 solongos uls(Солонгос улс)는 한국을 가리킨다. 몽골어에서 solongo(солонго)는 ‘무지개’란 뜻이다.

이 중초되면서 빠진 미반영 기사를 [부록 3]에, 『만문노당』의 기사가 『만문노당』에 두 번 실린 중복기사도 [부록 4]에 실었다. 본고의 전사 원칙을 적용한 『만문원당』의 무권점 만문 전자 실제 사례는 [부록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기존 연구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 대한 연구는 서지, 문자 표기, 번역,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이뤄져 왔다. 먼저 서지학적인 연구로는 이 문헌들이 발견된 경위를 밝히고 문헌의 종이 재질, 표기된 문자의 형태 등을 통해 문헌이 작성된 시기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만문노당』의 기사에 대응하는 『만문원당』의 기사가 두 번 나타나는 중복기사도 정리해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다. 『만문원당』의 한 쪽이 『만문노당』의 몇 쪽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대조표를 작성한 작업도 이뤄졌다.

언어학적인 연구로는 『만문원당』에 나타나는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 과도기적 만문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기존 연구들은 무권점 만문의 자모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로마자로 전자하는 표기 원칙도 수립했다. 무권점 만문의 전자 원칙의 경우, 학자에 따라 초기에는 무권점 만문을 있는 그대로 로마자 문자에 대응시키는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유권점 만문과 대응시키기 용이하도록 음운적 재구형을 적용해 로마자 문자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갔다.

번역 작업은 주로 『만문노당』에 대해 수행됐다. 韓中日을 중심으로 이를 번역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역사적 연구로는 청나라 역사의 측면에서 『만문원당』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됐다.

1.2.1. 서지학적 연구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 대한 서지학적인 연구로는 廣祿·李學智(1965)가 있다. 廣祿·李學智(1965)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근대 중국에서 발견된 경위와 함께 청 건륭제 때 『만문원당』을 토대로 『만문노당』이 증초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만문원당』의 종이 재질이 고려 종이와 명나라 시기 공식 문서가 섞여 있음을 밝히고 고려 종이에 쓰여진 기사가 명나라 시기 공식 문서에 쓰여진 기사보다 시기적으로 늦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외에 『만문원당』에 실린 무권점 만문과 과도기적 유권점 만문의 표기 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栗林均·海蘭(2015)은 『만문원당』에 실린 몽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松村潤(2001)은 청 태조조 실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 『만문원당』에 대해 종이 재질과 무권점 만문 여부를 아래 [표 2]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No	字號	料紙	圈點	記事年代
1	荒字	고려지	무권점	만력35년3월~천명4년3월
2	昃字	"	"	만력43년6월~천명5년9월
3	張字	명 공문지	"	천명6년2월~천명7년3월
4	來字	"	"	천명6년7월~천명6년11월
5	辰字	"	"	천명7년3월~천명7년6월
6	列字	"	"	천명8년정월~천명8년5월
7	冬字	고려지	"	승덕원년9월~승덕원년12월
8	盈字	명 공문지	"	천명8년6월~천명8년7월
9	寒字	명 공문지 고려지	"	천명9년정월~천명9년6월
10	收字	고려지	가권점	천명10년정월~천명10년11월
11	黃字	"	무권점	천명11년정월

12	宙字	명 공문 지	"	천명6년12월~천명11년8월
13	附1	고려지	"	천명9년 정월, 3월, 천명11년7,8월
14	洪字	명 공문 지 고려지	무권점 가권점	無年月(만력38년 무쿤·타탄 표 포함)
15	藏字	명 공문 지	무권점	천명8년 (投降漢官勅書)
16	往字	"	"	太祖朝無年月 (八旗官員勅書·誓文)
17	宿字	"	"	" (八旗官員誓文)
18	露字	고려지	"	"
19	致字	명 공문 지	"	" (八旗官員誓文)
20	無 編 號	명 공문 지 고려지	" "	(단편을 겹쳐서 섞음)
21	天字	고려지	"	천총원년정월~천총원년12월
22	歲字	"	"	천총2년 정월~천총2년4월
23	閏字	"	"	천총2년 정월~천총2년12월
24	陽字	"	"	천총3년 정월~천총3년윤4월
25	秋字	"	"	천총3년10월~천총3년12월
26	調字	"	"	천총4년 정월~천총4년3월
27	月字	"	"	천총4년 정월~천총4년5월
28	雨字	"	"	천총4년2월~천총4년5월
29	雲字	"	"	천총4년3월~천총4년4월
30	騰字	"	"	천총4년3월~천총4년5월
31	呂字	"	"	천총4년4월~천총4년6월
32	暑字	"	"	천총5년 정월~천총5년7월, 11월, 12월
33	餘字	"	"	천총5년7월~천총5년9월
34	律字	"	"	천총5년10월
35	成字	"	"	천총3년10월~천총5년윤11월
36	地字	"	무권점 가권점	천총6년 정월~천총6년4월
37	附2	"	무권점 가권점	천총6년 정월~천총6년4월
38	附3	"	가권점	천총9년 정월~천총9년12월
39	日字	"	"	천총10년 정월~송덕원년8월
40	字字	"	"	송덕원년9월~송덕원년12월

표 2 『만문원당』의 종이 재질 및 문체 (松村潤 2001: 28~29)

김두현(2008)은 『만문원당』의 청 태조조 부분은 명 공문서 종이와 고려종이가 섞여 쓰였지만, 청 태종조 부분은 고려종이만 쓰였다고 주장한다. 김선민(2012)은 그렇기 때문에 태조 시기 기록 중에서 고려종이에 쓰여진 것은 모두 태종년간에 새롭게 중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주원·이형미(2017)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을 대상으로 개수의 흔적을 관찰해 변개 과정을 살핀다. 대부분의 경우, 『만문원당』 내에서 첫 번째 개수가 이뤄진 뒤 개수의 결과가 『만문노당』에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주원·이형미(2017)에서는 특히 『만문원당』에서 같은 내용의 기록이 두 번 나타나는 중복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복 기사란 『만문노당』의 해당 기사의 저본으로 된 『만문원당』 기사가 둘인 경우를 가리킨다.

김주원·이형미(2017: 22)에 따르면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는 일찍부터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廣祿·李學智(1965)도 중복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고, 松村潤(2001)과 김두현(2010)은 태조조의 중복 기사 목록을 작성하였고, 早田輝洋(2014)은 특정 표기를 통하여 중복 기사 간 작성 연대를 추론하였다.

松村潤(1978)은 청 태종조 『구만주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를 작성했고, 김두현(2008, 2015, 2016)은 청 태조조에 해당하는 『구만주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했다. 본 연구도 김두현(2008, 2015, 2016)의 방법론을 이어받아 청 태종조의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를 작성했다([부록2] 참조). 이는 松村潤(1978)의 작업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松村潤(1978)은 『구만주당』을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해, 본고는 『만문원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이 『구만주당』과 『만문원당』의 페이지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바 있으므로, 본고의 『만문원당』 기준에 따른 대조표 작성은 연구자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만문원당』에 실려있는 기사 중 『만문노당』이 중초되면서 빠진 미반영 기사와 『만문노당』의 기사가 『만문원당』에서는 두 번 실려있는 중복기사의 표도 [부록 3], [부록 4]에서 제시한다.

1.2.2. 언어학적 연구

『만문원당』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는 池上二良(1965), 성백인(1981), 김주원·이형미(2017), 김혜(2019) 등이 있다.

池上二良(1965)은 초기 만주어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는 『무권점 십이자두(Tongki Fuka Akū Hergen i Bithe)』의 네 사본(북경고궁본, 구남만주철도주식회사 봉천도서관본, 파리국립도서관본, 올란바토르시 국립도서관본)을 소개하고, 무권점 전자의 원칙을 제시한다.

성백인(1981)은 『구만주당』을 기준으로 1607년, 1621년, 1625년, 1630년, 1632년, 1635~1636년으로 시기를 나눠 표기법의 변천을 정리한 뒤,⁵⁾ 무권점 만문에서 유권점 만문으로의 전환은 표기법 측면에서 큰 전환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무권점 만문을 유권점 만문의 고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문자 기록만으로 언어를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백인(1981)은 유권점 만문은 권점을 추가하고 문자를 재정비하는 측면 이외에도, 실제로 유동하고 있는 만주어 구어의 발음에 대해 표준 표기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부수됐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1607년의 기사에서 보이는 무권점 표기에서 1639년의 유권점자 표기까지를 비교할 때, 여기에서 보이는 표기법의 혼란이나 유동이 통시적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의 같은 언어 상태를 반영하는 문자 기록으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린다.

성백인(1981)은 『구만주당』에 서로 다른 만주어 방언형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구만주당』의 무권점자 기록에서 같은 시대에 적혔는데도 이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통시적 변화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는 역사적 변화의 단계가 서로 다른 방언형이 공존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성백인(1981)은 그 근거로 천명 6~7년(1621~1622)의 표기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필사자 10명의 명단을 든다. 이들이 같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

5) 성백인(1981)은 1607년 당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술 연도는 1607년보다 상당 기간 지난 이후로 추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의 특징으로 볼 때 1607년 당안은 1621년 당안과 함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다는 주장이다.

김주원·이형미(2017)는 성백인(1981)의 표기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변형을 가한다. 가장 큰 차이는 무권점자와 유권점자의 표기가 다른 글자에 한해 무권점자 표기에 로마자 대문자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권점자 표기에도 로마자 소문자와 대문자가 혼용되게 된다. 김주원·이형미(2017)의 무권점자 표기 원칙은 2.2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한편 김혜(2019)는 『만문원당』 청 태조조의 무권점 만문의 특성을 정리하고 자모 표를 제시했다.

1.2.3. 번역 작업

일본 학계에서는 1950~1960년대에 만문 당안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만문노당』에 대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神田信夫, 岡本敬二, 松村潤, 岡田英弘, 石橋秀雄 등이 주축이 된 ‘만문노당연구회’가 『만문노당』 전체 분량을 번역해 1955년~1963년에 걸쳐 동양문고에서 출간했다. 경도대학에 소장된 사진판인 가권점자당 송모각본을 저본으로 해 만문 전체에 대해 로마자 전자를 하고 이에 대한 직역과 의역, 주석을 달았다. 일반 연구자에게 건릉 연간 중초본의 원문 전체를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입관전 청사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김두현, 2008: 264~265).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1910년대에 『만문노당』에 대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vii)에 따르면, 중화민국 시기에 봉천기무처총판을 역임하던 진량(金梁)이 10여명으로 구성된 번역팀을 꾸려서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송모각장본 유권점자 『만문노당』의 번역을 마치고 1929년에 『만문노당비록(滿文老檔祕錄)』이라는 제목으로 상·하 두 권을 출판했다. 그후 이 책을 보완하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1933년에 『만주비당(滿洲祕檔)』이라는 제목으로 재출판했고 다시 개정판을 1933년부터 1935년까지 『한역만주노당습령(漢譯滿洲老

檔拾零)』이라는 제목으로 『고궁주간(古宮週刊)』에 실었다. 다만 이 번역서들은 로마자 전자문이 없고 번역이 부실해서 현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서는 이후 한동안 『만문노당』에 대한 번역이 이뤄지지 않다가 1970년 후반에 다시 번역 작업이 이뤄졌다. 태조조 『중역만문노당』이 요녕대학에서 1978~1979년에 걸쳐 출판됐고,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 내각본 가권점자당과 무권점자당을 저본으로 전체를 번역한 『만문노당』을 중화서국에서 1990년에 간행했다. 다만 이 번역본은 중국의 여러 자료를 참조해 번역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원문을 함께 밝히지 않아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김두현, 2008: 265). 이후 2009년에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은 만주자로 된 원문을 영인하고 로마자 전자문을 포함해 재간행된 『내각장본만문노당』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만문노당』이 중국 밖의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했다(최계영·김주원, 2019: 116).

한국에서는 2010년 후반에 집중적으로 번역 작업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문노당』을 번역한 한국의 작업으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과 김주원 외(2019)를 꼽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는 태종조 16함 99책을 번역했고, 김주원 외(2019)는 『만문노당』 전체 26함 180책 중에서 태조조 10함 81책을 번역했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1970년대부터 『만문원당』의 일부를 번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國立古宮博物院)이 청 태종조 역주 작업인 『구만주당역주: 청태종조』를 내놨다. 일본에서는 『만문노당』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천총 9년 부분을 神田信夫, 松村潤, 岡田英弘이 참여한 가운데 1972년과 1975년에 동양문고에서 2권짜리의 역주본으로 옮긴 『구만주당 천총구년』이 간행됐다. 한국에서는 최동권(2007)이 荒字號를 번역해 『구만주당 荒字檔』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에서 출판했다.

1.2.4. 역사적 연구

1.2.4.1. 淸史에서의 『만문원당』의 지위

『만문원당』은 청 태조 누르하치부터 청 태종 홍타이지의 승덕 1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문원당』은 후금 시기부터 청나라 형성 초기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범진(2012: 54~78)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서 1580년대 초부터 세력을 키워 1616년 후금을 세우고 ‘천명’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홍타이지는 1636년에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연호를 1627년부터 사용하던 ‘천총’에서 ‘승덕’으로 바꿨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청 만주족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확립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여진족이 수 세기 동안 만주 지역에 살았던 기억에서 벗어나 ‘만주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본다(Crossley, 2013: 45~47). Rowe(2014)와 같은 학자는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꾼 1636년을 진정한 청의 건국 시기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청 제국이 자신을 세계적 제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청의 건국 시기를 명을 정복한 1644년이 아니라 1636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나라를 단순한 중화제국의 계승자로 보기보다는 다민족 정치체로 인식한 것이다(Rowe, 2014: 11~26). 청나라에 대해 ‘만주 중심의 관점(a Manchu-centered view)’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강희·옹정·건륭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입관 전 만주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한다(김두현, 2008: 259~260). 그렇다면 청의 진정한 건국 시기로 간주되는 1636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만문원당』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런 『만문원당』의 역사적 가치를 처음으로 자각한 것은 청나라 전성기로 여겨지는 건륭제 시기였다. 건륭제는 『만문원당』을 중초해 『만문노당』으로 편찬했는데, 청나라가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갈수록 제국의 형성 초기 역사를 정리하고 강조할 필요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구범진(2012: 51~54)에 따르면, 청나라가 태동한 뒤 세계 제국으로 성

장하기까지 통상 18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된다.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1583년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 후금을 건설한다. 이어 홍타이지가 내몽골의 유목민들을 복속시키고 요동의 한인들을 적극 포섭해 대청국을 건설한다. 이때가 1640년대 초로서 이때까지를 ‘청 제국의 탄생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어지는 1760년대까지는 ‘청 제국의 성장기’로 볼 수 있는데, 1644년 대청국이 산해관에 무혈입성하고 북경을 점령한 뒤 약 40년간의 정복 활동을 통해 중국 전체를 직접 지배 하에 두게 된다. 1680년대 초 중국 정복을 완수한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의 3대에 이르는 1760년까지 약 80년에 걸쳐 북쪽으로 고비 이북의 외몽골 초원, 서쪽으로 티베트 고원, 그리고 텐산 산맥 북쪽의 준가르 초원과 남쪽의 타림 분지 등을 차례로 정복하게 된다.

다민족을 거느린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된 청 제국의 전성기에 『만문노당』으로 재편찬된 『만문원당』은 청 제국의 태동과 형성을 낱낱이 기록한 만주족 최초의 역사 서술로서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만주족 고유의 언어인 만주어로 작성한 역사 기록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학계에서는 청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학자들이 만주어를 직접 배워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신청사(新淸史)가 각광받은 서양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국어 문헌만으로는 청나라 역사를 연구하기에 한계가 발견되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어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만주어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요소가 나타난다. Crossley(2013: 38)는 명조에 보낸 누르하치의 선전포고문 원문에는 원래 주술적인 의식이 담겨 있었는데, 그 구절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의도적으로 감춰졌다는 사실을 막동인(莫東寅)이라는 학자가 1958년에 지적했다고 밝힌다. 실제로 만주어로 작성된 상주문과 중국어 상주문을 비교해보면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문서가 얼마나 변경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주술적인 의식 부분이 만주어로 된 『만문노당』에는 실려 있지만, 한문본인 『만주실록』에는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 duin biyai juwan ilan i tasha inenggi meihe erinde, (6:9a)

4월 13일에 인일(寅日) 사시(巳時)에

jakūn gūsai juwan tumen cooha, nikan be dailame genere de,

8구사의 병사 10만명이 명과 전쟁하러 갈 때

abka de habšame araha bithei gisun,

하늘에 고하며 쓴 글이다.

mini ama, mafa, han i jasei orho be bilahakū, boihon sihabuhakū,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황제의 변경의 풀을 꺾지도 않았고, 흙을 흐트러
뜨리지도 않았다.

baibi jasei tulergi weile de,

공연히 변경의 바깥일에

mini ama, (6:9b) mafa be nikan waha, tere emu,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명나라가 죽였다. 그것이 하나이다.

tuttu wacibe, bi geli sain banjire be buyeme wehei bithe ilibume,

그렇게 죽였는데도 나는 또 사이 좋게 살기를 위하여 석비를 세우며

nikan, jušen yaya han i jase be dabaci, dabaha niyalma be saha
niyalma waki,

‘명, 여진 모두 황제의 경계를 넘으면 넘은 사람을 본 사람이 죽인다.

safi warakūci, warakū niyalma de sui isikini seme gashūha bihe,

보고서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 죄업이 미쳐도 좋다’라고 맹세
했다.

tuttu gashūha gisun be gūwaliyafi, nikan cooha jase tucifi,

그렇게 맹세한 것을 변심하여 명 병사가 경계를 나와서

yehe de dafi tuwakiyame tehebi, tere juwe koro,

Yehe를 편들며 지키러 가서 주둔하고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원한이다.

...(중략)...

nadan amba koro de dain deiribumbi seme bithe arafi,

이 칠대환(七大恨)으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글을 써서

abka de hengkileme bithe dejihe,

하늘에 절하고 글을 불살랐다.

(『만문노당』 제6권, 천명(天命) 3년 4월 13일의 기사; 김주원 외(2019):

Rawski(2010: 303-304)에 따르면, 17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 하늘이 여럿이라고 믿었던 여진족은 단 하나의 하늘이자 최고의 남성 신령인 압카 아마(Abka ama) 또는 압카 한(Abka han)을 섬기게 됐다. 여진족 국가 내부의 정치적 중앙집권화 과정이 이러한 개념 변화를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위의 천명 3년(1618년)은 17세기 초반이므로 단일화한 하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나가던 시기에 해당한다. 위의 기사에서 “하늘에 절하고 글을 불살랐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막동인이 주장하는 주술적인 의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주족은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금과 몽골의 선례를 따랐는데, 이는 금나라 황제들이 샤머니즘 의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린 것과 몽골이 샤머니즘의 신탁에 기초해 군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좇은 것이다. 칭기스칸은 항상 ‘초기 몽골 샤머니즘의 최고신’인 몽케 텡그리(Möngke Tengri)⁶⁾를 숭배했고 자신이 전쟁에서 거둔 성공을 하늘의 은총 덕분으로 돌렸다. 이는 누르하치도 마찬가지였는데 누르하치는 1593년에 여허(Yehe)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하늘과 깃발에 제사를 올렸다. 또 누르하치는 자신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하늘이 자신을 통치자로 선택한 증거라고 내세웠다. 훗날의 통치자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1644년 섭정 도르곤은 만주의 팔기를 이끌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버일러들을 거느리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하늘과 깃발에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거행했다. 강희제도 갈단 원정을 떠나기 전에 베이징에서 비슷한 의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불살랐다”는 부분을 특히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제의에 쓴 글이 적힌 종이를 불태우는 행위는 샤머니즘의 소지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소지 행위는 종교·신앙적 목적으로 종이를 태우는 행위로서 무속뿐만 아니라 유교적 동제에서도 행한다.⁷⁾ 뿐만 아니라 이는 더 나아가 공양물을 태우는 불교의 호마 의식을 연상케 하는데,

6) 정확한 명칭은 몽케 쿠케 텡그리(Möngke Köke Tengri)로서 ‘영원한 푸른 하늘’이란 뜻이다. (Michael, 2020)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0283>)

이는 불교에서 주술적인 목적을 가진 밀교 의식으로 분류된다(장재진, 2012: 509, 정성준, 2000). 티베트 불교에서도 소지 행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 미뤄 볼 때 소지 행위는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를 아울러 범종교적으로 행해지는 주술적 제례 행위로 보인다.

다만 불에 의한 정화 의식은 조로아스터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소지 행위의 기원이 샤머니즘에 있는지, 아니면 유교 또는 불교 등에 있는지 추론하는 것은 면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지 의식은 중국 한족 문화에서도 오래 전부터 발견된다. 阿茹(2010)에 따르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지전(紙錢)을 태운 것은 위진 시대부터라는 학계의 고증이 있다. 당나라 시대에도 소지 의식에 희생 제물로서 지폐가 쓰였다.

따라서 소지 행위를 샤머니즘을 넘어 티베트 불교와 연관시키기에는 개연성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만주족이 군사와 샤머니즘을 결합한 몽골의 영향을 받아 몽골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티베트 불교를 중시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岸本美緒(1998: 46)에 따르면, ‘만주’는 일반적으로 만주인의 출신지를 의미하나, 여진사회에서 널리 믿어졌던 티베트 불교의 문수보살(文殊菩薩) 신앙으로부터 나온 ‘충명한 자’를 의미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청나라에서 강희제 이전까지는 남부 시베리아 샤머니즘 전통이 행해졌다고 보고 있지만(牟鍾鑒, 2000), 홍타이지가 대청 제국 성립 직후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요청하고 티베트 불교 사원⁸⁾도 여럿 세웠으며(구범진, 2012: 90), 송덕제로의 즉위 직전에 여진족을 일컫는 명칭을 문수보살 신앙에서 나온 ‘만주’로 바꾸는 등 불교를 중시한 근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몽골의 정신적 바탕인 티베트불교를 차용함으로써 몽골의 칭기스칸을 계승한 유목 지역의 지배자로서의 누르하치의 면모를 강조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만주인들은 국가 형성 초기부터 티베트 불교를 존중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막강한

8) 가령 송덕 원년(1636년)에 지어지기 시작해 송덕 3년(1638년)에 준공된 실승사(實勝寺)의 낙성식에서 홍타이지는 왕관을 벗고 불전에 절하며 마하칼라 신성에 제물을 바쳤다. 마하칼라 신성은 원나라에서 융성한 티베트 불교의 상징적 유물로서 홍타이지가 차하르 몽골로부터 얻은 전리품이었다(石濱裕美子, 2011: 51~53).

영향력을 갖게 된 1643년 이후에도 불교를 정치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다(石濱裕美子, 2011: 53). 실제로 『만문원당』은 『만문노당』과 달리 청 태종 초기부터 부처에 대한 대두(擡頭)가 나타난다.⁹⁾ 부처(fucihi)가 ‘한(han)’, ‘하늘(abka)’과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들보다 높여 쓰여지고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면 부처가 한보다도 높게 쓰여 있다. 청나라는 나라 형성 초기에 몽골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 불교를 강조함으로써 몽골의 칭기스칸을 이어받는 계승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것으로 보인다.

Crossley(2013: 36~41)에 따르면, 청조의 황제들은 18세기 말까지 일상 업무의 많은 시간을 만주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조서와 여러 문서를 통독하는 데 할애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생각·감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는 일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청조 황제들은 문서함에 만주어 문서는 남겨두면서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중국어 문서를 없애버리기도 했다. 청나라 역사 연구에서 만주어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알려진 바로는 청 제국의 방대한 중앙정부 문서가 아직 열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만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서양 학자들 중에서 조지프 플레처 Joseph F.

9) 『만문노당』은 승덕 원년부터 부처에 대한 대두가 나타나는 반면에, 『만문원당』은 [그림 1]과 같이 천총 원년부터 이미 부처에 대한 대두가 나타나며 한은 1단 대두, 부처는 2단 대두를 적용해 한보다 부처를 높여 쓰고 있다.



그림 1 부처(fucihi)의 대두 (천총 원년: 원당 6-32)

Fletcher. Jr(1934~1984)와 같은 이는 청대사 연구에 있어서 중국어에만 의존하지 말고 만주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1.2.4.2. 淸史에서의 청 태종조의 의의

『만문원당』과 이를 증정한 『만문노당』은 청 태조조는 물론, 청 태종이 즉위한 1627년 천총 원년에서부터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연호를 승덕으로 바꾼 1636년에서 그해 12월 말까지의 기록도 담고 있다.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말에 발발했으니 병자호란이 막 시작한 순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Crossley(2013: 143-148)에 따르면, 청 태종 홍타이지는 여진족을 통일해 후금을 세운 청 태조 누르하치를 이어받아 청 제국의 본격적인 형성과 확장기를 이룩한 한(汗)이다. 홍타이지는 처음으로 청을 제국으로 키우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몽골 전역을 지배하는 보편적 황제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고, 차하르 몽골의 립단 한을 내쫓은 이후에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자신을 한이 아닌 황제로 칭하면서 나라를 제국으로 팽창시킬 큰 그림을 설계했다. 차하르 몽골은 1368년 원 제국이 멸망한 후 몽골로 돌아와 있었고, 차하르 몽골의 립단 한은 몽골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1634년 립단 한을 결국 축출함으로써 립단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칭기스칸의 보편적 황제권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홍타이지는 이미 1627년 자신의 즉위 예식에서 이러한 야심을 드러냈었다. 그는 즉위 예식에서 티베트 출신의 라마승을 기용함으로써 차하르 몽골이 라마교 종파 중심의 의례를 지속한 것을 흉내냈다. 차하르 몽골은 이러한 종교 의례를 통해 몽골의 위대한 한인 칭기스칸과 자신들을 연결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1635년에서 1636년 사이에 제국으로서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가속화했는데, 먼저 여진족이란 이름을 폐지하고 기인 중 일부를 만주족으로 개명했으며, 아이신 기오로 일족의 공식적인 역사를 만주족의

역사로 확고히 정립했다(Crossley, 2013: 148). 그러나 홍타이지는 북경 진입의 관문인 산해관 돌파를 앞두고 교역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교착 상태에 봉착하던 중, 1643년 9월 21일에 성경(盛京)에서 사망한다(임계순, 2000: 61). 그 이유에 대해 Crossley(2013: 148)는 홍타이지가 원인 모를 병을 잠시 앓다가 사망했다고 설명하고 임계순(2000: 61)은 급사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아홉째 아들인 당시 5세였던 복림(福臨)이 그의 자리를 계승해 순치제가 되지만 홍타이지의 동생 도르곤이 술수를 써서 섭정왕이 된다(Crossley, 2013: 148). 도르곤은 영토 확장정책을 계속 추진해 산해관 외곽에 진영을 배치해 명조를 침공할 기회를 노렸으며 이에 힘입어 순치제는 이후 북경으로 입관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임계순, 2000: 61).

한편 홍타이지는 조선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홍타이지는 몽골 칭기스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에는 명을 사대하는 조선을 공략함으로써 제국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홍타이지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쟁으로 당시까지 명을 따르던 조선에게 큰 피해를 줬다. 조선에게는 청나라와의 전쟁이 역사상의 가장 큰 치욕으로 남아있다. 병자호란의 결과 인조에게 홍타이지 앞에서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계구고두의 예를 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학계의 접근으로는 구범진(2019)이 홍타이지의 병자호란에 대해 사료를 분석해 기술한 역사서가 눈길을 끈다. 구범진(2019)은 조선이 정묘호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10년 뒤 똑같은 적으로부터 또 다시 병자호란이라는 침략을 당하는 패착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사료를 따져가며 분석한다.

구범진(2019: 21, 285-286)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1627년 정묘호란을 통해 조선과 이른바 ‘형제 맹약’이라고 불리는 화의를 체결했다. 이후 10년 간 후금의 칸인 홍타이지와 조선의 왕인 인조는 상호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홍타이지의 칭제 과정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

이다. 홍타이지는 1636년 병자년 4월 11일에 심양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조선 정복을 칭제의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웠다. 립단 칸을 축출함으로써 몽골 지배를 이룩했으나, 이제 조선을 청 제국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홍타이지가 이례적으로 병자호란에 직접 나서 지휘하는 친정(親征)을 펼치는 이유가 됐다.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에서 약3만4000명이라는 최대의 병력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기획했고 조선 침공에 앞서 명나라 내지로 원정군을 파견해 대규모 약탈전을 벌이게 함으로써 조선과의 전쟁 시 명나라 군대가 배후에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구범진(2019: 285-303)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정축년 정월 21일에 홍타이지의 칭제에 대한 인조의 칭신이 완전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홍타이지와 인조 간 군신 관계를 성립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달리, 홍타이지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계구고두 절차를 수행한 삼전도 의례에서 인조를 외국 군주로서 대접하는 모양새를 통해 인조에 대한 우대를 보여줬다. 먼저 스스로 손을 뒤로 묶고 관을 꿰어지고 사죄하는 모양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고전적인 항복 의식을 인조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인조의 용포 착용과 산성의 정문 이용만 금지했을 따름이다. 또한 삼계구고두 절차가 끝나고 활쏘기와 잔치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인조는 세자와 두 대군과 함께 단상에 올라 홍타이지를 중심으로 왼쪽의 가장 상석에 앉았다. 홍타이지 바로 다음 자리에 앉은 것이다. 또 잔치가 끝난 뒤 홍타이지는 강화도에서 사로잡은 조선 군신의 가족을 돌려줬고 인조와 대신들에게 선물을 안겼다. 『청태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도 홍타이지가 인조를 우대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있다. 『청태종실록』에는 인조 역시 한 나라의 왕이므로 덕으로 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승정원일기』는 이날 잔치에서 인조와 홍타이지의 술잔 및 잔 받침이 같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인조에 대한 존경과 우대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적고 있다.

1.3. 논문의 구성

청 태종조 『만문원당』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에 앞서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청 태조 누르하치 연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청 태종 홍타이지 연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한 연구들도 분석한다.

2장에서는 『만문원당』의 서지와 표기 측면을 살펴본다. 『만문원당』은 무권점 만문과 과도기 시기의 유권점 만문이 혼재되어 있어서 표기 측면에서 흥미로운 면모를 보인다. 『만문원당』에 쓰여진 무권점 만문의 전자 원칙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한 본고의 전자 원칙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언어학적 특징을 청 태종조 전반을 전수조사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만문노당』과 차이를 보이는 청 태종조 『만문원당』의 음운, 형태·통사, 어휘적 특성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청 태종조에 실린 조선 관련 기사를 위주로 개수 양상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실고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만문원당』에서 개수된 흔적이 보이는 기사를 검토한다. 아울러 개수의 역사적 의미와 개수 시점도 추정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제 2 장 서지와 표기¹⁰⁾

2.1. 『만문원당』의 표기법 변천

기존 연구에서는 『만문원당』의 표기법 체계를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 성백인(1981)은 1607년, 1625년, 1630년, 1632년, 1635~1636년으로 시기별로 달라지는 당안의 만주어 표기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표로 제시한다. 김혜(2019)는 『만문원당』에서 청 태조조 부분, 즉 1626년까지의 기록에 나타난 초기 무권점 만문의 표기 체계를 정리해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김혜(2019: 25~28)이 제시하는 초기 무권점 만문의 표기 체계를 제시한다.

(2)

<자음자>

- a. 무권점자 N 왼쪽에 점이 원칙적으로 있었으나 안 찍은 경우가 많다. 무권점자에서 어두 N 왼쪽에 있는 점이 누락된 이유는 음운현상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후기 기사에서는 한인 인명을 표기한 무권점자 표기의 어말 N의 왼쪽에 점이 추가된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 b. 무권점자 B와 P는 모두 구별이 없이 유권점자 b의 자형으로 표기되었으나 1623년의 기사부터 B와 P를 구별해서 쓰기 시작했다.
- c. 권점이 없으므로 K, G, H를 구별할 수 없으나 1623년의 기사부터는 K, G, H를 구별하기 위한 권점이 자주 보인다.

10) 2~4장에서 제시한 단어와 구, 절, 문장 예시의 번역은 동양문고 만문노당연구회(1955)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의 『만문노당』 역주와 滿英 사전인 Norman(2013)을 참조했다.

- d. 권점이 없으므로 T, D를 구별할 수 없으나 1623년의 기사에서부터는 T, D를 구별해서 쓴 예를 찾을 수 있다.
- e. A, O 앞에 있는 K, G, H와 E, U, I 앞에 있는 K, G, H의 자형이 다르다. 그러나 유권점자의 o뿐만 아니라 u도 무권점 만문에서 O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O 앞에 있는 K, G, H의 자형은 남성자와 여성자로 나뉜다. 유권점 만문에서 외자 k', g', h'로 표기하는 한어 차용어의 무권점 만문 표기의 자형은 보통 만주어 고유어 E, U, I 앞에 있는 K, G, H의 자형과 같다.
- f. F와 W의 자형이 같다. 모음 I 앞에 있는 경우에 FI를 BI 혹은 BI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쳐서 쓴 예를 찾을 수 있다.
- g. 초기 무권점 만문의 어두의 C의 자형이 어두 J의 자형과 같고 어중 C와 J를 구별하지 않고 유권점자 j의 자형이 같은 것으로 썼다. 1625년의 기사에서 C의 자형이 유권점자 c의 자형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 h. 어두와 어중의 Y의 자형은 어두의 j의 자형과 같고 후에 유권점자 y의 자형을 쓰는 예를 찾을 수 있다.
- i 어두 위치에는 R과 NG가 나타나지 않는다.
- j 유권점 만문의 wa-를 WA-로 표기하고 we-를 OWE-, UWE- 혹은 O-로 적은 경우가 있다.
- k. 유권점 만문의 š를 일반적으로 S로 적지만 SI로 적은 경우가 있다. 1623년의 기사에서 Š로 표기하는 예도 찾을 수 있다.
- l. 어말 NG를 N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모음자>

- a. 어두에서는 A와 E의 자형이 구별되지만 어중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 b. 유권점 만문의 ū의 자형은 무권점 만문에서 U에 대응한다. 유권점 만문의 u는 무권점자에서 O 혹은 U로 표기한 예를 찾을 수 있다.
- c. 초기 무권점 표기에서는 한어 차용어 등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는 특수 문자가 없었는데 1625년의 기사에서 지명의 무권점자 표기에서 처음으로 외자 표기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 김혜(2019: 29)가 제시하는 『만문원당』의 모음과 자음의 무권점 만문 표기 체계는 아래 [표3]과 같다.

	전자		문자		
	유권점	무권점	어두	어중	어말
자 음	n	N	ㄴ ㄵ	ㄴ	ㄴ
	k	K	ㄱ ㄲ	ㄱ ㄲ	ㄱ ㄲ
	g	G	ㄱ ㄲ ㄳ ㄴ	ㄱ ㄲ	
	h	H	ㄱ ㄲ ㄳ ㄴ	ㄱ ㄲ ㄳ ㄴ	
	b	B	ㄷ	ㄷ	ㄷ
	p	P	ㄷ ㄸ	ㄷ	
	s	S	ㄷ	ㄷ	
	š	S, Š, SI, Š	ㄷ ㄸ ㅌ	ㄷ ㄸ ㅌ	
	t	T	ㄷ ㄸ	ㄷ ㄸ ㅌ	ㄷ
	d	D	ㄷ ㄸ ㅌ ㅌ	ㄷ ㄸ ㅌ ㅌ	
	l	L	ㄹ	ㄹ	ㄹ
	m	M	ㅁ	ㅁ	ㅁ
	c	C	ㅂ ㅃ	ㅂ ㅃ	
	j	J	ㅂ	ㅂ	
	y	Y	ㅂ ㅃ	ㅂ ㅃ	
	r	R	-	ㄹ	ㄹ
	f	F, B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w	W, O, OW,	ㅅ ㅆ ㅈ ㅊ	ㅅ	

		UW			
	ng	NG	-	ㄱ	ㄱ
모 음	a	A	ㅏ	ㅏ	ㅏ ㅑ
	e	E	ㅓ	ㅓ	ㅓ ㅕ
	i	I	ㅗ	ㅗ ㅛ	ㅗ
	o	O	ㅛ	ㅛ	ㅛ
	u	U, O	ㅜ ㅠ	ㅜ ㅠ	ㅜ ㅠ
	ū	O	ㅛ	ㅛ	ㅛ

표 3 『만문원당』의 자음·모음 무권점 표기 (김혜, 2019: 29)

청 태종조의 무권점 만문을 특징을 살펴보면, 성백인(1981: 31~64)은 1630년의 당안에 적힌 표기보다 1625년, 1627년의 당안에 적힌 표기가 유권점자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 태종조의 일부 표기는 오히려 청 태조조의 표기보다 무권점 만문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문 당안에 적힌 연대에 따라 표기도 점차 무권점에서 유권점으로 넘어갈 것이란 기존의 기대에 반한다. 만문 당안에 적힌 표기는 기사마다 다르며, 기사 본문은 유권점자로 적혀있는데 개수된 표기가 무권점자로 나타나기도 하는 점에서 미뤄볼 때, 만문 당안의 표기는 개별 기사별로 살펴봐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만문원당』의 무권점 만문의 주요 특성을 몇 가지만 간단히 간추리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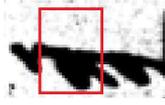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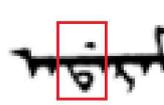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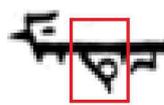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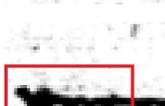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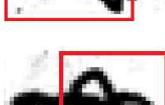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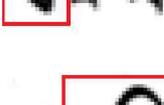
No.	내용	무권점자	유권점자
1	어중 a, e를 구분하는 점이 없다. (예. ice)		
2	o, u를 구분하는 점이 없다. (예. uyun)		
3	k, g, h를 구분하는 권점이 없다. (예. ulgiyan)		
4	어중 t, d의 양성자, 음성자 구분이 없고 ¹¹⁾ t, d를 구분하는 점이 없다. (예. adarame, meteci)	 	 
5	어중 j와 c의 구분이 없다. (예. jurceme)		
6	s와 š의 구분이 없다. (예. šajin)		
7	w가 - ūwe로 나타난다. (예. wecere)		
8	-fi가 - bi로 나타난다. (예. wafi)		

표 4 무권점 만문의 주요 특성

11) 이는 무권점자에서도 발견되는 양성자와 음성자 t/d와 구분된다. 무권점자에서 t/d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래 (1)은 무권점자로 유권점 hendure에 해당하고, (2)는 양성자로 유권점 mende에 해당하고, (3)는 무권점

2.2. 무권점자 전자 원칙

2.2.1. 기존의 전자 원칙

유권점 만문의 로마자 전자는 대체로 P. G. von Möllendorff(1892)를 따르는데, 무권점 만문의 경우 기본적인 열개는 유사하나 개별 사안에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池上二良(1965: 47)은 무권점자의 로마자 전자를 Möllendorff의 유권점자의 로마자 전자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 유권점자 표기와 구별하고 있다.

池上二良(1965)은 아울러 무권점자와 유권점자의 표기가 차이를 보이는 주요 사례들을 제시한다. 어중의 aleph, yod는 하나씩 로마자로 전자하고, 유권점자에 없는 고유한 무권점자인 경우, 는 Π, 는 Φ, 는 Θ, 는 Z로 전자한다.¹²⁾ 그 이외에도 유권점자와 다르게 표기되는 무권점자의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다. 가령 wesimbuhe가 ŪWASIMBOKE와 IOWASIMBOKE로 적혀있거나, dzung bing guwan이 SŪMINGKUWAN, SIOMINGKUWAN으로 적혀있는 사례를 언급한다.

동일한 단어에 대해 무권점자와 유권점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도 제시한다. 가령 무권점자에서 1음절의 i가 후행 음절의 모음에 동화하는

음성자로 음성자 bederebumbi에 해당한다. 이때 (1)은 무권점자이고 유무성 점이 찍혀 있지 않다. (2)는 유권점자에서 음성자인데 무권점자에서는 양성자가 쓰이고 있고 유무성 점도 찍혀 있지 않다. (3)은 유권점자의 음성자가 무권점자에서도 음성자로 쓰이고 있으나 유무성 점이 찍혀있지 않다.



(1) (2) (3)

12) 이에 대해 성백인(1981: 26)은 池上二良(1965)이 제시한 고유한 무권점자의 전자 원칙에 대해 은 유권점자 b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글자, 는 유권점자 f자에 오른쪽으로 둥글게 나간 f자, 는 대응하는 유권점자에서 ta, te, da, de로 나타나는 t, d에 구별 없이 쓰는 어중자, 는 초두에 유권점자의 어중 j를 쓴 글자라고 해설한다.

음운 변화 예를 제시한다.

(3)

ZONOKON cinuhūn

COLBORI cilburi

ZISOI, ZOSO cisui

KISORAMA, KIOSIORAMA gisureme

NIROKA (NIROKAN), NIOROKA (NIOROKAN), niruha (niruhan)

SIOLON silun

SIOMKUN simhun

SIILO, SIOLO, SIIOLO (SOIIOLO) šolo.

池上二良(1965: 51)

무권점자에서 모음 a, e가 ai, ei로 바뀐 모음 변화(epenthesis)가 나타난 예도 제시한다.

(4)

EIIBIAMA efime/ EIIFIAN, EIPIAN, EBIIAN efin / KAIIBIRAMA

hafirame

池上二良(1965: 51)

이밖에 무권점자에서 어두 n의 왼쪽 점이 누락된 경우나 유권점자 še, ša가 SAIA로 나타나는 예를 제시한다.

성백인(1981)은 池上二良(1965)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Möllendorff의 전자법을 채용하면서도 보다 언어학 연구에 적합하도록 표기법을 보완했다. 성백인(1981)은 池上二良(1965)의 전자법에 대해 유권점자와 무권점자를 구분하기 위해, 무권점자에 대문자를 써주는 방식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池上二良(1965)이 유권점자에 없는 4개 자음에 Π, Φ, Θ, Z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무권점자를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자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IA-와 -MA의 A에 대해 a와 e를 구별하는 오른쪽 점이 없어서 모두 A로 전자한 것은 무권점자를 유권점자의 기준으로 전자한 것이므로 문자의 모양에 대한 정보밖

에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만주어 음운사를 논하거나 통구스 제어와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고, 무권점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오해만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한다.

성백인(1981)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무권점자의 전자는 대응하는 유권점자의 표기법을 감안하면서 무권점자의 여러 표기법과 과도기적 유권점자의 표기법 특성을 감안한 ‘재구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무권점 표기에서 같은 문자로 표기되지만, 유권점 표기에서는 표기가 구별되고 음운론적으로도 별개의 음운임이 분명한 경우, 무권점 표기에서도 유권점 어형을 따라 구분해 전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종의 a : e , o : u (k, g, h 다음 제외) / k : g : h / t : d 등은 무권점 표기에서도 유권점 어형에 따라 구분해 전자한다.

이와 반대로 유권점 표기에서 같은 문자로 표기되지만, 무권점 표기에서 2~3개의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권점 u는 무권점 어두 음절에서 \bar{u} (ū)로 나타나지만, \bar{o} (o)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유권점자 k \bar{u} , g \bar{u} , h \bar{u} 에 대해 초기 무권점자에서는 KO로 나타난다. 유권점 ju, tu 등이 무권점에서 \bar{o} (o)가 쓰여 JO, TO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히 후행 음절에 a가 오는데, 문어 몽골어의 \bar{o} 가 o 또는 u로 전자되는 몽골어 표기법의 영향인지, 만주어의 음운 현상이 반영된 표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성백인(1981)은 분석한다. 이를 종합해 성백인(1981)은 \bar{u} 는 무권점 표기에서 대문자 U로 전자하고, 초기 유권점 표기에서는 \bar{u} (k \bar{u})와 \bar{u} (k \bar{u}), 유권점 표기에서는 \bar{u} (k \bar{u})로 전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¹³⁾

13) 성백인(1981: 68~95)은 만주어의 모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모음이 \bar{u} 라고 지적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bar{u} 가 별개의 음운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17세기 만주어의 5개 모음 체계는 /a, e, i, o, u/라고 주장한다. 다만 무권점 만문의 표기에서는 \bar{o} 와 \bar{u} 가 음성표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권점 만문 표기에서는 음운 표기적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봤다. 17세기 초 만주어의 /u/는 두 가지 변이음([u], [u] 또는 [o])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권점 만문의 k \bar{u} , g \bar{u} , h \bar{u} 는 음운 /u/의 변이음과 음운 /o/의 변이음이 동일한 별개 문자로 표기된 것으로 봤다. 또 과도기 유권점 만문 등 후기 필사본에서 필사자에 따라 \bar{u} 가 빈번하게 o로 표기되는 현상은 일부 방언에서 /u/가 /o/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bar{u} 의 음가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성백인(1981)이 정리한 대강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이외에 초기 무권점자에서는 t, d 다음의 a, e자도 구별이 되지 않는데, 이 역시 유권점자 어형에 따라 구별해 전자하고, o, u는 유권점자와 다르게 적힌 경우 구별하고, s, š ; c, j ; y, f, w 등은 가급적 문자의 자형에 따라 전자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할 때, 성백인(1981)은 池上二良(1965)이 무권점자를 대문자로 전자해 유권점자를 소문자로 전자한 것과 구분하는 점을 받아들여 서도 음운론적 정보를 감안한 전자 방식을 고안했다. 성백인(1981: 30)은 무권점자 전자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5)

무권점자의 로마자 전자에 관한 필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권점자가 권점의 유무에서만 유권점자와 다른 경우의 전자는 원칙적으로 유권점자의 어형에 따라 구별하여 전자한다. 즉 어중의 [a,e]와 [k,g,h], [t,d] 등의 구별은 무권점자에서는 그 자형이 구별되지 않으나 유권점자의 자형에 따라 구별하고 무권점자 표기임을 알 수 있도록 대문자로 전자한다. ... (중략) ... 이 밖에 유권점자와 대조해 볼 때, 유권점자와 문자의 자형을 달리하여 적은 o, u의 구별, s, š ; c, j ; y, f, w 등의 전자는 가급적 문자의 자형에 따라 전자한다.

김주원·이형미(2017: 16~17)은 성백인(1978) 등 선행연구와 큰 틀을 같

어의 장모음 ū와 같은 모음이라는 견해(Möllendorff, 1892), 2) 장모음 ô[ō]라는 견해, 3) o와 u의 중간음이라는 견해, 4) 소수 몽골어 차용어의 어두에 오는 경우에는 uo, ue와 같은 o와 u의 중간음인 몽골어음과 같으며, ū가 주로 나타나는 자리인 kŭ, gŭ, hŭ의 경우, 즉 긴 ū자 발음은 연음 u자와 같은 [u]음이며 그밖의 소수의 기타 자음과 연결되는 ū(sŭna, šŭrgeku, tŭmbi)의 음가도 kŭ, gŭ, hŭ의 ū와 같다는 견해, 5) 어두의 ū는 [ö]음이며, kŭ, gŭ, hŭ는 대개 [qU], [gU], [xU] 또는 [hU]이며 ku, gu, hu는 [ku], [gu], [hu]일 것이라는 견해, 6) ū는 k, g, h, t와 공존할 때는 [u], 그밖의 경우는 [ö]이며, ū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음가는 k, g, h와 연결될 때의 [u]음 뿐이고 그 단독음도 없었다는 견해(今西, 1959), 7) 어두의 ū 및 kŭ, gŭ, hŭ 이외의 ū는 [ö] 내지 그 근사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대개 몽골어의 차용어인 경우에는 몽골어의 [ö]를 표음한 것이라는 견해, 8) ū는 분명히 별개의 한 음운이며 그 음가는 [ö]의 영역에서 중앙 원순 모음일 것이라는 견해(Austin, 1962), 9) ū가 ʊ와 u 두 가지 소리로 실현됐던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Sinor, 1968)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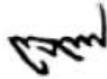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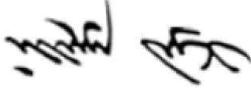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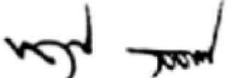
이 하면서도 다소 변형된 방식으로 무권점자 전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권점이 없더라도 a/e, o/u, k/g/h, t/d 등은 유권점자의 어형에 따라 구분해 적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는 池上二良(1965)가 gisureme를 KISORAMA로 전자하는 등 문자상 구분되지 않는 a/e, o/u를 전자로도 구분하지 않고 각각 O와 A로 쓰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김주원·이형미(2017: 17)가 제시하는 무권점자 전자 원칙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 <무권점자 전자 원칙>

1. 무권점자는 점이 없더라도 a/e, o/u, k/g/h, t/d 등을 유권점자에 준하여 구분하여 전자한다.
2. 유권점자와 다른 형태로 적는 일부 자모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자형을 따라 유권점자에 준하여 전자하되 대문자로 하여 눈에 띄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형은 B, C, J, S, W, I, O, Ū 등이다.

김주원·이형미(2017)는 이러한 전자 원칙에 따른 실제 사례를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jiBi	jifi	
Boo	poo	
waCiha	wajiha	
niIalma Iamji	niyalma yamji	
iJe Jooha	ice cooha	

akO	akū	
gŪruni	guruni	
juSen	jušen	
aWaki	afaki	

표 5 김주원·이형미(2017: 17)의 무권점자 전자 원칙

2.2.2. 본고의 전자 원칙

본고에서는 무권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자 원칙을 제시한다.

먼저 큰 틀에서 무권점 표기는 성백인(1981)의 재구형을 따른다. 즉 유권점의 어형을 감안해 무권점자 표기를 결정한다.

무권점자의 로마자 대문자 적용 여부는 김주원·이형미(2017)를 따른다. 앞서 池上二良(1965)과 성백인(1981)은 모든 무권점 글자에 로마자 대문자를 적용하고 있지만, 본고는 김주원·이형미(2017)를 따라 선택적으로 대문자를 적용한다. 즉 무권점자와 유권점자의 자형이 다른 경우에는 확실히 대문자를 적용하고, 무권점으로는 권점이 없어서 동일한 문자로 표기되지만 유권점 표기에서는 권점을 통해 표기가 구별되고 음운론적으로도 별개의 음운으로 인식되는 경우(어중의 모음 a/e, o/u, 자음 k/g/h, t/d 등)에는 대문자를 적용한다.

본고가 기존 연구에서 보완·발전된 부분은 무권점 자모 표기에 대해 음소별로 실제 도표와 함께 전자 표기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성백인(1981)에서는 수기로 작성한 시기별 무권점자 표기 체계와 개별 사례의 로마자 전자만을 제시하고 있고, 김주원·이형미(2017)에서는 단어별로 도표와 로마자 전자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무권점 자모에 대

해 하나하나 도표와 전자 표기를 제시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또한 [부록 5]에서 『만문원당』의 무권점 만문과 과도기적 만문의 표기를 본고의 전자 원칙에 따라 표기한 예를 일부 제시했다.

본고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히 모음 u와 ū의 출현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 대체로 성백인(1981)을 따르지만 일부 보완점을 제시한다. 즉 유권점의 ū가 무권점에서 ㅍ(O)에 대응하는 경우, 성백인(1981)은 이를 O로 전자했지만(GONIME, gūnime ; GONIRAKO, gūnirakū ; HOSON, hūsun), 본고에서는 Ū라는 문자를 도입해 전자한다. 이는 이 모음이 본래 유권점자에서 ū인데, 무권점자에서 O에 대응한다는 문자적인 정보와 함께 음운적 재구형까지 반영한 것이다. 유권점의 u가 무권점에서 ㅍ(Ö/Û)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고에서는 Ö/Û, ü를 도입해 무권점자를 표기한다. 유권점 어형을 기준으로 유권점에서 o로 나타나면 Ö로, u로 나타나면 Ü로 표기한다. 이때 Ü에 대응하는 글자에 종종 모음 o/u 구분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ü로 표기한다. 이는 해당 모음을 특정 환경에서 ü에 대응시킨 성백인(1970)의 전자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표기는 Ô/Û, Ö/Û의 음성적 실체와는 무관한 도입이며, 표기 규칙이 복잡해진다는 한계도 가진다.

더 나아가 본고의 전자 원칙에서는 t, d의 무권점자 또는 예외적인 문자 조합에 대해 전자만으로 문자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즉 t, d가 무권점자인 경우, 이를 나타내기 위해 무권점 T, D에 숫자 0을 아래첨자로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문자 조합, 즉 양성자에 음성 모음자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양성자에 1이라는 아랫첨자 숫자를 적용하고, 음성자에 양성 모음자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음성자에 2라는 아랫첨자 숫자를 적용한다. 이는 T/D, k/G/H에 해당된다. 이는 무권점자와 유권점자의 자형이 차이를 보이더라도 유권점자의 자형을 통해 무권점자의 자형을 재구해 음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동시에, 문자적인 정보도 놓치지 않고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 표기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예외 출현 빈도가 낮기 때문에 드물게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 외의 경우, 간략히 주요 사항만 미리 설명하면 모음에 대해, a, o는 그대로 두고 점이 없는 e, u는 음운적 재구형을 적용해 E, U로 적는다. 자음의 경우, 성백인(1981), 김주원·이형미(2017)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유권점 š가 무권점에서 SI로 나타날 때, 이는 SI로 표기하되, 유권점 š가 무권점 s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Š로 표기한다. 유권점 we-도 무권점에서는 ŌWE-, ŪWE-로 표기되는 것을 WE- 또는 We-로 간략히 표기한다. c, f, y, n 등은 유권점자와 표기가 다른 경우, 이를 대문자로 전자하고 전자하는 문자는 무권점자 기준에 따른다. 위의 전자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본고의 전자 원칙

1. 모음의 경우, 모음 a/e, o/u는 a, o는 그대로 a, o로 전자하고 점이 없는 e, u는 E, U로 전자한다. 단 어두의 e는 원당과 노당이 동일하게 고유한 어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e로 전자한다. 모음 ū는 노당에서 ū인데 원당에서 u이면 Ū로, 노당에서 o인데 원당에서 ū이면 Ö로, 노당에서 u인데 원당에서 ū이면 Ü로 전자한다. Ü에 점이 있으면 ü로 표기한다. t/d, k/g/h 뒤에 오는 모음의 경우, 자음의 양성자, 음성자 유무로 a/e, o/u의 구별이 예측되면 소문자로 모음을 적고, 예측되지 않으면 대문자로 모음을 적는다.
2. 자음의 경우, 어두와 어중의 t/d와 k/g/h는 t/d의 무권점자이면 대문자 T/D로 적고, t, k에 권 또는 점이 없는데 d, g/h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대문자 D, G/H로 적는다. k도 어말에 온 경우, 왼쪽 점 2개가 없으면 K로 표기한다. 그 외에 유권점자 we-, f, š, c, y, n 등에 대응하는 무권점자는 WE/We, B/P/Ŵ, SI/Š, C, Y, N 등으로 나타낸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자만으로 문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숫자를 붙여서 문자의 형태를 변별한다. 즉 t/d는 무권점자는 0, 양성자는 1, 음성자는 2를 붙이고, k/g/h는 양성자는 1, 음성자는 2를 붙인다.
3. 앞의 1, 2에서 언급한 글자에 한해 대문자로 적는다. 이외의 글자들은 소문자로 전자한다.

위의 전자 원칙을 주요 자모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아래에서 설명하지 않는 자모의 경우, 유권점자와 동일하게 로마자 소문자로 전자한다고 보면 된다.

본고의 전자 원칙을 적용해 『만문원당』의 무권점 만문과 과도기적 만문을 전사한 실제 사례는 [부록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2.2.2.1. 모음자

1. 모음 U: t/d, k/g/h를 제외한 자음 뒤에 점 없는 o/u가 와서 u를 나타낼 때 모음 U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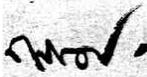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GisUn	gisun		말(word)

표 6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U 대응 사례

2. 모음 \hat{U} : 노당에서 \bar{u} 인데 원당에서 양성자 k/g/h 뒤에 o로 나타나는 경우, \hat{U} 로 적는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부분이다. 성백인(1981: 29)은 초기 무권점자 표기에서 $k\bar{u}$ 는 반드시 KO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1음절의 O, U에 한해서는 무권점자 어형에 따라 표기하고 그 이외의 음절은 유권점 만문을 토대로 한 음운적 재구형으로 표기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1음절과 기타 음절 모두 해당 글자에 대해 \hat{U} 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김주원·이형미(2017)은 아래 gaibuhak \bar{u} 에서 볼 수 있는 유권점자 ak \bar{u} 를 akO로 전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본고에서는 일괄적으로 \hat{U} 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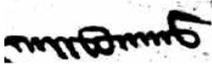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takŪraHa	takūraha		파견했다
GaibUhakŪ	gaibuhakū		취하지 못하게 했다
GŪniCi	gūnici		생각하니

표 7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Ū 대응 사례

3. 모음 Ö/Ü와 ü: 노당에서 o/u인데 원당에서 ū로 나타나는 경우, 유권점 어형을 기준으로 Ö 또는 Ü로 적는다.

또한 Ü에 모음 구분 점이 있는 경우, ü로 표기한다. 『만문원당』에서 종종 Ü에 모음 o/u를 구분하는 오른쪽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아래 jüng의 어형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과도기적 만문, 즉 초기 유권점 만문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성백인(1970: 122)과 神田信夫 외 역(1972)의 전자법을 참고한 것인데, 성백인(1970: 122)은 초기 유권점 표기에서 음성자 g자 뒤에 ū가 오는 경우, 이를 몽골식 표기를 빌려 여성모음 ü를 적용한 gü로 전자해, gū와 구분되는 gü를 도입하고 있고, 神田信夫 외 역(1972)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소문자 ü를 적용해 gülu, kübuhe, gürun 등으로 전자한다. 따라서 이들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ü와 본고의 ü는 다르게 적용된다. 성백인(1970)과 神田信夫 외 역(1972)는 음성 자음 k/g/h에 대해 모음 ū가 후행할 때 Ü/ü를 적용했지만, 본고에서는 모든 자음에 후행하는 모음 ū에 대해서 Ü/ü를 일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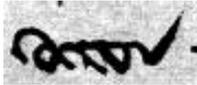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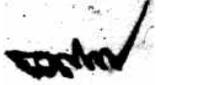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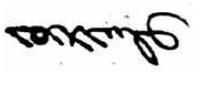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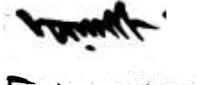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gÜrUn	gurun		나라
jÜSEn	jušen		주선(여진)
jÖrikTU	joriktu		인명. 몽골 코르친 국의 사람
ÜnEngGi	unenggi		진실로
mÜseingGe	museingge		우리 것
jüng	jung		인명. '두명충(杜明 忠)'의 '忠'에 해당

표 8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Ö/Ü와 ü 대응 사례

한편 무권점 \hat{U} , $\hat{O}/\hat{Ü}$, $\hat{ü}$ 를 구분해 전자하는 이러한 방식은 해당 모음의 음성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백인(198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백인(1981: 30)에서는 무권점 \hat{u} 에 대해 무권점 표기에서는 대문자 U로, 초기 유권점 표기에서는 $\hat{u}(k\hat{u})$ 와 $\hat{ü}(k\hat{ü})$ 로, 유권점 표기에서는 $\hat{u}(k\hat{u})$ 로 전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 WE/We-: 노당에서 we-에 해당하는 것을 원당에서 $\hat{O}We-$ 로 쓰고 있는 경우. 모음 a/e를 구분하는 점이 없으면 WE-로 적고, 점이 있는 경우 We-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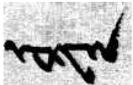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WEn	wen		인명. 명 말기의 무장인 '모문룡(毛文龍)'의 '文'에 해당.
Wen	wen		위와 같음

표 9 『원당』 무권점자의 반모음 W 대응 사례

5. 모음 E: 원당에서 음성자 t/d, k/g/h 이외의 자음 뒤에 점 없는 e가 올 때 이를 대문자 E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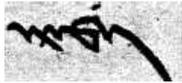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erEbe	ere be		이를

표 10 『원당』 무권점자의 모음 E 대응 사례

2.2.2.2. 자음자

1. 자음 Š: 노당의 š를 원당에서 si-로 쓰고 있는 경우, SI-로 전자한다. 주로 노당의 šo, šu에 해당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SIoto taiji	šoto taiji		인명. 쇼토 타이지

표 11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SI 대응 사례

2. 자음 S: 노당에서 š인데 원당에서 s인 경우, Š로 전자한다. 김주원·이형미(2017)에서는 이 경우 S로 전자했지만, 본고에서는 S는 1번의 경우처럼 š가 무권점자에서 SI-로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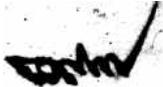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jÜŠEn	jušen		주션(여진)

표 12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Š 대응 사례

3. 어미 -Pi: 노당에서 -fi인데 원당에서 -bi로 적고 권(동그라미)을 표기한 경우, -Pi로 전자한다. 이는 어두의 유권점 p로 나타나는 단독 음절 pi와 다르다. 성백인은 이렇게 b의 우측에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 대문자 B에 이탤릭체를 적용한 B로 전자했는데, 본고에서는 P로 전자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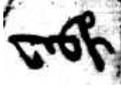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waPi	wafi		죽이고
			

표 13 『원당』 무권점자의 어미 -Pi 대응 사례

4. 어미 -Bi: 노당에서 -fi인데 원당에서 -bi로 쓴 경우, -Bi로 전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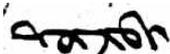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tÜCiBi	tucifi		나와

표 14 『원당』 무권점자의 어미 -Bi 대응 사례

5. 자음 G/H: 원당에서 자음 k에 권점이 없는데 노당의 g, h에 대응하는 경우, G/H로 전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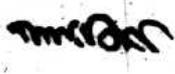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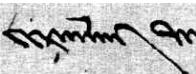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GangGUri	gangguri		인명. 강구리
jirGalang	jirgalang		인명. 지르갈랑 타 이지. 아민 버일러 의 동생
waHa	waha		죽였다

표 15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G/H 대응 사례

6. 자음 D: 원당에서 da의 연쇄이더라도 d가 무권점자로 쓰인 경우 D로 전자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giDafi	gidafi		공격해서
buDome ¹⁴⁾	bodome		헤아려

표 16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D 대응 사례

6.1. TE, DE¹⁵⁾: 무권점 t/d가 온 다음에 점 없는 e가 올 경우 TE, DE로 전자한다. 세 번째 예 bade를 기준으로 정리해 설명하자면, 음성자 d에 오른쪽 점이 없는 형태의 모음이 오면 badE로, 무권점 d에 오른쪽 점이 있는 형태의 모음이 오면 baDe로, 무권점 d에 오른쪽 점이 없는 형태의 모음이 오면 baDE로 표기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TEki	teki		주문하겠다
mÜTEmbi	mutembi		할 수 있다
baDE	bade		~곳에서

표 17 『원당』 무권점자의 TE, DE 대응 사례

6.2. De, Ge, He: 자음 t/d, k/g/h일 때, 점 없이 d, g/h를 나타내는 음성자 자음 뒤에 모음 e가 온 경우, 음성자 자음에만 대문자를 적용해 De, Ge, He와 같이 적는다. 이는 음성자 자음을 통해 후행 모음이 e라는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e는 소문자로 적으나, 자음의 유무성을 나타내는 점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음은 대문자로 적은

14) bu-는 bo-의 오기로 보인다.

15) 자음 t/d와 k/g/h에서 후행 모음과의 조합 사례를 따지는 것은 만주어 문자가 음절 문자와 같은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음이 양성자인지 음성자인지 여부에 따라 후행 모음의 음가가 결정된다. 성백인(1981: 66)도 만주어 문자의 이러한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것이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De	de		여격(~에), 처격(~에서) 어미
Geli	geli		다시

표 18 『원당』 무권점자의 De, Ge, He 대응 사례

6.3. kŪ, GŪ, HŪ: 점 없이 g/h를 나타내는 양성자 k/g/h 뒤에 모음 u가 온 경우, k를 제외한 양성자 자음과 모음 u에 모두 대문자를 적용해 kŪ, GŪ, HŪ와 같이 적는다. (원당에서 양성자 k/g/h 뒤에 모음 u가 온 경우, 노당에서 양성자 k/g/h 뒤에 모음 ū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응하므로 앞서의 모음 규칙에 따라 모음을 Ū로 전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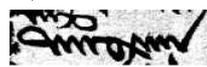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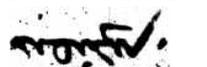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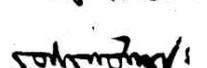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takŪraHa	takūraha		파견했다
GŪnimE	gūnime		생각하니
HŪwaliyambUmE	hūwaliyambume		조화롭고
fUsiHŪlara	fusi hūlara		비하하여

표 19 『원당』 무권점자의 kŪ, GŪ, HŪ 대응 사례

6.4. Du: 노당에서 -du인데 원당에서 점 없는 음성자 t에 o가 온 경우 -Du로 전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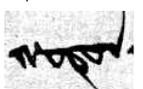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hŪDun	hūdun		속히
DuTaN ¹⁶⁾	du tang		관직명. 도당(都堂)

표 20 『원당』 무권점자의 Du 대응 사례

16) 한편 중국어 차용어인 한자음의 경우, 위의 du tang에서 tang을 TaN으로 적은

7. 자음 C: 원당에서 자음 c가 자음 j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C로 전자한다. 김주원·이형미(2017)는 이 경우에 대해 J로 표기했지만, 본고에서는 무권점자와 유권점자의 어형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무권점 c는 j와 어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C로 전자해 유권점자로의 음운적 재구를 가능케 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oCi	oci		~이라면/이라도

표 21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C 대응 사례

8. 자음 F: 원당에서 모음 a, e 이외에 다른 모음 앞에서도 모음 a, e 앞에서만 나타나는 자음 f가 왔을 때 이를 F로 적는다. 한편 아래 ‘hafan’의 경우를 보면, 김주원·이형미(2017)는 모음 a, e 앞에서 자음 f가 w로 나타나는 경우, W로 전자했지만 본고에서는 앞서 $\hat{O}W$ -를 W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해 \hat{W} 으로 적는다. 이는 표기상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일 뿐, \hat{W} 의 음성적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GaiFi	gaifi		이끌고
Ha \hat{W} an	hafan		관원

표 22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F 대응 사례

9. 자음 K: 자음 앞 받침 k가 왼쪽 두 점 없는 양성자로 오거나 음성자 k로 올 때 K로 적는다. 아래 kesikten의 예처럼 원당에서는 k가 음성자로 나타나는데, 노당에서는 양성자로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담기 위해 무권점 전자에서 K 아래에 숫자를 아래첨자로 추가할

것처럼 더러 -ng가 -n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N으로 표기한다. 다만 만주어 고유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기 원칙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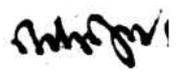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jÖriKTU	joriktu		인명. 몽골 코르친국의 사람
kEsiK ₂ TEn	kesikten	 	지명. 몽골 차하르부족에 속하는 지역.
		cf. 노당	

표 23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K 대응 사례

10. 자음 Y: 모음 연쇄에서 모음 사이에 반모음 y가 올 때, 간혹 무권점자에서 y 대신에 i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Y로 전자한다. 김주원·이형미(2017)에서는 이를 문자 그대로 I로 전자했지만, 본고에서는 음운적 유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권점자 y를 투영한 Y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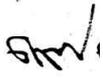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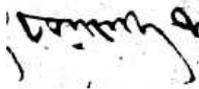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BiYan	fiyan		모양
fUniYEHe	funiyehe		털

표 24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Y 대응 사례

2.2.2.3. 예외적인 조합

본고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통상적인 만주어 문자 규칙에 따르지 않고, 예외적인 조합을 보이는 경우까지 표기 규칙에 포함해 표현하

려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만문원당』에서 출현 빈도 수가 높지는 않고 드물게 발견된다. 대체로 오기로 보인다. 또한 무권점자의 자음 앞 받침 K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하면 보다 세밀한 전자가 가능하다.

자음에 숫자를 붙여 무권점 어형과 양성자 어형, 음성자 어형을 구별한다. 무권점 t, d는 0, 양성자 t, d와 k, g, h는 1, 음성자 t, d와 k, g, h는 2를 아래첨자로 추가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전자의 복잡함이 증대되므로, 문자적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사자가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1. 양성자 자음 + 음성 모음

유권점 만문에서 음성자 자음과 음성 모음의 조합으로 나오는 어형이 원당에서 양성자 또는 무권점 자음 뒤에 유무성 점이 없는 모음으로 나올 때, 자음에 숫자 1을 붙여줄 수 있다. 이때 자음에 유무성 점이 없으므로 자음을 대문자로 적고, 모음도 자음의 어형(양성자 또는 음성자)을 통해 추론할 수 없으므로 대문자로 적는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mEnD ₁ E	mende		우리
bED ₁ ErEbUHe	bederebuhe		돌려보냈다
T ₁ Uwakiyambi	tuwakiyambi		지키고 있다

표 25 『원당』 무권점자의 ‘양성자+음성모음’ 조합 전자 예

2. 음성자 자음 + 양성 모음

유권점 만문에서 양성자 자음과 양성 모음의 조합으로 나오는 어형이 원당에서 음성자 자음 뒤에 유무성 점이 없는 모음으로 나올 때, 자음에 숫자 2를 붙여줄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모음 모두 대문자로 적는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sinD ₂ APi	sindafi		두어
T ₂ Ücifi	tucifi		나와
HaD ₂ Ala	hadala		굴레

표 26 『원당』 무권점자의 ‘음성자+양성모음’ 조합 전자 예

3. 무권점 t/d + 음성 모음

자음 t, d의 경우, 원당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양성자도 아니고 음성자도 아닌 무권점 형태의 어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무권점 t, d가 양성자와 음성자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중에서 유권점자 어형에서 음성자 자음과 음성 모음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무권점 t, d가 음성 모음과 나타날 때, 이를 자모 모두 대문자로 전자하고 자음에 숫자 0을 붙여 표현한다.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jakaD ₀ E	jakade		때문에
eT ₀ Uku	etuku		옷

표 27 『원당』 무권점자의 ‘무권점 t/d+음성모음’ 조합 전자 예

4. 자음 앞 받침 k

자음 앞에 선행 음절의 받침 k(양성자)가 오는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당에서는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데, 원당에서는 이러한 점이 누락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또한 원당에서는 자음 앞 받침 k가 양성자로도 나타나고 음성자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k가 노당과 다른 경우, 전자자가 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러한 K에도 숫자를 붙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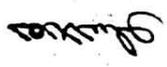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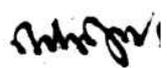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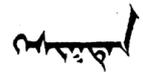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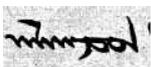
무권점자 전자	대응 유권점자	비고	뜻
jÖriK ₁ TU	goriktu		인명
			
kEsiK ₂ T ₀ En	kesikten		지명
		cf. 노당	
alaK ₁ cot	alalcot		국명. 몽골 차하르 부족의 알락초트국.

표 28 『원당』 무권점자의 자음 앞 받침 k 전자 예

제 3 장 언어학적 특징

3.1. 음운론적 특징

이 장에서는 『만문원당』의 청 태종조 부분에서 발견되는 음운, 형태·통사, 어휘적인 변화에 대해 『만문원당』 청 태종조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수집한 사례를 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중국어 차용어에 대해서는 조선 관련 기사에 나온 일부 한자어 사례만을 취합해 중국 중고음 성모에 따라 분류·정리했다. 『만문원당』 청 태종조에 나타난 중국어 차용어의 성모 체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밝히려 했다.¹⁷⁾ 인용된 사례의 해석은 동양문고 만문노당역주회 역(1955)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을 따랐다.

해당 부분에서 발견되는 음운론적 현상은 자음의 경우, 만주어 고유어와 중국어 차용어를 구분해 살펴봤다. 만주어 고유어의 경우, 구개음화와 어말 n 유동 등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어 차용어의 경우, 일부 자음에 대해 『만문원당』은 구개음화가 이미 완료됐거나 활발히 진행 중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복원형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음의 경우 교체와 탈락 및 첨가, 단모음화, 장모음화, 개입 자음 g의 유동 등이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만문원당』에서는 오히려 음운 현상이 활발하게 반영된 어형을 반영하고 있으나, 『만문노당』에서는 음운 현상 발생 이전의 복원형

17) 『만문원당』에 실린 중국어 차용어의 한자음 연구는 김혜(2019)를 참조할 수 있다. 김혜(2019)는 청 태조조의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한자음을 비교·대조해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3.1.1. 자음

3.1.1.1. 만주어 고유어

3.1.1.1.1. B/P - f

『만문원당』의 B/P가 『만문노당』의 f에 대응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모양’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연간에는 Biyan/Piyan으로 나오는데, 『만문원당』 승덕 원년과 『만문노당』에서는 fiyan으로 표기된다. 이때 P 는 B의 오른쪽에 권이 있는 글자를 본고의 무권점 전자 규칙에 따라 P로 표기한 것으로, 유권점 p 와 다른 자형이다. 성백인(1978: 27)은 이러한 P를 변형 문자라고 불렀다.

『만문원당』 시기의 만주인들이 이 단어의 어두 자음이 b인지 p인지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만문노당』의 f 발음이 갖는 유기성을 표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B와 f의 혼기는 『만문원당』에서 곳곳에서 발견된다([표 29]). 같은 7-48 기사에서 tefi가 -fi로 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Bi로 적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fi로 바꿔쓴 것처럼 어색하게 -fi로 쓰여져 있고, alafi는 alaBi로 적혀져 있다. 이는 당시 만주인들이 아직 몽골 문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즉 몽골 문자를 빌려 무권점 만문을 만들긴 했지만¹⁸⁾, 아직 몽골 문자의 표기 전통에 익숙한 만주인들이 만주 문자 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몽골 문자 b나 p로 표기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다. 몽골 문자에는 f를 표기하는

18) 청 태조 누르하치가 1599년(萬曆 27)에 교시를 내려 몽골 문자를 빌려 만주어를 표기하도록 했고 이를 무권점자(Tongki Fuka Akū Hergen)라 부른다. 그러나 이 문자는 모음 o/u와 자음 t/d, k/g/h 등을 구분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 태종 홍타이지가 1632년(天聰 6)에 명령해 권과 점을 추가해 만주 문자를 개량하도록 했다(성백인, 1978: 271-274).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주 문자 f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성백인(1978: 27)은 무권점 만문 fi에서 전설 폐모음 [i] 앞의 f가 유독 변형 문자(본고의 P)를 포함한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는 데 주목한다. 성백인(1978)은 이를 fi의 f가 양순 파열성에 가까운 강한 양순 마찰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전설 폐모음 [i] 앞에 오는 f가 갖는 음성적인 고유한 특성이 표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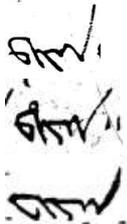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BiYan (7-48)		
	Piyan (7-388)	fiyan	
	fiyan (10-288)		
1			모양

표 29 『원당』 어두 B/P와 『노당』 f의 대응 사례

[표 29]에서 살펴본 『만문원당』의 fiyan 표기 유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30]와 같다. 천총 연간에는 무권점 B, P자가 나타나고 송덕 원년이 되면 f자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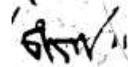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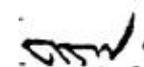
	천총 연간	송덕 원년
BiYan(7-48)	Piyan(7-388)	fiyan(10-288)
		

표 30 『원당』에서 fiyan의 표기 변천

마찬가지로 17세기 말에 나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만주어 사전인 『대청전서(大清全書)』(1683)¹⁹⁾에서는 biyan과 fiyan의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8)

- a. biyan mahala <대청전서 0545a3>
- b. olko fiyan <대청전서 0251b5>

18세기 초반에 나온 중국 소설을 만주어로 번역한 『삼국지(三國志)』(1723~1735)²⁰와 18세기 말에 최종 완성된 5개 언어로 구성된 다언어 사전인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²¹에서는 fiyan의 형태가 나타난다.

(9)

- a. giyan fiyan <오체청문감 1807>
- b. fiyan <오체청문감 5211>
- c. dere fiyan buya juse i adali, <삼국지 109>
- d. boco fiyan jergi akū <삼국지 884>

무권점 만문에서 어두와 어중, 어말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권점의 B가 유권점의 f에 대응하는 사례는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백인(1981: 40)은 초기 무권점자에서 b와 p가 구별되지 않고 모두 B로 나타나는데, 주로 모음 i가 후행하는 환경에서 fi 대신 BI로

19) 『대청전서(Daicing gurun i yooni bithe)』는 청나라 최초의 청문감인 『어제청문감』(1708)이 간행되기 이전인 1683년에 민간에서 출판된 滿·漢 사전으로 현존하는 만주어 사전 중 가장 오래된 간기를 가진 사전이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20) 『삼국지(Ilan gurun i bithe)』는 한문본 『삼국지연의』를 번역한 만주문을 왼쪽에, 그 만주문에 해당하는 한문을 오른쪽에 나란히 배열한 책이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21) 『오체청문감(Han i araha sunja hacin i hergen kamciha manju gisun i buleku bithe)』은 청조 시기에 편찬된 漢·만주·몽골·티베트·위구르 5족의 언어를 서로 대조한 다언어 사전으로서 만주어 표제어를 기준으로 나머지 4개 언어를 만주어에 대응시키고 있다. 총 1만8671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된 책이다. 강희 47년(1708)에 만주어 사전인 『어제청문감』이 완성된 이후 몽골어, 한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순으로 추가됐다. 마지막 위구르어까지 추가된 『오체청문감』 편찬이 완성된 시기는 건륭 44~45년(1779~1780년) 무렵이었다(최형원, 2012: 90~91).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아래 예를 보면, 모음 A와 O 앞에서와 달리, 모음 I 앞에서 유권점자 f 자리에 무권점 B가 왔다.

(10)

JAFABI (jafafi)

AFAKI (afaki)

NOBI (nofi)

BIYANGGO (fiyanggū)

FONDE (fonde)

陳捷先(1969: 32)에서는 다양한 음운 환경에서의 B-f 대응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11)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	--------

bi(i)	fi(i)
-------	-------

biongdon	fiongdon
----------	----------

jabiyan	jaifiyan
---------	----------

taibin	taifin
--------	--------

3.1.1.1.2. 구개음화

[표 31]은 『만문원당』의 G가 『만문노당』의 j에 해당하는 예로 k-구개음화가 발생한 단어도 관찰된다. ‘두터운’이란 뜻을 가진 『만문원당』의 Girami가 『만문노당』에서는 jiramin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단어는 『만문원당』에서 어말 n 탈락 현상도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는 구개음화된 발음은 반영한 반면, 어말 n 탈락은 반영하지 않고 다시 n을 복원하고 있다. 한편 천총 연간 초기부터 『만문원당』에서 구개음화된 형태와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이때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

는 구개음화의 음운 현상을 겪지 않았거나, 구개음화를 겪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전 상태로 복원한 역구개음화 형태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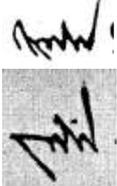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Girami (6-148) jiramin (6-134)	jiramin	두터운
			
2	GiYasE (8-64) jase (6-197)	jase	경계
			

표 31 『원당』의 G와 『노당』의 j의 대응 사례

반면에 [표 32]처럼 『만문원당』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가 『만문노당』에서는 다시 구개음화 발생 이전 상태로 복원된 단어들도 발견된다. 다음의 예를 볼 때, 『만문원당』에는 ji-로 k-구개음화가 일어난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gi-와 ki-로 k-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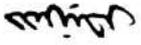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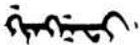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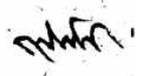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jingnefi (10-333)	gingnefi	바치고
			
2	jisami (7-385)	kijimi	살담배
			

표 32 『원당』의 j와 『노당』의 k/g의 대응 사례

1번은 송덕 원년부터 등장하는 단어인데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jingnefi로 구개음화된 형태만 발견된다. 2번 역시 천총 연간에서부터 송덕 원년까지 모두 구개음화된 형태만 발견된다.

한편 jisami - kijimi의 사례를 보면, 일본어에서 한국어를 거쳐 만주어로 차용된 단어의 k-구개음화를 엿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살담배’로 해석되는데 그 근거는 성백인(1996)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는 『만문원당』의 jisami가 『만문노당』에서는 모두 kijimi로 표기되고 ‘해서(海鼠)’ 또는 ‘해삼(海參)’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jisami란 단어가 항상 담배(dambagu)와 같이 등장하고 수량사로 boose와 드물게 gin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해삼’이 아닌 다른 물품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국어 사전에서 방언형 또는 일본어 차용어로 수록된 ‘지사미’란 단어가 만주어로 차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사미’라는 단어는 ‘살담배’라는 뜻으로서 한국에서는 ‘지삼이’, ‘기스미’라는 형태로 1728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영언(靑丘永言)』에 나타난다. 이미 만주어로 차용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로 들어왔지만, 『만문노당』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형을 되살려 쓴 것이다.

(12)

일본어 ‘きざみ’(‘刻みタバコ’の略) → 한국어 ‘기사미’[ki-sa-mi] > ‘지사미’[ʃi-sa-mi] → 만주어 jisami (성백인, 1996: 44)

마찬가지로 다음 [표 33]에서는 medege에 대한 여러 어형을 볼 수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ji-로 t-구개음화가 일어난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de-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medege와 mejige의 형태가 모두 발견되는 것을 볼 때, -de-가 -di-의 변화를 거쳐 -ji-로 t-구개음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²²⁾

22) Poppe(1966: 191)는 medege가 퉁구스어에 차용된 고대 몽골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여진어의 medige와 만주어의 mejige는 고대 몽골어 *medigē가 차용된 것이다. 현재 몽골어로는 medege, 중세 몽골어로 기록된 『몽골비사』에서는 mede'e, 할하어(Khalkha)로는 med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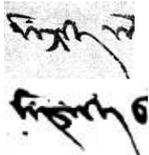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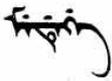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mejige (8-410)		
	medege (6-10)	medege	
1			소식

표 33 『원당』의 j와 『노당』의 d의 대응 사례

17세기 말에 나온 『대청전서』(1683)과 18세기 초에 나온 명대 소설을 만주어로 번역한 『만문금병매(滿文金瓶梅)』(1708)²³⁾에서도 mejige 형태가 발견된다.

(13)

- a. etehe mejige <대청전서 0203a5>
- b. tere inenggi giya i angga de mejige gaime <만문금병매 10:06:a3>

한편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연간 초기부터 구개음화되지 않은 medege 형태도 함께 발견된다.

18세기 초반에 만주어로 번역된 『삼국지』와 18세기 말에 최종 완성된 『오체청문감』에서도 mejige와 medege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14)

- a. hafan weilan mejige donjime <삼국지 01:012:a3m>
- b. lioi-bu medege gaime cenghiyang ni yamun de geneci

23) 『금병매』는 사대기서에 속하는 명대 소설로서 작중 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다.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일 저자의 순수 창작에 의해 쓰인 중국 최초의 장편 소설로서 중국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만문금병매』의 만주어 번역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삼국지 02:075:a5c>

c. mejige <오체청문감 4360>

d. medege <오체청문감 5950>

18세기 초반에 나온 최초의 흙정 만주어 사전이자 유일한 滿滿사전²⁴⁾인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1708)과 이를 滿漢 십이자두순으로 표제어를 재배열하고 표제어 목록을 손본 『청문회서(淸文彙書)』(1724), 18세기 말에 『어제청문감』에서 일부 표제어를 삭제하고 증정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1771), 조선 정조 때 간행한 滿漢朝 다언어 사전인 『한청문감(漢淸文鑑)』(1779?)에서는 medege의 형태가 나타난다.²⁵⁾

(15)

a. medege <어제청문감 4013>

b. medege <청문회서 08:11:b8>

c. medege <어제증정청문감 5941>

d. medege gasha <한청문감 155187>

24)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25)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1708)은 강희제의 명으로 만주어의 정서법을 확정하고 만주어 어구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목적으로 편찬된 최초의 청문감으로 1673년에 편찬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 문헌의 서문에 보면 ‘노인들과 연장자들의 말을 찾아 수록하려고 힘썼다’고 나와있으므로 상당히 이른 시기의 만주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1771)은 이 문헌과 여기에서 300개 항목가량의 어구를 삭제하고 증정한 것이다(성백인, 2000: 81). 『어제증정청문감』은 청문감류의 효시가 되는 사전으로 『어제증정청문감』과 함께 만주어 문어의 규범을 확립한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서』(1724)는 『어제청문감』을 바탕으로 만든 십이자두순으로 구성을 재배열한 사전이다. 그렇다고 『어제청문감』의 모든 표제어가 『청문회서』에 수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청문감』의 표제어 중에 『청문회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어제청문감』에 나오지 않는데 『청문회서』에 등재된 표제어도 상당수 있다(박상철, 2015: 38). 『한청문감』은 조선 정조 때 사역원에서 간행한 다언어 사전으로서 청나라에서 간행한 『어제증정청문감』을 저본으로 삼아 조선에서 제작했다. 18세기의 한어와 만주어, 한국어를 반영한 언어 자료이다. 1779년에 간행됐다고 추정된다(최계영, 2016: 1, 7).

주요 문헌들에서 『만문원당』에 나타나는 k-구개음화 발생 이전의 Girami(n)과 Giyase 형태와 k-구개음화 발생 이후의 jingnefi, jiyansi, jisami의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에, t-구개음화 사례인 mejige는 폭 넓게 발견된다. 이를 통해 볼 때, k-구개음화보다 t-구개음화가 17세기 이후 만주어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어의 구개음화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뤄져 왔다. 김혜(2019)에 따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朝克(1997)은 동일 어형의 만주어와 통구스 제어 간 대응을 밝히면서 만주어에서 발생한 구개음화 현상을 발견한다. 아래 표의 ‘만주 고전어’는 ‘만주어 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17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청나라에서 사용된 만주어를 가리킨다.

(16)

	만주고전어	시버어	허전어	오로첸어	어윙키어	의미
a	tšixala-	teixalə-	tixala-	tikala-	tixala-	좋아하다
b	tatši-	tatei-	tati-	tati-	tati-	배우다

(朝克, 1997: 63~64, 138~139)

(17)

	만주고전어	시버어	허전어	오로첸어	어윙키어	의미
a	dondzi-	dændzi-	doldi-	dooldi-	dooldi-	듣다
b	bandza-	bandzi-	baldi-	baldi-	baldi-	낳다

(朝克, 1997: 134)

위의 표에서 보면 허전어, 오로첸어, 어윙키어 등의 통구스 제어에서 ti, di로 나타나는 어형이 만주 고전어에서는 ci, ji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치경음 t, d의 구개음화가 나타난 것이다. Fuente(2013: 61)에서도 비슷한 발견을 한 바 있다.

한편 王海波(2019: 342)는 만주어의 구개음화는 치경음의 구개음화와 연구개음의 경구개음화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치경음의 구

개음화는 t-구개음화에 해당하는데, 알추카 방언을 제외한 모든 방언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연구개음의 경구개음화는 k-구개음화에 해당하는데, 현대 방언의 극히 일부 단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한편 역구개음화(anti-palatalization)도 일어나는데 이 역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앞서 살펴본 t-구개음화는 王海波(2019: 344)에 따르면 삼가자 방언, 흑하 방언, 시버 방언 등 대부분의 현대 만주어 방언에서 일어났지만 알추카 방언에서는 일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

	만주고전어	삼가자방언	흑하방언	시버방언	의미
a	<i>cixala-</i>	-	-	<i>cixale-/cyaxale-</i>	좋아하다
b	<i>taci-</i>	<i>taci-</i>	<i>taci-</i>	<i>taci-</i>	공부하다
c	<i>donji-</i>	<i>duNji-</i>	<i>duNji-/duNjya-</i>	<i>dyoNji-/dyaNji-</i>	목소리
d	<i>banji-</i>	<i>baNji-</i>	<i>baNji-/baNjya-</i>	<i>baNji-</i>	낳다

(王海波, 2019: 344)

(19)

	만주고전어	알추카방언	의미
a	<i>cixe</i>	<i>t'ixə</i>	이
b	<i>cirku</i>	<i>t'irku</i>	베개
c	<i>ji'mbi</i>	<i>dimi</i>	오다
d	<i>weji</i>	<i>udi</i>	총림(잡목이 우거진 숲)

(穆曄駿, 1985: 10; 1987: 12; 王海波, 2019: 344에서 재인용)

王海波(2019: 346)는 k-구개음화 예는 삼가자 방언에서 ‘매우’를 나타내는 단어인 *gyake*가 *kyake*로 통시적 변화를 겪은 사례를 제시한다.

王海波(2019: 347~348)은 현대 만주어 방언에서 혼재된 어형이 나타나므로 구개음화인지, 아니면 역구개음화인지 혼란스러운 예시도 제시한다.

(20)

만주고전어	삼가자방언	흑하방언	시버방언	의미
<i>cira</i>	<i>kɪla</i>	<i>kɪla~kyala</i>	<i>cira</i>	심하다
<i>jiramin</i>	<i>gɪlame</i>	<i>gɪlaymi</i>	<i>jirame</i>	두껍다

이들 어형은 만주어와 시버어를 제외한 통구스 제어에서는 모두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로 발견된다.

(21)

	만주고전어	시버어	허전어	오로첸어	어윙키어	의미
a	tʃira	tɛira	tira	tira	tiran	심하다
b	dzɪramin	dziran-	diramu	diram	diram	두껍다

(朝克, 1997: 144)

그렇다면 만주어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명나라 때 四夷館에서 편찬한 『화이역어』(華夷譯語) 일부의 여진어 문헌에서는 t-구개음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음운을 발견할 수 있다(김혜 2019: 132).

(22)

여진어	>	만주어 문어	만주어 구어	의미
的勒岸*dilŋan	>	jilgan	ǰilgan	소리
端的松*dondisun	>	donjimbi	donǰimbi	듣다
半的孩*bandihai	>	banjiha	banǰiha	살다
秃替昧*tutimei	>	tucimbi	tučimbi	나오다
替和*tiko	>	coko	čoko	닭
替勒庫*tireku	>	cirku	čirku	배개

공시적으로는 만주통구스어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에서 t-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같은 어형을 허전어와 여진어, 만주어 구어, 만주어 문어와 비교한 것으로, 허전어와 여진어에서

는 t-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주어에서는 경구개음 j, c가 나타남으로써 t-구개음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安俊 1986: 15~16, 김혜 2019: 132에서 재인용).

(23)

허전어	여진어	만주어 구어	만주어 문어	의미
dilgan	*dilgan	dzilgan	jilgan	소리
xodiwu	*xodiwo	xodzixun	hojihon	사위
tixaləjin	*tixai-	təixalambi	cihalambi	희망하다
tati-	*tati-	tatsi-	tacimbi	배우다
tæqo	*tixo	tšoqo	coko	닭
bodo-	*bodo	bošo	bošombi	뒤쫓다

3.1.1.1.3. 어말 n

[표 34]처럼 『만문원당』에는 어말 n 탈락형과 보존형이 모두 발견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어말 n 보존형만 발견된다. 이 경우 『만문원당』에서 어말 n이 탈락하는 과정에 있었다가, 『만문노당』에서 어떠한 이유로 복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jali (6-147)	jalin	
	jalin (6-43)		
1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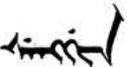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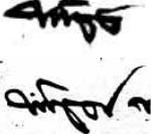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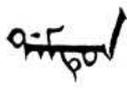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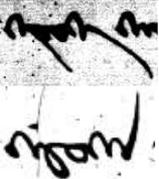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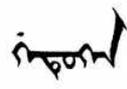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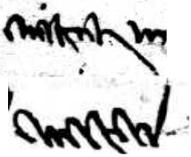
2	šEngGi (6-147) 	šenggin 	이마
3	Girami (6-148) jiramin (6-134) 	jiramin 	두터운
4	DamTU (6-174) damTUn (7-246) 	damtun 	인질
5	Getuke (6-184) geTUken (6-24) 	getuken 	분명한
6	Genggiyeke (6-217) GengGiyeken (7-5) 	genggiyeken 	다소 밝은

표 34 『원당』의 어말 n 유동 사례

2번을 제외한 1, 3, 4, 5, 6번은 『만문원당』에서 천총 연간 초기부터 n

탈락형과 n 복원형이 모두 발견된다. 2번은 빈도 수가 매우 낮는데(최소 1회 출현) n 탈락형만 발견된다.

『어제청문감』에서도 jali 형태가 발견된다.

(24) jali <어제청문감 6676>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어말 비모음화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렇듯 만주어 어말 -n의 선행 모음에서 일어난 비모음화 현상을 만주통구스어파 언어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한다(季永海 1994; 김혜 2019: 152~153). 季永海(1994)는 『청문계몽』에 수록된 한자어의 만주어 주음을 예로 제시한다.

성백인(1990: 55~58)은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17세기에 간행된 초기 만주어 사전들에서 이러한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그는 어말 -n이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 그 조건의 단서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25)

aidahan~aidaha
bilhan~bilha
birgan~birga
bituhan~bituha
celman~celme
dehelen~dehele
derhuwen~derguwe
fenehen~fenehe
heyen~heye
hohan~hoha
injahan~injaha
jucan~juce
macin~maci
meyen~meye

mitan~mita
 ohen~oke
 saman~sama
 tobhiyan~tobgiya
 tunohūn~tunuha
 ulgan~ulha
 umhan~umha
 wencen~wence
 yaksarhan~yaksarga
 yarhan~yarha
 yatohan~yatuha

위에서 발견한 어말 n 사례들을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찾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발생 빈도	뜻	비고
1	aiDaHan (8-204)	aidaha	1	아이다하	인명(유격 지위의 관원)
2	bilgan (10-243)	bilha	1	喉舌	군주의 명을 출납하는 기관
3	dehelen (8-278) dehelen (10-71) dehelen (10-73) dehelen (10-80) dehelen (10-80) dehelen (10-80) dehelen (10-116)	dehele	7	조끼	
4	saman (10-259) saman (10-259) saman (10-278)	saman	3	무당	
5	yaTUHa (7-441)	yatuhan	1	아쟁	

표 35 『원당』·『노당』의 성백인(1990) 어말 n 유동 사례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명을 나타내는 1번과 보통명사를 나타내는 2~3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어말 *n* 보존형이 나타나고, 『만문노당』에서는 어말 *n* 탈락형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보통명사인 4번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모두 어말 *n* 보존형만 나타나고 보통명사인 5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어말 *n* 탈락형이 나타나고 『만문노당』에서는 어말 *n* 보존형이 나타난다.

김주원·이동은(2004: 48~49)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여진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다. 문어 만주어에서는 ‘개’를 뜻하는 단어가 *indahūn*인데 여진어 일부와 만주어 구어에서는 각각 *indaxu* 또는 *indaho·indaga*로 나타난다. 여진어 일부에서는 숫자 ‘1000’을 뜻하는 *minggan*과 ‘10000’을 뜻하는 *tumen*도 각각 *mingga*, *tumə*의 형태로 발견된다. 이기문(1973: 128)에 따르면, 18세기 중엽 만주어 구어를 채록한 『청학음(淸學音)』에서도 ‘개(犬)’가 어말 *n*이 탈락한 ‘인다호’로 기록되고 있다.

Joseph(2018: 222~223)의 만주어 방언 조사 현황을 보면, 어말 *n* 탈락이 만주어에서 방언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표 36]에서 보듯이, 청나라의 공식 문헌에 주로 쓰인 만주어 문어(Written Manchu)에서 *indahūn* [*indaxūn*] ‘개’로 나타나는 어형은 현대 만주어 방언에서 북경(Beijing)과 시버(Sibe) 지역에서만 어말 *-n*이 발견되고, 발라(Bala) 지역은 *-n*의 흔적이 모호하게 남아있고, 그 이외의 삼가자(Ilan Boo), 이부치(Ibuci), 알추카(Alcuka) 지역에서는 *-n* 탈락형이 발견된다²⁶⁾.

당시 발음은 어말 *-n*이 보존된 것이 구형이고 어말 *-n*이 탈락한 것이 신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6) Joseph(2018: 3)은 Ikegami(1993) 등 기존 연구의 관점을 받아들여, 만주어 방언에 대해 알추카(Alcuka)와 북경(Beijing), 아이훈(Aigun) 등의 방언은 만주어 방언으로 여겨지지만 여진(Jurchen)과 시버(Sibe)의 방언은 만주어와 구분되는 개별 언어로 기술되며 발라(Bala) 방언도 만주어 방언이라기보다는 여진어 방언 또는 개별어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에서 만주어 방언은 여진-만주어 복합체 전체(the entire Jurchen-Manchu complex of linguistic varieties)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방언을 모두 만주어 방언으로 아우른다고 설명한다.

gloss	'dog'
WM	[indaχɔn]
orthographic	indahūn
Beijing	[indaχɔn] ~ [indaχɔ] ~ [indxun] → [innaxun]
Sibe	[jɔnɕun]
Ilan Boo	[in'da:ɕɔ]
Ibuci	in'dAVOɔ ~ in'dAXə ~ in'davuo
Alcuka	[indaχɔ]
Bala	[indaχɔ(n?)]

표 36 만주어 방언의 어말 n 탈락 분포 (Joseph 2018: 222~223)

자연스러운 음운 현상으로 탈락 과정에 있던 어말 n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17~18세기 만주어 문어의 규범형을 제시한 청문감(淸文鑑)에서 드러난다. 성백인(2000)에 따르면, 『어제청문감』에서는 어말 n이 탈락된 형태를 규범으로 제시하다가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어말 n을 복원한 예들이 발견된다.

(26)

『어제청문감』	→	『어제증정청문감』
managa		managan
delhe		delhen
gibaga		gibagan

(성백인, 2000: 85)

따라서 강희제 이래 적용된 어말 n 보존 규범이 건륭제 때 중초된 『만문노당』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말 -n 탈락 현상은 통구스 제어에서도 발견된다. 池上二良(2001: 412)이 제시하는 통구스 제어들을 살펴보면, 어말 -n이 유지된 형태도 있고 탈락된 형태도 있으며 혼재된 형태도 나타난다([표 37], [표

38]).

통구스 제어	‘風(바람)’
어원어(E)	ədən
어원키어(Ek)	ədin
솔론어(S)	ədi
네기달어(N)	ədin
우디허어(U)	ədi
오로치어(Oc)	ədi(n)
나나이어(Nn)	xədun
올차어(Ol)	xədu(n)
윌타어(Ut)	xədu(n-)
만주어(M)	ədun

표 37 통구스 제어의 어말 n 유동 사례 1

통구스 제어	‘にかわ(아교)’
어원키어(Ek)	kamnun
네기달어(N)	kamnun
우디허어(U)	kamnu
오로치어(Oc)	kamnU
나나이어(Nn)	kamdon
올차어(Ol)	kamdU
윌타어(Ut)	kamdu(n-)
만주어(M)	amdun

표 38 통구스 제어의 어말 n 유동 사례 2

3.1.1.1.4. 역행 동화

『만문원당』에서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만문노당』에서 동화 발생 전 발음으로 다시 교정된 예는 다음 [표 3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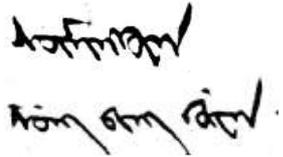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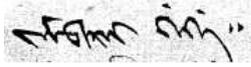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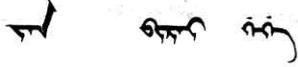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sÜmingGuwan (6-103)		
	dzung bing guwan (10-463)	<u>dzung bing guwan</u>	
1			총병관(總兵官) ²⁷⁾
	jambirai gege (8-243)	jan birai gege	잔 강(江)의 공 주 ²⁸⁾
2			

표 39 『원당』의 역행 동화 사례

1번 예에서는 dzung bing guwan에서 dzung의 어말 자음 -ng가 후행하는 어두 양순 자음 b에 동화되어 양순 자음 -m으로 변화하는 역행 동화(regressive assimilation)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만문원당』에서는 역행 동화된 sÜmingGuwan으로 나타나는데, 승덕 원년 들어 한자 주음을 원래대로 되살려 dzung bing guwan으로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문노당』에도 이렇게 한 글자씩 표기한 교정형이 반영됐다. 김선민(2012: 166)에서도 『구만주당』의 sumingguwan이 『태조무황제실록』에서는 song bing guwan으로 나타나고 『만문노당』과 『만주실록』에서는 각각 dzung bing guwan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2번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jan birai에서 jan의 어말 자음 -n이 후행하는 어두 양순 자음 b에 동화되어 양순 자음 -m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만문원당』에서는 jambirai로 나타났는데, 『만문노당』에서는 역행 동화라는 음운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래 발음을 되살려 jan birai로 적어놓고 있다. 이 단어는 발생 빈도가 매우 적으므로(최소 1회), 『만문원당』에서는 역행동화를 겪은 형태만 발견된다.

27) 벼슬 이름.

28) 공주의 이름.

이를 통해 『만문원당』은 『만문노당』보다 음운 변화를 겪은 현실음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만문노당』은 자연스러운 음운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개별 글자의 원래 발음을 되살린 교정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陳捷先(1969: 33)에서도 형태소 간 경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사례를 제시한다.

(27)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ambambe	amban be
gisumbe	gisun be
ihambe	ihan be
morimbe	morin be

朝克(1997: 45)는 통구스 제어에서 관련 현상을 보이는 예시를 제시한다. 다만 이때에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어중의 양순 자음 b가 후행하는 양순 자음 m에 의해 m으로 동화되고 있다.

(28)

어윙키어 limbudərəŋ [limmədr̥əŋ] ‘吹笛子(피리)’
오로첸어 bambur [bammur] ‘都(도읍)’

3.1.1.2. 중국어 차용어

『만문원당』에서 발견된 한자의 독음을 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0]과 같다. 기존 연구(伊藤智ゆき, 2011; 唐作藩, 2018: 187)의 중국 중고음와 근고음 성모 분류에 따라 이를 하나의 표에 같은 음소끼리 대응시켰다. 중고음 성모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근고음 성모를

나란히 배열시키고, 대응하는 근고음 성모가 없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남겨뒀다. 중고음 성모에 대응하지 않고 근고음에만 존재하는 성모도 다수 존재한다.

중고음 성모 (中古音)		근고음 성모 ²⁹⁾		한자	한 국 한자음	『만문 원당』	『만문 노당』	현 대 한 어 병음
순 음	幫母(p)	순 음	幫母(p)	堡	ㅍ	f	p	b/p
설 음	知母(tʃ)	치 음	知母(tʃʰ)	中	ㅈ	s	j	zh
				筭 站 忠	ㅊ	s	j/h	zh
치 음	精母(ts)	치 음	精母(ts)	祖 子	ㅈ	s	dz	z
	章母(tʃɛ)		之母(tʃʰ)	志	ㅈ	s	j	zh
	心母(s)		心母(s)	祝	ㅊ	s	j	zh/ch
	崇母(dʒ)			宣 先 薛	ㅅ	h/g	s	x
아 후 음	見母(k)	아 음	見母(k)	紀 金 京 家 建 監 軍 奸	ㄱ	j	g	j
	溪母(kʰ)		溪母(kʰ)	啓 慶	ㄱ	j/c ³⁰⁾	k	q
	群母(g)		(平聲) 溪母(kʰ)	橋 奇	ㄱ	j/c ³¹⁾	k	q
		(仄聲) 見母(k)	乾					
	曉母(x)	아 음	曉母(x)	喜 鄉 勳 興	ㅎ	s/ʃ	h	x
匣母(h)	(平仄) 曉母(x)		懸 杏	ㅎ	h/s	h	x	

표 40 중국 중고음·근고음 기준 『원당』의 중국어 차용어 성모

29) 중국어 근고음은 『중원음운』의 체계에 따르는데, 성모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자마다 『중원음운』의 성모를 20~25자로 추정한다. 다음은 한어 음운사를 집대성한 王力的 제자인 唐作藩(2018: 187)이 중국 학계의 주장을 정리해

3.1.1.2.1. 한어 병음 zh

먼저 『만문원당』의 s가 『만문노당』의 j에 대응하는 현상은 모두 현대 한어 병음으로 권설음 zh를 가진 단어에 해당했다. s는 마찰음이지만 j는 파찰음이므로 『만문노당』이 더 현대 중국어 권설음에 근접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고음 기준으로 知母에 네 글자(筍·中·站·忠), 之母에 두 글자(志·祝)가 발견된다. 知母의 筍은 ‘차부(筍付)’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safU (6-341)로 나오고 『만문노당』에서는 jafu로 나타난다. 筍자의 현대 중국어 발음은 zhā이다. 知母의 中은 ‘중군(中軍)’³²⁾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sÜng jüin (7-17)이고 『만문노당』에서는 jung giyūn으로 나타난다. 中자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zhōng이다. 知母의 站은 ‘침수참(括水站)’³³⁾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tiyan sUi san (7-177/8-33)로 나오고, 『만문노당』에서는 tiyan šui jan로 나타난다. 站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zhàn이다. 知母의 忠은 ‘이일충(李一忠)’³⁴⁾에서 나온 것인데 『만문원당』에서는 li i

제시한 『중원음운』의 성모 체계이다.

脣音	幫[p]	滂[pʰ]	明[m]	非[f]	微[v]
舌音	端[t]	透[tʰ]	泥[n]		來[l]
	精[ts]	淸[tsʰ]		心[s]	
齒音	知[tʃ]	痴[tʃʰ]		十[ʃ]	日[ʒ]
	之[tʃʰ]	齒[tʃʰ]		詩[ʃ]	兒[ʒ]
牙音	見[k]	溪[kʰ]	疑[ŋ]	曉[x]	
喉音	影[∅]				

표 41 唐作藩(2018)의 『중원음운』 성모 체계

30) 여기서 c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기에 따른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溪母의 ‘慶’이 『만문원당』에서는 yan cing jeo (10-340)으로 쓰이는데 이때 cing은 jing의 오기로 보인다. 무권점자에서 c가 j로 나타나는데 역으로 j를 c로 잘못 쓴 경우도 왕왕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문원당』의 ‘慶’도 j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각주 7과 마찬가지로의 경우다. 群母의 ‘乾’이 『만문원당』에서 du yang ciyan (8-381)으로 쓰이는데 이때 ciyan은 jian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群母의 ‘乾’도 『만문원당』 발음이 j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인명. 건창(建昌) 지역의 사람.

33) 지명. 현재 요양시(遼陽市)의 동남쪽 60km에 위치해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476).

sūng(8-86)으로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lii i hūng, 또는 lii i jung 으로 나타난다. 忠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zhōng이다. 『만문노당』에서 h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흥미로운데, 필사자가 『만문원당』의 s를 보고, h-구개음화된 형태로 오인해서 『만문노당』에서 이를 h-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형태로 잘못 복원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之母의 志는 ‘전기지(錢奇志)’³⁵⁾에서 나온 음가이고, 『만문원당』에서는 can ji sy (7-13)으로 나타나고 『만문노당』에서는 ciyan ki jy로 나온다. 志의 현대 중국어 발음은 zhì이다. 志母의 祝는 ‘축세음(祝世廕)’³⁶⁾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su si in (10-17)이고 『만문노당』에서는 ju ši yen이다. 祝의 현대 중국어 발음은 zhù 또는 인명일 때 chù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모두 현대 중국어의 권설음 zh-에 대응한다.

이러한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중국어 한자음 발음 차이는 단순히 시기적인 차이에 따른 동시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폭이 크다. 그보다는 만주 문헌이 쓰여진 시기가 상이하므로 서로 다른 중국어 방언을 받아들여 만주어로 전자해 표기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문노당』의 j는 파찰음이므로 치음인 『만문원당』의 s보다 권설음 zh 발음에 근접한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중국 북방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북방 방언이 생생하게 담긴 문헌으로는 원대 북방 희곡을 기록한 운서인 『중원음운』(1324)를 들 수 있다. 학자들은 중국어 근고음 시기가 『중원음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 『중원음운』 시기에 이미 권설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唐作藩(2018: 202~203)에 따르면 현대 중국 보통화의 권설음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상고 한어에서 이미 권설음이 있었다는 주장에서부터 명대 중엽인 16~17세기가 되어서야 권설음이 형성됐다고 보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王力의 경우, 『중원음운』 시대에 이미 권설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34) 인명.

35) 인명. 안산보(鞍山堡)의 천호(千戶)직을 맡은 사람.

36) 인명. 공부(工部)의 참정(參政)직을 맡은 사람.

만주어 문헌의 중국어 차용어를 통해 당시 중국 방언별 음가를 밝히려는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어 있다. 본 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만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Wadley(2014)에 따르면, 여러 학자들이 만주 문헌의 중국어 한자 차용어가 중국어 어느 방언의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Coblin(2003)과 같은 학자는 『청문계몽』(1730)에 나타난 중국어 인명이 북부 관화 방언에 근간을 두고 남방 발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Wadley 자신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전자 작업을 한 『삼국지연의(Ilan gurun)』의 만문본은 남방 관화 방언의 발음에 토대를 뒀다고 주장한다. Wadley는 『삼국지연의』 만문본이 북방 방언을 기준으로 하면서 어떤 때는 더 보수적이고 어떤 때는 덜 보수적인 발음을 보이는데 이런 혼란은 이 만문본의 필사자가 여럿이었고 필사자 중에 북경 관화 방언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한족들 사이에서 더 우아한 발음으로 여겨지는 남방 방언을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더 나아가 Simmons는 『삼국지연의』 만문본의 만주어 전자가 동북부 창리(昌黎, Changli) 방언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Wadley(2014)에 따르면, 북방 방언과 남방 방언의 주요한 차이는 권설음화와 구개음화이다. Coblin(2003) 등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권설음인 음은 북방 방언(北音)에서는 권설음이지만 남방 방언(南音)에서는 치음이다. 구개음화의 경우,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어두의 연구개 과열음과 치찰음이 고모음 i와 y 앞에 올 때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발생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 상당수 남방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만문원당』의 s는 중국어 한자음에서 권설음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발음을 반영해, 권설음이 치음으로 나타나는 남방 방언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는 『만문원당』을 집필할 당시 만주인들이 중국어 권설음을 별개의 음소로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s로 부정확하게 인지해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Huang et al.(2019)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도 홍콩 광둥어 화자

들은 광둥어에 경구개음과 권설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의 경구개음(j, q, x), 치경음(z, c, s), 권설음(zh, ch, sh)을 종종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1.1.2.2. 한어 병음 ch

한편 현대 중국어에서 권설음 ch에 해당하는 음가로 『만문원당』에서 s, 『만문노당』에서 c로 나타나는 예가 한 개 발견된다. 만주어도 권설음이 없기 때문에 만주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다가 『만문노당』을 집필하는 시기에 이르러 중국어 한자음 발음에 대한 표기법이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가다듬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권설음 ch에 대해 『만문노당』이 zh와는 다른 인식을 했다는 것을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중고음 崇母³⁷⁾의 崇은 ‘원숭환(袁崇煥)’³⁸⁾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yUwan sÜng hUwan (6-36)이고 『만문노당』은 yuwan cung hūwan이다. 崇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chóng이다. 『만문노당』은 권설음 zh에 대해서는 j로 표기하고 있고 ch에 대해서는 c로 적고 있는 것이다.

3.1.1.2.3. 한어 병음 p

한편 幫母의 堡자의 경우, ‘성보(城堡)’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의 HeCen fU (6-355)가 『만문노당』의 hecen pu에 대응한다. 堡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bǎo 또는 지명일 때 pù이므로 『만문노당』의 표기가 현대

37) 중고음의 崇母 성모에 대응하는 근고음 성모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중고음 성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38) 인명. 영원(寧遠)의 도당(都堂)직을 맡은 사람.

중국어 발음에 일치한다. 『만문원당』에서 f로 표기한 것은 당시 중국어 p 발음의 기식성을 만주인들이 강하게 받아들여 f로 혼동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성백인(1981: 138)도 이러한 유동 현상에 대해 유기 계열 정지음의 강한 유기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김혜(2019: 38)도 현대 북경 방언에서 ㅍ의 성모를 유기음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만문원당』에서 외래어 p에 대해 f로 전자하는 현상과 비슷한 예가 몽골어 인명에서도 발견된다. 몽골 자루트국의 인명인 šanggiyabu³⁹⁾는 『만문원당』에서 SangGiyān fu (7-310)에서 표기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šanggiyabu로 표기된다. 즉 『만문원당』의 f가 『만문노당』의 b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역시 p의 강한 유기음이 『만문원당』에서는 f로 표기되고, 『만문노당』에서는 šanggiyabu의 한 단어로 축약되면서 모음 사이에서 p가 유성음화를 거쳐 b가 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몽골어 차용어의 경우이므로, 중국어 차용어 ㅍ의 f - p 대응과 유사한 음운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심화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1개 사례에 불과하므로, 좀더 풍부한 몽골어 차용어 사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음운 현상의 예이지만 몽골어의 표기법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은 예는 또 발견된다. 잘라이트국의 다르한 호쇼오치⁴⁰⁾가 『만문원당』에서는 darhan hosihoci로 나타나지만, 『만문노당』에서는 darhan hošooци로 나타난다.

3.1.1.2.4. 한어 병음 x

『만문원당』에서 h로 나타나는 음가인데 『만문노당』에서 s로 표기될 경우, 현대 중국어 발음은 한어 병음에서 마찰음 x로 나타났다. 心母의 세 글자(宣·先·薛)가 발견된다. 心母의 宣자는 선부(宣府)⁴¹⁾에서 나온 음가

39) 인명. 자루트국의 사람.

40) 인명.

41) 지명.

인데 『만문원당』에서는 hiowan fU (6-113), Hiowan FU (10-406)으로 나타나고 『만문노당』에서는 siowan fu로 나온다. 宣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uān이다. 心母의 先자는 ‘포승선(鮑承先)’⁴²⁾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boo ceng Hiyan (6-367)이고 『만문노당』에서는 boo ceng siyan이다. 先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iān이다. 心母의 薛자는 ‘설대호(薛太湖)’⁴³⁾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hiowEi Dai HU (8-128)이고 『만문노당』에서는 siowei dai hū이다. 薛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uē이다.

아래 [표 42]에서 살펴보겠지만, 『만문원당』에서는 h-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h-구개음화가 일어난 발음이 반영됐다. 현대 중국어 병음도 구개음화가 일어난 발음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만문원당』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중국어에서 h-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 북방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신용권(2007: 31)은 17세기 초의 무권점 당안을 정리한 『무권점 십이자두』(1741)에서 giowan - JIOWAN, joo kin dzung - JOO CINSUNG, hise efire - SISE EBIRE 등의 예가 발견되는데, 이는 17세기에 만주족이 접했던 중국어 방언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k-구개음화와 h-구개음화 등이 17세기 초 만주족이 접한 중국어 방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문원당』이 쓰여진 시기는 17세기 초반이므로 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어서 구개음화된 형태와 되지 않은 형태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음에 대해 『만문원당』에서는 구개음화된 음이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구개음화 발생 이전 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된다. 曉母의 喜는 ‘희봉구(喜峰口)’⁴⁴⁾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

42) 인명.

43) 인명. 3등 부장직을 맡은 사람.

44) 지명. 명대 장성(長成)의 중요한 관문이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 역주회, 2017: 394)

당』에서는 si fUng keo (6-352)인데 『만문노당』에서는 hi fung keo로 나타난다. 曉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ǐ이다. 曉母의 鄉은 ‘량향성(良鄉城)’⁴⁵⁾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liyang siyan HoTon (6-372), liyang šang (10-405)인데 『만문노당』에서는 liyang hiyang hoton이다. 鄉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iāng이다. 曉母의 勳은 ‘한대훈(韓大勳)’⁴⁶⁾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han Dai ŠŪn (8-86)이고 『만문노당』에서는 han’ dai hiyūn이다. 勳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ūn이다. 匣母의 懸은 ‘지현(知懸)’⁴⁷⁾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jii siyan (7-13)이고 『만문노당』에서는 jihyan이다. 懸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uán이다. 그런데 이 글자는 『만문원당』에 구개음화되지 않은 h로도 동시에 발견된다. ‘웅현성(雄縣城)’⁴⁸⁾의 표기에서는 『만문원당』에서 hoing hiyan (10-411)이고 『만문노당』에서 hoing hiyan (10-411)이다. 이 경우 『만문원당』도 권이 있는 확실한 유권점자로 적히고 있다. 匣母의 岫은 ‘행산(杏山)’⁴⁹⁾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singsan (7-419)이고 『만문노당』에서는 hing šan이다. 岫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xìng이다.

따라서 현대 한어 병음 x에 대응하는 음가에 대해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 모두 h-구개음화된 s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h가 혼재한다고 볼 수 있다.

3.1.1.2.5. 한어 병음 q

마찬가지의 예가 또 있다. 현대 중국어의 한어 병음으로 파찰음 q에 해당하는 음가가 『만문원당』에서는 c 또는 j로 나타나고 『만문노당』에서

45) 지명.

46) 인명.

47) 벼슬 이름. ‘(노룡(盧龍)) 지현’으로 번역됨(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468).

48) 지명.

49) 지명.

는 k로 나타난다. 『만문원당』에서는 k-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溪母의 다섯 글자 중 두 글자(啓·慶)는 중고음에서도 溪母였지만, 나머지 세 글자(橋·奇·乾)는 중고음에서는 群母였다가 근고음 시기로 오면서 평성에 대해서는 溪母로, 측성에 대해서는 見母로 합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글자(橋·奇·乾)의 현대 중국어 병음이 q인 것으로 볼 때, 근고음에서 溪母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중고음과 근고음 모두 溪母인 啓는 ‘천계제(天啓帝)’⁵⁰⁾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tiyanCI Han (6-357)이고 『만문노당』에서는 tiyan ki han이며 啓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qǐ이다. 마찬가지로 중고음과 근고음에서 모두 溪母인 慶은 ‘연경주(延慶州)’⁵¹⁾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yan cing jeo (10-340)이고 『만문노당』에서는 yan king jeo이다. 慶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qìng이다.

중고음에서 群母였다가 근고음에서 溪母로 합류한 글자 중 橋는 ‘고교(高橋)’⁵²⁾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gaojoo (6-120)로 나오고 『만문노당』에서는 g’ao kiyoo로 나타난다. 橋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qiáo이다. 奇는 ‘전기지(錢奇志)’⁵³⁾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can ji se (7-13)이고 『만문노당』에서는 ciyan ki jy이다. 奇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qí이다. 乾은 ‘도응건(塗應乾)’⁵⁴⁾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du yang ciyan (8-381)이고 『만문노당』에서는 du ing kiyang이다. 乾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qián이다.

한편 『만문노당』에서 k인데 『만문원당』에서 c로 표기된 글자는 무권점자에서 어중 c와 j가 같은 자형으로 쓰인다는 측면에서 j를 오기한 것일 수 있다. 중국어 한자음을 고려할 때, c를 j로 적으면서 이를 역적용해 j로 적어야 할 곳까지 c로 오기했을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溪母의 啓·慶와 群母의 乾은 모두 현대 중국어 파찰음 q에 대응하는데 溪母와

50) 명의 15대 황제를 일컫는 명호로 재위 기간은 1620년에서 1627년까지이며 묘호는 희종이다.

51) 지명.

52) 지명.

53) 인명. 안산보(鞍山堡)의 천호(千戶)직을 맡은 사람.

54) 인명. 유격(遊擊)직을 맡은 사람.

群母에 속한 다른 글자들이 모두 『만문원당』에서 j에 대응한 것으로 볼 때 c로 적힐 이유가 없는데 c로 적히고 있으므로 j의 오기일 수 있다. 또는 현대 중국어 파찰음 q에 대응하는 『만문원당』의 표기가 c와 j 두 가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만문원당』에서 k음이 구개음화된 j는 물론, j가 기식음화된 c까지 나타나는 셈이 되므로, 이미 『만문원당』이 쓰여진 17세기 초반에 q의 구개음화가 완료되고 현대 중국어 병음과 비슷한 발음으로 발달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c는 현대 중국어의 한어 병음 q와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이다.⁵⁵⁾

중국어에서 자음별 구개음화 발생 시기를 추론해보면, 파찰음 q는 17세기 초반까지 k-구개음화가 완료됐지만 마찰음 x는 이때까지 h-구개음화 발생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래서 『만문원당』에서 x에 대응하는 음가가 구개음화된 것과 구개음화되지 않은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만문노당』에서는 다시 k-구개음화와 h-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복원되어 나타나 있다.

3.1.1.2.6. 한어 병음 j

한편 『만문원당』에서 여전히 j로 나타나지만 『만문원당』에서 g로 나타나는 음가는 모두 見母로서 현대 중국어에서 한어 병음 파찰음 j에 대응한다. 見母의 紀는 ‘기로선생(紀老先生)’⁵⁶⁾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

55) 만주어 자음 j와 c의 음가는 각각 /j/, /tʃ/이고, 한어 병음 q의 IPA는 [tʃʰ]이다. 만주어 자음 j의 음가를 /j/로 규정한 것은 Pashkov(1963: 17)를 따른 것이고, 만주어 자음 c의 음가를 /tʃ/로 규정한 것은 Joseph(2018: 21)을 따른 것이다. Pashkov(1963)는 자음 c의 음가를 /tʃ/로 제시하는데 사실상 이는 /tʃ/와 동일한 발음이다.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Pashkov(1963)가 러시아 학자이기 때문에 ě라는 문자를 음소 표기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두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만주어 문어의 자음 음운 체계는 차이를 보이는데, Pashkov(1963)는 /j/를 유성 마찰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Joseph(2018)는 마찰음에 /ʃ/만을 분류할 뿐, /j/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에서는 *ji leo san seng* (6-113)이고 『만문노당』에서는 *gi loo siyan šeng*이다. 紀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이다. 見母의 金자는 ‘김옥화(金玉和)’⁵⁷⁾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jin io Hoo* (6-165)이고 『만문노당』에서는 *gin ioi ho*이다. 金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n*이다. 見母의 京자는 ‘북경(北京)’⁵⁸⁾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be jing* (6-185)인데 『만문노당』에서는 *beging*이다. 京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ng*이다. 見母의 家는 ‘반가구(潘家口)’⁵⁹⁾에서 나온 음가인데 『만문원당』에서는 *pan jiya keo* (6-394)이고 『만문노당』에서는 *pan giya keo*이다. 家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a*이다. 見母의 建자는 ‘건창(建昌)’⁶⁰⁾에서 나온 음가로서 『만문원당』에서는 *jiyan cang* (7-17)이고 『만문노당』에서는 *giyan cang*이다. 建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an*이다. 見母의 監자와 軍자는 ‘감군(監軍)’⁶¹⁾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jiyan jiŪn* (7-480)이고 『만문노당』에서는 *giyan giyŪn*이다. 監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an*이고 軍은 *jūn*이다. 見母의 奸는 ‘첩자(奸細)’에서 나온 음가로 『만문원당』에서는 *jiyansi* (8-8)이고 『만문노당』에서는 *giyansi*이다. 奸의 현대 중국어 병음은 *jian*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어 파찰음 *j*는 『만문원당』이 쓰여진 17세기 초반까지 *k*-구개음화가 발생했으며 『만문노당』은 *k*-구개음화 발생 이전의 발음을 복원해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3.1.1.2.7. 한어 병음 *z*

한편 精母의 祖, 子자는 조(祖)⁶²⁾와 우자장대(于子章臺)⁶³⁾에서 나온 음

56) 대인(amban niyalma)을 일컫는 일종의 호. 紀(用)老先生으로 번역됨.

57) 인명. 관원직을 맡은 사람.

58) 지명.

59) 지명.

60) 지명.

61) 군대의 어전 감군.

으로서 『만문원당』에서는 s인데 『만문노당』에서는 특수자음 dz로 나타난다. 현대 중국어 한어 병음 z에 해당하는 음이다. 김선민(2012: 166)은 『구만주당』과 『태조무황제실록』, 『만문노당』, 『만주실록』을 비교하면서 『구만주당』과 『태조무황제실록』에서는 ‘倭子’가 oose로 나타나지만, 『만문노당』과 『만주실록』에서는 odz로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김혜(2019: 148~149)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다. 그는 [표 42]에서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간 비교를 통해 이러한 대응을 정리한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樓子	LEOSE, LOOSE	leose
代子	DAISE	daise
堂子	TANGSE	tangse
杜瘋子	DU FONGSE	du fung ši
補子	BOSE	puse
鋪子	BOSELI	puseli
麥子	MAISE	maise
櫃子	GOWEISE	guise
綾子	LINGSE	lingse
底子	JISE	jise
頂子	JINGSE	jingse
太子河	TAISE HOO	tai dzy ho
孔夫子	KUNGFOSE	kungfudzy
孟子	MENGSE	mengdzy
箕子	JISE	gi dz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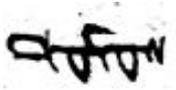
표 42 『원당』·『노당』 간 s - dz 대응 (김혜 2019: 149)

위의 표를 보면 『만문원당』에서는 ‘子’를 모두 s로 표기한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s와 dz를 혼재해 쓰고 있다. 김혜(2019)는 s와 dz가 혼재된 양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대청전서』, 『신각청서전집』, 『어제증정청문감』, 『동문유해』 등을 살펴본 결과, 인명과 관직명 어휘에 쓰인 ‘子’는 dz로 표기되고 일반 명사에 쓰인 ‘子’는 s로 표기됐음을 밝혀냈다.

62) 인명. 사람의 성을 가리킴. 조(대수)(祖(大壽))임.
63) 대(臺)의 이름.

3.1.1.2.8. 기타

한편 운모에 대해 살펴보면, 『만문원당』에서는 입성자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문원당』에서 domok (7-388)으로 나타나는 단어 차통(茶桶)이 『만문노당』에서는 dongmo로 나타난다. 『만문원당』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수 dongmo로 나타난다. 다만 茶桶의 한자어 독음이 domok이나 dongmo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주어 표기는 다른 한자어의 독음일 수 있다. 또는 한자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dongmo (< domok)는 음운 구조상 한자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⁶⁴⁾



domok

한편 domok이 dongmo로 나타나므로 do자가 dong자가 되는 예와 아래 두 예는 운모 [oŋ]과 [iŋ], [uŋ]⁶⁵⁾이 나타난 예이다. 다음 장에서 모음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중국어 차용어의 성모를 다뤘으므로 일부 운모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다. 『만문원당』에서 hūng ing poo (8-93)로 나타나는 홍이포(紅夷炮)⁶⁶⁾가 『만문노당』에서는 hūng

64) 한자음을 고려할 때, ‘통모(桶帽)’와 같은 한자를 이 단어에 대해 가능한 중국어 차용어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통모’의 의미가 어떠한 물건을 담는 수단이 되는 ‘차통’의 의미와 유사하고, 한자음 발음도 만주어로 이를 음차한 domok(원당), dongmo(노당)와 비슷하다. 다만 ‘桶’자는 tǒng으로 나타나므로 dongmo의 dong 음가는 설명할 수 있지만 domok의 do 음가는 설명할 수 없다. ‘帽’자는 고대 중국어(OCM)에서 mǔh, 후한(LHan)에서 mou^C, 중세 중국어(MC)에서 mâu^C, 한국 한자음에서 mo 등의 음가로도 나타나므로 domok의 mok 음가와 dongmo의 mo 음가를 설명할 수 있다(Schuessler, 2009: 184, 408; 伊藤智ゆき, 2011).

65) 학자들이 제시한 『중원음운』의 19개 운부에 포함된 운모 분류에 따르면, 운모 [uŋ]은 東種 운부에 속하는 운모이다(唐作藩, 2018: 187). 반면에 [oŋ]과 [iŋ]이라는 운모는 현대 중국어 병음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중고음과 근고음을 다룬 한어 음운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夷자의 경우, 중고음에서 [i]의 음가를 가진 것으로 발견되는데 『만문원당』에서 이를 [iŋ]으로 표기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i poo로 나타난다. 『만문원당』에서 夷에 대한 한자어 독음이 i가 아니라 ing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만문원당』에서 gung an hiyan으로 나타나는 단어 고안현(固安縣)⁶⁷⁾이 『만문노당』에서는 gu an hiyan로 나타난다. 固가 『만문원당』에서는 gu가 아니라 gung으로 나타난다.

3.1.1.2.9.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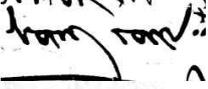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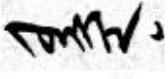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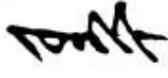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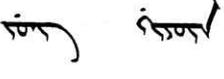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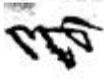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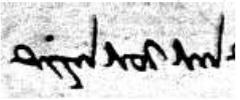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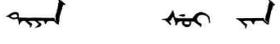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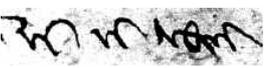
중국어 차용어의 한자음 발음을 정리해보면, h-구개음화는 『만문원당』이 쓰여질 당시 한창 진행 중에 있었지만, k-구개음화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어 병음의 마찰음 x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만문원당』에서 h-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이 섞여있는 반면에, 파찰음 q와 j는 k-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문노당』에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고 구개음화 발생 이전의 발음을 복원해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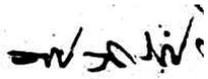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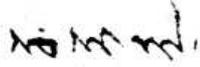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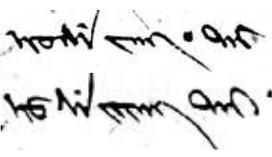
3.1.1.2.10. 중국어 차용어의 표기 변천

지금까지의 중국어 차용어 사례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 4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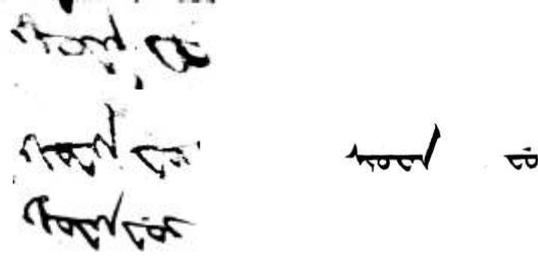
66) 홍이포는 당시 서양식 신형 대포로서 사거리가 길고 지향성이 좋아서 조준사격을 할 수 있었다. 명나라 때 명 조정이 1629~31년 사이에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로부터 홍이포를 구매해 이를 마카오에서 북경까지 운반한 기록이 있다(안상현, 2011). 청군은 병자호란 당시 홍이포를 사용해 화력에서 조선보다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구범진, 2017).

67) 지명.

No.	한자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堡	HeCen fU (6-355) 	hecen pu 	성보(城堡)
2	中	sÜng jüin (7-17) jUngGin (6-324) jUngGi (6-336)   	jung giyün 	중군(中軍)
3	筈	safU (6-341) jafU (7-500)  	jafu 	차부(筈付)
4	站	tiYan sUi san (7-177/8-33)  	tiyan šui jan 	침수참(睇水 站)
5	忠	li i sūng (8-86) 	li i hūng li i jung  	이일충(李一 忠)

6	志	can ji <u>sy</u> (7-13) 	ciyan ki <u>iy</u> 	전기지(錢奇志)
7	祝	<u>su</u> si in (10-17) 	ju ši yen 	축세음(祝世廕)
8	崇	yUwan <u>sÜng</u> hUwan (6-36) 	yuwan <u>cung</u> hūwan 	원승환(袁崇煥)
9	祖	sU (7-419) su (7-25) dzU (10-290) dzu (10-274) 	dzu 	조(祖)
10	子	iose <u>jang</u> tai (8-112) io <u>se</u> jiYang tai (8-70) 	ioi <u>dz</u> jang tai 	우자장대(于子章臺)
11	宣	<u>hiowan</u> fU (6-113) <u>Hiowan</u> FU (10-406)	<u>siowan</u> fu	선부(宣府)

giowan fui (8-169)



boo ceng HiYan

(6-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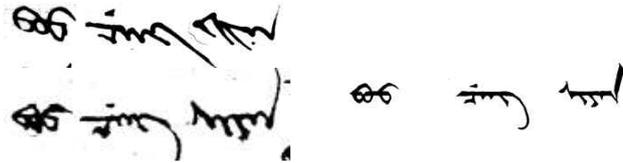
boo ceng siyan

boo ceng siyan

(10-162)

12 先

포승선(鮑承先)



hiowEi Dai HU

(8-128)

siowei dai hū

13 薛

설대호(薛大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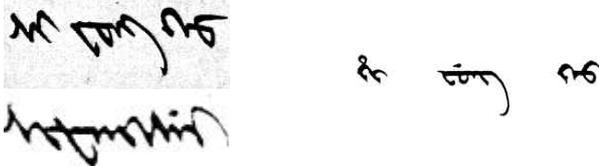
si fUng keo (6-352)

sifEngsei (10-645)

hi fung keo

14 喜

희봉구(喜峰口)



liyang siYan Ho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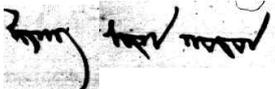
(6-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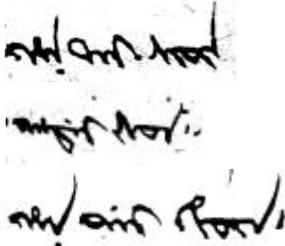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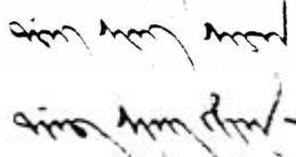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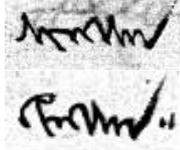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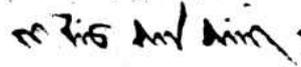
liyang hiyang ho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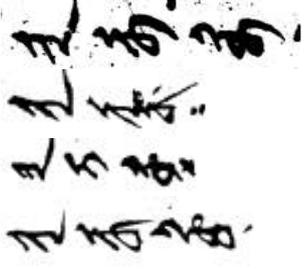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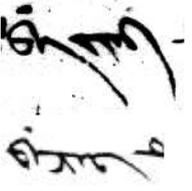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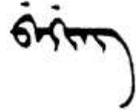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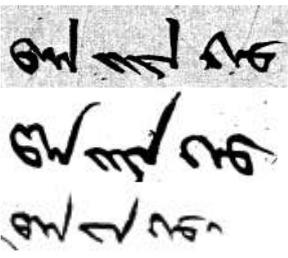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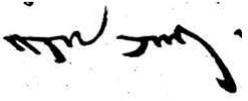
15 鄉

량향성(良鄉城)

liyang šang (10-405)



				
		han Dai <u>ŠŪn</u> (8-86)		
		hanDai <u>šUn</u> (8-180)	han' dai <u>hiyūn</u>	
16	勳	han dai <u>hiūn</u> (10-273)		한대훈(韓大勳)
				
		ding <u>sing siyan</u> (10-405)	ding <u>hing hiyan</u>	
17	興, 懸	ding <u>sing hiYan</u> (10-440)		정흥현(定興縣)
				
		<u>singsan</u> (7-419)	<u>hing šan</u>	
18	杏	<u>hingsan</u> (6-254)		행산(杏山)
				
		<u>ji leo san seng</u> (6-113)	<u>gi loo siyan šeng</u>	
19	紀			기로선생(紀老先生)

		jin io Hoo (6-165)			
		jin isu (8-94)		gin ioi ho	
		jin i hō (8-204)			
		jin io hoo (10-58)			김옥화(金玉和)
20	金				
		be jing (6-185)		bejing	
		bejing (10-60)			
21	京				북경(北京)
		ban jiya keo (6-394)			
		pan jiya keo (6-449)		pan giya keo	
		pan ja keo (10-81)			
22	家				반가구(潘家口)
		jiyan cang (7-17)		giyan cang	
23	建				건창(建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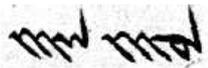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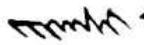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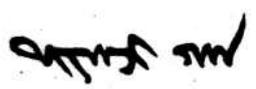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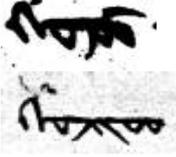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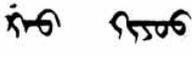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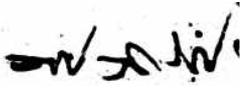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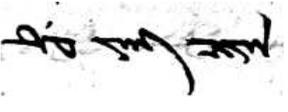
24	監, 軍	jiYan jiYŪn (7-480)	giyan giyŭn	감군(監軍)
				
25	奸	jiYansi (8-8)	giyansi	첩자(奸細)
				
26	啓	tiyanCI Han (6-357)	tiyan ki han	천계제(天啓帝)
				
27	慶	yan cing jeo (10-340)	yan king jeo	연경주(延慶州)
				
28	橋	g'aojoo (6-120) g'aojiYoo (6-254)	g'ao kiyo	고교(高橋)
				
29	奇	can ji se (7-13)	ciyan ki jy	전기지(錢奇志)
				
30	乾	du yang ciyan (8-381)	du ing kiyang	도응건(塗應乾)
				

표 43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사례

2번의 경우, 中자에 대해 『만문노당』에서는 j만 대응하지만,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연간 초기부터 s와 j 두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또한 『만문원당』에서 j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같은 단어에 속한 軍자는 [표 44]의 2번처럼 단모음으로 나타나거나 3번처럼 단모음에 어말 n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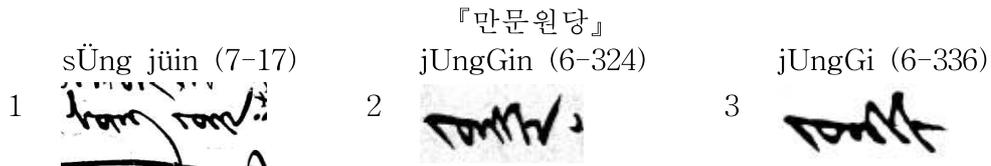


표 44 中軍의 『원당』의 표기 변천

[표 43]의 2~3번은 천총 3년 11월 초4일 기사(6-336)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모두 知母에 속하고 현대 중국어 병음에서 권설음인 zh에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문원당』 해당 기사에서 中자는 j로 나타나고 箭자는 s로 나타난다. j가 s보다 더 권설음에 근접한 표기라는 본고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만문원당』에서 中자가 箭자보다 먼저 권설음화에 근접한 표기를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3번의 箭은 『만문원당』에서 천총 연간 초기에는 주로 s 형태가 발견되다가, 점차 j 형태가 나타난다.

9번은 『만문원당』에서도 송덕 원년에 들어서면 유권점자 특수 문자인 dz가 나타난다.

10번의 경우,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s로 나타나며, 같은 단어에 있는 章자가 장모음 jiyang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1번은 음성자 k에 권점이 있고 두 번째 단어인 fu에서 모음 o/u를 구분하는 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12번은 『만문원당』에서도 송덕 원년에 들어서면 s 형태가 나타난다.

14번은 같은 단어에 있는 口자까지 s로 쓴 경우가 발견된다.

15번은 위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천총 3년 12월 초하루 기사(6-369)에서 liyang siyang HoTon이라고 썼다가 siyang을 지우고 Giyan이라고 고쳐쓴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만문노당』의 hiyang에 근접

한 표기이므로 개수 시점이 『만문노당』 시기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량향성(良鄉城)의 개수

16번의 『만문원당』에서의 표기 변천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천총 연간에는 표 43의 1번처럼 무권점 \check{S} 가 나타나거나 2번처럼 유권점 \check{S} 가 나타나다가, 승덕 원년이 되면 『만문노당』과 같은 h 형태가 나타난다.

		『만문원당』	
	han Dai <u>SI</u> n	hanDai <u>š</u> Un	han dai <u>hi</u> n
	(8-86)	(8-180)	(10-273)
1		2	
		3	

표 45 한대훈(韓大勳)의 『원당』의 표기 변천

17번의 표기 변천은 [표 46]와 같은데, 『만문원당』에서 같은 승덕 원년 인데도,懸자가 『만문노당』과 같은 h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만문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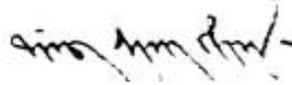
	ding sing <u>siyan</u> (10-405)		ding sing <u>hiYan</u> (10-440)
1		2	

표 46 정흥현(定興縣)의 『원당』의 표기 변천

18번의 표기 변천은 [표 47]과 같은데, 『만문원당』에서 오히려 천총 2년에 『만문노당』과 같은 h 형태([표 46]의 1번)가 나타나고 이보다 늦은 천총 5년([표 46]의 2번)에는 s 형태가 나타난다.

『만문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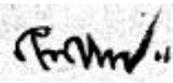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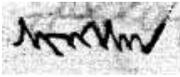
	<u>hingsan</u> (6-254)		<u>singsan</u> (7-419)
1		2	

표 47 행산(杏山)의 『원당』의 표기 변천

20번은 『만문원당』에서 구개음화된 j 형태만 발견되는데, 같은 단어에 있는 和자에 대해 s 형태와 h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22번은 潘자가 b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단어에 있는 家자가 단모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8번은 『만문원당』에서도 『만문노당』과 같은 장모음 -iyoo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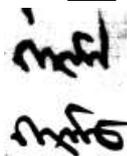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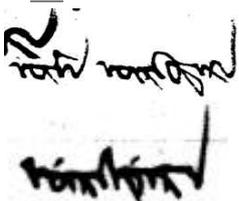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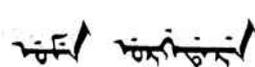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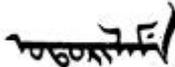
그 외 4~8, 13, 19, 21, 23~27, 29~30번은 모두 『만문원당』의 예로 제시된 형태로만 발견된다.

3.1.2. 모음

3.1.2.1. 교체

3.1.2.1.1. 만주어 고유어

『만문원당』을 『만문노당』과 비교할 때, 개별 단어에서 모음 교체를 보이는 주요 사례는 다음 [표 48]과 같다. 만주어 고유어의 사례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kerEmE (6-111) kerEmU (6-457) 	keremu 	성가퀴
2	(동사어간 urgude-) ÜmE ÜrGuDerE (7-9) urGederE (6-181) 	(동사어간 urgede-) ume urgedere 	저버리-
3	(동사어간 otorolo-) otorolome (7-362) 	(동사어간 otorila-) otorilame 	봄 수렵하-
4	ojirakÛ (7-437) ojorakÛ (6-13)	ojorakū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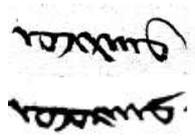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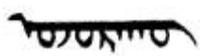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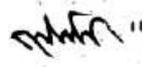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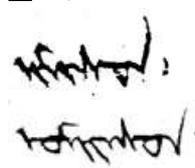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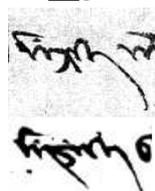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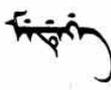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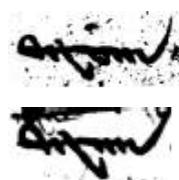
			
5	jisami (7-385) 	kijimi 	살담배
	imisUn (8-92) UmiyEsUn (8-128)	umiyesun	
6			요대
	mejiGe (8-410) medege (6-10)	medege	
7			소식
	tafuka (6-55) tafaka (6-55)	tafuka tafaka	
8			올랐다

표 48 『원당』·『노당』의 동일 단어 모음 교체 사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동일 어형의 모음 대응이 $e \leftrightarrow u$, $o \leftrightarrow i$, $a \rightarrow i$, $i \rightarrow e$, $u \leftrightarrow a$ 등으로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필사자의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2, 4번은 천총 연간 초기부터 『만문원당』에서 두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6번은 천총 6년 3월부터 『만문원당』에서 두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3번은 발생 빈도 수가 매우 적는데(최소 2회),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otorolo-의 형태가 나타난다. 5번과 7번은 앞서 장에서 살펴왔다. 5번은 『만문원당』에서 구개음화된 jisami의 형태만 발견됐고 7번은 『만문원당』에서 천총 연간 초기부터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났다. 8번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두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따라서 ‘오르다’라는 동사에 대해 tafu-와 tafa-의 두 동사 어간이 청 태종조 천총 연간인 17세기 초반에서부터 건륭제 시기인 18세기 후반까지 나란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4번의 경우, 초기 유권점자의 특성을 보이는 삼전도비(1639)⁶⁸의 비문에서도(29)처럼 ojorakū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9)

guweci ojorakū oho

면치 못하게 되었다

(성백인, 1970: 133)

5번 JISAMI - kijimi, 8번 IMISUN - umiyesun은 고동호(1999)가 삼가자 만주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제기한 i 예기(anticipatory) 동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가자 만주어는 淸格爾泰(1982, 1998) 부록에 수록된 만주어 구어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고동호(1999: 11)에 따르면, 만주어 문어 이외에 1940년대 이후 만주어 구어에 대한 보고가 간간이 이뤄져 왔다. 아래 (30)에서 보면, 후행 음절에 i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통적으로 만주어 문어⁶⁹의 비전설 모음이 만주어 구어의 비후설

68) 삼전도비는 유권점 만주문자(1632년)가 쓰이기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1639년에 세워졌지만, 강희~건륭 연간의 정제된 만주어 표기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표기가 정연하다(성백인, 1970: 117). 삼전도비는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를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서,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삼궐구고두례를 행하며 직접 항복한 인조의 치욕적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청 태종의 강요로 삼전도 지역(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세워진 것이다. 만주문과 몽골문,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모음에 대응한다. 즉 후행 음절의 i가 선행 음절의 모음을 전설 모음화 시킨 것이다.

(30)

구어형	문어형
a:m'ɫ	amala
æm'ile	amila
uv'un	efen
ev'i:me	efimbi
ufa:rme	ufarambi
iv'ime	ufimbi

(清格爾泰, 1982)

廣祿·李學智(1965: 49~50)에서는 (31)에서처럼 oo - eo, a·e → u, e → i, u → e의 변화를 보이는 사례를 제시한다.

(31)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e-felebi	efulefi
loose	leose
jabdahai	jabduhai
kejene	kejine
kutulu	kutule

한편 3번 otorolome는 최초의 만주어 정서법 규범이 제시되기 이전의 만주어 표기를 반영한 『만한유서(滿漢類書)』(1700)에서도 발견된다.⁷⁰⁾ 따

69) 고동호(1999: 12)는 이 표의 만주어 구어는 清格爾泰(1982, 1998)를 따르고 만주어 문어는 편의상 羽田 亨(1937)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70) 『만한유서』는 『어제청문감』(1708)이 나오기 이전인 강희 39년(1700)에 간행된 초기 만주어 사전으로 『어제청문감』에서 최초의 만주어 정서법 규정이 제시되기 이전의 만주어 표기를 반영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 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라서 『만문원당』의 otorolome 표기도 초기 만주어 표기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2) otorolome <만한유서 04:10:b2>

4번 ojirakū도 『청문휘서』(1724), 『어제증정청문감』(1771), 『한청문감』(1779), 『택번요재지이(擇繙聊齋志異)』(1848)⁷¹⁾, 『오체청문감』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33)

- a. ojirakū <청문휘서 01:46:a1>
- b. ojirakū <어제증정청문감 9769>
- c. ojirakū <한청문감 86313>
- d. ojirakū <택번요재지이 14:21:a2m>
- e. ojirakū <오체청문감 9780>

『어제청문감』(1708)에서는 ojirakū와 oiorakū이 나란히 발견된다.

(34) gemu oiorakū sembi, … geli ojirakū seme <어제청문감 7179>

6번 imisun과 8번 tafuka는 『삼국지』(1723~1735)에서도 나타난다.

(35)

- a. onco imisun imilehebi <삼국지 10:067:a5m>
- b. ajige alin de tafuka <삼국지 15:117:b7m>

71) 『택번요재지이(Sonjofi ubaliyambuha liyoo jai jy i bithe)』는 단편 소설집 『요재지이』 중 일부를 만주어로 번역한 것이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3.1.2.1.2. 중국어 차용어

동일한 한자어에 대해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모음 교체를 보이는 사례는 아래 [표 4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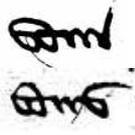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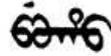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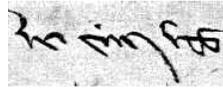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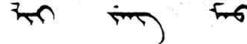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bU <u>Ha</u> (6-436) bU <u>Ho</u> (7-332) 	pu <u>ho</u> 	포하(浦河)
2	li jeng <u>moo</u> (8-36) 	lii jeng <u>mao</u> 	이정무(李正茂)

표 49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모음 교체 사례

1번에서는 河의 운모가 『만문원당』에서는 a~o인데 『만문노당』에서는 o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표 50]에서 보듯이,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4년 기사에서는 모음이 a로 나타나는데, 바로 1년 뒤인 천총 5년 기사에서는 o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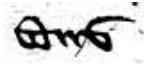
천총 4년 3월	천총 5년 3월
bU <u>Ha</u> (6-436) 	bU <u>Ho</u> (7-332) 

표 50 puho의 『원당』의 표기 변천

2번에서는 茂의 운모인 oo - ao의 예가 눈에 띄는데, 이 같은 현상은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1703)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조선(朝鮮)’이란 지명을 coohiyan으로 쓰는데 이에 대한 한글 독음을 ‘츄한’이라고 적는다. 그렇다면 oo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발

음은 ao로 이뤄졌으며 『만문노당』에서는 현실 모음 발음에 맞게 표기법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만주어 문어의 대표적인 어학서인 『청문계몽(淸文啓蒙)』(1730)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백인(1976: 76~77)에 따르면, 『청문계몽』의 이시청자(異施淸字, mudan encu i manju hergen) 부분은 18세기 중엽 만주어에서 일어난 음운변화에 따른 발음 변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 중에는 만주어 내 중국어 차용어에 대해 이미 굳어져서 옛 발음으로 쓰는 것 이외에는 만주어 철자에 해당하는 한자의 당시 속음대로 발음하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만주어 oo 표기는 [au]로 발음해야 한다.

김혜(2019)도 같은 현상을 언급한다([표 51]). 김혜(2019: 103)에 따르면 oo - ao의 대응은 본고의 예에서 제시하듯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혼재되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만문원당』	『만문노당』(內閣本)	『만문노당』(崇謨閣本)
島	DAO, DOO	doo	doo
趙	JO, JOO, JAO	jao	joo, jao
毛	MO, MOO	mao	moo, mao
道	DOO	doo	doo

표 51 『원당』·『노당』의 oo - ao 대응 (김혜, 2019: 103)

陳捷先(1969: 34)도 oo - ao의 대응을 보이는 사례 (36)을 제시한다.

(36)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moo uwenlung	mao wen lung

3.1.2.2. 탈락 및 첨가

『만문원당』과 달리 『만문노당』에서 모음 탈락 및 첨가가 나타나는 주요 사례는 다음 [표 5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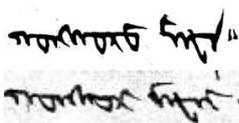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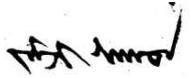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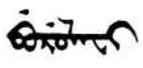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kongGoro mafa (6-312) kongGor mafai(8-218) 	konggor mafa 	콩고르 마파 ⁷²⁾
2	yamji saHjUn (7-27) 	yamjishūn 	저녁 무렵
3	burlafi (10-693) 	burulafi 	패주하여

표 52 『원당』·『노당』의 동일 단어 모음 탈락 및 첨가 사례

『만문원당』에서는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1번처럼 어말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고, 2번처럼 두 어절이 한 음절의 단어로 합쳐지면서 어중 음절의 모음이 탈락해 발음의 용이함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어간의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도 발견되는데, 3번처럼 『만문원당』에서는 어간의 후행 음절 모음이 탈락해 어간 단순화가 일어났으나, 『만문노당』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어간의 모든 음절 모음이 회복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번은 천총 6년 7월(8-218)부터 『만문원당』에서도 『만문노당』과 동일한 어말 모음 탈락형이 발견된다. 2번은 발생 빈도가 매우 적으므로(최소 1회), 어중 모음이 탈락하고 음절이 축약된 형태만 나타나고, 3번은 『만문원당』 전반에 걸쳐 모두 동사 어간 burla-로 발견된다. 어떠한 이유로 『만문노당』에서는 동사 어간의 어중 음절의 모음 -ru-를 되살려 burula-로 바꿔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72) 콩고르는 그의 큰 형인 마구스가 흥타이지의 황후인 효장 황후의 친할아버지이므로 청 태종 흥타이지에게 할아버지뻘이 된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 역주회, 2017: 308).

齊木徳道爾吉 외(2008)에서는 3번과 마찬가지로 burlaha-burulaha의 대응을 다른 만주 문헌에서 찾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武皇帝實錄』에서는 burlaha가 나타나고 『滿洲實錄』에서는 burulaha가 나타난다.

한편 廣祿·李學智(1965: 49)는 모음이 탈락된 예를 다음 (37)과 같이 제시한다.

- (37)
- | | |
|----------|-----------|
| 무권점 만문 | 유권점 만문 |
| elmangga | elemangga |

1번처럼 어말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통구스 제어에서도 발견된다. 池上二良(2001: 413)이 제시한 예([표 53])를 보면 다른 통구스 제어에서는 어말 -o가 유지되는데, 어원어에서 어말 -o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통구스 제어	표기	뜻
어원어(E)	gor	‘遠い(먼)’
어윅키어(Ek)	goro	
솔론어(S)	goro	
네기달어(N)	gojo	
우디허어(U)	gō	
오로치어(Oc)	gō	
나나이어(Nn)	goro	‘遠く(멀리)’
올차어(Ol)	goro	
월타어(Ut)	goro	
만주어(M)	goro	‘遠い(먼)’

표 53 통구스 제어의 어말 o의 유동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아래 예시([표 54])에서도 어원어에서만 어말 -ə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통구스 제어	표기	뜻
어원어(E)	ʃuk	‘厚い永(두꺼운 얼음)’
어윙키어(Ek)	ʃukə	
네기달어(N)	ʃuxə, ʃukə	‘永(얼음)’
우디허어(U)	ʃugə	
오로치어(Oc)	ʃukə	
나나이어(Nn)	ʃukə	
올차어(Ol)	ʃuwə	
윙타어(Ut)	duwə	
만주어(M)	ʃuhə	

표 54 통구스 제어의 어말 모음 유동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그 외 몇 가지 예에서도 주로 어원어에서 어말 모음 탈락 현상이 나타내지만, 이를 일반화하려면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3.1.2.3. 단모음화

단모음화는 표기의 유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백인(1990: 63)에서는 17세기에 간행된 초기 만주어 사전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표기의 유동으로 나타내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o~oo의 표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예들은 다음의 (38)과 같다.

(38)

- cocali~coociyali
- doombi~dombi
- giyoo~giyo
- hohan~hoohan
- kiyookan~kiyokan
- moodan~modan
- toboo~tobo

yoodan~yodan

廣祿·李學智(1965: 50~51)는 청 태조조의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o~oo의 표기 유동을 보이는 예를 (39)와 같이 제시한다. 이중 oose~odz는 앞서 자음 s — dz 대응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김선민, 2012: 166).

(39)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한자어)

oose	odz
hoo	ho
hoose	hose
sio	siyoo
tuu	tu
loose	lose
liodun	liyoodung
mio	miyoo
mocin	mocin
kio	kiyoo
hiosiun	hiyoošun
giocan	giyoocan
kuu	ku

(고유어)

oojin	ojin
oome bime	ombime
soome	some
buu	bu
toome	tome
doosombi	dosombi
gioo	gio
sorin	soorin
dosidame	doosidame

yoni yooni

청 태종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만문원당』에서 단모음화가 나타났는데 『만문노당』에서는 단모음화 발생 이전 발음이 반영된 경우와 『만문원당』에서는 장모음으로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 단모음화가 적용된 경우로 나뉜다.

3.1.2.3.1. 『원당』 단모음 — 『노당』 비(非)단모음

3.1.2.3.1.1. 만주어 고유어

첫 번째, 『만문원당』에서 단모음화가 나타났는데 『만문노당』에서는 단모음화 발생 이전 발음이 반영된 만주어 고유어의 주요 사례는 다음 [표 55]와 같다.⁷³⁾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ibiDa (7-386)	ibiyada	마음에 들지 않는다
	ibiDa (10-90)		
2	fergeCUke (6-174)	ferguwecuke	기이한
	ferguwecuke (10-240)		

표 55 『원당』 단모음과 『노당』 非단모음 대응 사례

『만문노당』에서 1~2번은 반모음 y, w가 개입된 이중모음 음절이 나타나고 있다. 모음 연쇄에서 반모음을 개입해 표기하는 만주어의 표기법을 감안해도 1~2번은 『만문노당』에서 이중모음 음절임을 알 수 있다.

1번의 경우, 『만문원당』에서의 표기 변천은 [표 56]와 같은데, 『만문원당』에서 천총 연간에서 승덕 원년으로 넘어가면서 무권점 자음 t에 유성음을 나타내는 점이 적용되는 변화가 발생했지만 모음은 그대로 단모음인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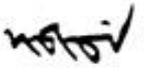
천총 연간	승덕 원년
ibiDa (7-386)	ibiDa (10-90)
	

표 56 ibiyada의 『원당』의 표기 변천

2번은 승덕 원년부터 『만문원당』에서도 이중모음 형태가 발견된다.

한편 廣祿·李學智(1965: 49~50)도 (40)에서처럼 반모음 y가 개입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더해 『만문원당』에서 단모음인데 『만문노당』에서 이중모음으로 나타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40)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반모음 y)	
a. ekihun	ekiyehun
b. funihe	funiyehe
(이중모음)	
c. abide	aibide
d. niniru	nioniru
e. babi	baibi

위의 예들이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청 태종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73) 한편 홍타이지도 『만문원당』에서는 hŪng taiji로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hūwang taiji로 나타난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40a)는 11회 발견된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57]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ekiHun (7-7)	ekiyehun
ekiHun (7-8)	ekiyehun
ekiHun (7-9)	ekiyehun
ekiHun (7-12)	ekiyehun
ekiyehÜn (10-113)	ekiyehun

표 57 『원당』·『노당』에서 ekiyehun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연간 초반에는 두 번째 음절 ki에 단모음 -i- 형태가 나타나고, 승덕 원년에 들어서야 『만문노당』과 같은 이중모음 -iye- 형태가 나타난다.

(40b)는 11회 발견되는데,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58]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fUniYEHei (6-213)	funiyehe
fUniYEHe (6-288)	funiyehe
fUniHe (7-147)	funiyehe
fUniYEHe (7-332)	funiyehe
funiyehe (8-280)	funiyehe
funiyehe (8-280)	funiyehe
funiyehe (10-148)	funiyehe
funiyEhe (10-159)	funiyehe
funiyehei (10-291)	funiyehe
funiyehe (10-501)	funiyehe
funiyehe (10-501)	funiyehe

표 58 『원당』·『노당』에서 funiyehe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연간 초반에 두 번째 음절이 단모음 -ni-로 나타나는 funihe 형태가 1번 나온다. 이외에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모두 이중모음 -niye- 형태로 나타난다.

(40c)는 15회 출현하는데,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59]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abiDe (6-83)	aibide
abiDE (6-285)	aibide
abiDE (7-280)	aibide
abiDE (7-424)	aibide
abide (10-235)	aibide
abide (10-241)	aibide

표 59 『원당』·『노당』에서 abide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첫 번째 음절이 a로 나타나는 단모음 형태로 발견된다. 반면에 『만문노당』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이 이중모음 ai로 나타난다.

(40d)는 발견되지 않고 (40e)는 30회 발견된다. (40e)의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0]와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babi (6-5)	baibi
babi (6-155)	baibi
babi (7-243)	baibi
babi (7-298)	baibi
babi (8-5)	baibi
babi (8-16)	baibi
babi (10-519)	baibi

표 60 『원당』·『노당』에서 baibi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첫 번째 음절이 단모음인 ba로 나타나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이 이중모음인 bai로 나타난다.

陳捷先(1969: 30)에서도 반모음 y가 개입된 사례를 제시한다.

(41)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fujan	fujiyang
liodun	liyoodung
miocan	miyoocan
sanjan	ts'anjiyang

sio

siyoo

이중 fujan—fujiyang의 대응은 김선민(2012: 166)에서 『구만주당』 fujang, 『태조무황제실록』 fu jiyang, 『만문노당』 fujiyang, 『만주실록』 fujiyang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응을 발견할 수 있다. miocan—miyoocan의 대응도 김선민(2012: 166)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만주당』 miocan, 『태조무황제실록』 miyoociyang, 『만문노당』 miyoocan, 『만주실록』 miyoociyang의 형태로 발견된다.

陳捷先(1969: 30, 34)은 이중모음화되거나 장모음화된 예도 제시한다.

(42)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	--------

(이중모음)

geijo, goijo	g'ai jeo
--------------	----------

jo	jeo
----	-----

tagiyan	taigiyan
---------	----------

fujo	fu jeo
------	--------

(장모음)

wali	wan lii
------	---------

마찬가지로 이중에서 장모음 예인 wali—wan lii 대응은 김선민(2012: 166)에서 『구만주당』 wanli, 『태조무황제실록』 wanli, 『만문노당』 wan lii, 『만주실록』 wan lii의 형태로 이와 거의 동일한 대응이 발견된다.

한편 반자음 w가 개입된 사례는 통구스 제어에서도 발견된다. 池上二良(2001: 413)이 제시한 사례([표 61])를 보면, 어원어와 오로치어에서는 단모음 어형이 나타나는 반면에 어윙키어와 네기달어에서는 반자음 w가 개입된 음절이 나타나고 솔론어에서는 장모음이 나타난다.

통구스 제어	‘< ㄷ(빛)’
어원어(E)	rdūn
어원어(Ek)	igdiwūn
솔론어(S)	iddūū
	irdūū
네기달어(N)	igdiwun
오로치어(Oc)	igdU(n)
나나이어(Nn)	sigjipun
올차어(Ol)	sigdupu(n)
윌타어(Ut)	sigjipu(n-)
만주어(M)	ijifun

표 61 통구스 제어의 반자음 w 사례 (池上二良, 2001: 413)

3.1.2.3.1.2. 중국어 차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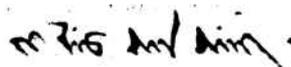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ji leo <u>šan</u> seng (6-113) 	gi loo <u>siyan</u> šeng 	기로선생(紀老先生)
2	giocan (10-36) 	giyoocan 	교장(敎場)

표 62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단모음화 사례

[표 62]는 동일 단어에 대해 『만문원당』에서는 단모음 형태가 나타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장모음 형태가 나타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2번 모두 『만문원당』에서 위에 제시된 형태만 발견된다. 1번은 先자에 대해 『만문원당』에서는 šan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siy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운모가 -an에서 -iyan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문노당』에서 유권점 š를 무권점 SI의 표기로 복원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무권

점 SI 표기가 종래의 관습을 벗어난 것이 된다. 무권점 SI는 주로 유권점 šo, šu의 경우에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ša-의 표기에 쓰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번은 敎자에 대해 『만문원당』은 gio-라고 적고 있고 『만문노당』은 giyoo-라고 표기하고 있다. 유권점자 표기법에 따르면 『만문원당』도 모음 연쇄에 반모음 y를 넣어서 giyo-라고 써야 한다. 그럼 敎자의 운모에 대해 『만문원당』은 -iyo, 『만문노당』은 -iyoo라고 표기하는 셈이 된다.

3.1.2.3.1.3. 외래어 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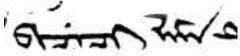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biceci lama (10-32)	bicigeci lama	
1			비치거치 라마

표 63 『원당』·『노당』의 외래어 인명 단모음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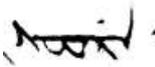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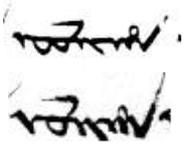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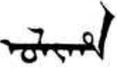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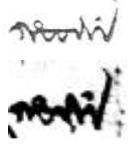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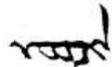
[표 63]은 외래어 인명에 대해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각각 단모음 형태, 개입자음 g 포함 모음연쇄 형태가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1번은 아루의 칼카(aru i kalka) 솔로이 푸진(šoloi fujin)의 사신 비치거치 라마의 인명을 표기한 것인데, 아루의 칼카는 몽골 부족명이며 비치거치는 티베트 불교식 이름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만문노당』의 -ige-의 개입자음 g 포함 모음 연쇄가 『만문원당』에서는 단모음 e로 나타나며 개입 자음 g가 탈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1.2.3.2. 『원당』 비(非)단모음 — 『노당』 단모음

3.1.2.3.2.1. 만주어 고유어

『만문원당』에서는 장모음으로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 단모음화가

발생한 주요 사례는 다음 [표 64]와 같다.

No.	『만문월당』	『만문노당』	뜻
1	(동사어간 too-/to-) <u>toomE</u> (6-108) <u>tomE</u> (8-33) 	(동사어간 to-) <u>tome</u> 	~마다
2	(동사어간 soo-) <u>soore</u> (10-8) 	(동사어간 so-) <u>sore</u> 	뿌리는
3	(동사어간 ooli-/oli-) <u>ooliha</u> (10-26) <u>oliha</u> (7-411) 	(동사어간 oli-) <u>oliha</u> 	겹이 많은
4	<u>hoose</u> (10-335) <u>hoše</u> (10-478) 	<u>hose</u> 	그릇
5	<u>oocin</u> ⁷⁴⁾ (10-9) <u>oojin</u> (10-35) 	<u>ojin</u> 	gecuheri ojin jibsihai 망단 날 습여조괘(捏褶女 朝褂)

(cf. ifiha ojin (9-26))

faiDagan (10-268)

faiDan (6-89)

faidan

6

의장(儀仗)

표 64 『원당』·『노당』의 장단모음 대응 사례

『만문원당』에서 2번을 제외한 1~5번은 장모음과 단모음 형태가 모두 나타나고 6번은 개입 자음 g의 탈락형과 보존형이 모두 나타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1~5번은 단모음으로 나타나고 6번은 모음 사이의 개입 자음 g의 탈락형이 나타난다.

1번은 천총 4년 10월 28일 기사(8-33)에서부터 『만문원당』에서도 단모음 어형이 나타난다. 2번은 발생 빈도 수가 매우 적어 승덕 원년부터 최소 2회 나타나는데 『만문원당』에서는 모두 장모음형으로 나타난다. 3번은 발생 빈도 수가 매우 적지만(최소 3회), 『만문원당』의 천총 5년 7월 28일 기사(7-411)에서 오히려 『만문노당』과 같은 단모음형 형태가 발견되고 승덕 원년 기사에서 장모음형이 나타난다. 4번은 『만문원당』에서 승덕 원년 7월 14일부터 최소 총 7회 발견되는데 이중 1회 hoše(10-478)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장모음형인 hoose로 나타난다. 5번의 경우, gecuhəri ojin jibsihai에 대해서는 장모음 형태만 『만문원당』에서 발견되지만, ifiha ojin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만문원당』에서도 단모음

74) 『만문원당』의 과도기적 문자에서는 자음 j를 자음 c처럼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철자법 혼란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글자 그대로 c로 전자한다.

ojin 형태(9-26)가 나타난다. 6번은 『만문원당』에서 이미 천총 연간 초기에 개입 자음 g의 탈락형이 발견된다.

1~5번의 oo가 o에 대응하는 현상에 대해 김혜(2019)는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려운 임의적이고 관습적인 현상이라고 결론내린다. 조지강(2020)도 『만문원당』에 나온 장모음 현황을 관찰해 정리하고 있다.

陳捷先(1969: 30~31)은 o~oo 표기의 유동뿐만 아니라 u~uu 표기의 유동을 보이는 예까지 아울러 제시한다.

(43)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buu	bu
guu	gu
hoo	ho
hoose	hose
kuu	ku
loose	lose
mocin	mocin
oojin	ojin
tuu	tu

廣祿·李學智(1965: 49)는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4)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a. omiohon	omihon
b. dabkiyame	dabkime

(44)의 사례에 대해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a)는 ‘배고픈’이란 뜻으로 3회 발견되는데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5]와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omioHon (7-435)	omihon
omiHon (7-456)	omihon
omihon (10-113)	omihon

표 65 『원당』·『노당』의 omihon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도 천총 연간 초반에서 omiohon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44b)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陳捷先(1969: 30~31)에서는 『만문노당』의 š와 단모음의 조합 표기가 『만문원당』에서 s와 이중모음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사례 (45)를 제시한다.

(45)

무권점 만문	유권점 만문
a. hiosiuun	hiyoošun
b. siusihu	šusiha
c. siusiu	šušu

(45a)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청 태종조에서 5회 발견되는데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6]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hiošUn (6-65)	hiyoošun
HiooSIyUn (7-67)	hiyoošun
hiošun (10-67)	hiyoošun
hiošUn (10-317)	hiyoošun
hioošUn (10-628)	hiyoošun

표 66 『원당』·『노당』의 hiyoošun의 표기 유동

먼저 hiyoošun은 ‘효순(孝順)’의 뜻인데, 『만문원당』에서는 孝자가 단모음 형태 -io와 장모음 형태 -ioo가 모두 천총 연간과 송덕 연간에 걸쳐 골고루 발견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장모음 형태만 발견된다. 順자의 š는 『만문원당』에서도 대부분 š로 나타나지만, 무권점자인 SI-로

나타나는 경우도 1회 발견된다.

(45b)는 ‘채찍’이란 뜻으로 93회 발견되는데, 일부 예들만 시기적으로 무작위 선정해 살펴본 결과의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7]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SIUsiHa (6-260)	šusiha
SIUsiHa (6-424)	šusiha
SIUsiHa (7-298)	šusiha
SIUsiHa (7-414)	šusiha
SIUsiHa (8-101)	šusiha
šUsiha (8-285)	šusiha
šusiha (10-67)	šusiha
šusiha (10-275)	šusiha

표 67 『원당』·『노당』의 šusiha의 표기 유동

『만문원당』에서 천총 연간 중반부터 유권점 š와 권이 있는 유권점 h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5c)는 ‘수수’란 뜻으로 7회 발견되는데, 그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8]과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SIUSIU (7-353)	šušu
SIUSIU (7-417)	šušu
šUšU (8-150)	šušu
šušū (10-82)	šušu
šušu (10-215)	šušu
šušu (10-552)	šušu
šušu (10-670)	šušu

표 68 『원당』·『노당』의 šušu의 표기 유동

앞서 (45b)의 예와 마찬가지로 천총 연간 중반부터 유권점 š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모음 o/u의 구별을 나타내는 점은 송덕 원년부터 나타난다.

한편 만주어 문어 규범상 장모음형을 단모음형으로 바꿔 제시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어제청문감』에서 장모음 형태를 규범으로 제시하다가, 『어제증정청문감』에서 단모음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이다.

성백인(2000)에서 제시하는 예들 중에서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단모음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제청문감』에서는 이중모음 또는 장모음 형태가 나타나는 예를 정리하면 (46)과 같다.

- (46)
- | | | |
|-------------|---|-----------|
| 『어제청문감』 | → | 『어제증정청문감』 |
| a. eniyehen | | enihen |
| b. joolimbi | | jolimbi |
- (성백인, 2000: 85)

이중 (46a)는 발견되지 않고, (46b)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6회 발견되는데, 표기 양상은 아래 [표 69]와 같다. 『만문원당』의 청 태종조(1627~1636)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제청문감』(1708)보다 앞섰는데도 장모음 동사 어간인 jooli- 어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jolime (6-138)	jolime
jolimE (6-147)	jolime
joliCi (6-148)	jolici
jolirEngGe (6-148)	jolirengge
jolikini (6-148)	jolikini
joliki (6-232)	joliki

표 69 『원당』·『노당』의 jooli-/joli- 표기 유동

다만 다음의 사실을 감안하면 『어제청문감』에 jooli- 어형이 발견되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제청문감』 서문에는 이를 만든 목적으로 노인과 연장자들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제청문감』이 강희제의 명에 따라 편찬 준비에 들어간 시기가 1673년이므로 당시 노인과 연장자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어제청문감』에 반영된 표제어의 발음은 『만문원당』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시기의 만주어를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제청문감』에 『만문원당』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장모음 동사 어간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된

다.

한편 5번처럼 개입 자음 g가 탈락하는 현상은 앞서 성백인(1976)도 기술한 바 있다. 성백인(1976: 77~78)에 따르면, 『청문계몽』에서 ang, eng, ing 頭字의 g가 탈락하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47)과 같다.

(47)

-ga-, -ga	→ [a]
-go-, -go	→ [o]
-gū-, -gu, -gu-	→ [u]
-ge	→ [ɤ] 또는 [ə]
-gi	→ [i]
-giya	→ [ia] 또는 [ja]
-giye	→ [ie] 또는 [je]
-gan	→ [an]
-gen	→ [ən] 또는 [ɣn]
-gon, -gun, -guwen	→ [ən] 또는 [wən]
-gin, -giyen	→ [in]
-giyan	→ [ian], [jan] 또는 [jən]

『청문계몽』은 18세기 중엽의 만주어 문어를 다루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만문원당』에서도 개입 자음 g 탈락형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러한 g의 탈락 시기를 17세기 초반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만문원당』에서는 g 탈락형과 보존형이 모두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개입 자음 g의 탈락 현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만주어뿐만 아니라 통구스 제어에서도 발견된다. 朝克(1997: 44-45)은 통구스 제어에서 개입 자음 g가 탈락한 사례를 다음 [표 70]과 같이 제시한다.

통구스 제어	표기	발음	뜻
만주어	xagabuku	[xabukv]	‘捕魚具(어로기구)’
시버어	gəgən	[gəən]	‘活佛(활불)’
허전어 (나나이어)	oəogokto	[olooktə]	‘芦葦(갈대)’
어윙키어	jəgin	[jəin]	‘九(아홉)’
오로첸어	ɕʊgktu	[ɕuuktə]	‘蜜蜂(꿀벌)’

표 70 통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탈락 예 (朝克, 1997: 44-45)

또는 池上二良(2001: 412)은 통구스 제어에서 개입 자음 g이 반자음 w로 약화되는 현상을 관찰한다. [표 71]과 [표 72]를 보면, 오로치어에서는 어말 -n이 있는 형태가 발견되기도 하고 만주어에서는 개입 자음 g가 b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약화 현상이 지속되면 개입 자음 g가 탈락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구스 제어	‘端(끝)’
어윙키어(Ek)	dugə
네기달어(N)	duwə
우디허어(U)	duə
오로치어(Oc)	duwə(n)
나나이어(Nn)	duwə
올차어(Ol)	duwə(duə)
윙타어(Ut)	duwə
만주어(M)	dubə

표 71 통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약화 예 1 (池上二良, 2001: 412)

통구스 제어	‘내리다(おりる)’
어원어(E)	əw-
어윙키어(Ek)	əw-
솔론어(S)	əgɯ-
	əwɯ-
	ə'ū
네기달어(N)	əw-

우디허어(U)	əu-
오로치어(Oc)	əu-
나나이어(Nn)	əu-
올차어(Ol)	əwu-
윌타어(Ut)	əu-
만주어(M)	əbu-

표 72 통구스 제어의 개입자음 g 약화 예 2
(池上二良, 2001: 412)

3.1.2.3.2.2. 중국어 차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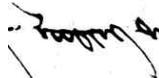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뜻
1	saHo <u>ioi</u> (6-475) 	ša ho i 	사하역(沙河驛)
2	ting ling <u>Hoo</u> (7-27) 	ting ling ho 	ting ling ho ⁷⁵⁾
3	<u>loo</u> Ting (7-27) 	lo ting 	락정(樂亭) ⁷⁶⁾

표 73 『원당』·『노당』의 중국어 차용어 장단모음 유동 사례

[표 73]은 『만문노당』에서는 단모음 형태가 나타나는데, 『만문원당』에서는 이중모음 또는 장모음 형태가 나타나는 예를 정리한 것이다. 1번에서는 驛자에 대해 『만문원당』은 ioi라고 적고 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75) 지명. 정류하집(汀流河集)(오늘날 하북성(河北省) 락정현(樂亭縣) 정류하진(汀流河鎮)으로 추정되는데 란주(灤州)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상 본문의 서술과 대략 일치하며 위치도 란주에서 락정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으나 발음이 한자어 ‘정류하’와 유사할 뿐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482)

76) 지명.

i로 표기하고 있다.

2~3번은 『만문원당』은 모두 운모를 oo로 쓰고 있는데, 『만문노당』은 o로 적고 있다. 이때 2번은 대응하는 한자음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발음과 뜻을 통해 볼 때 한자어로 추정된다.

한편 1~3번 모두 『만문원당』에서 위에 제시된 형태만 발견된다.

3.2. 형태·통사적인 특징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발견되는 형태·통사적인 변화는 크게 분사 어미를 중심으로 한 축약 변화와 통합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분사 어미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인 -ha에 존재 동사 bi가 서로 독립적인 단어로 병립하다가 정동사 어미 -habi로 결합하는 변화와 -ha와 상대 시제적 ‘비과거’ 시제인 -ra가 부정형 -akū와 결합하면서 한 단어로 축약되는 변화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⁷⁷⁾

통합어의 경우 udu udu가 ududu의 한 단어로 합쳐지거나 juwe nofi가 junefi의 한 단어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자는 통합형이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반면, 후자는 통합형이 『만문원당』에 나타나므로 통합형의 발생 시기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 단어마다 한 단어로 줄이기도 하고 이미 한 단어로 줄어든 어형을 다시 복원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77) 만주어의 문법 개념과 분류는 박상철(2017)을 따른다.

3.2.1. 형태적 특징

3.2.1.1. 형태소 경계 재분석

형태소 경계 재분석(morpheme boundary reanalysis)의 개별 예는 아래 [표 74]과 같다. 동사 어간 gida-에 결합한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인 -ha와 존재 동사 bi와 추측 첩사 dere가 『만문원당』에서는 독립된 두 개의 단어로 나뉘어져 있다가 『만문노당』에서는 -ha와 bi가 정동사 어미 -habi로 결합해 동사 어간 gida-에 붙고 dere가 독립된 단위로 따로 쓰였다.

또 『만문원당』에서는 동사 어간 donji-에 분사 어미 -ha가 붙고 부정형 akū에 명사화소 -ngge가 붙은 형태가 『만문노당』에서는 donji-ha-(a)kū-ngge로 한 단어로 모두 축약해 결합됐다.

이밖에 ‘여러, 많은’의 의미를 가진, udu udu가 ududu로 합쳐지기도 하고 역으로 ‘두 사람’이란 뜻의 junefi가 juwe nofi로 다시 분리되기도 하는 변화가 발견된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gidaha bidere (6-166)	gidahabi dere
2	donjiha akūngge (6-184)	donjihakūngge
3	emu dube i (6-213)	emdubei
4	udu udu (6-329)	ududu
5	junefi (7-49)	juwe nofi

표 74 『원당』과 『노당』의 단어 경계 축약 사례

3.2.1.1.1. 정동사 어미 -habi로의 결합

동사 어간 gida-에 결합한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인 -ha와 존재 동사 bi와 추측 첩사 dere가 『만문원당』에서는 독립된 두 개의 단어로 나뉘어져 있다가 『만문노당』에서는 -ha와 bi가 정동사 어미 -habi로 결합해 동사 어간 gida-에 붙고 dere가 독립된 단위로 따로 쓰였다.

(48)

- a. tere-i gama-ha aisin suje morin losa
they-GEN take-PST.PTCP gold silk horse mule
de dosi-fi
DAT enter-CVB
ala-ha-(a)kū gida-ha bi-dere,
tell-PST.PTCP-NEG hide-PST.PTCP be-PTCP,
- b. tere-i gama-ha aisin suje morin losa
they-GEN take-PST.PTCP gold silk horse mule
de dosi-fi
DAT enter-CVB
alaha-(a)kū gida-habi dere
tell-PST.PTCP-NEG hide-PRS.PRF⁷⁸⁾ PTL

그들이 가져간 금·비단·말·노새에 빠져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리라.

이 예문에서 보면 gida-ha bi-dere가 gida-habi dere로 재분석된 것을 볼 수 있다. 박상철(2017: 121~125)에 따르면, (b)의 -habi는 정동사 어미로서 종결형으로만 사용된다. -habi는 ‘결과 지속’과 ‘경험’의 용법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영어의 현재 완료 용법과 비슷하며 그 의미와 형태를 고려할 때 분사 어미 -ha와 존재동사 bi의 결합임이 확실하다. 이때 박상철(2017)은 -ha에 초점을 맞추면 과거 시제로, bi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 시제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과거형인 -ha bihe의 존재 때문에 -habi는 현재 시제로 분류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위의 예문은 “숨긴 것이리라”라고 해서 ‘숨긴 결과’를 추측하고 있으므로 ‘결과 지속’ 용법을 가진 현재 시제로 간주할 수 있다.

(a)의 gida-ha bi-dere를 살펴보면, “숨긴 것”으로 해석되므로 분사 어미 -ha의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 중에 ‘명사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제는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에 대응한다.

78) -habi의 문법 표지를 present perfect으로 간주하는 주석 방식은 도정업(2020)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박상철(2017)도 지적했듯이 “숨긴 것이리라”는 ‘숨긴 결과’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 어미 -ha가 존재 동사 bi와 결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정동사 어미 -habi의 형태로 재분석됐을 수 있다.

한편 『만문원당』에서 상대시제적 과거 시제 어미인 -ha와 존재 동사 bi의 결합이 추측 첨사 dere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ha와 bi의 독자적인 결합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gidaha bi와 gidahabi의 발생 빈도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75]와 같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분리형(-ha bi)	결합형(-habi)	분리형(-ha bi)	결합형(-habi)
2	4	0	6

표 75 『원당』과 『노당』의 -ha bi/-habi 분포

그런데 이때 『만문원당』의 분리형과 결합형은 시기별 차이를 보인다 ([표 76]). 즉 결합형은 모두 승덕 원년에 발견된다. 따라서 1630년대 전후인 천총 연간까지는 -ha와 bi가 결합되지 않고 분리된 형태만 존재하다가 승덕 원년인 1636년 전후로 결합형이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천총 2년 (6-166)	gidaha bidere	gidahabi dere
천총 5년 (7-410)	gidaha bi	gidahabi
승덕 원년 (10-443)	gidahabi	gidahabi
승덕 원년 (10-539)	gidahabi	gidahabi
승덕 원년 (10-540)	gidahabi	gidahabi
	gidahabi	gidahabi

표 76 『원당』과 『노당』의 -ha bi/habi 시기별 분포

3.2.1.1.2. 부정형과의 결합

『만문원당』에서는 동사 어간 donji-에 분사 어미 -ha가 붙고 부정형 akū에 명사화소 -ngge가 붙은 형태가 『만문노당』에서는 donji-ha-(a)kū-ngge로 한 단어로 모두 축약해 결합됐다.

『만문노당』에서 -ha와 부정사 akū가 결합한 어형(afahakū, bahakū)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만문원당』에서는 (49a)처럼 -ha와 부정사 akū가 결합하기 이전의 원형 상태 -ha akū가 발견된다.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49b)처럼 -hakū-의 결합형이 나타난다.

(49)

a. hese be donji-ha akū-ngge,
edict ACC listen-PST.PTCP NEG-NMLZ

b. hese be donji-ha-(a)kū-ngge,
edict ACC listen-PST.PTCP-NEG-NMLZ

듣지 않은 것이 없다.

-ha가 쓰이고 있으므로 발화 시점 기준의 과거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한 것이 『만문원당』에서는 분사 어미 -ha와 부정사 akū가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만문노당』에서도 이는 분사 어미 -ha와 부정사 akū의 결합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문원당』 당시까지만 해도 완전히 결합되지 않고 합쳐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만문노당』에 이르러 완전히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분사 어미 -ra/re/ro의 경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모두 -ra akū의 형태가 1번, -re akū의 형태가 3회 발견된다. (50)처럼 -ra akū의 경우, 분사 어미와 부정사가 결합한 의미가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서 akū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분사 어미와 부정형이 결합되는 예로 볼 수 없다.

(50)

karacin de yadara akū de tuwa-me gene-he
karacin DAT poor not DAT look-CVB go-PST.PTCP

turusi,

turusi,

omoktu, udahai, sulhio, sirin, buyan, ilemu, bayan baturu

omoktu, udahai, sulhio, sirin, buyan, ilemu, bayan baturu

isinji-ha,

arrive-PST.PTCP

카라친에 빈궁한지 아닌지를 살피러 갔던 투루시·오목투·우다하이·술시오·

시린·부얀·일러무 바얀 바투루가 도착했다. (『만문노당』 천총 45:19b)

-re akū의 경우,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 어미와 부정형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예가 1회 발견된다. -re akū의 형태는 bisire akū가 5회, becere akū가 1회 나타나지만,⁷⁹⁾ 이 경우에도 bisire akū는 “있는지 없는지를”, “있고 없는 것” 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회 나타난 becere akū만 “꾸짖지 않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문노당』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 어미와 부정형은 결합형이 분리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51)

ere gisun be si uthai fafungga cin wang be
this word ACC you at.once fafungga cin wang ACC

too-re bece-re akū

abuse-NPST.PTCP scold-NPST.PTCP not

han de wesim-bu-r(a)-akū,

emperor DAT present-CAS-NPST.PTCP-not

이 말에 대해 너는 즉시 파풍가 친왕을 욕하거나 꾸짖지 않고 황제께 상주하지 않았다. (『만문노당』 승덕 24:14b)

79) bisire akū(노당 천총 6:18a/천총 9:11b/천총 13:6b/승덕 11:13a/승덕 28:16a), becere akū(노당 승덕 24:14b)

한편 동사 어간에 분사 어미 -ha/-ra와 부정형 akū, 명사화소 -ngge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만문원당』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39개 사례 중에 위의 1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한 단어로 결합해 출현한다.

동사 어간 donji-에 분사 어미 -ha가 결합한 donjiha-와 부정형 akū의 결합 양상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77]). 총 10개 사례 중에 -ha와 akū 분리형은 3회 나타나고 결합형이 7회 나타난다.

『만문원당』	
분리형(donjiha akū)	결합형(donjihakū)
3	7

표 77 『원당』의 donjiha akū/donjihakū 분포

[표 78]에서 분리형이 나타난 시기를 살펴보면, 천총 2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만문원당』	『만문노당』
천총 원년 (6-12)	donjihakū	donjihakū
천총 원년 (6-64)	donjihakū	donjihakū
천총 2년 (6-184)	donjiha akūngge	donjihakūngge
천총 2년 (6-204)	donjiha akū	donjihakū
천총 2년 (6-214)	donjiha akū akūn	donjihakūn
천총 5년 (7-423)	donjihakū	donjihakū
천총 6년 (8-223)	donjihakū	donjihakū
승덕 원년 (10-14)	donjihakū	donjihak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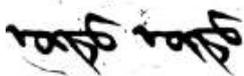
송덕 원년 (10-244)	donjihakū	donjihakū
송덕 원년 (10-504)	donjihakūbio	donjihakūbio

표 78 『원당』·『노당』의 donjiha akū/donjihakū의 시기별 분포

3.2.1.1.3. 통합

『만문원당』에서 udu udu⁸⁰)로 나타나는 어형이 『만문노당』에서는 ududu로 통합(merge)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됐다.⁸¹⁾ 도정엽(2015: 8)은 『만문노당』과 『만주실록』을 비교하면서 『만문노당』에서는 udu udu로 나타나는데 청 태조조 『만주실록』에서는 『만문원당』과 마찬가지로 ududu의 형태로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만주실록』이 건륭대에 편찬됐지만 초기 만주어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기존 학계의 관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선민(2012: 166)도 『구만주당』과 『만주실록』에서 ūdu ūdu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태조무황제실록』과 『만문노당』에서는 ūdudu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해 정리하고 있다.

『만문원당』에서 udu udu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총 12회 중에 분리형이 8회 출현하고 통합형이 4번 출현한다([표 79]).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다([표 80]).



(6-8)

80) 본고의 무권점자 원칙에 따른 전자 표기는 ÜD_{2u} ÜD_{2u}이다.

81) 완전 중첩(complete reduplica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만문원당』	
분리형(udu udu)	통합형(ududu)
8	4

표 79 『원당』의 udu udu/ududu 분포

	『만문원당』	『만문노당』
6-8	udu udu	ududu
6-19	udu udu	ududu
6-133	ududu	ududu
6-285	udu udu	ududu
6-329	udu udu	ududu
6-378	udu udu	ududu
8-187	ududu	ududu
8-258	ududu	ududu
10-54	udu udu	ududu
10-55	udu udu	ududu
10-57	ududu	ududu
10-175	udu udu	ududu

표 80 『원당』·『노당』의 udu udu/ududu의 시기별 분포

또한 (52)처럼 삼전도비(1639)에서도 ududu 형태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통합형이 17세기 초중반부터 활발히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52)

ududu minggan bai niyalma

數 千 리리의 사람

(성백인, 1970: 134)

조선 시대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초보적인 만주어 학습서로 정조 1년(1777)에 개간된 것으로 알려진 『팔세아(八歲兒)』⁸²⁾에서도 (53)처럼 ududu 형태가 발견된다.

82) 김민수(1956), 조규태(1981) 참조.

(53)

ududu

우두두

(팔세아 2:3)

역방향의 변화도 발견된다. 『만문원당』에서 junefi로 한 단어로 통합된 어형이 『만문노당』에서는 juwe nofi로 복원되어 나타난다. juwe nofi가 junefi로 합쳐진 이유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빠른 발음에 따른 축약으로 보인다.

『만문원당』에서 junefi⁸³⁾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총 24회 중에 통합형이 10회 출현하고, 분리형이 14회 출현한다([표 81]).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승덕 원년에 juwe nofi를 juwe nefi로 쓴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junefi를 juwe nofi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표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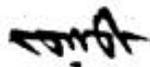
『만문원당』

통합형(junefi)	분리형(juwe nofi)
10	14

표 81 『원당』의 junefi/juwe nofi 분포

	『만문원당』	『만문노당』
6-34	junefi	juwe nofi
6-210	juwe nofi	juwe nofi
7-49	junefi	juwe nofi
7-140	juwe nofi	juwe nofi
7-203	juwe nofi	juwe nofi

83) 무권점자와 유권점자 형태가 모두 발견된다. 무권점자의 경우, 본고의 무권점 전자 원칙에 따른 표기는 junEBi이다.



(6-34)

84) juwe nofi를 juwenefi로 한 단어로 연결해 쓴 형태도 발견된다.

8-33	juwe nofi	juwe nofi
8-70	junefi	juwe nofi
8-71	junefi	juwe nofi
8-88	junefi	juwe nofi
8-141	juwe nofi	juwe nofi
8-265	juwe nofi	juwe nofi
10-97	junefi	juwe nofi
10-98	junefi	juwe nofi
10-99	junefi	juwe nofi
10-170	juwe nofi	juwe nofi
10-229	junefi	juwe nofi
10-230	juwe nofi	juwe nofi
10-381	juwe nofi	juwe nofi
10-588	juwe nofi	juwe nofi
10-593	juwe nofi	juwe nofi
	juwenefi ⁸⁴⁾	juwe nofi
10-599	juwe nefi ⁸⁵⁾	juwe nofi
10-664	junefi	juwe nofi
10-673	juwe nefi	juwe nofi

표 82 『원당』·『노당』의 junefi/juwe nofi의 시기별 분포

한편 이밖에도 安双成(1999: 179-182)는 만주어에서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54)
- | | | |
|----------|---|---------------|
| handucun | < | handu i ucun |
| mukelu | < | muke i elu |
| fergetun | < | ferge i tetun |

(10-593)

85) nofi를 nefi로 쓴 형태도 발견된다.

(10-599)

juletun	<	julgei tetun
yarusuh	<	yarure gisun
dekdenggi	<	dekdere nimenggi
fursun	<	fusure arsun
teksilgan	<	teksin jilgan
jursu	<	juwe ursu
ilarsu	<	ilan ursu
uyursu	<	uyun ursu
culasun	<	cuse mailasun
matan	<	mase šatan
tumehe ilha	<	tumen gefehe ilha
mukdan moo	<	muke i jakdan moo
golcehen coko	<	golmin uncehen coko
gūlhi wehe cinuhūn	<	gūlmahūn fehi wehe cinuhūn

3.2.1.2. 접미사

복수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의 양상도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차이를 보인다([표 83]).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ninju hiya (8-36)	ninju hiyase
2	muteburakū (8-432)	muterakū

표 83 『원당』·『노당』의 접미사 유동 사례

먼저 복수 접미사 -se를 살펴보면, 1번에서 『만문원당』에서는 tonggo juwe tanggū ninju hiya로 나온 단어가 『만문노당』에서는 tonggo juwe tanggū ninju hiyase로 나온다. 이는 ‘합사(合絲) 260얼레’⁸⁶⁾ 정도로 해석

8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714)에서는 이를 ‘합사(合絲) 260 갑자(匣子)’로 번역하고 있는데, hiya는 Norman(2013)에서도 실(tonggo)을 감는 ‘얼레(reel)’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단위 명사를 ‘작은 상자’를 뜻하는 ‘갑자’로 번역하기보다는 ‘얼레’라고 번역하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할 수 있다. 『한청문감』을 보면 hiya가 실에 대한 단위 명사로 사용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한청문감』에서는 hiya가 ‘테 짓는 어레’로 나타나며 hiyase는 ‘십승들이스말(板斗)’이다.

2번에서는 사동 접미사 -bu-87)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만문원당』에서는 jasei hafasa inu akdulame acabume muteburakū로 나온 문구가 『만문노당』에서는 jasei hafasa inu akdulame acabume muterakū로 나온다. 이는 ‘변경의 관원들 또한 확실히 화친할 수 없으니’의 뜻이다. 『만문원당』에서는 ‘만나다’를 나타내는 동사 어간 aca-에도 사동 접미사 -bu가 붙고, ‘~할 수 없다’를 나타내는 muterakū에도 사동 접미사 -bu가 결합하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aca-에만 -bu가 붙고 muterakū에는 -bu-를 붙이지 않고 있다. 해석은 엄밀히 직역하면, 『만문원당』은 ‘만나게 할 수 있게 할 수 없으니’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만문노당』과 동일하게 ‘만나게 할 수 없으니’가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복되는 문법을 단순화해 표현하는 운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3.2.2. 통사적 특징

3.2.2.1. 어순 변화

3.2.2.1.1. 구 단위

청 태종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통사적 어순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 [표 84]와 같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waka uru (6-377)	uru waka
2	tucike sasa (8-105)	sasa tucike
3	icu i fisa (10-116)	fisa i icu

87) 만주어는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bu-로 동일하다(Gorelova, 2002: 248~249).

4	nikan i geren (10-327)	geren nikan
5	bithei narhūn (10-635)	narhūn bithei
6	suje jakūta (8-380)	jakūta suje
7	miyanceo juwanta (8-380)	juwanta miyanceo
8	mocin susaita (8-380)	susaita mocin

표 84 『원당』·『노당』의 어순 뒤바뀜 사례

1번의 사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5a)는 『만문원당』의 사례이고 (55b)는 『만문노당』의 사례이다.

(55)

- a. weile i waka uru be tuwame membe urušefi,
 - b. weile i uru waka be tuwame membe urušefi,
- 일의 옳고 그름을 보아 우리를 옳다 하여

『만문원당』에서는 “그림과 옳음(waka uru)”로 나온 것이 『만문노당』에서는 “옳음과 그림(uru waka)”로 나오고 있으므로 단순한 어순 뒤바뀜에 해당한다.

2번의 사례는 (56a)는 『만문원당』의 사례이고 (56b)는 『만문노당』의 사례이다.

(56)

- a. han i tucike sasa jakūn gūsai beise meni meni giyoocan de tucifi
 - b. han i sasa tucike jakūn gūsai beise, meni meni giyoocan de tucifi
- 한과 함께 나간 팔기의 버일러들은 각각 연병장에 나가서

(56a)의 예문은 (57)처럼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tucike의 -ke를 과거시제 분사어미로 분류했지만, ‘한과 나감과 함께(han i tucike sasa)’라는 동명사 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만문노당』에서는

(56b)처럼 ‘한과 함께 나간(han i sasa tucike)’이란 관형절로 보다 자연스러운 어순을 나타내고 있다.

(57)

han	i ⁸⁸⁾	tuci-ke	sasa	jakūn
emperor	GEN	come.out-PST.PTCP	with	eight
gūsa-i		beise		
banner-GEN		prince		

3번의 사례는 (58)의 예문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어순 뒤바뀜으로 볼 수 있다.

(58)

- a. sekei icu i fisa emke,
 - b. sekei fisa i icu emke,
- 초피의 등 가죽재료 1장,

(59)

seke-i	icu	i	fisa	emke
sable.pelt-GEN	fur.coat	GEN	back	one

icu는 ‘가죽재료’이고 fisa는 ‘등’인데, 『만문원당』에서는 (58a)처럼 ‘초피의 가죽재료의 등(sekei icu i fisa)’으로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58b)처럼 ‘초피의 등의 가죽재료(sekei fisa i icu)’로 나와있다. 여기에서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중초되면서 icu i fisa가 fisa i icu로 icu와 fisa의 위치가 뒤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뜻을 살펴보면, 『만문노당』의 어순이 뜻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만주어 어법에 맞도록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중초될 때 교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8) 이때 속격 어미 i는 주어적 속격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중세 국어와 몽골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모두 소유격 어미 *i*가 ‘초피(seke)’에도 붙어있고 ‘가족재료(icu)’ 또는 ‘등(fisa)’에도 붙어있는 구조가 눈길을 끈다. (58a,b)에서는 (59)의 형태소 분석에서 보듯이 소유격 어미가 두 차례 나타나고 있다. 수식하는 명사구마다 모두 소유격 어미가 붙은 것이다.⁸⁹⁾ 이는 ‘초피(seke icu)’, ‘족제비 가족재료(solohi icu)’와 같은 단어가 명사구 내 소유격 어미 없이 나타나는 것과 다른 면모이다.⁹⁰⁾ 이를 통해 볼 때, ‘초피’와 ‘족제비 가족재료’는 합성명사화됐지만, (58)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주어 합성명사에서 나타나는 소유격 어미 *i*의 양상은 심화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⁹¹⁾ 한편 (58a)의 해석은 ‘초피의 가족재료의 등’과 같은 해석이 되는데, 이를 만주어 어법상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만문노당』에서는 (58b)처럼 ‘초피의 등의 가족재료’로 *icu*와 *fisa*의 위치를 뒤바꾼 것으로 보인다.

4번 사례인 (60)의 예문도 단순한 어순 뒤바뀜이다. ‘여러(geren)’라는 형용사가 『만문원당』에서는 ‘관원들(hafasa)’만을 수식하고 ‘한인(nikan)’은 ‘여러 관원들(geren hafasa)’을 앞에서 수식해서 ‘한인인 여러 관원들(nikan i geren hafasa)’이란 뜻으로 만들어주지만, 『만문노당』에서는 *geren*이 ‘한인 관원들(nikan hafasa)’로 합성명사가 된 것을 한꺼번에 앞에서 수식한다.

89) (58a)에서 *icu i fisa*라는 명사구를 ‘등의 가족재료’로 해석하려면 소유격 어미 *i*가 전치사로 쓰여 *fisa*가 선행하는 *icu*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만주어 어법에 어긋난다.

90) 반면에 ‘회서피(灰鼠皮, 청설모 가죽) 가족재료’는 *ulhu i icu*로 명사구 내 소유격 어미 *i*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초피’와 ‘족제비 가족재료’는 합성명사화됐지만 ‘회서피 가족재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1) 천총 원년 1월 기사(6-3)를 보면, ‘문무 관원들’을 뜻하는 단어가 『만문원당』에서는 *bithe_i cooha hafasa*로 나오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bithe coohai hafasa*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유격 어미 *i*가 『만문원당』에서는 *bithe*에 붙어있다가 『만문노당』에서는 *cooha*로 옮겨가는데, 이는 『만문노당』에서는 ‘문무(*bithe cooha*)’란 명사구가 합성명사화됐기 때문에 명사구 내에 있던 소유격 어미 *i*가 명사구 밖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0)

- a. terei sirame amban janggin ši ting ju nikan i geren hafasa be gaifi
- b. terei sirame amban janggin ši ting ju geren nikan hafasa be gaifi,
그 뒤를 이어 암바 장긴 石廷柱가 여러 한인 관원들을 이끌고

5번 사례인 (61)의 예문은 『만문원당』의 속격 ‘i’가 있는 그대로 소유격 어미 ‘의’처럼 쓰인 예로 보인다. 이를 분석한 구조는 (62)과 같다. ‘비밀 문서를 관할하는 곳’을 의미하는 ‘비서원(秘書院)’을 『만문원당』에서는 (62a)처럼 ‘book’s secret government office’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62b)처럼 ‘secret book’s government office’로 나타내고 있다.

(61)

- a. bithei narhūn yamun i bithei da fan wen ceng
- b. narhūn bithei yamun i bithei da fan wen ceng,
秘書院 大學士 范文程

(62)

- a. bithe-i narhūn yamun
book-GEN secret government.office
- b. narhūn bithe-i yamun
secret book-GEN government.office

6~8번은 모두 명사와 수량사의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비단 8필씩’, ‘면주(綿紬) 10필씩’, ‘모청포(毛靑布) 50필씩’으로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8필씩의 비단’, ‘10필씩의 면주’, ‘50필씩의 모청포’라고 나와 있다.

3.2.2.1.2. 절 단위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jase i hūlhara hoton be afafi gaiha, (6-325)	jase i hoton be hūlhame afafi gaiha,
2	juwe kukuri arki gajime emu morin, (7-353)	juwe kukuri arki emu morin gajime,
3	ninggun jurgan i ambasai baru hendume, (8-357)	ninggun jurgan de afabuha ambasai baru hendume,
4	ere ilan nofi han de bithe wesimbume (8-428)	ere ilan nofi han de wesimbuhe bithei gisun,

표 85 『원당』·『노당』의 절 단위 어순 변화 사례

[표 85]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절 단위의 어순 변화를 보이는 예를 정리한 것이다.

1번의 예문의 경우, 『만문원당』에서는 ‘경계의 빼앗을 성을 공격하여 취했습니다’로 나오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경계의 성(城)을 빼앗고 자 공격하여 취했습니다’⁹²⁾로 나온다. ‘빼앗다(hūlha-)’라는 동사를 명사 ‘성’을 수식하는 명사구 위치에서 부동사 어미 -me를 활용한 동사구 표현으로 바꿨다.

2번은 『만문원당』은 emu morin의 위치가 동사 gajime 뒤에 와서 ‘2개의 편병의 소주 가져오고, 1마리 말,’로 ‘1마리 말’을 취하는 동사가 생략된 어색한 구조의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장이 자연스러우려면 ‘2개의 편병의 소주 가져오고, 1마리 말 가져오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만문노당』은 ‘2개의 편병의 소주·1마리 말을 가져오고’로 나와있다. 따라서 『만문노당』으로의 통사 변화는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운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92) 이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395)을 따른 것으로 ‘빼앗고자(hūlha-)’를 Norman(2013)의 두 번째 뜻인 ‘몰래 움직여-(to act secretly)’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만문노당』의 해석은 ‘경계의 성을 몰래 움직여 공격하여 취했습니다’가 되는데 『만문원당』에는 뜻을 적용하기 어렵다.

3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육부(六部)의 대신들을 향해 말하기를’로 나와 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육부에 (일을) 위임한 대신들을 향해 말하기를’로 나와 있다. 『만문노당』에는 ‘(일을) 위임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인데 율문 차원으로 보인다.

4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이 3명이 한에게 글 상주하며’로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이 3명이 한에게 올린 글의 말’로 나온다. 역시 율문 차원의 변화로 보인다.

3.2.2.2. 격 어미

[표 86]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격 어미 표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tere (7-115)	tede
2	jurán i ilifi tuwa, (7-458)	jurán de ilifi tuwa,
3	juse hehe ai jaka be ume faksalara, (8-412)	juse hehe ai jaka ci ume faksalara,
4	gulu fulgiyan de ice cahar i olji, (10-344)	gulu fulgiyan i ice cahar i olji,

표 86 『원당』·『노당』의 격 어미 표지가 다른 사례

『만문노당』이 『만문원당』보다 만주어 격 어미에 더 적합하게 격어미를 표현한 경우가 더러 발견된다. 1번의 경우, 『만문원당』이 tere ‘그’로서 주격으로 표현한 것을 『만문노당』에서는 tede ‘그에게’라고 ‘그’의 여격 형태를 살려 나타냈다. 이 단어가 쓰인 『만문노당』의 문장은 tede ilan yan menggun šangnaha ‘그에게 3兩銀을 상 내렸다’이므로 주격 ‘그’보다는 여격 ‘그에게’로 표현해야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된다.

2번의 경우, ‘출발하는 것처럼 서서 보아라’라는 뜻인데, ‘출발하는 것처럼’ 문구를 직역하면 『만문원당』에서는 juran i ‘출발하는 곳의’로 나와 있고, 『만문노당』에서는 juran de ‘출발하는 곳에서’로 나와 있다. 『만문노당』의 표현이 만주어 문법에 더 적합하다.

3번의 경우, ‘자식들과 여자들, 어떤 물건으로부터도 갈라놓지 말라’인데, ‘어떤 물건으로부터도’ 문구를 보면 『만문원당』은 ai jaka be ‘어떤 물건을’로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ai jaka ci ‘어떤 물건으로부터’로 나와있다. 『만문노당』의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에 가깝다.

4번의 경우, ‘정홍(正紅)의 새로운 차하르의 노획은’은 ‘정홍의’ 부분이 『만문원당』에서는 여격 어미 ‘~에’를 써서 ‘정홍에’로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속격 어미 ‘~의’를 써서 ‘정홍의’로 나온다. 『만문원당』의 여격 표현은 보다 구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만문노당』의 표현이 더 적합하다.

3.2.2.3. 시제 및 양상

[표 87]에서처럼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이 같은 문장의 시제와 양상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발견된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dai ding juwe han i enduri soorin de juktembi, (6-375)	dai ding juwe han i enduri soorin de jukteme,
2	bi abkai hesei irgen be ergembure, (7-11)	bi, abkai hesei irgen be ergembume,
3	ere ilan jurgan i niyalma suwe yabuha joboho seme beye ume sengguwende, (7-200)	ere ilan jurgan i niyalma suwe yabuha joboho seme beye ume sengguwendere,
4	simbe weihun de faitarame yali be jefi, (7-427)	simbe weihun de faitarame yali be jembihe,
5	hafan hergen be alici teten, (10-368)	hafan hergen be alici tetendere,
6	baihū de sargan emte bufi, (10-553)	baihū de sargan emte buhe,

표 87 『원당』·『노당』의 시제 및 양상 차이 사례

1번은 『만문원당』에서는 동사 juktembi가 쓰여서 ‘대정(大定) 두 한(汗)의 신위(神位)에 제사지냅니다’로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동사가 jukteme로 동사 어간 jukte-에 부동사 어미 -me로 연결되어 있다.

2번은 『만문원당』은 상대시제적 비과거 시제 어미인 -re가 쓰여서 ‘나는 천명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문노당』은 ‘나는 천명(天命)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로 해석된다. 박상철(2016: 49)에 따르면, -re는 종결어미로 쓰일 때 1인칭 문장에서만 나타나며 ‘의도 (또는 약속)’의 양태의 의미를 가진다.

3번은 ‘이 세 부서의 사람들 너희는 행하는 일이 괴롭다고 몸을 사리지 말라’로 해석되는데, 『만문원당』은 2인칭 금지문과 쓰이는데도 ‘사리다(sengguwende-)’의 동사 원형만이 오고 있어 문법에 위배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만주어 문법에 따라 2인칭에 나타나는 -re가 반드시 ume ‘~지 말라’의 금지문과 함께 쓰인다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박상철, 2016: 49).

4번은 『만문원당』에서는 ‘너를 산 채로 잘라서 고기를 먹고’로 동사 어간 je-에 부동사 어미 -fi가 쓰여 서술어가 ‘먹고’ 또는 ‘먹어서’ 정도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너를 산 채로 잘라서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로 비완망상 과거 종결 어미 -mbihe가 쓰여 ‘먹었을 것이다’라는 뜻의 jembihe가 쓰인다.

5번은 추측 첩사 dere가 『만문원당』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에, 『만문노당』엔 나타나고 있다. 해석은 ‘관직(官職)을 받았으니 됐다’이다.

6번은 『만문원당』에서는 ‘바이후에게 아내 1명씩을 주고’로 동사 어간 bu-에 부동사 어미 -fi가 쓰인 bufi로 해석됐지만, 『만문노당』에서는 상대시제적 과거 시제 어미 -he가 와서 buhe라고 나와있다.

3.3. 어휘적 특징

3.3.1. 일반 어휘

[표 88]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일반 어휘를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suwayan ulgiyan aniya (6-6)	sohon ulgiyan aniya
2	golo be gemu gajiha, (8-90)	golo be gemu gaiha,
3	kubuhe fulgiyan i liyeliyehun be guwebuhe turgun, (8-109)	gulu fulgiyan i liyeliyehun be guwebuhe turgun,
4	sira muren i bira de indehe, (8-142)	sira muren i bira de deduhe,
5	an i burengge be ilan ubu sindafi juwe ubu be buhe, (8-356)	an i burengge be, ilan ubu jafafi juwe ubu be buhe,
6	tere gisun be han de hoto hiya wesimbuhe manggi, (8-370)	han de hoto hiya alaha manggi,
7	han de wesimbuhe fonjime, (8-377)	han de takūrame fonjime,
8	uttu oci sain seme toktohuha, (8-377)	ere uttu sain seme toktohuha,
9	hese akū tuwa ume dabure, (8-412~413)	gisun akū tuwa ume dabure,
10	dahaha niyalmai ai jaka be gaici, (8-414)	dahaha niyalmai aika jaka be gaici,
11	omoci de, (10-1)	juwan emuci de,
12	fulin bici, (10-16)	fulingga bici,
13	tere aniya osohon beyei ulha i jalin amsun be dagilafi (10-294)	tere aniya osohon beyei weile i jalin amsun be dagilafi

14	tumet dai niyalma (10-332)	tumet i niyalma
15	jugūn de buya coohai niyalmai bahangge be ergeleme seoleme gaifi (10-477)	jugūn de buya coohai niyalmai bahangge be ergeleme suweleme gaifi
16	urunakū niyaman i hese eyute nota sargan juse bi, (10-620)	urunakū niyaman i hanci eyute nota sargan juse bi,

표 88 『원당』·『노당』의 일반 어휘 차이 사례

1번은 『만문원당』에서는 suwayan ulgiyan aniya로서 무해년(戊亥年)으로 나와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기해년(己亥年, 1599)으로 나와있다..

2번은 ‘지역을 모두 취했다’는 뜻인데, 『만문원당』에서는 동사 gaji-가 쓰이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동사 gai-가 쓰이고 있다.

3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양홍기’(鑲紅旗)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정홍기’(正紅旗)의 리열리여훈을 면해준 이유’로 정홍기로 나와있다.

4번은 ‘시라 무렌 강(江)에서 묵었다’로 해석되는데 동사 ‘묵다’에 대해 『만문원당』은 inde-를 쓰고 있고, 『만문노당』은 dedu-를 쓰고 있다.

5번은 ‘상례(常例)로 주는 것을 3분(分)으로 잡아’로 해석되는데, ‘3분으로 잡아’라는 부분에서 『만문원당』은 동사 sinda- ‘놓다’를 쓰고 있는데, 『만문노당』은 동사 jafa- ‘잡다’를 쓰고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ubu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있다.

6번은 『만문원당』도 『만문노당』과 동일했으나 좌측 행간에 tere gisun be를 적어넣고 동사 alaha에 동그라미를 치고 wesimbuhe로 고쳐 써넣고 있다. 해석은 『만문원당』은 ‘그 말을 한에게 호토 히야가 상주한 후에’가 되고, 『만문노당』은 ‘한에게 호토 히야가 고하니’가 된다.

7번은 『만문원당』은 ‘한에게 상주하여 묻기를’로 풀이되는데, 『만문노당』은 ‘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로 해석된다.

8번은 『만문원당』은 “이렇게 되면 좋다”라고 정했었다’로 해석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이것이 좋다”라고 정했었다’로 해석된다.

9번은 『만문원당』은 ‘지(旨) 없이 불을 피우지 말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명령 없이 불을 피우지 말라’로 해석된다. 즉 『만문원당』은 gisun ‘명령’ 부분을 hese ‘지(旨)’로 더 높여쓰고 있지만, 『만문노당』은 이러한 높임이 없다.

10번은 『만문원당』의 문장은 ‘행복한 사람의 무슨 물건을 취하면’ 정도로 해석 가능한 반면에, 『만문노당』은 ‘행복한 사람의 어떠한 물건을 취하면’으로 해석된다. 『만문원당』은 aika ‘어떠한’ 단어를 ai ‘무슨’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11번은 『만문원당』에서는 ‘열한 번째로’로 나오는 숫자가 omo로 나오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juwan emu ‘11’로 나온다. omo의 사전적 의미는 ‘호수’이지만 이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굳이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찾자면 ‘11월’을 뜻하는 omšon biya의 omšon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번은 ‘천명(天命)이 있으면’의 뜻인데 『만문원당』에서는 fulin ‘천명’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fulin에 명사화소 -ngga가 붙은 fulingga가 쓰이고 있다.

13번의 경우, 『만문원당』은 ‘모년생(某年生)의 미천한 저의 가축을 위해 공물(供物)을 준비하고’로 해석되는데, 『만문노당』은 ‘모년생의 미천한 저의 일 때문에 공물을 준비하고’로 해석된다. 즉 『만문원당』은 beyei weile ‘저의 일’ 부분을 beyei ulha ‘저의 가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14번은 『만문원당』은 ‘투메트의 대(大) 사람’으로 나와있는데, 『만문노당』은 ‘투메트의 사람’으로 나와있다. 『만문원당』의 dai는 한자 大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15번은 『만문원당』은 ‘길에서 하찮은 병사가 얻은 것을 강제로 모아서 취해서’로 해석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길에서 하찮은 병사가 얻은 것을 강제로 뒤져 취해서’로 해석된다. 즉 『만문원당』은 동사 ‘뒤지다 (suwele-)’가 쓰인 부분에 ‘모으다(seole-)’를 쓰고 있다.

16번은 『만문원당』은 ‘반드시 친척의 인연인 가까운 자매들·딸들이 있다’로 해석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반드시 친척의 가까운 자매들·딸들이 있다’로 해석된다. 즉 『만문원당』은 hanci ‘가까운’ 부분에 hese ‘운명의’를 쓰고 있다.

3.3.2. 인명 및 지명

[표 89]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에서 인명과 지명이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No.	『만문원당』	『만문노당』
1	jasak jin darhan joriktu (10-144)	jasak i darhan joriktu
2	jasak ca darhan daicing (10-144)	jasak i darhan daicing
3	jeje (10-317)	borjigit hala
4	hairanju (10-319)	borjigit hala
5	nam jung (10-320)	borjigit hala
6	bombutai (10-323)	borjigit hala
7	baduma dzoo (10-322)	abagai bodisai cūhur tabunang ni sargan jui,
8	de šeng k’uu (10-406)	de šeng pu
9	men il (10-507)	men ši k’o

표 89 『원당』·『노당』의 인명 차이 사례

1~2번에서 『만문원당』은 ‘자삭인 금(jin) 다른 조릭투’와 ‘자삭인 차(ca) 다른 다이칭’으로 나와있는데, 『만문노당』은 ‘자삭인 다른 조릭투’와 ‘자삭인 다른 다이칭’으로 나와있다. 이때 『만문원당』의 ‘금(jin)’과 ‘차(ca)’는 한자어로 인명의 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6번은 『만문원당』에는 개별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은 모두 borjigit hala ‘보르지기트 씨’로 적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1857)에 따르면, 『만문노당』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원래 기록한 국군(國君) 푸진의 이름을 지우고 성만 적었다.

7번은 『만문원당』에는 구체적인 인명이 나타나는데, 『만문노당』에서는 ‘아바가의 보디사이 추후르 타부낭의 딸’로 나와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1865)에 따르면, 원래 기록됐던 숙(淑)푸진인 강혜숙비(康惠淑妃) 보르지기트씨 바트마 조오(?~1670)를 가리킨다.

8번은 지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만문원당』에서는 그 앞의 내용에 나오던 ‘득승구(得勝口)’로 적고 있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득승보(得勝堡)’로 나온다.

9번은 인명인데, 『만문원당』에서는 ‘문일’로 나오는데, 『만문노당』에서는 ‘문세과(門世科)’로 나온다.

제 4 장 조선 관련 기사 개수 분석⁹³⁾

4.1. 개수의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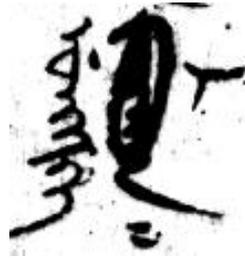
『만문원당』의 개수 시점을 알려주는 근거는 쓰여진 문자의 권점 유무를 보면 알 수 있다. 『만문원당』이 무권점 만문과 무권점 만문에서 유권점 만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만문이 혼재되어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고 해당 기사의 상대적인 선후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일부 개수 사례를 보면, 단순히 무권점자로 쓰여졌다고 유권점자로 쓰인 기사보다 더 예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근거도 발견되므로 개수 시점 추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기사에 수정되거나 추가된 단어를 보면, 원래 기사가 무권점 문자나 과도기적 만문으로 적힌 데 반해 개수된 단어는 유권점 만문으로 적힌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다음의 『만문원당』 기사에서 unggihe가 아래에서처럼 무권점 만문([표 90]의 왼쪽 그림(원당 6-51))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단어를 지우고 고쳐쓴 개수된 단어는 권점이 있는 유권점 만문([표 90]의 오른쪽 그림(원당 6-64))으로 나타난다.

93) 이는 3장에서 제시한 예들과 다르다. 3장의 경우, 『만문원당』의 기술이 『만문노당』과 다른 사례들을 모은 것인 반면에, 4장의 경우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기술이 동일한데, 『만문원당』에 개수를 가해 결과적으로 『만문노당』에 일치하게 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원당 6-51



원당 6-64

표 90 『원당』의 ungihe 개수 표기 차이

또한 ‘경기연 한(genggiyen han)’을 ‘태조(taidzu)’라는 묘호로 개수([그림 2])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수 시점이 누르하치 사후에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taidzu(원당
8-223)

그러나 위의 예만으로 개수 시점 후대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개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됐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한 페이지 안에서도 완전한 유권점자와 무권점자, 과도기적 글자가 개수된 글자에 혼재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문원당』 천총 원년 5월 초아흐레 기사([그림 3])를 보면, 세 군데가 개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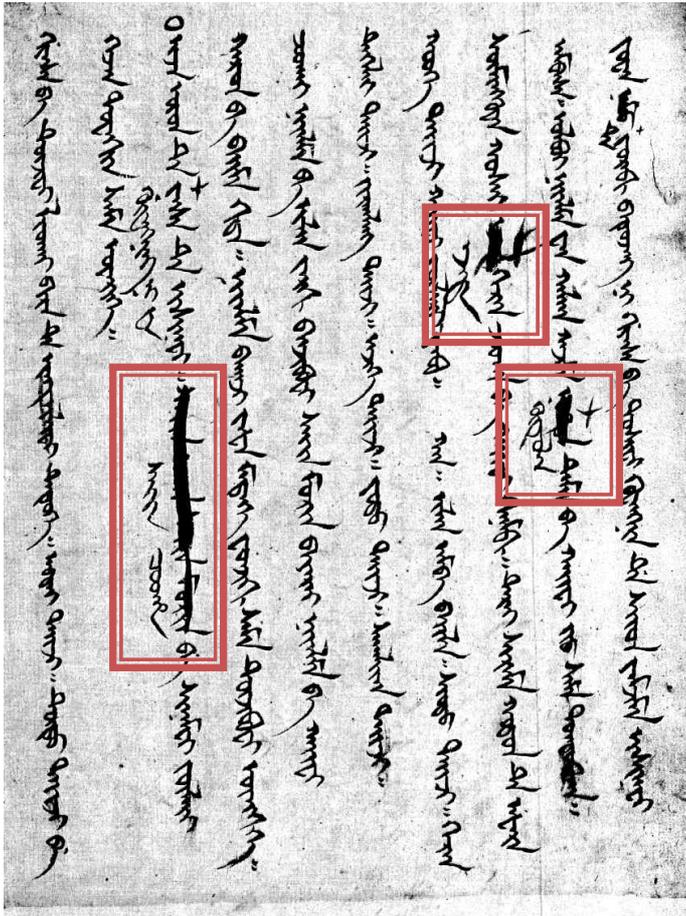


그림 3 동일 기사 내 개수 시기 차이 (원당 6-101)

여기에서 첫 번째 개수는 *sain cooha*([표 91]의 1번)이며, 두 번째 개수는 *ejETE*(*< ejete*)([표 91]의 2번), 세 번째 개수는 *kutulE*(*< kutule*)([표 91]의 3번)이다. *sain cooha*를 보면, 유권점의 *c*가 나타나고 자음 *h*의 권도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완전한 유권점자로 쓰여진 것이다. 반면에 *ejETE*는 두 번째 음절인 *-je-*에서 모음 *a/e*를 구분하는 점이 없고

세 번째 음절 -te에서 무권점의 t가 쓰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음 a/e를 구분하는 점도 없다. 무권점자로 쓰이고 있다. kutulE는 첫 번째 음절 ku-가 음성자 자음 k가 오고 있고, 두 번째 음절 -tu-에서 음성자 t가 쓰이고 있다. 세 번째 음절 le-의 모음 a/e를 구분하는 점이 없다. 따라서 과도기적 유권점자가 쓰이고 있다.



1. sain cooha



2. ejETE



3. kutulE

표 91 『원당』 6-101의 개수 표기 양상

이처럼 한 페이지 안에서도 세 차례 이뤄진 개수가 각각 다른 단계의 만주 문자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수 시기를 일괄적으로 한 차례 이뤄졌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세 차례 개수의 상대적인 시기는 ejETE가 가장 먼저 이뤄졌고 그 다음에 kutulE가 개수됐으며, sain cooha는 앞서 두 개수보다 늦은 시기에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는 때로 무권점 t와 음성자 t가 혼재되어 쓰이기도 하므로 ejETE와 kutulE의 시기는 맞물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개수 시점을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천총 원년 7월 16일 기사([그림 4])를 보면, 원래 쓰여져 있던 내용에 마지막 행이 추가되어 쓰여져 있다. 마지막 행의 붓글씨 두께와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 달리 후대에 추가되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쓰여진 내용은 과도기적 유권점자로 쓰인 것과 달리, 추가되어 쓰여진 마지막 행은 무권점자로 쓰여지고 있다. 특히 이를 잘 보여주는 단어는 emte이다. 다음 그림을 보면, 기존 내용에는 emte(첫번째 동그라미)라고 쓰여져 있는 반면, 마지막

행에는 emT₀E(두번째 동그라미)라고 쓰여져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수자가 당시까지 도입은 됐으나 안착되지 않은 유권점자 대신에 평소 익숙하던 무권점자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개수 시점에 혼란을 주기 위해 유권점자가 안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권점자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개수자가 일부러 개수 시점에 혼란을 주기 위해 무권점자를 썼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처럼 무심코 무권점자를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다. 그렇다면 이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유권점자 도입 이후에도 한동안 무권점자가 혼용되어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무권점자가 쓰였다고 해서 유권점자가 쓰인 문서보다 시기적으로 후대에 쓰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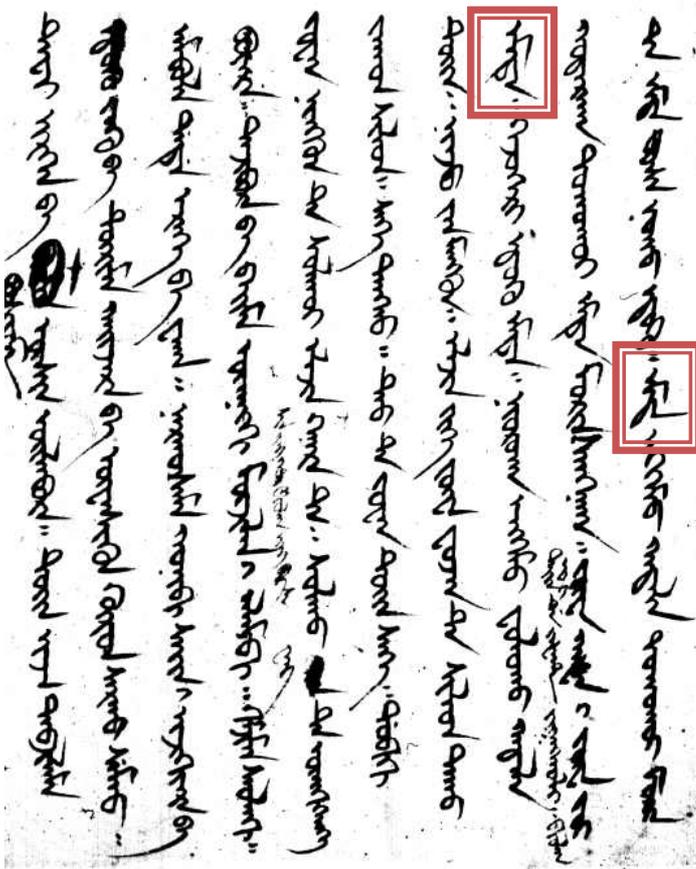


그림 4 『원당』 6-136의 개수 시기 양상

4.2. 개수의 실제

4.2.1. 서술 시점 변경

4.2.1.1. 홍타이지, 청나라 시점으로 변경

이 장에서는 『만문원당』의 청 태종조 부분 중 조선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개수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개수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장의 시점을 홍타이지와 청나라의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별 기사에 대한 홍타이지의 주체성을 높이고 조선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인 높임 정도를 드러낸다.

먼저 천총 원년 1월 초8일 기사(6-4)를 보면, “조선국에 명의 모문룡을 찾도록 군대를 보냈다(solho gurun de nikan i mao wen lung be baime cooha unggihe)”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원래 『만문원당』에서는 “조선에 명의 모문룡을 찾으러 군대가 출발했다(solho gurun de nikan i mao wen lung be baime cooha juraka)”였다. “군대가 출발했다(cooha juraka)”는 표현을 개수를 통해 “군대를 보냈다(cooha unggihe)”로 개수했다([그림 5]). 이를 통해 행위의 주체를 군대에서 한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림 5 juraka의 unggihe로의 개수 (원당 6-4)

마찬가지로 천총 원년 1월 18일 기사(6-15)에서는 “한의 조서를 출병한 버일러들에게 □□□, 천은을 입고(han bithe cooha genehe beise de □□□, abkai kesi de,)”로 썼다가, 이를 “한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출

병한 버일러들, 너희가 천은을 입고(han, joo bithe wasimbume hendume, cooha genehe beise, suwe abkai kesi de,)”로 개수하고 있다. 앞서 6-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를 한으로 설정하면서 문장의 시점을 한의 시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16)을 보면, 광산성(郭山城)을 취한 버일러들에게 한이 보낸 글에서 “너희가 보낸 말을 보고 내가 답하여 보낼 것이다.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추측하여 어찌 말하겠는가?(suweni takūraha gisun be tuwame bi jabufi unggire, bi tehe niyalma, buhiyeme aiseme hendure,)”라고 나와있는데, 원래 『만문원당』에서는 “너희가 보낸 말을 보고 우리가 답하여 보낼 것이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추측하여 어찌 말하겠는가?(suweni takūraha gisun be tuwame be jabufi unggire, be tehe niyalma, buhiyeme aiseme hendure,)”라고 나와있던 것을 ‘우리(be)’를 ‘나(bi)’로 두 군데 개수한 것이다([그림 6]).



그림 6 be의 bi로의 개수 (원당 6-16)

또한 청나라의 시점이 반영된 것도 발견된다. 천총 원년 4월 기사(6-57) 등을 보면 조선의 한(solho⁹⁴) i han)을 조선의 왕(solho i wang)으로 지속적으로 개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7]). 한 대신

94) 그림 7에서는 solgoi로 쓰여져 있는데 이처럼 『만문원당』의 과도기적 만문에서는 권으로 나타낼 부분을 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더러 발견된다. 이는 실제 만주어 구어에서 solho형과 solgo형을 혼재해 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기문(1973: 110)에 따르면, 18세기 중엽 만주어 구어를 채록한 『청학음(淸學音)』에서도 ‘조선’을 ‘솔괴’로 표기하고 ‘조선인’을 ‘솔고 나마’로 적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18세기 중엽 간행된 『동문유해(同文類解)』(1748)에서는 ‘고려(高麗)’를 ‘솔호’로 ‘조선(朝鮮)’을 ‘초한’으로 적고 있다. 『동문유해』는 조선 사역원에서 만주어 통역관의 학습용으로 편찬한 만주어 어휘집이다.

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조선을 청나라보다 낮은 속국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solhoi han의 solhoi wang으로의 개수 (원당 6-67)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77)에서는 한을 ‘수러 한(sure han)’으로 개수하기도 했다. 이는 홍타이지가 한으로 즉위한 천총 연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의 시점을 두드러지게 반영한 부분은 천총 6년 7월 14일 기사(8-223)에서 발견된다. 이 기사는 다하이 박시가 38세의 나이에 병들어 죽었다고 전하면서 그의 품성과 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가 “9세부터 한문을 배워 만문과 한문에 크게 통달했다(uyun se ci nikan bithe tacifi, manju bithe, nikan bithe de ambula šu bihe,)”라고 원래 『만문원당』에는 “한문과 여진문에(nikan jušen bithe de)”라고 써있었다가 jušen에 동그라미를 쳐서 지운 효과를 내고 좌측 행간에 manju bithe를 고쳐 써넣고 있다([그림 8]). 이때 manju bithe의 높이가 nikan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그 결과 『만문원당』에서 “만주문과 한문에(manju bithe, nikan bithe de)”로 고쳐졌고 이는 그대로 『만문노당』에 반영됐다.



그림 8 jušen의 manju로의 개수 1 (원당 8-223)

청나라의 시점에서 개수를 통해 묘호를 표현하기도 했다. 8-223에서는 “선대 경기연 한으로부터(nenehe genggiyen han ci,)”를 개수를 통해 “선대 태조로부터(nenehe taidzu ci”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nenehe genggiyen han의 묘호 taidzu로의 개수 (원당 8-223)

8-223에서는 또한 “한의 말(han i tere gisun)”을 “한의 뜻(han i tere hese)”로 높여쓰고 있다.

4.2.1.2. 간접화법

『만문원당』에서는 원래 직접화법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개수를 통해 간접화법으로 고쳐쓰는 모습이 나타난다.

천총 원년 4월 15일 기사(6-90)를 보면 아민 버일러가 한에게 알현하러 와서 한과 버일러들과 만날 때, 한이 다하이 박시에게 다음과 같이 묻게 한다. 이를 『만문노당』에는 다하이 박시가 “버일러 형, 동생들, 자식들 그대들은 전투에 가서 잘 수행했는가?라고 물을 때(*beile ahūn, deote, juse, suwe dain genefi sain i yabuhao seme fonjire de,*)”라고 나와있지만 원래 『만문원당』에서는 “버일러 형, 동생들, 자식들 그대들은 전투에 가서 잘 수행했는가?(*beile ahūn, deote, juse, suwe dain genefi sain i yabuhao*)”라고 질문만 나와있었다. “~라고 물을 때(*seme fonjire de*)”를 추가함으로써 간접화법으로 개수하고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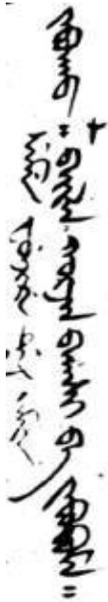


그림 10 간접화법으로의 개수 (원당 6-90)

4.2.2. 국호 수정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59) 등을 보면, aisin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그림 11]). 개수 연대를 홍타이지가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꾼 후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1 aisin의 manju로의 개수 (원당 6-59)

마찬가지로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80)를 보면, “여진의 두 대인씩 (jušen juwete amban)”이란 표현을 “만주의 대인 둘씩(manju i amban juwete)”으로 고쳐 써넣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jušen i juwete amban의 manju i amban으로의 개수 (원당 6-80)

천총 6년 7월 14일 기사(8-223)를 보면, 금(aisin)뿐만 아니라 여진(jušen)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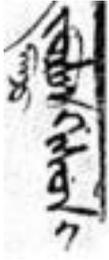


그림 13 jušen의 manju로의 개수 2 (원당 8-223)

4.2.3. 정보 추가

4.2.3.1. 주요 정보

『만문원당』에서는 개수를 통해 해당 기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인명을 추가하고 있다.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사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날짜 정보를 추가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천총 원년 2월 초2일 기사(6-19)를 보면, 원래 『만문원당』에는 “작년(dukele aniya)”라고만 나와있던 것을 개수를 통해 “지난 인년(寅年)(duleke tasha aniya)”이라고 정확한 날짜를 적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사건의 묘사를 달리하며 변개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된다. 천총 원년 3월 초5일 기사(6-26~27, [그림 14])를 보면, 『만문노당』과 일부 문장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변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⁹⁵⁾ 이 부분은 아민 버일러가 한에게 알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한, 대 버일러, 망굴타이 버일러가 아민 버일러를 맞이할 때 “앞은 옥좌에서부터 마주 맞이해서(tehe soorin ci ishun okdofi,)”라고 나와있는 반면에, 『만문원당』에서는 “앞은 자리에서부터 서서 맞이하지 않고(tehe ba ci ilifi okdokū,)”라고 나와있다. “서서 맞이하지 않고”라는 부정문을 사용한 표현을 통해 아민 버일러에 대한 공경을 덜 드러낸 것으로 해석

95) 이 부분은 이후 천총 원년 4월 15일 기사(6-89~93)에서 다시 중복 기사로 출현한다. 6-89~93 부분은 변개되지 않고 『만문노당』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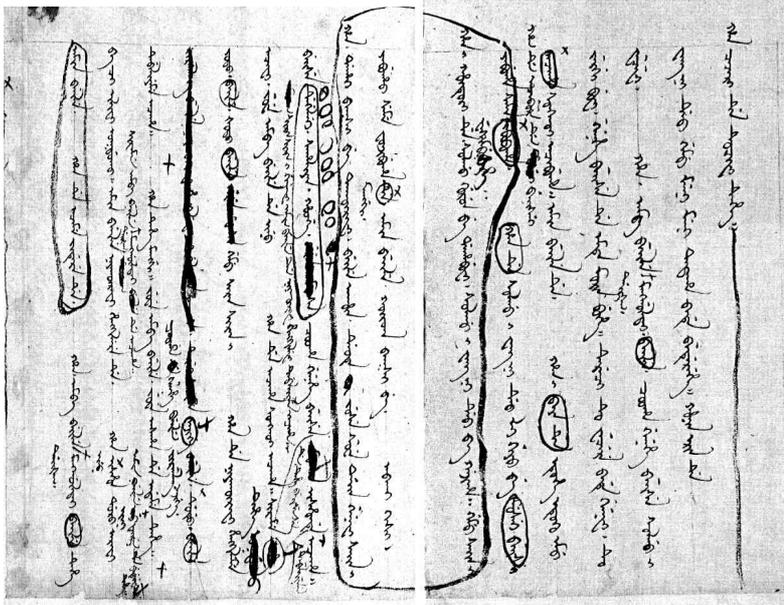


그림 14 중복 변개 기사 (원당 6-26~27)

글의 수신인을 명확히 밝힌 부분도 눈에 띈다. 천총 원년 4월 초8일 기사(6-36)에서는 원래 “이에 회답으로 원(遠) 도당(都堂)에게 하나의 글 (ede karu yuwan du tang de emu bithe)”이라고 썼다가 개수를 통해 “이에 대한 회답으로 영원(寧遠)의 도당 원숭환(袁崇煥)에게 하나의 글 (ede karu ning yuwan i du tang yuwan cung hūwan de emu bithe,)”라고 고쳐쓰고 있다.

해당 기사의 사건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천총 원년 4월 기사(6-55)를 보면, 조선의 의주(義州) 성을 밤에 몰래 취할 때 어진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많은 병사가 차례차례 진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성 안의 조선의 부윤(府尹) 관원 이완(李莞) 등을 죽였다. 판관(判官) 관원 최몽량(崔夢良)이 죽었다. 성의 내부 병사를 모두 죽이고, 백성을 포로로 잡았다. 그날 그 의주(hecen i dorgi, solho i fu yen hergen i lii wan se be waha, pan guwan hafan tsui ming liyang bucehe, hecen i dorgi cooha be gemu wafi, irgen be olji obuha, tere inenggi, tere i jeo)” 부분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쓰여져 있다([그림 15]).



그림 15 행간의 정보 추가 개수 사례 1 (원당 6-55)

마찬가지로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56)에서도 앞서 의주를 취한 밤에 나눠 보낸 군대가 모문룡이 있는 철산(鐵傘)을 급습해서 명의 병사들을 많이 잡아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선천(宣川)·정주(定州)의 [목사(牧使) 관원 김진(金摺)이 붙잡히고, 정주의 백성이 투항했다.] 18일에 곽산(郭山)·[한산성(漢山城)]은 투항하라고 해도(siwancuwan, ding jeo [i mu ši hafan gin jin jafabufi, ding jeo i irgen dahaha], juwan jakūn de, g’o šan, [han’ šan ceng] be daha seci”에서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쓰여져 있다.

이어 6-56에서 “21일에 아침 일찍 공격해서 곧 1각(刻)도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공격하여 취했다. 안주(安州) 성의 牧使 관원 김준(金浚), 병사(兵使) 관원 남이흥(南以興)은 그 스스로를 그가 불을 놓아 죽였다. 군수(郡守) 관원 장둔(張墩), 부사(府使) 관원 김상의(金尙毅), 현령(縣令) 관원 송도남(宋圖南) 등이 모두 피살되었다.](orin emu de cimarilame

afafi, uthai emu erin hono ohakū dartai [andande afame gaiha, an jeo hecen i mu ši hafan gin jiyūn bing ši hafan nan i hing, ini beye be i tuwa sindame bucehe, giyūn šeo hafan jang dun, fu ši hafan ciowan šang i, hiyan ling hafan sung tu nan se gemu wabuha,])”에서도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쓰여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기사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인명을 행간에 작은 글씨로 적어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묘호란 당시 인조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67)를 보면, “조선의 왕 이종(李宗)이 그가 있던 경성(京城)을 버리고 자식들과 부인을 데리고 강화섬으로 도망갔다. 큰 아들은 전주성(全州城)으로 도망갔다. 성 안의 백성이 크게 어수선했다(solho i wang lii dzung, ini tehe ging hecen be waliyafi, juse sargan be gamame, giyang hūwa tun de burulame genehe, amba jui lii yoo, ciowan jeo hecen de burulame genehe, hecen i dorgi irgen ambula burgiha,)” 부분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그림 16]).



그림 16 행간의 정보 추가 개수 사례 2
(원당 6-67)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조선의 왕의 이름까지 적시하고 있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71)에서 “조선의 한이 말하길(solho i han hendume)”를 “조선의 왕 이종(李儆)이 말하길(solho i wang lii dzung hendume,)”로 고쳐쓰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solhoi han의 solhoi wang lii dzung으로의 개수 (원당 6-71)

천총 원년 7월 10일 기사(6-132)의 경우, 『만문원당』은 원래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부장(副將)과 참장(參將) 잉굴다이가 도착했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개수를 통해 “10일에,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부장 [류흥조(劉興祚)], 참장 잉굴다이와 함께, 조선의 왕 李儆이 그의 아우를 돌려보냈다 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장 신경호(申景琥)·박란영(朴蘭英)을 파견하고, 그곳에서 나는 예물을 보내와서] 도착했다(juwan de, solho de elcin genehe fujiyang [lio hing dzo], tsanjiyang inggūldai [emgi solho wang lii dzung, ini deo be bederebuhe seme baniha arame, fujiyang šen jeng hū, piyoo lan ing be takūrafi, baci tucire doroi jaka benjime] isinjiha)”로 고쳐쓰고 있다. 괄호 안 내용을 작은 글씨로 써넣고 있다.

천총 원년 7월 16일 기사(6-136)를 보면, 조선의 왕 등에 보낸 후금의 예물 목록을 적으면서 조선의 사신 이름(신경호, 박란영)과 전쟁에서 잡은 두 관원의 이름(강홍립(姜弘立), 박란영)을 추가해 적고 있다.

천총 원년 9월 13일 기사(6-146)를 보면,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후금 사람의 이름(아시다르한·바키란)을 밝히고 있다.

천총 원년 11월 18일 기사(6-149)를 보면, “조선의 왕 이종이 박란영을 파견해서 의주의 땅을 돌려주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또 가을의 예(禮)로 지방에서 나는 예물을 보내왔다(coohiyan gurun i wang lii dzung, piyoo lan ing be takūrafi, i jeo i ba be bederebuhe seme baniha arame, jai bolori doroi baci tucire doroi jaka benjime jihe.)”는 내용을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 사신이 가져온 글의 내용은 『만문원당』에만 실려있다.

천총 5년 7월 28일 기사(7-410)에서는 “한인의 종택(宗澤)이라는 대신(nikan i dzung je gebungge amban,)”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

천총 6년 12월 12일 기사(8-287)는 『만문원당』에만 실려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에 갔던 바두리와 수나가 도착한 날 다시 돌려보내며 전한 말이 담겨 있다.

천총 6년 1월 초7일 기사(8-347)도 『만문원당』에만 실려있는 내용으로, 조선의 사신 장이(jang i)를 도로 보냈는데, 서신에 예물을 어찌 적게 보낼 것이냐며 책망하는 내용을 써서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총 9년 4월 12일 기사(9-133)는 『만문원당』에만 실려있는 내용인데 조선에 보낸 사신의 이름인 마푸타와 부란디가 추가되어 있다.

천총 9년 8월 초하루 기사(9-307)도 『만문원당』에만 실려있는 내용인데 장시바, 안타무, 사할리안, 오통고가 강기슭을 추격해가서 총 40명의 사람을 잡아 보내왔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 40명의 사람이 [인삼 캐러 온 것을] 잡아 보내왔다(uheri dehi uyun niyalma [orhoda gurume jihe] be bahafi benjihe,)”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승덕 원년 2월 초2일 기사(10-22)에는 호부(戶部) 승정(承政) 잉굴다이를 조선 왕에게 여러 가지 말을 의논하러 보내고, 마푸타를 조선 왕의 부인의 죽음을 조문하러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서 “마푸타를 [조선 왕의 부인의 죽음을 상례(喪禮)로 조문하러 가라고 사신으로 보냈다. 그들과 함께 내(內) 팔기(八旗) 호쇼이 버일러의 사신과 외국(몽고)의 49지역의 버일러들의 사신이 한에게 존호(尊號)를 정하기 위해 조선

의 왕에게 의논하러 갔다. 그들에게 보낸 글의 말](mafuta be [solho i wang ni sargan akū oho sinagan i doroi waliyame gene seme elcin unggihe, terei emgi dorgi jakūn hošoi beile i elcin, tulergi gurun i dehi uyun goloi beise i elcin, han de amba gebu toktobure jalin de solho i wang ni baru hebešeme genehe, tese de unggihe bithei gisun,])”에서 괄호 안 부분이 추가되어 써있다.

한편 『만문원당』 전반에 걸쳐 홍타이지의 이름이 피휘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있다. 송덕 원년 11월 초5일 기사(10-680)([그림 18])를 보면, 『만문노당』에서는 “대청국의 신(臣) () 감히(daicing gurun i amban < > gelhun akū)”로 < > 부분이 황전(黃箋, 노란 띠지)로 가려져 있는데 『만문원당』에서는 “대청국의 臣 홍타이지 감히(daicing gurun i amban hong taiji gelhun akū)”처럼 홍타이지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다([그림 18]). 노당에서는 홍타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황전으로 가려 피휘(避諱)했음을 알 수 있다. 6-198 등 천총 원년인 6권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그림 18 『원당』의 ‘홍타이지’ 피휘 미적용 사례 (원당 10-680)

4.2.3.2. 숫자

『만문원당』에서는 숫자를 고쳐쓴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단위에 따라서 표현 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또는 개수나 낱자를 수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위에 따라서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는 “한 구사당 1명”이라는 표현을 “8명”이라고 바꾸는 식이다.

천총 원년 4월 기사(6-55)에서는 “한 구사에 대인 한 명씩(emu gusai emte amban)”이라는 표현을 “8명의 대신(jakūn amban)”으로 고쳐쓰고 있다. 또한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80)을 보면, “여진인 한 니루에 한 명씩(jušen emu nirui emte)”을 “여진인 만주 병사 300명(jušen manju cooha ilan tanggū)”으로 고쳐쓰고 있다.

구사는 8가지 깃발 색깔에 따라 팔기로 조직됐으므로 한 구사당 1명은 곧 8기의 1명씩을 의미하므로 8명이 된다. 팔기제도는 군민일체의 제도로서 ‘타탄→니루→잘란→구사→팔기’의 조직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니루는 각 지역의 부락민들 중 장정 300명을 하나의 니루로 편성한 것이며 평상시 각 니루는 4개의 타탄으로 나뉘어 상호 긴밀히 연계된 노동조직으로 활동했다. 각 타탄은 평상시에는 니루어전의 감독 아래 국가 세금으로서의 부역을 이행하고 공물을 납부했으며, 전시가 되면 스스로 식량, 갑옷, 투구, 병기, 군마를 마련해야 했다. 5개 니루는 하나의 잘란으로 조직됐으며 5개의 잘란은 하나의 구사로 조직됐다. 구사는 한 명의 구사어전이 통솔했는데 구사어전이 7500명의 기병을 지휘했으므로 팔기는 이론상 6만명의 장정으로 조직된 셈이었다(임계순, 2000: 32~33).

천총 4년 기사(7-214)에서는 “갑병(甲兵) 한 명씩(emte uksin)”을 “두 명씩의 갑병(juwete uksin)”으로 고쳐쓰고 있고, 천총 6년 1월 20일 기사(8-89)에서는 “일곱 성(姓)의 나라(nadan halai gurun)”를 “아홉 성의 나라(uyun halai gurun)”로 고쳐쓰고 있다.

승덕 원년 5월 초6일 기사(10-170)에서는 『만문노당』에는 “건창(建昌)·통원보(通遠堡)·람반(攬盤)·yenden·수암(岫巖), 이 5개 성에(giyan cang, tung yuwan pu, lan pan, yenden, sio yan, ere sunja hoton de)”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만문원당』에서는 “jiyangcang, tung yuwan pu, lamba, [+yenden], sio yan, ere ~~tuin~~ sunja hoton de”로 yenden이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여 있고 4개 성이라고 썼다가 숫자 4를 지우고 5로 고쳐쓰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yenden 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날짜를 고치고 있다. 천총 5년 9월 23일 기사(7-488)는 “20일에(arin de)”를 좌측 행간에 숫자 6을 추가함으로써 “26일에(arin [+ninggun] de)”로 고치고 있고, 천총 6년 12월 17일 기사(8-290)에서는 “18일에(juwan jakūn de)”라고 썼다가 숫자 8을 지우고 “17일에(juwan jakūn [nadan] de)”로 고쳐쓰고 있다.

천총 9년 4월 12일 기사(9-133)에서는 “15일에(~~tofohon~~-de)”라고 썼다가 지우고 “12일에(~~tofohon~~-de [juwan juwede])”로 고쳐쓰고 있다.

천총 9년 6월 13일 기사(9-236)에서는 “12일에(juwan juwe de)”라고 썼다가 숫자 2를 지우고 “13일에(juwan juwe [ilan] de)”라고 고쳐쓰고 있다.

승덕 원년 6월 19일 기사(10-282)에서는 “29일에(~~arin~~ uyun de)”라고 썼다가 숫자 20을 지우고 “19일에(~~arin~~ [+juwan] uyun de)”로 고쳐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3.3. 지명

『만문원당』에서는 기존 지명을 지우고 고쳐 써넣은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먼저 천총 원년 4월 기사(6-57)를 보면, 기존 지명을 두 차례 지우고 junghai라고 고쳐쓰고 있는데 『만문노당』에서는 중화(中和, jung ho)로 나온다.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64)에서는 기존 지명(cang jiyān)을 “창성(昌城, cang jiyān [+ceng])”으로 고치고 있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67)에서는 “군사가 중화에 묵었다(~~cooha junghai~~-de ~~deduhe~~)”를 “군사가 평산(平山)에 이르러 영(營)을 세웠다

(~~cooha junghai de deduhe~~ [pingšan de isinafi ing iliha])”로 고쳐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83)에서는 “곽산(郭山, g’o šan)”이라는 지명이 GowaKŠan으로 적혔다가 지우고 좌측 행간에 GÖwaKŠan으로 고쳐지고 있다(GowaKŠan [+GÖwaKŠan]). 원래 쓰여진 글자는 Go-로 양성자 G와 양성 모음 o로 쓰여졌는데 고쳐진 글자는 GÖ-로 음성자 G와 양성 모음 ū를 쓴 것이 눈에 띈다.

천총 4년 6월 초7일 기사(7-250)에서는 원래 요동(liodon)으로 써있던 부분을 지우고(~~liodon~~ [+dung jing]), “동경(東京, dung ging)”으로 고쳐 써넣고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동경(dung ging)의 ‘경(ging)’ 발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나 ‘jing’으로 전자되고 있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7-266)에서는 지르갈랑 타이지, 아바타이 타이 지, 사할리안 타이지, 8명의 대신, 1개 니루에 3명씩의 바야라, 군영의 병사를 모두 영평(永平, yung ping)에 남겨두고 한이 심양(瀋陽)에 왔다는 내용에서 “영평”이란 지명과 “[한이 심양에] 왔다”는 문장에서 괄호 속 문구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han~~ [+yung ping de] jirgalang taiji, abatai taiji, sahaliyan taiji, jakūn amban, emu nirui ilata bayara, ing ni cooha be yooni werifi, [+han simiyan de] jihe.).

천총 4년 6월 10일 기사(7-286)에서는 “진강(鎭江)”이란 지명이 jincan으로 표기되고 있다.

4.2.3.4. 인명

『만문원당』에서는 인명 부분이 수정된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먼저 천총 원년 4월 10일 기사(6-86)을 보면, “만주시리 어푸(manjusiri efu)”에서 만주시리 부분이 manju sirii로 ‘시리’ 부분의 두 번째 음절이 장모음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manju sirii [sirii]).

천총 원년 5월 초6일 기사(6-100)에서는 원래 “아이타 부장(aita

fujan)”이라고 써 있던 부분을 지우고 “fujan lio sing su”으로 고쳐 써넣고 있다. 이는 “부장(副將, fujiyang) 류흥조(劉興祚, lio hing dzo)”를 나타낸다. 『만문원당』에서는 ‘흥’자의 h-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고 ‘조’자의 특수문자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

천총 원년 7월 10일 기사(6-132)에서도 부장의 이름을 “아이타(aita)”라고 썼던 것을 지우고 “류흥조”로 고쳐쓰고 있다.

천총 4년 6월 10일 기사(7-289)에서는 “려순구(旅順口, lioi šün keo)”를 두 차례 지우고 “lisingkeo”라고 좌측 행간에 적어넣고 있다(□□□ [+□□□] lisingkeo). 지워진 이전 두 단어도 모두 l-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외국인 인명이므로 이를 표현하는 데 혼란을 빚어 여러 번 고쳐쓴 것으로 보인다.

천총 5년 9월 23일 기사(7-487)에서는 동그라미로 지운 표시를 하고 있어 지우기 전 글자가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문노당』에는 “중(위)(鍾(緯)) 총병관(jung dzung bing guwan)”, “뒷(襄)(오(양)) 총병관(u dzung bing guwan)”으로 나온 부분이, 『만문원당』에서는 “(sakakai) jung sūmingguwan”, “(sūn huwa i) u sūmingguwan [+sūmingguwan]”으로 괄호 안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괄호 안 단어의 뜻은 알기 어렵다.

천총 9년 10월 15일 기사(9-411)에서는 “조선의 사신 호부 의(義)부의 피오 시랑을(solgo i elcin hobu jurgan-i pio seleng be)”라고 쓰여진 것을 “조선의 사자(使者) 예부(禮部) 시랑(侍郎) 박로를(solgo i elcin hobu, [+libu] [jurgan-i] pio seleng [+pio lu] be)”이라고 고쳐쓰고 있다.⁹⁶⁾

승덕 원년 2월 초2일 기사(10-28)에서는 카라친국의 둘리후(dulihū)를 고쳐 써넣고 있다. 외국인 인명이라 표기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덕 원년 3월 초3일 기사(10-70)에서는 “전봉(前鋒)의 시터쿠·호기(驍騎)의 타하부·송고투, 이 3명의 대신과(gabsihiyan coohai siteku, aliha coohai tahabu, songgotu, ere ilan amban,)”라고 나온 부분에서 송고투

96) 神田信夫 외 역, 1975: 320

의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지워지고 송고투라고 적혀져 있다.

송덕 원년 12월 30일 기사(10-726)에서는 아시다르한 낙추(asidarhan nakcu)에서 “아시다르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쓰고 있는데 고치기 전에도 “아시다르한”으로 쓰다가 오기가 생겨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4.2.3.5. 관직명

관직명을 고친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먼저 천총 원년 3월 초5일 기사(6-25)에서는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업무를 하는 중보인(中保人)이라는 뜻의 boji를 지우고 관원(hafan)이라고 고쳐쓰고 있다.

천총 원년 4월 기사(6-57)에서는 강홍립의 아들이 총병관(emke sūmingguwan)이라고 쓴 부분을 지우고 “원수(元帥, yuwanšuwai)”로 고쳐쓰고 있다.

송덕 원년 2월 초2일 기사(10-27, 10-28)에서는 코르친 국의 투시예투 지농(korcin gurun i tusiyetu jinong)과 차하르 국의 투바 지농(cahar gurun i tuba jinong), 옹니요트 국의 두렁 지농(ongniyot gurun i dureng jinong)에 대해 관직명이 “지농(jinong)”으로 고쳐지고 있다. 지농은 몽골인 벼슬의 명칭이다.⁹⁷⁾

송덕 원년 5월 초하루 기사(10-159)에서는 나라의 공주(gurun i gege)가 “호쇼이 공주(公主)(hošoi gungju)”로 고쳐지고 있다. 호쇼이 공주는 황제와 그의 황후가 아닌 배우자 사이에 낳은 딸을 가리킨다. 서열로는 황제와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리키는 ‘gurun gungju’에 이어 두 번째 등급의 공주이다.⁹⁸⁾

97) Hangin, 1980.

98) Brunnert and Hagelstron, [1912] 1963: 8; Wang Shuqing, 1982: 31; Wang, 2008: 147에서 재인용.

4.2.4. 윤문

4.2.4.1. 문구 추가

『만문원당』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윤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체 목록은 [부록 1]에 있으며 그중 일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천총 원년 4월 15일 기사(6-89~93)를 보면, 6-89에서는 “출병한 버일러들이 나아가 와서 가까이 이르러 말달려 알현하러 와서, 말에서 내려 등급별로 배열하여 하늘에 고두할 때에(coohalaha beise ibeme jifi, hanci isinjime katarame acanjifi, morin ci ebufi jergileme adafi abka de hengkilere de,)”에서 “말에서 내려(morin ci ebufi)” 부분을 첨가하고 있다. 서술을 생생하게 하면서 상황 설명을 보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6-90에서도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고두하고 껴안으며(hanci ibefi niyakūrafi hengkilefi tebeliyeme)”에서 “나아가(ibefi)” 부분을 첨가하고 있다.

6-91에서는 “아민 버일러에게 무릎 꿇어 고두하고 껴안으며 만났다(amin beile de niyakūrafi hengkilefi tebeliyeme acaha)”에서 “고두하고(hengkilefi)”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6-92에서는 “아민 버일러에게 한이 그의 몸에 입은 옷 1벌을 주어서 입게 했다(amin beile de han ini beye de etuhe etuku emu jergi bufi etubuhe)”에서 “그의 몸에 입은(ini beye de etuhe)”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6-93에서는 “미시(未時)에 한이 천막에 나와 앉았다(honin erinde han cacari de tucifi tehe)”라는 문장에서 ‘한(han)’과 ‘앉았다(tehe)’ 부분이 다른 필체로 좌측 행간과 아래 행 여백 부분에 추가되어 써있다. 다음 행에는 “한이 근처에 앉았다(han dalin bade tehe)”란 문장이 지워져 있다.

4.2.4.2. 의미 명료화

『만문원당』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첨가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천총 원년 2월 초2일 기사(6-20)를 보면, “조선은 명을 원병하여 우리에게 공격해 왔다(solho, nikan de cooha dafi mende dain jihe)”에서 “우리에게 왔다(mende jihe)”를 “우리에게 공격해 왔다(mende dain jihe)”로 고쳐쓰고 있다. “공격하다”는 뜻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군대, 전쟁, 적’ 등의 뜻을 가진 “dain”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천총 원년 4월(6-55)에서는 “천 명의 군사”라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minggan cooha”를 “emu minggan cooha”로 숫자 1(emu)을 추가했다.

4.2.4.3. 논항 명료화

목적어와 처소 등 논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격 어미 be와 여격어미 de 등을 추가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천총 원년 2월 초2일 기사(6-20)에서는 “여전히 명을 돕고(kemuni nikan de dafi)”는 원래 “여전히 명 돕고”로 쓰여져 있었는데 여격어미 de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여지면서 “명을 돕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졌다(kemu-ni [kemuni] nikan [+de] dafi)).

같은 날 이어지는 기사(6-21)를 보면, 원래 “바야라의 쿠틀러를 잡히게 한 것을(bayarai kutule be jafabure be)”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격어미 be와 동사 jafabu-를 쓴 것을 여격어미 de와 동사 bu-로 고쳐 써서, “바야라의 쿠틀러에게 준 것을(bayarai kutule de bure be)”으로 바꾸고 있다.

천총 원년 4월 초8일 기사(6-43)에서는 원래 “사람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niyalma holtoci ombi dere)”인데 목적격어미 be를 추가해서 “사람

을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niyalma be holtoci ombi dere)”로 고쳐쓰고 있다. 만일 여기에서 목적격 어미 be가 없다면 “사람이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뜻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4.2.5. 삭제

『만문원당』에서는 일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만문노당』과 동일하게 된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삭제된 내용은 주로 해당하는 문장을 붓으로 지우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워진 부분의 내용이 원래 무엇이었던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더러 지워진 부분의 글씨가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중 몇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천총 원년 4월 기사(6-56~57)를 보면, 6-56의 마지막 문장인 solho ini jakūn golo be에 동그라미가 쳐서 삭제 표시를 하고, 이어지는 6-57에서 uhereme kadalara amba sumingguwan be tere hecen de jušen cooha be alime gaisu seme ejen sakdaha sumingguwan be bahafi waha tere hecen de duin이라고 쓴 두 줄을 붓으로 지우고 있다.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afafi baha …는 『만문노당』과 동일하다. 이 기사는 후금이 정묘호란 당시 조선의 여러 성을 공격해 획득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위의 지워진 부분을 앞뒤 문장과 함께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일 진시(辰時)에 안주의 강을 건너서 성의 근처에서 영(營)을 세웠다. 그 밤이 새도록 투항하라고 파견했으나 투항하지 않아서 21일에 아침 일찍 공격해서 곧 1각(刻)도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공격하여 취했다. 안주성의 목사(牧使) 관원 김준(金浚), 병사(兵使) 관원 남이흥(南以興)은 그 스스로를 그가 불을 놓아 죽였다. 군수(郡守) 관원 장돈(張墩), 부사(府使) 관원 김상의(金尙毅), 현령(縣令) 관원 송도남(宋圖南) 등이 모두 피살되었다. 그 성에 있던 것은 백성을 포함하지 않고 병사만 2만이었다. 성을 공격할 때에 피살되었을 뿐, 취한 후에는 병사를 1명도 죽이지 않았다. 모

두 각자의 집으로 부인, 아이들을 만나라고 풀어 보냈다. 광야가 가득 차도록 많이 갔다. 조선의 팔도를 모두 관할하는 대 총병관은 그 성에서 여진 군대를 도와 취하라고 하면서 어전이 나이먹은 총병관을 잡아 죽였다. 그 성에 4 공격해서 획득한 안주성에서 4일 쉬고 말을 먹이고 노획을 처리하고, 25일에 안주성(安州城)에서 군대가 출발하여 26일에 평양성(平壤城)에 도달하니 성의 주인 도당(都堂), 총병관(摠兵官), 많은 관리와 병사, 백성이 그 스스로 당황해서 하나도 없이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위의 번역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된 문장에 해당한다. 지워진 문장을 복원하면 그 뒤의 문맥 상황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지워진 문장의 바로 뒷 부분은 후금 군대가 평양성에 도착하자, 조선의 관리와 병사, 백성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후금 군대가 조선의 총병관들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워진 부분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만문원당』에 삭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후금이 성을 함락한 후에는 조선의 병사를 전혀 죽이지 않고 모두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후금 군대의 관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86)에서는 다섯 줄 가량이 지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복원하면 tere aniya, gurun ambula yuyume ofi, han jing jasime, coohai niyalma be ulha □□□ gajire anggala bele jeku acifi □□□ □□□ □□□ □□□ □□□ □□□ ulin □□□ □□□ □□□ □□□ be □□□ □□□ □□□ □□□ □□□ □□□ yan alimbihe, niyalmai yali inu jehe로 추정할 수 있다. 지워진 부분을 앞뒤 문맥과 함께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국에 천연두의 소식이 있다고 하여 만주군의 면역 안된 버일러들은 모두 각각 헤어져 왔다. 평양에서 맹세하고부터 뒤로 만주의 군대가 돌아올 때 조선의 어떤 물건도 범하지 않았다. 큰 길을 취하여 군대가 돌아왔다. 그해, 나라가 많이 굶주리게 되어 한이 바로 서신을 보내길, “병사들은 가축 □□□ 가져오라고 요청하라. 쌀과 곡식을 실어” … (지워진 글자 식별 안됨) … ~냥 받았다. 인

육도 먹었다.’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보면, 『만문원당』에는 인육까지 먹는 후금의 극심한 식량난을 기술⁹⁹⁾하고 있다가 이를 삭제했다. 그 결과, 『만문노당』에서는 정묘호란 후 조선과 화의를 맺고 돌아오는 길에 후금 군대가 조선을 전혀 약탈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부각해서 앞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후금의 관대함만을 강조하고 있다.

승덕 원년 3월 20일 기사(10-93)에서도 네 줄 가량이 지워진 것이 발견된다. 그 내용을 복원하면 orin jakūn de □□□, han be amba soorin de debuki □□□ seme, solgoi wang de, □□□ cin wang □□□ cin wang, mergen □□□ □□□ □□□ □□□ wang, □□□ □□□ cin wang □□□ cin wang ni elcin bederefi jiyun □□□ □□□ □□□ □□□ ni elcin, [+ bayan □□□ □□□ □□□] tulergi goloi monggoi wang se elcin □□□ □□□ □□□ de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앞뒤 문맥과 함께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은 그 글을 보고 조선국이 확실히 단교하여 변심한 것을 알고, 여러 버일러와 대신들을 모아 글을 보이고 의논할 때, 여럿이 모두 화를 내며 대군이 출정하여 조선국을 반드시 멸망시키자고 했다. 한은 “사신을 보내 글을 보내어 (일의) 득실을 말해서 조선의 자식과 대신들을 인질로 데려오라 하겠다. (인질을) 주면 끝나겠으나, 주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정벌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때에 잉골다이 등이 28일에 조선의 왕에게, … (지워진 글자 식별 안됨) … □□□ 왕에게 사신 보내고, … (지워진 글자 식별 안됨) … 바깥 지역 몽골의 왕 등에게, 명(明)의 피도(皮島)섬의 군대에게 길이 차단된 것을 잉골다이 등이 격파하여 베어버렸을 때, 전투를 잘하고 사람을 죽였다 하여 상을 내려준 것.’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황제에 즉위한 흥타이지가 다시 조선 정벌을 논의할 때, 사신을 보내 일단 조선의 반응을 지켜보자고 했고 이에 잉골다이가 조선과 몽골 등과 활발하게 사신을

99) 이는 김선민(2017)에서도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김선민(2017: 37)에 따르면, 1620년대 후반의 만주 기록은 나라(후금)가 은은 많으나 재화가 부족해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인육을 먹을 정도라는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개수 되는 과정에서는 흥타이지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자고 한 내용만 나오고, 이를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서술은 빠진 것이다. 이는 사신을 주고받은 결과, 청나라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의도가 담겼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해당 지워진 부분은 청나라가 조선 정벌을 앞두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했지만 조선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삭제한 것이다.

이처럼 주요 삭제 사례를 살펴봤을 때, 『만문원당』에 적힌 내용 중 청나라의 부정적인 측면, 즉 곤궁함이나 잔혹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개수를 통해 삭제하고 청나라의 관대함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내용 중심으로 『만문노당』에 남겨뒀음을 알 수 있다.

4.2.6. 대두(擡頭)

『만문원당』에서는 『만문노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두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한(han)’이나 ‘하늘(abka)’, ‘부처(fucihi)’에 대한 일반적인 대두 이외에 이러한 나라에 대한 대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총 9년 7월 25일 기사(9-288)를 보면 후금(aisin gurun)이 2단 대두로 가장 높고, 조선국(coohiyan gurun)이 1단 대두로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있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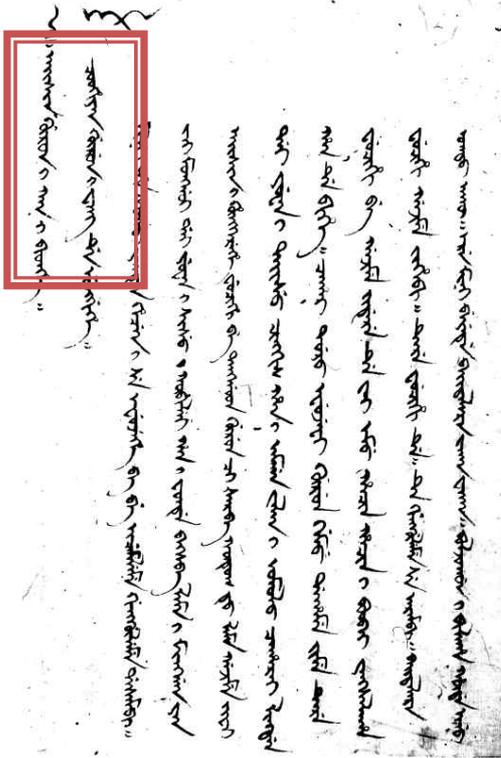


그림 19 후금 한의 서신 (천총 9년: 원당 9-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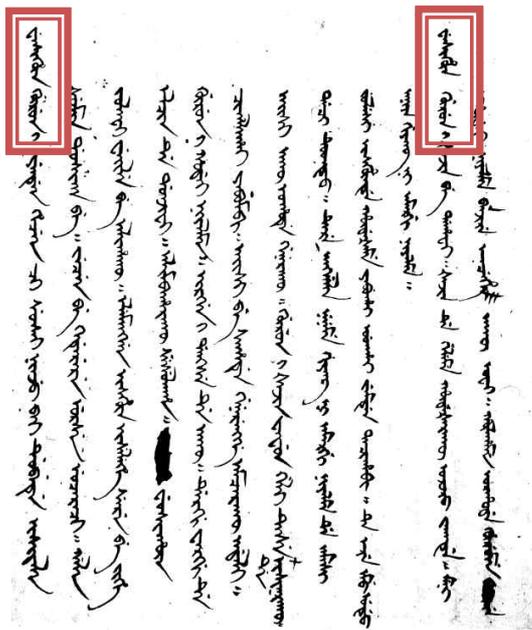


그림 20 조선 왕의 답신 (천총 9년: 원당 9-362)

천총 9년 9월 10일에 후금 한에게 보낸 조선국 왕의 답신(9-362~364)을 보면, 후금을 가리키는 상국(貴國, wesihun gurun)¹⁰⁰⁾에 대한 대두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20]).¹⁰¹⁾

대명 기사를 살펴보면, 후금(aisin gurun) 또는 만주국(manju gurun)과 대명 제국(daiming gurun)과의 상대적인 대두 순서가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6-252([그림 23])를 보면, 천총 2년 5월 11일에 청나라 한(manju gurun i han)이 대명국 대신들(daiming gurun i ambasa)에게 보낸 글로서 청나라 한이 1단 대두되어 있고 대명 대신들은 대두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8-5([그림 24])를 보면, 천총 3년 2월 28일에 후금 한(aisin gurun i han)이 대명국 집정 대신들(daiming gurun i doru jafaha ambasa)에게 보내는 글로서 후금 한이 1단 대두, 대명국 집정 대신들이 2단 대두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천총 3년 7~10월에 속한 기사인 8-18([그림 25])을

100) 神田信夫 외 역, 1975: 279.

101) 한편 천총 9년에 조선의 왕이 후금의 한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조선 왕과 후금 한이 모두 대두되어 있지만 동일한 높이로 쓰여져 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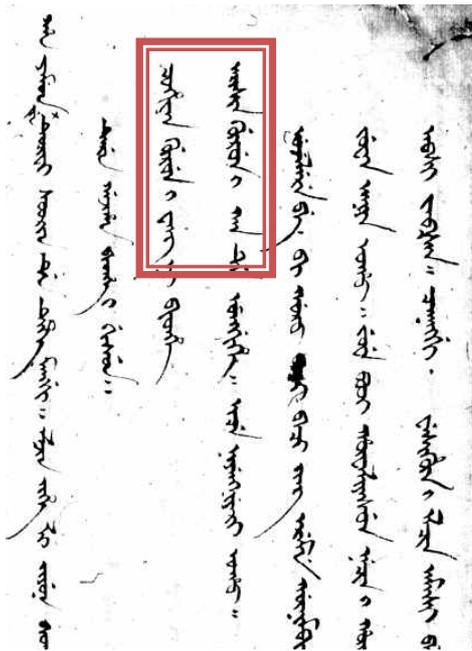


그림 21 천총 9년 원당 9-110

보면, 후금 한(aisin gurun i han)이 대명국 원 대인(daiming gurun i yuwan amba niyalma)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에서 후금 한을 1단 대두, 대명국의 원 대인을 2단 대두하고 있다.

천총 4년 3월 28일 기사인 7-72([그림 26])를 보면, 대두의 정도가 높지 않다. 천총 4년에 후금의 둘째 버일러(aisin gurun i jacin beile)가 대명국 조 장군(daiming gurun i dzu jiyanggiyūn)에게 보내는 글에서 후금의 둘째 버일러를 1단 대두, 대명국 조 장군을 2단 대두하고 있는데 대두의 정도가 크지 않다. 대두의 정도가 얇은 이유는 한이 아니라 둘째 버일러에 대한 대두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날인 3월 29일 기사인 7-75([그림 27])를 보면, 후금의 둘째 버일러가 대명국 황제에게 보내는 글로서 대명국의 황제(daiming gurun i hūwangdi)가 1단 대두되어 있고 하늘(abka)이 2단 대두되어 있는데 이때 대명국 황제보다 하늘이 더 높게 쓰여져 있다.

천총 4년 2월 초9일 기사(7-124)([그림 28])를 보면, 후금의 한이 대명국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서 대명국 황제를 대두하지 않을뿐더러 오기 수정을 가장해 낮춰쓰고 있다.

송덕 원년으로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송덕 원년 7월 19일 기사(10-339)([그림 29])를 보면, 대명국의 대(大)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지운 효과를 내면서 명나라로 낮춰쓰고 있다.¹⁰²⁾

102) 이러한 예는 송(宋)나라에 대해서도 적용된 바 있다. 천총 원년 4월 기사를 보면, 『만문원당』에서 명나라에 보낸 서신에서 명나라가 제시한 화친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앞서 화친한 예로 ‘대원(大遠), 대금(大金), 대송(大宋)’을 열거했다가 ‘대송’에 대해서만 ‘大(dai)’자를 지우고 宋(sung)자만 남겨두고 있다([그림 22]). 이는 1127년 ‘정강의 변’으로 송나라의 휘종·흠종 부자와 황족 및 신하들 수 천 명이 금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고(구범진, 2019: 13), 북송이 멸망하게 된 선대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금나라는 만주인들의 조상인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개수는 『만문노당』에도 반영되어 『만문노당』에도 ‘대원, 대금, 송’으로 나온다. 앞서 본문의 대명 제국이 명나라로 강등된 것도 『만문노당』에 그대로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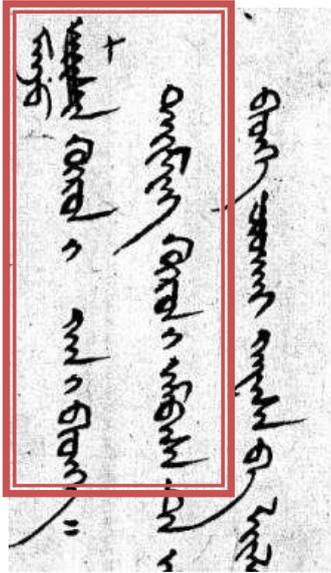


그림 23 천총 2년 기사 (원당 6-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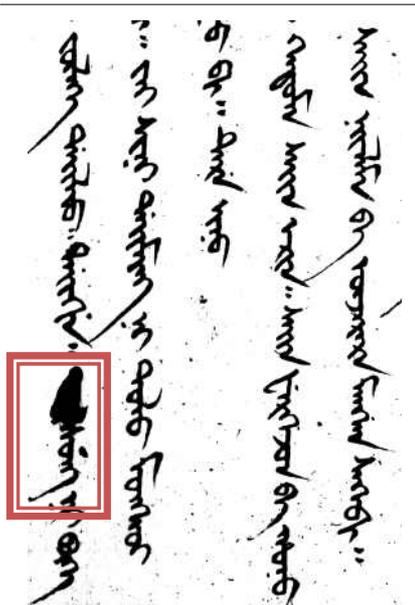


그림 22 원당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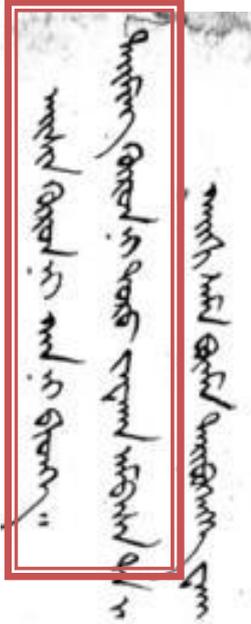


그림 24 천총 3년 기사 (원당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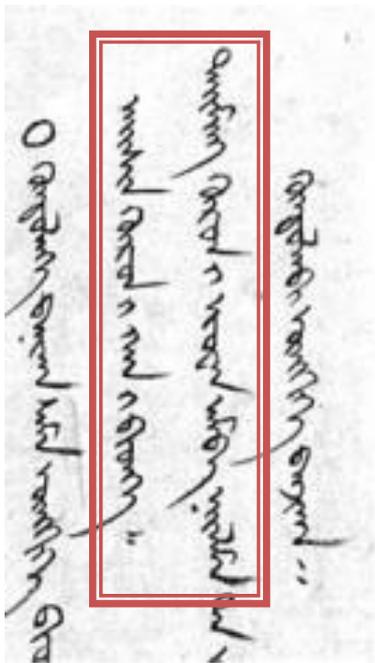


그림 25 천총 3년 기사 (원당 8-18)

O raxd l'axnd ad h'ax raxf'ax d'ax
 axd r'ax d'ax h'ax ad axnd
 axnd ..
 axnd axnd .. h'ax raxf'ax d'ax
 axnd axnd .. h'ax raxf'ax d'ax

그림 26 천총 4년 기사 (원당 7-72)

axnd axnd .. h'ax raxf'ax d'ax
 axnd axnd .. h'ax raxf'ax d'ax

그림 27 천총 4년 기사 (원당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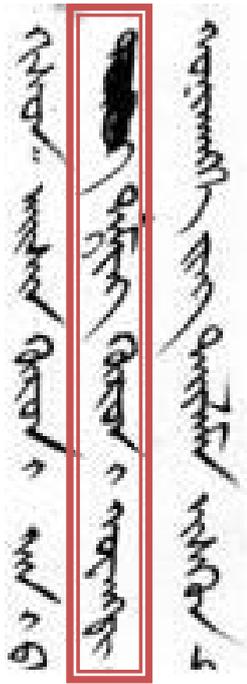


그림 28 천총 4년 기사 (원당 7-124)



그림 29 송덕 원년 기사 (원당 10-339)

4.2.7. 소결

이 장에서는 『만문원당』에 개수가 이뤄져 『만문노당』과 결과적으로 동일해진 기사 중 조선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논의한 개수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수의 유형은 크게 ‘서술 시점 변경’, ‘국호 수정’, ‘정보 추가’, ‘윤문’, ‘대두’, ‘삭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만 개별적으로 해설하지 않은 나머지 예시와 글씨체가 다른 부분, 종이가 다른 부분, 기사 분류의 차이 등의 개수 사항들은 [부록 1]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술 시점 변경’은 문장의 주어 시점을 훙타이지 1인칭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호 수정’은 ‘금’, ‘여진’이란 국호를 ‘만주’로 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보 추가’는 사건과 관련된 주요 단어나 숫자, 지명, 인명, 관직명을 추가해 보완한 경우이다.

‘윤문’은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문구를 추가하거나, 의미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단어를 고쳐쓰거나, 논항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격 어미를 교정한 경우를 말한다.

‘대두’는 후금이 명과 조선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명과 직위를 높여 쓰기도 하고 낮춰쓰기도 함으로써 자신과 상대의 정치적인 입지를 드러내려고 한 의도를 보여준다.

‘삭제’는 후금과 청나라에 불리한 내용은 지우고 긍정적인 내용만 남기려고 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수는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를 편찬하기 전에 초안을 만드는 사전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좁은 여백 공간에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쓰거나 흘려서 알아보기 힘들게 적은 부분은 이러한 작업이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맞는지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만약 필사자가 그러한 작은 글씨나 흘림체를 알아볼 수 있는 동일 작업인이거나 이러한 작업에 익숙한 인력이었다면, 또는 이미

『만문노당』의 별도 저본이 완성되어서 『만문원당』의 개수는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면, 이러한 작업이 『만문노당』을 위한 초안 작업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4.3. 개수 분석

앞서 『만문노당』에 실린 내용이 『만문원당』에서 일부 단어를 고쳐 써 넣거나 삭제하는 등의 개수를 거친 결과물임을 살펴봤다. 『만문원당』에서 개수된 부분은 얼핏 보기에는 사소해보이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수되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대조를 통해 청나라가 형성되고 기틀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응축해 살펴볼 수 있다. 개수의 의미는 크게 홍타이지의 중앙집권화와, 명·조선 등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만주족 정체성 확립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4.3.1. 중앙집권화

먼저 천총 원년 1월 18일 기사(6-16)에서 한이 자신을 be라고 썼다가 bi로 고쳐쓴 부분([그림 6])을 통해서 누르하치 이래로 권력을 분산해 버일러들¹⁰³⁾과 공유하던 여진족의 전통에서 벗어나 홍타이지가 중앙집권화

103) 누르하치는 1615년 휘하의 부족을 후금의 새로운 군사조직인 동시에 행정·경제·사회 조직인 팔기로 편성해 지휘체계를 확립했는데, 1616년에 누르하치는 바야라 5000여 기병을 친병으로 거느린 팔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정황기와 양황기를 지휘하고 다른 버일러들은 모두 각자의 바야라를 거느리며 할당된 기를 소유했다. Eberhard는 만주의 초기 팔기 제도를 유럽 중세의 봉건제도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제시한다. 한과 버일러, 그 직계후손이 형성한 통치계급은 세습귀족이 됐는데 한과 버일러는 피차간 충성과 상호지지를 유지했고 모두 각기에서 선발되어 온 친병 바야라와 주종관계를 맺었다. 각 버일러는 한이 요구할 경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 자신은 2~3개의 기만을 장악하고 나머지 기는 버일러에게 통솔하도록 했다. 버일러들은 의정회의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해 한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는 권리와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반면에 Michael은 팔기의 관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한은 국가

를 피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림 6 be의 bi로의 개수 (원당 6-16)

홍타이지는 다른 버일러들과 권한을 나누는 ‘사왕분권(四王分權)’ 체제로부터 중앙집권적 권력 장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Takao, 2009: 120-124). 이는 홍타이지 시기에 시도된 것으로 당초 누르하치는 그렇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한의 독재적 황권 강화를 우려하고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누르하치는 1622년 3월 八王 호소이 버일러 가운데 四大 버일러인 다이산, 아민, 망굴타이, 홍타이지에게 교대로 국정을 처리하면서 자신을 보좌할 것을 명했다. 누르하치는 유훈으로 8명의 버일러가 권력을 공유하는 ‘팔왕공치’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1626년 누르하치 사망 후 홍타이지가 한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원래 여진족 사회에서는 한도 일개 기의 어전(主)에 불과했지만(Takao, 2009: 121), 홍타이지는 이내 다른 대 버일러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임계순, 2000: 50-54). 특히 홍타이지는 장유의 서열상 3명의 연장자인 암바(amba) 버일러, 아민(amin) 버일러, 망굴타이(manggūltai) 버일러 아래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러한 전통을 타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집권화를 추진하는 혁신을 거행한다(Takao, 2009: 121).

홍타이지는 우선 기의 행정사무 체제를 장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

전체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버일러들은 한의 환심을 사지 못하면 당연스럽게 파직당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버일러에 예속된 노복과 바야라가 그 주인의 불법 행위를 한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았다. 임계순은 이에 대해 누르하치가 구 사어전을 임명해 각 기에 대한 버일러의 권리를 제한했을 뿐더러, 팔기의 민사와 군사를 관리하도록 했으므로 팔기 제도를 일종의 봉건 제도로 보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임계순, 2000: 34~36).

기반을 구축한다. 홍타이지는 즉위 직후인 1626년에 자신의 측근을 각 기에 총관기무대신으로 임명해 기의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하게 한다. 즉 버일러로부터 기의 행정권을 박탈한 것이다. 또 별도의 중국식 행정기구를 설치해 명조의 유능한 관리를 흡수하고 자신의 건국 사업에 협조하게 했다(임계순, 2000: 51~54).

홍타이지는 영역 안의 한족의 정치·경제·군사력은 물론, 몽골족 기마병의 기동력까지 동원해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내몽골 차하르부를 평정하고 대원의 전국옥새를 차지하자,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여진족¹⁰⁴을 통일한 후금에서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복합 다민족 국가로 나라를 변모시켰고 국호를 ‘칭’으로 바꾸며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Takao, 2009: 122~123).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발하는 대 버일러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다. 홍타이지는 자신에게 불만을 표하고 따르지 않는 대 버일러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강등시키고 작위를 박탈하는 등으로 진압해 일인체제를 확립한다. 가령 아민 버일러는 1630년에 만리장성 4개 도시 중 천안(遷案)과 영평(永平)의 한인들을 도살했다는 이유로 홍타이지의 처벌을 받아 10년 뒤 감옥에서 죽었고, 망굴타이는 1631년에 홍타이지의 면전에서 칼날을 보였다는 구실로 대 버일러에서 버일러로 강등됐다가 이후 병사하자 작

104) 여진족에 대해 살펴보면, 여진족은 전통적으로 숙신(기원전 1100년), 읍루(기원전 200년), 물길(기원전 500년), 말갈(기원전 700년) 등의 민족과 관련됐다고 여겨지지만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Elliot, 2009: 97-109). Elliot(2009: 97-109)에 따르면, 여진족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누르하치 때 강력한 통합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홍타이지 치세 초기까지 한의 권한은 다른 버일러들과 권한을 공유하는 분권적·수평적 지위에 머물렀다. 이는 여진족의 나라 형성 과정과도 무관치 않다. Elliot(2009)에 따르면, 처음부터 만주족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명대만 보더라도 현재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흑룡강성 일대 숲과 강변에 분포해 흩어져 살던 여진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 여진족은 12세기 금나라를 세웠던 이들의 후손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여진어를 구사했는데 만주어와 마찬가지로 통구스어족에 속했다. 15세기 들어설 무렵, 원이 몰락하고 명이 막 세워진 시기에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누르하치가 1583년 24세의 나이로 건주좌위의 주장 지위를 계승하면서 빠르게 주변 지역을 통합해나갔다. 마침내 1616년 누르하치는 자신을 후금국의 ‘경기연 한(genggiyen han)’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로써 여진의 정치적 통일이 거의 완성됐고 자신과 부하들이 12세기 금나라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위를 박탈당하고 소속 정남기를 빼앗겼다. 다이산은 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고 홍타이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임계순, 2000: 51~52).

흥미롭게도 이러한 홍타이지의 일인체제 확립 시도가 『만문원당』의 개수에서 두드러지는 형태로 발견된다. 아래 [그림 30]을 보면, 행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알아보지 못하게 몇 줄의 내용이 어지럽게 추가되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청 태종조 『만문원당』 중에서 이렇게 가독성이 낮게 글씨가 적힌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세 버일러(ilan beile)’란 글자가 세로로 정연하게 쓰이지 않고 사선으로 쓰이고 있는 점이 이목을 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사선으로 적힌 ilan beile

해당 부분의 내용은 (63)과 같은데, 세 버일러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홍타이지와 나란히 앉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63)

daci manju gurun i doro hengkilere de, amba beile, amin beile, manggūltai beile be, ilan beile be ahūn seme kunduleme han i juwe ashan de tebuhe, yaya bade, inu han i adame tebure dabala, fejile teburakū bihe, fe yamji,

원래 만주국의 禮는 고두할 때에 大버일러·아민 버일러·망골타이 버일러 세 버일러를 兄이라고 존중하여 한의 양 측면에 앉게 했다. 어느 곳에서도 한과 나란히 앉게 할 뿐 아래에 앉히지 않았다. 선달 그림과 … (고려대학교 만문노당역주 태종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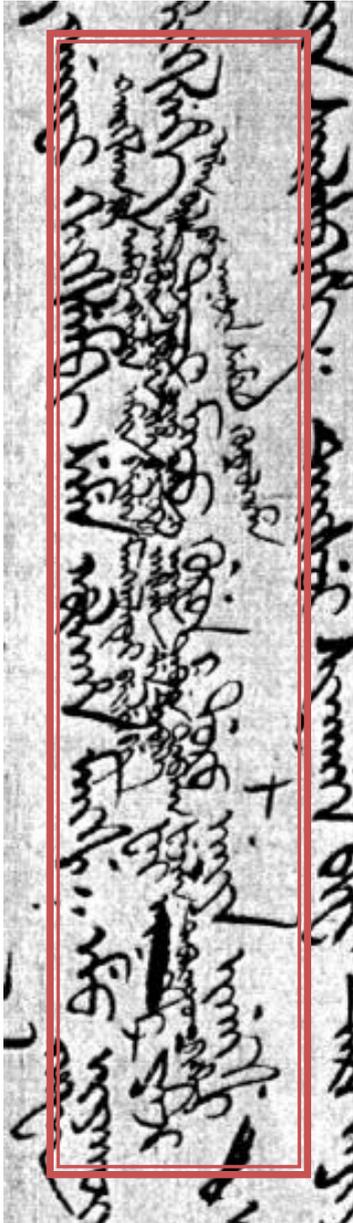


그림 30 원당 6-3의 개수 양상

그런데 이 기사는 최소 누르하치 사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페이지에 ‘태조(taidzu)’라는 묘호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점 만문으로 적혀져 있다.



taidzu

홍타이지가 ‘사왕분권’ 관계에 있는 다른 버일러들에 대해 자신의 위상을 높인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아민 버일러와 조선의 원창대군이 한을 알현하는 장면을 담은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관찰된다. 해당 기사는 주로 『만문원당』 6권의 89~93쪽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이 내용은 앞서 『만문원당』 6권의 26~27쪽([그림 14])에서도 문장 일부 구절을 차용해 변개되어 다뤄진다.¹⁰⁵⁾

한의 권력에 대한 공대가 『만문노당』으로의 변개 과정에서 드러난다. 즉 천총 원년 4월 15일 기사(『만문노당』 기준, 『만문원당』 기준으로는 천총 원년 3월 초닷새)에서 『만문원당』([표 92]의 왼쪽 그림(원당 6-26))

105) 이 부분에서 『만문원당』이 『만문노당』과 다른 점은 조선 왕의 동생이라며 청나라에 보내진 원창대군의 이름을 li geyo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은 원창대군의 이름을 이구(李玖)라고 기록하는 있는 데 반해, 태종문황제실록에는 이각(李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만문원당』의 li geyo([그림 31])는 이구 또는 이각을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li geyo (원당 6-27)

한편 청 태종조에서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간 중복되는 기사는 [부록 4]와 같다. 청 태조조 중복 기사 문제는 기존 연구(廣祿·李學智, 1965; 松村潤, 2001; 김두현, 2010, 早田輝洋, 2014; 김주원·이형미, 2017)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에서는 “한, 대 버일러, 다이산¹⁰⁶), 망굴타이 버일러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다(han, amba beile, [+daišan,] manggūlTai beile tehe ba ci ilifi okDokŪ)”라고 나와있지만 『만문노당』([표 92]의 오른쪽 그림(노당 3963))에서는 “한, 대 버일러, 망굴타이 버일러가 앉은 옥좌에서부터 마주 맞이했다(han, amba beile, manggūltai beile, tehe soorin ci ishun okdofi,)”라고 묘사하고 있다. 아민 버일러는 정묘호란 때 조선 정벌에 나서며 활약했지만 한의 중앙집권화를 위해 견제를 받은 인물이므로 한이 “일어나 맞이하는” 정도로 예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문원당』에서는 한과 버일러들이 앉은 곳에서 앉은 채 아민 버일러를 맞이했다고 서술함으로써 한의 아민 버일러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만문노당』에서는 한과 버일러들이 앉은 곳을 아예 ‘자리’에서 ‘옥좌’로 승격함으로써, 한의 권위를 높여서 한과 버일러들이 앉은 채 아민 버일러를 맞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기사는 뒤에 중복기사로서 다시 등장한다. 천총 원년 4월 15일(6-90) 아민 버일러가 한에게 알현하는 내용을 서술한 중복기사에서도 흥타이지가 장유의 서열을 극복하고 황권을 강화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그림 32]). 『만문원당』에는 원래 han, juwe amba beile soorin de bederefi tehe로 ‘한과 두 대 버일러가 옥좌로 물러나 앉았다’라고 나와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juwe amba beile를 지우고 다음 문장 앞에 juwe amba beile, han i juwe ashan de adame tehe라는 문장을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이에 따라 『만문노당』에는 han soorin de bederefi tehe, juwe amba beile, han i juwe ashan de adame tehe ‘한은 옥좌로 물러나 앉았다. 두 대 버일러는 한의 양측에 배열하여 앉았다’로 나타나게 됐다. 즉 원래 『만문원당』에는 한과 두 대 버일러에 대해 모두 옥좌라는 존칭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개수를 통해 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두 버일러는 한보다 아래 서열에 위치하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이

106) 다이산은 누르하치의 차남이자 흥타이지의 형으로서 천총 9년에 흥타이지로부터 단죄를 받아 ‘암바 버일러’라는 칭호를 취소당했다(Takao, 2000: 132). 그런데 천총 원년 기사에조차 이를 소급해 개수를 통해 암바 버일러 옆에 ‘다이산’이라는 인명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흥타이지의 권력 강화를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 개수를 통한 흥타이지의 황권 강화 노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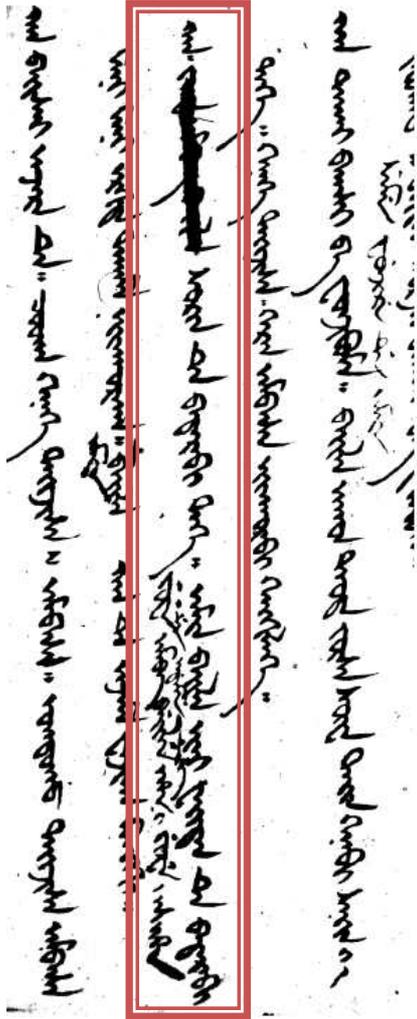


그림 32 흥타이지의 황권 강화 개수 (원당 6-90)

원 당
6-26

노당 3963

표 92 『원당』·『노당』의 아민 버일러의 한 알현 장면 문구 대조

Takao(2000: 130-133)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천총 10년 4월 8일 기사에서 홍타이지의 형인 암바 버일러의 고두를 홍타이지가 거절한 일화라거나 승덕 원년 10월 16일에 친왕과 군왕이 길에서 공주와 마주쳤을 때 장유의 서열에 따라 가게 한다는 예법을 소개하는 등 홍타이지가 한으로서의 권력 강화를 위해 극복해야 했던 장유 서열의 전통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의 중앙집권화를 엿볼 수 있는 개수는 『만문원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문원당』의 천총 원년 정월 18일 기사에서 출병한 버일러들이 곽산성(郭山城)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한에게 알리면서 앞으로의 전투 전략을 물어오자, 한이 답신하면서 마지막 두 문장의 be ‘우리’라고 쓴 부분을 지우고 ‘bi’ ‘나’라고 고쳐 써넣고 있다. 즉 『만문원당』에서 한의 서신 마지막 두 문장은 다음 (64)와 같다.

(64)

“suweni takūraha gisun be tuwame [be → bi] jabufi unggire, [be → bi]

tehe niyalma, buhiyeme aiseme hendure, 너희가 보낸 말을 보고 [우리 → 내]가 답하여 보낼 것이다. [우리 →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추측하여 어찌 말하겠는가?” (『만문원당』 6-16; 『만문노당』 1:16a)

이 문장들에서 보면 ‘우리’가 ‘나’로 고쳐 써넣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르하치 이후 홍타이지 치세 초반까지 통치세력이 분권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때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썼다는 것은,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여진족 세력을 통일시켜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 시기까지 한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나’라는 독재적인 중앙집권화된 표현을 쓰지 못하고, ‘사왕분권’을 가진 종실의 다른 대 버일러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누르하치는 독재적인 강력한 한의 출현을 경계해서 팔왕공치의 원칙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홍타이지 시대 때부터 한의 시점을 과감하게 ‘나’라고 1인칭 단수 시점으로 정의내리는 황권 강화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나’로 고친 개수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개수의 결과가 『만문노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만문노당』이 중초된 건륭제 시기에는 이러한 한의 확고한 독재적 황권 강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입관 후 옹정제 시대 때 청나라의 독재적 황제 권력이 정점을 이르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간주하며, 강희-옹정-건륭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청나라의 전성기였다. 한편 구범진(2019: 68)이 『만문노당』을 연구한 결과, 1627년 정묘호란의 결정을 내린 것도 홍타이지가 아니라 원정군의 지휘부였다.

한편 ‘홍타이지’에 대한 피휘(避諱)는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즉 『만문원당』에서는 천총 2년 4월(6-198 등)부터 송덕 원년([그림 18])까지 홍타이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홍타이지의 이름을 그대로 언급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홍타이지가 나올 부분을 황전(黃箋, 노란 띠)으로 가리고 있다. 이는 홍타이지에 대한 공경과 삼가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피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만문원당』과 달리, 『만문노당』에서는 홍타이지의 황권 강화에 따

른 피휘와 대두의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 『원당』의 ‘홍타이지’ 피휘 미적용 사례 (원당 10-680)

4.3.2.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또한 천총 원년의 기사들(6-57, 6-66, 6-68, 6-104~105 등)에서 ‘조선의 한’을 ‘조선의 왕’으로 고쳐 쓴 부분([그림 7])은 홍타이지가 중국식 황제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황제’와 ‘왕’이라는 상하관계를 ‘한’과 ‘버일러’들에게 적용해, 명확한 권한 분리를 꾀하려고 한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의 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선의 최고 통치자가 청나라와 동일한 직위를 가진 것이 되므로, 조선은 청나라에 복속된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버일러’에 해당하는 ‘왕’의 칭호를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홍타이지가 1636년 대청 제국의 황제로 즉위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타당성을 얻는다. 즉 청나라에게 있어서 조선과의 관계는 정묘호란 이후 맺고 있던 대등한 외교관계에서, 홍타이지 즉위 이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지배와 복속 관계로 바뀌었다고 간주되는데,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개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림 7 solhoi han의 solhoi wang으로의 개수 (원당 6-67)

구범진(2019: 21-32)에 따르면, 조선은 청나라와 두 차례 전쟁을 하는데, 1627년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맹약’ 화의에 따라 이후 10년 동안 후금의 한 홍타이지와 조선의 왕 인조는 상호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병자년 4월 11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할 때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확에게 삼궤구고두의 의례를 올릴 것을 강요했으나 두 사람이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홍타이지가 이를 빌미로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대한 친정에 나설 계기를 만든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군에게 포위당하자 결국 항복을 선택하고 홍타이지의 요구대로 남한산성에서 출성한 뒤 1637년 2월 24일 한강 남안의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삼궤구고두의 예를 올린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묘호란 직후에 명나라에 보낸 서신에서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당시 후금)에 대해 오랑캐라고 칭하며 친명배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서신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5)

중국에 주문(奏聞)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성모(姓某) 【이종(李宗)】 는 삼가 아뢰입니다. 사나운 오랑캐가 저들하여 갑자기 서울에 쳐들어왔는데 화친하자는 저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이 너무 급하고 화(禍)가 절박하여 미처 아뢰어 명을 받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후의 사정을 자세히 진달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4월 1일 정유 6번째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반면에 병자호란 이전인 1633년에 청나라(당시 후금) 한이 조선에 보낸 서신을 보면, 그들은 조선을 형제국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서신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6)

내 생각에 귀국은 남조(南朝)와는 부자가 되고 우리와는 형제가 되오. 그러나 부모의 나라가 열 번 말하면 열 번 들어주면서 형제 사이에는 열 번 말한 데 대해 한 번도 들어줄 수 없단 말입니까. 왕께선 생각해 보십시오.

귀국은 이미 명나라로 부모를 삼고 우리 나라를 형제로 삼았소. 그런데 우리 나라가 명나라와 십수 년 동안 싸우며 병화를 맺어 왔으나 귀국은 그 사이에 끼여 승패만 지켜보며 화해를 붙이지 않았으니, 부모 형제의 명칭만 있을 뿐, 실은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화를 즐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못 두 나라의 승패가 나라의 대소와 사람의 지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오. 귀국은 명나라로 부모를 삼고 우리를 형제로 삼았으니, 왕은 곧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명나라의 신료들이 조정의 주륙을 입을까 염려하여 감히 함부로 나서서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오. 그러므로 왕은 부모 형제 사이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려 화해를 힘써 주장하여도 부당할 것이 없는 것이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온 천하가 당장 태평하게 되어 두 나라의 전쟁이 종식될 뿐만이 아니라 귀국의 복됨 또한 작지 않을 것이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6월 16일 병자 1번째 기사 - 1633년 명 승정(崇禎) 6년)

한편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온 내용을 담은 기사에는 청나라(당시 후금)의 한을 황제로 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나라에 복속된 관계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기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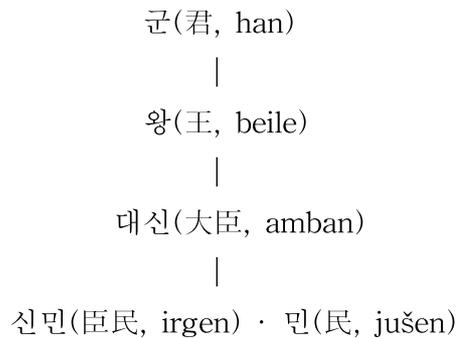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오목도를 접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병이 심하여 다시 세자를 만나보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이제 황제께서 돌려보내 만나보도록 하시었습니다. 대인들께서 주선해 주신 덕분이니,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3월 7일 무자 1번째 기사 - 1640년 명 승정(崇禎) 13년)

한편 청은 부족의 우두머리에 대해 초기에는 버일러(Beile)라는 호칭을 썼으나 세력의 규모가 커지면서 몽골로부터 한(汗)이라는 지도자 호칭을 차용했다(陳捷先, 1969: 45). Takao(2009, 108-116, 134)에 따르면, 한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래전 흉노(匈奴)의 선우(單于)와 돌궐(突厥), 위구르의 가한(可汗)과 마찬가지로 북아시아 세계의 통일 유목국가에서 ‘군장(君長)’이나 ‘군주(君主)’를 일컫는 칭호였다. 몽골에서는 한이 쿠릴타이처럼 여러 부족을 통합한 부족 연합국가의 족장회의에서 각 족장 중 선출된 의장을 가리켰는데, 이는 집권제의 최고위에 위치한 절대군주인 중국의 황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나라는 몽골 칭기스칸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아 족장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인 ‘한’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으나, 조선은 그럴 수 없었고 중국의 황제보다도 낮은 ‘왕’이라는 호칭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에 한이라는 지위는 황제와 달리 독재권이 없었으며 족장들이 동등한 권력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적용하기는 부적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한’이라고 쓴 것을 ‘조선의 왕’이라고 쓴 것은 분명한 강등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타이지가 다른 세 대 버일러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신의 ‘한’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도 최대 ‘버일러’ 이상에 해당하는 직위를 적용하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홍타이지가 1636년 대청의 황제 자리에 즉위할 때, 그 명분으로 만주족과 몽골국의 지배, 조선국의 평정, 대원의 전국옥쇄 획득을 들고 있으므로 조선은 이미 대청 제국의 지배 하에 놓여있다고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제’에 해당하는 ‘한’을 쓸 수 없고 ‘버일러’에 해당하는 ‘왕’이라는 명칭을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주족 사회의 위계에 따르면 ‘왕’은 버일러(beile) 직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홍타이지는 집권화 과정에서 한과 종실의 버일러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중국식 황제와 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도식은 (68)과 같다.

(68)



(Takao, 2009: 115)

또한 이러한 개수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차이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만문원당』에서 애초에 ‘조선의 한’이라고 기술했을 당시는 천총 원년(1627년) 4월이므로 홍타이지가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던 정묘호란(1627년 1월) 직후이다. 정묘호란 이후 10년간 조선과 청나라(당시 후금)는 대등한 형제 관계를 맺었으므로 ‘조선의 한’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후 조선에 대한 지배를 명확히 하고자 홍타이지가 친정을 하여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선의 한’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조선은 청나라에 복속한 상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륭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만문노당』을 중초할 때 ‘조선의 한’을 모두 ‘조선의 왕’으로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개수뿐만 아니라 대두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4.5장에서 대두의 사례를 살펴봤다. 그중에서 9-288([그림 19])에서 후금(aisin gurun)과 조선(coohiyan gurun)의 대두 순서를 나타낸 것이나, 9-362~364([그림 21])에서 청나라를 귀국(wesihun gurun)이라고 표현하면서 wesihun gurun에 대한 대두를 나타낸 것을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천총 9년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대두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총 10년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앞두고 일어난 급격한 변화이다. 이는 홍타이지가 대청 제국 황제의 근거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만문당안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지배-복속 관계를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개수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가 조선에서 더 나아가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한 시도가 나타난다. 원래 원당에는 nikan jušen bithe de라고 써있었는데 여기에서 jušen에 동그라미를 치고 『만문노당』에서는 뺐다. 그리고 좌측 행간에 manju bithe를 nikan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만문원당』에서는 [manju bithe], nikan jušen bithe de처럼 나타난다([그림 8]). 원래는 명나라 다음에 후금을 위치시켰다가,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서 만주를

107) 한편 실록에 한이나 황제란 용어를 쓰는 것이 중국 황제제도에 합치되도록 수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입관과 북경 천도를 거쳐 중국 황제로서의 입지가 확실해진 이후에 편찬한 실록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Takao(2009: 128-130)에 따르면, 『등한대위당(登han大位檔)』에서 1636년(천총 10년, 송덕 원년) 4월 11일 홍타이지가 천단에서 황제에 즉위했음을 하늘에 고하는 고천(告天) 의식을 거행할 때, 고천 축문에 “병자(丙子)년 4월 11일에 만주국의 신하 홍타이지(manju gurun i amban hong taiji)가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합니다”라고 나와있을 뿐, ‘한(han)’이나 ‘황제(만주어로 hūwangdi)’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순치 시대에 처음 편찬한 『대청태종문황제실록』과 건륭 시대에 중수한 같은 실록의 각 한문본에서 ‘한’과 ‘황제’라고 표현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이나 ‘황제’, ‘왕’ 등의 표현 모두 중국식 황제 제도를 도입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명나라 앞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타이지가 대청 제국 황제로 즉위하고 청나라가 입관 후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는 대청 제국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개수 작업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jušen의 manju로의 개수 1 (원당 8-223)

청나라가 자신의 한의 지위를 드높이려고 한 시도는 천총 연간(6-77, 8-223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han을 sure han으로 개수해 높여 쓰고 있다. 이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기존 연구(김선민, 2012: 144; Takao, 2009: 102-109)에 따르면, 『구만주당』 『荒字檔』의 1615년 기록에서 누르하치를 sure amba genggiyen han(大英明汗)이라고 부르는데 이 존칭은 사실상 1616년에 누르하치에게 바쳐진 것이다. 누르하치가 여허를 제외한 여진족의 버일러들로부터 받은 최초 한의 존호인 것이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이 기록이 천명 원년(1616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이전 일은 소급해 적혔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주장을 참고하면, 『만문원당』에서 han을 sure han으로 고쳐 쓴 것도 유사한 맥락이 적용됐을 수 있다. 즉 원래 천총 원년 4월 28일 기사(6-77)는 1616년 이전을 기준으로 누르하치를 한으로 호칭해 기술했지만, 이후 개수를 통해 1616년 누르하치에게 바쳐진 수려 한(sure han) 존칭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만문원당』이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회고적으로 기술된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수는 언제 이뤄진 것일까? 다음의 개수를 보면 그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8-223([그림 9])을 보면 nenehe [genggiyen han → taidzu] ci,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는데, ‘정기연 한’을 ‘태조’라는 묘호로 고쳐 써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누르하치 치세가 끝난 이후에 개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nenehe genggiyen han의 묘호 taidzu로의 개수 (원당 8-223)

8-223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나타난다. genggiyen han을 taidzu로, genggiyen bihe를 sure bihe로, han i tere gisun be를 han i tere hese be로 고쳐 써넣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개수 시점이 누르하치 치세 이후 상당히 후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명나라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명과 청을 대등한 관계로 두되 주고받은 글의 내용에 따라 명을 청보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에서 화친을 요구하면서 초기에는 명나라를 대두하면서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명나라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차츰 명나라 황제를 낮춰쓰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편 홍타이지가 황제로 등극한 승덕 원년 이후에는 대명 제국이라는 호칭을 아예 ‘명나라’로 낮춰 쓴 부분도 발견된다. 이는 모두 『만문노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천총 2년 5월 11일 기사(6-252)에서는 청나라의 한이 명나라의 대신들

(ambasa)에게 보낸 글(bithe)이라고 말하면서, 후금(aisin gurun)과 이를 개수한 청나라(manju gurun)를 대두해 쓰고 대명국(daiming gurun)의 대신들은 일반 내용과 같은 높이로 쓰고 있다. 내용도 청나라가 명나라를 침략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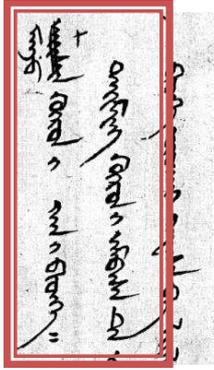


그림 23 천총 2년 기사 (원당 6-252)

그런데 천총 3년이 되면 양상이 달라진다. 천총 3년 2월 28일 기사(8-5)를 보면, 후금의 한이 대명국의 집정(執政) 대신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표현하면서 후금에 비해 대명 제국이 2단 대두되어 있다. 글의 내용은 후금이 명나라에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요동(遼東)과 광녕(廣寧)의 땅을 얻은 후금이 자신을 소국으로, 명국을 대국으로 표현하면서 화친을 요구하고 있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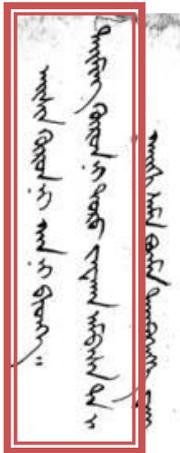


그림 24 천총 3년 기사 (원당 8-5)

천총 3년 7월 기사(8-18)에서는 후금 한이 대명국의 袁(崇煥) 대인(大人)(yuwan amba niyalma)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면서, 후금의 사신을 존중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과 함께 대명국을 대두해 쓰고 있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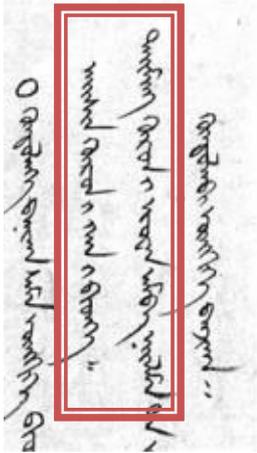


그림 25 천총 3년 기사 (원당 8-18)

천총 4년 3월 28일 기사(7-72)에서는 후금의 둘째 버일러(아바타이 버일러)가 대명국의 祖(大壽) 장군에게 보낸 글이라고 하면서 대명국이 후금보다 대두되어 있고([그림 26]), 그 다음날인 29일 기사(7-75)에서도 후금의 둘째 버일러(아바타이 버일러)가 대명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하면서 대명 제국의 황제를 다른 내용보다 대두해 쓰고 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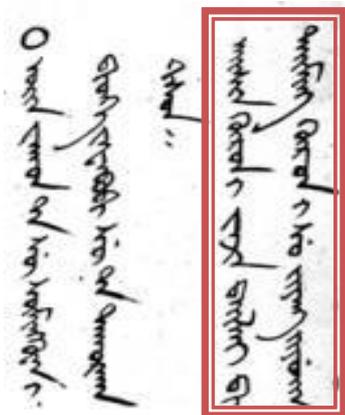


그림 26 천총 4년 기사 (원당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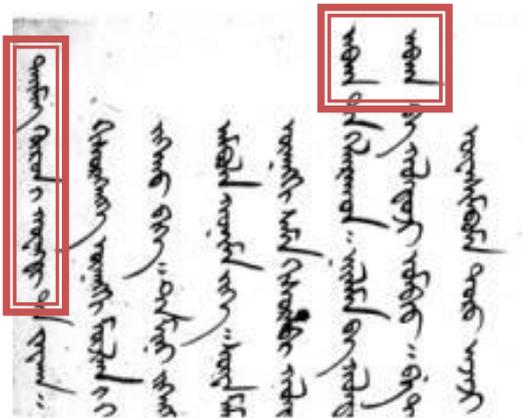


그림 27 천총 4년 기사 (원당 7-75)

반면에, 천총 4년 2월 초아흐레 기사(7-124)에서는 후금의 한이 대명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하면서, 다른 줄과 똑같은 높이로 daiming 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한 단계 낮춰서 씌으로써 오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처럼 가장해 대명 제국을 낮춰 쓰고 있다. 또한 고쳐쓴 부분에서도 대(dai)자에서 -i자를 빠뜨려서 da-에 첨가 기호(+를 쓰고 좌측 행간에 -i를 덧붙이고 있다. 명나라에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후금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명나라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실수를 가장해 명나라 황제를 낮춰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8]). 한편 천총 4년 3월 29일 기사([그림 27])에서는 대명 제국보다 하늘(abka)를 더 높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장 높여쓰는 존재는 하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천총 4년 기사 (원당 7-124)

이를 통해 볼 때 후금(또는 청나라)와 대명 제국에 대한 상대적인 대두 순서는 기본적으로 명나라와 청나라를 대등한 관계로 두되, 주고받은 글의 내용에 따라 명을 청보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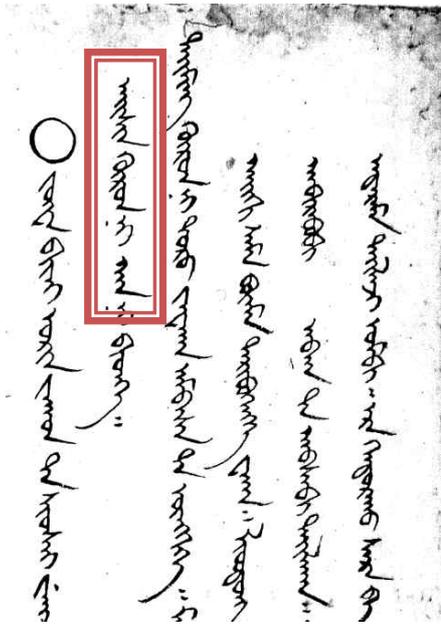
반면에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한 송덕 원년 이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아예 명나라를 강등해 지칭한 것이다. 즉 송덕 원년에는 대명국(daiming gurun)을 후금과 대등하게 놓을뿐더러, 송덕 원년 7월 19일 기사(10-339)에서는 ‘대명국(daiming gurun)’에서 ‘대(大, dai)’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지운 효과를 내고 명나라(ming gurun)만 남겨놓았다([그림 29]). 이렇게 개수된 결과가 『만문노당』에 반영되어 『만문노당』에는 곧바로 명나라(ming gurun)로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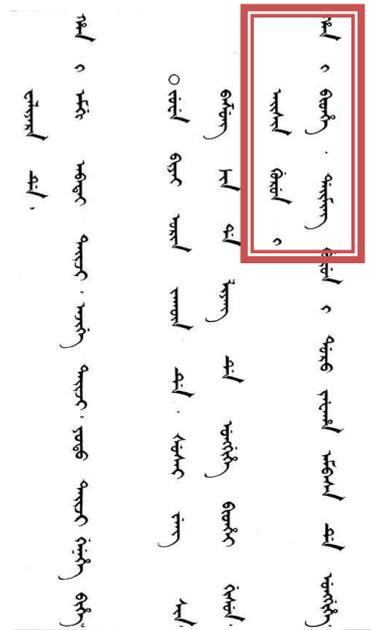
그림 29 송덕 원년 기사 (원당 10-339)

『만문노당』은 한(han)과 천상의 상제(上帝, dergi abkai han), 주상(主上, dergi ejen), 상천(上天, dergi abka), 하늘(abka) 등에 대해서만 대두하고 있으므로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청나라 한에 대한 대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후금 한의 서신에서 『만문노당』에서는 후금을 1단 대두하고 한은 대두하고 있지 않은데 『만문노당』에서는 후금은 대두하고 있지 않고 한을 확연히 대두하고 있다([표

93]). 또한 청나라 한의 서신의 경우, 『만문원당』에서는 청나라와 한 모두 대두하고 있지 않은데, 『만문노당』에서는 한을 대두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표 94]).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오면서 청나라 한을 높이는 의식이 한층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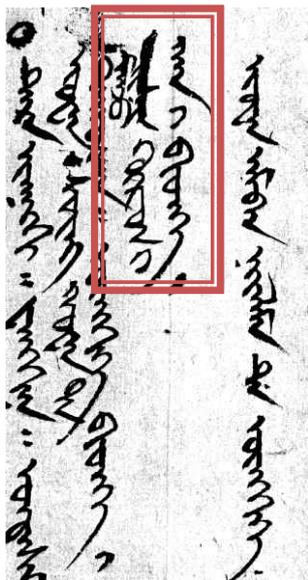


원당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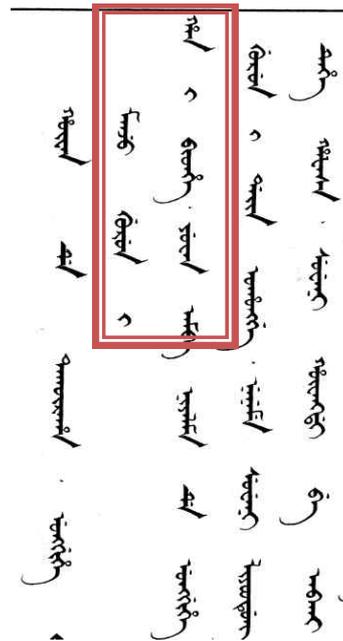


노당 4452

표 93 『원당』·『노당』의 후금 한 대두 양상 차이



원당 6-4



노당 3786

표 94 『원당』·『노당』의 청나라 한 대두 양상 차이

4.3.3. 만주족 정체성 확립

『만문원당』 전반에 걸쳐 금(aisin) 또는 여진(jušen)을 만주(manju)로 고쳐쓰고 있는 것은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청나라 인들이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건륭제(1736~1795)가 의식적으로 한족의 문화와는 다른 만주의 문화를 증진했을 때부터로 보인다. 그 전까지 만주족은 자신들을 한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집단 정도로 인식했지만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된 것은 건륭제부터로 본다. 만주족의 입관 이후 한족과의 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건륭제가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한 것이다. 이주엽(2020: 251)에 따르면, 건륭제의 명으로 편찬된 청의 공식 역사서인 『만주원류고(滿洲原流考)』(1778)에는 만주인의 원류로 읍루, 말갈, 완안, 부여, 삼한, 백제, 신라, 발해와 같은 고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와 부족들을 언급한다. 이는 한민족의 역사를 만주족의 역사체계에 편입함으로써 한족과 구별되는 만주족의 동이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이다(方京一, 2005).¹⁰⁸⁾

학자들은 만주족 정체성 형성에 팔기가 미친 영향도 크다고 분석한다. Chiu(2017: 1-4)에 따르면, Rhodes와 같은 학자는 팔기에 소속된 만주인들이 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팔기를 직업 체계가 아닌 민족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Elliott와 같은 학자는 만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17세기 초 팔기가 형성되면서 출현해서 만주 고유의 제도를 갖춘 기관을 통해 18세기를 거쳐 급성장했다고 주장한다.

만주족이라는 개념이 민족적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청나라의 팔기 체계로부터 생성되고 발달했다는 견해는 여러 학자가 제시했다. Takao(2000: 70-78)는 滿이 만주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청나라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통

108) 이를 통해 청 제국의 만주인 지배층이 고대 중국의 한족보다 고대 한반도의 주민들을 자신들과 더 가까운 집단으로 여겼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조관이 동북공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이주엽, 2020: 251).

합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 ‘오족(한·만·몽·티베트·위구르)의 중국’이라고 불리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확립된 청나라의 만(동북부에서의 만·몽골·한)·한(중국 내지)·번(몽골·티베트·위구르)의 구조에서 ‘만’은 반드시 만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한 기인사회를 통칭하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팔기 집단과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만주족 정체성이 팔기 집단으로부터 생성되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Rigger(1996: 186-191)에 따르면, 팔기 집단은 청나라를 통치하는 누르하치의 아이신기오로 일족에게 복속되어 정치·군사적으로 복무하는 팔기인을 가리킨다. 이때 만주족으로 규정되기 위한 문화적인 의무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러한 문화적인 사항으로는 북동 지역의 샤머니즘 의식을 수행하고 만주어로 불리는 여진어 방언을 구사하며 만주식 이름을 쓰는 씨족 집단에 속하고 특정 의복을 입고 전족을 하지 않고 활쏘기, 말타기 등을 연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앞서 말했듯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 그보다 만주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청나라와 팔기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따라서 만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팔기 집단의 개별 민족과 관습 등은 천차만별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홍타이지가 1635년 민족명을 주선에서 만주족을 고친 것은 중국 대륙 정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집단이자 민족 집단을 천명한 셈이었다. Takao(2009: 117~118)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를 전후해 팔기제를 팔기만주, 팔기몽골, 팔기한군의 형태로 정비해서 만·몽·한의 세 민족으로 구성되는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후 청나라의 전성기 시기인 건륭제 때에 이르러 번까지 병합하면서 이러한 팔기의 민족 집단화 작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Takao(2000: 91-96)는 팔기의 민족 집단화 작업의 근거를 북경의 중국 제일역사당안관에서 발견된 『선(先) 경기연(genggiyen) 한(han) 현행전례(賢行典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만문 당안은 누르하치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료인데, 이 당안에서는 만주족의 시조로 알려진 부쿠리 용손이 혼란을 다스리고 버일러가 되기 이전을 주선국이라고 하고, 버일러가 된 이후를 만주국이라고 해 둘을 명확

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민족명은 일관되게 주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이 자료가 홍타이지가 천총 9년인 1635년 10월에 민족명을 주선이라고 쓰는 것을 금지하고 만주로 칭하게 한 시점 이전에 기술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홍타이지가 사왕분권에서 다른 버일러들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황권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여진인인 주선에 국한됐던 민족의 범위를 팔기 기인사회로 확대하는 ‘만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을 자료로 하여, 그중 청 태종조 시기(1627~1636)에 대해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개수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문자·언어·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언어적인 측면은 『만문원당』과 『만문노당』 청 태종조 전반에 걸쳐 전수 조사를 했으며 중국어 차용어에 대해서는 청 태종조 부분 중 조선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대표 예를 살펴봤다.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개수된 양상은 청 태종조 가운데 조선 관련 기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만문원당』의 문자적 측면을 살펴봤는데, 이 만문당안은 무권점 만문과 유권점 만문, 무권점에서 유권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만문이 혼재되어 있어서 만주 문자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무권점 만문의 로마자 전자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뒤, 이를 보완·발전시킨 전면적인 전자 규칙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로마자 만문만 보고도 해당 문자가 무권점인지 유권점인지 여부와 글자의 양성자와 음성자 정보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언어적 변화는 음운, 형태·통사, 어휘적 층위에서 살펴봤다. 먼저 음운론적 층위를 보면, 자음은 만주어 고유어는 b와 f의 혼용, 구개음화, 어말 n 유동 등이 나타난다. 중국어 차용어는 『만문원당』에서는 k-구개음화, h-구개음화와 같은 음운 현상이 발생한 형태가 주로 발견되는 반면에, 『만문노당』에서는 오히려 음운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발음을 복원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문원당』이 쓰여진 17세기 초반에 이미 활발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18세기 『만문노당』에는 어떠한 이유로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복원형이 채택됐음을 알 수 있다.

형태·통사적으로는 『만문노당』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형 어미와 부정형 어미가 합쳐져 단어 경계를 재분석하면서 축약되거나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통합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구와 절의 어순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발견되는데 『만문노당』으로 오면서 어순이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바뀌었다.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는 『만문노당』 중초를 위한 사전 초안 작업으로 『만문원당』의 내용을 정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문원당』에 원래 쓰여있던 내용이 개수를 통해 『만문노당』과 동일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거로 『만문원당』에는 사건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인명, 직위 등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발견된다. 이는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만문원당』에서 누락되어 있던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건 서술과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만문원당』의 내용을 보완·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행간에 쓴 글씨가 너무 작고 어지럽게 쓰여있어서 실제로 필사자가 이를 알아보고 옮겨 쓸 목적으로 쓴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는 크게 중앙집권화,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만주족 정체성 형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홍타이지의 중앙집권화가 눈에 띈다.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에 출병한 버일러들에게 답신을 하면서 ‘우리(be)’라고 썼던 부분을 『만문원당』에서 지우고 ‘나(bi)’라고 고쳐 쓰고 있는데, 『만문노당』에는 이렇게 개수된 결과가 반영된다. 세 버일러와 통치 권한을 공유하던 홍타이지가 장유의 서열을 극복하고 통치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한 시도를 드러낸다.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에 임박해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도 관찰된다. 『만문원당』에서 ‘조선의 한(solhoi han)’이라는 표현이 거의 모두 ‘조선의 왕(solhoi wang)’으로 고쳐써지고 있고, 천총 9년에는 조선보다 청을 높여 쓰는 상대적인 대두 서열 개념이 등장한다. 병자호란과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앞두고, 조선을 정묘호란 이후 유지하고 있던 형제 관계에서 복속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청과 동등한 ‘한’이 아닌, 청보다 낮은 ‘왕’이라는 표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을 ‘황제’에, ‘왕’을 ‘버일러’에 대응시킨 청나라의 황제 제도 인식을 보여

준다. 명나라에 대해서도 천총 연간에는 글의 내용에 따라 대두의 상대적인 정도를 조율하다가 홍타이지가 황제에 즉위한 승덕 원년에는 ‘대명제국(daiming gurun)’에서 한자 ‘대(大)’자를 지우고 ‘명나라(ming gurun)’라고만 강등해 표현하는 시도도 드러난다. 『만문노당』에는 이러한 개수가 반영되어 승덕 원년부터 ‘명나라’라고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만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는데, 『만문원당』 전반에 걸쳐 금(aisin)과 여진(jušen)을 만주(manju)로 고쳐 씀으로써 ‘만주인’이라는 관념을 민족 개념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만주인은 청의 팔기 체제에 근간을 둔 정치·군사 집단으로 인식됐는데, 홍타이지가 ‘만주’라는 명칭을 도입하고 후금을 청나라라고 천명함으로써 만주인이 한족과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개념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개수의 표기 양상으로 미뤄볼 때, 『만문원당』의 문자 표기만으로 쓰여진 시기를 추정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만문원당』이 무권점자와 유권점자, 과도기적 유권점 문자가 뒤섞여 쓰여있어 만주어 문자 연구를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수 양상을 보면 단순히 무권점자로 쓰였다고 유권점자보다 앞선 시기에 쓰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가령 기존 내용은 유권점자로 쓰여졌는데, 기존 내용에 추가되어 쓰여진 내용은 무권점자로 쓰여진 예가 발견된다. 1632년 유권점자 제정 이후에도 한참 동안 무권점자와 유권점자가 함께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만문원당』의 개수의 의미는 『만문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 작업 초안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대두 양상까지 고려하면, 『만문원당』에는 『만문노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7세기 초반 청의 고유한 국제 정세 인식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영인본: 『청어노걸대』, 1998. 서울: 弘文閣.
- 고동호(1999), 三家子 만주어의 i 예기 동화, 『알타이학보』 제9호, 11-38.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2017), 『만문노당 역주 1~4』, 서울: 소명출판.
- 구범진(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서울: 민음사.
- 구범진(2017),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과 청군의 전력, 『동양사학연구』 141, 317-353.
- 구범진(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글방.
- 金斗鉉(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 淸史研究, 『明清史研究』 第三十輯.
- 김두현(2010), 『『滿文老檔』과 『舊滿洲檔』 對照表: 太祖朝』,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 金斗鉉(2020), 『새로읽은 滿文老檔과 舊滿洲檔 對照表 太祖朝』, UUP.
- 김민수(1956), 『팔세아』, 『한글』 118, 44-47.
- 김선민(2012),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史叢』 77, 139-175.
- 김선민(2019), 1812년 洪景來의 亂으로 본 朝淸관계, 『中國學報』 제90집, 217-240.
- 김주원(2010),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女眞語·滿洲語(2),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 김주원·고동호·최계영·박상철·도정엽·이형미·김혜·심재홍 역(2019), 『만문노당: 태조 1,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주원·이동은(2004),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女眞語 滿洲통구스語, 『알타이학보』 제14호, 43-64.
- 김주원·이형미(2017), 『滿文原檔』에서 『滿文老檔』으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제 74권 제 3호, 11-47.
- 김혜(2019), 『『滿文原檔』의 차용 표기에 나타난 만주어와 한어의 음운

-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 도정엽(2015), 『滿文老檔』과 『滿洲實錄』의 만주문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제 25호, 1-35.
- 도정엽(2020),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만주어 침사 dere의 추론 증거성 표지로서의 특성, 『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187-220.
- 李基文(1973), 十八世紀의 滿洲語 方言 資料, 『진단학보』 36, 99-132.
- 박상철(2015),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 『청문휘서(淸文彙書)』,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표제어 비교: a sere hergen에 한정하여, 『알타이학보』 제 25호, 37-58.
- 박상철(2016),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분포와 의미, 『언어학』 75, 43-68.
-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 方京一(2005), 『滿洲原流考』에 나타난 淸高宗의 東夷意識, 『만주연구』 3, 105-120.
- 백두현(2017),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서울: 태학사.
- 徐仁範(2013), 明 天啓年間의 陵工과 殿工 채원 조달, 『동양사학연구』 125, 329-366.
- 成百仁(1970), 三田渡碑 滿洲文, 『東亞文化』 제9호, 117-148.
- 成百仁(1976), 滿洲語 音韻史研究를 위하여, 『언어학』 1, 73-98.
- 성백인(1978), 만문 무권점 십이자두 연구, 『말』 제3집, 97-134.
- 성백인(1981), 『만주어 음운론 연구』, 명지대학 출판부.
- 성백인(1990),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알타이학보』 제2호, 27-69.
- 成百仁(1996), 『舊滿洲檔』의 jisami와 『滿文老檔』의 kijimi, 『알타이학보』 제6호, 37-46.
- 成百仁(2000), 『御製淸文鑑』의 滿洲語, 『알타이학보』 제10호, 81-103.
- 안상현(2011), 明의 제2차 紅夷砲 구매와 관련된 두 문서: 「報效始末疏」와 「貢銃效忠疏」, 『규장각』 Vol. 39, 377-405.

-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 서울: 태학사.
- 이주엽(2020), 『몽골제국의 후예들—티무르제국부터 러시아까지, 몽골제국 이후의 중앙유라시아』, 서울: 책과함께.
- 임계순(2000),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 장재진(2012), 무상요가밀교에 나타난 호마(Homa)의례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1, 509-525.
- 정성준(2000), 인도밀교의 전개에 따른 호마의례의 변천, 『불교학보』 37, 291-306.
- 조규태(1981), 『팔세아』 만주어 문어연구, 『국어교육연구』 13, 27-54.
- 최계영(2016),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계영·김주원(2019), 『만문노당』 한·일 번역본의 표기와 번역 차이: 저본으로 인한 차이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 115-138.
- 최동권 역(2007), 『구만주당: 荒字檔』, 서울: 보고서.
- 최소자(1995), 淸과 朝鮮 -明·淸交替期 동아시아의 國際 秩序에서-, 『梨花史學研究』 第22輯, 183-196.
- 최학근(1970), 소위(所爲) 『삼전도비(三田渡碑)』의 만문(滿文) 비문(碑文) 주역(註譯), 『국어국문학』 49·50, 325-354.
- 최형원(2012), 『어제오체청문감(御製五體淸文鑑)』에 나타난 마명(馬名) 고찰(考察) —만주어와 몽골어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7권1호, 89-122.
- 季永海(1994), 『淸文啓蒙』 語音研究-讀書筆記之三, 『滿語研究』 19, 1-13, 黑龍江省 滿語研究所.
- 廣祿·李學智(1965), 淸太祖朝『老滿文原檔』與『滿文老檔』之比較研究, 中國東亞學術研究計劃委員會年報第四期.
- 喬治忠(1994), 『淸朝官方史學研究』, 大陸地區博士論文叢刊, 臺北: 文津出版社.
- 國立故宮博物院 역(1977), 『舊滿洲檔譯註: 淸太宗朝 (一)』, 國立故宮博物院.

- 唐作蕃(2017/2018), 『한어어음사』, [원제: 漢語語音史教程] 고양: 학고방.
- 牟鍾鑒(2000), 『中國宗教通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穆擘駿(1985), 阿勒楚喀滿語語音簡論, 『滿語研究』 2, 5-15.
- 阿茹(2010), 燒紙錢的由來, 『海翁台語文學』, (105), 120-125.
- 安双成(1999), 滿語構詞法, 『알타이학보』 제 9호, 167-190.
- 安俊(1986), 『赫哲語簡志』, 民族出版社.
- 王海波(2019), 滿洲語における硬口蓋化と逆硬口蓋化, 『東京大學言語學論集』 第41卷, 341-352.
- 齊木徳道爾吉 외(2008), 『武皇帝實錄』與『旧滿洲檔』的史料价值的分析, 『몽골학』 제25호, 269-290.
- 朝克(1997), 『滿-通古斯諸語 比較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趙志强(2020), 滿語長元音研究—基于『滿文原檔』的考察, 『滿語研究』 70(1), 11-16.
- 中國第一歷史檔案館(2010), 『內閣藏本滿文老檔』,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譯注(1990), 『滿文老檔』 上·下, 中華書局出版.
- 陳捷先(1969), 『舊滿洲檔』 述略, 『老滿文原檔論輯』 附錄(二).
- 清格爾泰(1982), 滿洲語口語語音, 『內蒙古大學紀念校慶二十五周年學術論文集』, 23-73.
- 清格爾泰(1998), 滿語口語語音, 『民族研究文集』, 民族出版社, 232-355.
- 馮明珠 主編(2006), 『滿文原檔』,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 Takao, Ishibashi (2000/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원제: 大清帝國] (홍성구역) 서울: 휴머니스트.
- 今西春秋(1959), 滿語ᄒ音考, 東方學紀要 1.
- 東洋文庫 滿文老檔研究會 譯註(1955-1963), 『滿文老檔: 本文編』, 東京: 東洋文庫.
- 栗林均·海蘭(2015), 『滿文原檔』所收モンゴル語文書の研究, [A Study of

the Mongolian Documents Involved in Man-wen yuan-dang, Written in the Early 17th Century],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石濱裕美子(2011), 『清朝とチベット佛教 ―菩薩王となった乾隆帝―』,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松村潤(1978), 『滿文老檔』・『舊滿洲檔』 對照表 太宗朝, in 劉厚生(1993), 『旧滿洲檔研究』, 吉林文史出版社.

松村潤(2001), 『清太祖實錄の研究』,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神田信夫 외 역(1972), 『舊滿洲檔 天聰九年』 1, 東洋文庫.

神田信夫 외 역(1975), 『舊滿洲檔 天聰九年』 2, 東洋文庫.

岸本美緒(1998), 『東アジアの世界』, 東京: 山川出版社.

羽田 亨(1937), 『滿和辭典』,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査會.

伊藤智ゆき(2007/2011),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원제: 朝鮮漢字音研究: 本文篇] (이진호 역) 서울: 역락.

伊藤智ゆき(2007/2011), 『한국 한자음 연구: 자료편』 [원제: 朝鮮漢字音研究: 資料篇] (이진호 역) 서울: 역락.

早田輝洋(2014), 『滿文原檔』中の重複滿文の相對年代, 『알타이학보』 24, 69-81.

池上二良(1965), Tongki Fuka Akū Hergen i Bitheとそのウランバトル刊本, 『言語研究』 48, 46-52.

池上二良(1993), 滿洲語方言研究における穆曄駿氏採集資料について, 『言語文化接觸に關する 研究 5』,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Reprinted in 池上二良 1999: 321-343.

池上二良(1999), 『滿洲語研究』, 東京: 汲古書院.

池上二良(2001), ツングース語の變遷, 『ツングース語研究』, 東京: 汲古書院.

河内良弘(1996), 『滿洲語文語文典』, 京都大學學術出版會.

Austin, W. M. (1962), The phonemics and morphophonemes of

- Manchu, (N. Poppe ed., *American Studies in Altaic Linguistics*).
- Bateman, Nicoleta (2011), On the typology of palataliz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5/8, 588–602
- Benzing, Johannes (1956), *Die tungusischen Sprachen*, Wiesbaden.
- Brunnert, H.S. and V.V. Hagelstrom [1912] (1963), *Present day political organization of China*, (Trans. A. Beltchenko and E.E. Moran), Taipei: World Book.
- Chiu, Elena Suet-Ying (2017), *Bannermen Tales (zidishu), Manchu storytelling and cultural hybridity in the Qing dynas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Crossley, P. K. (1997/2013),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원제: *The Manchus*] (양희웅 역) 파주: 돌베개.
- Elliott, Mark C. (2001/2009), 『만주족의 청제국』, [원제: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이훈·김선민 역) 서울: 푸른역사.
- Fuente, José Andrés Alonso de la (2013), Written Manchu akjan ‘thunder’,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66(1), 59–68.
- Gorelova, Liliya M. (2002), *Manchu grammar*, Leiden; Boston; Köln: Brill.
- Grenoble, Lenore A. (2000), Morphosyntactic change: the impact of russian on Evenki, *Language in Contact*, (ed. D.G. Gilbers, J. Nerbonne, and J. Schaeken), 105–120.
- Hall, T.A. and Silke Hamann (2006), Towards a typology of stop assibilation, *Linguistics* 44(6), 1195–1236.
- Hall, T.A., Silke Hamann, and Marzena Zygis (2006), The phonetic motivation for phonological stop assibilation, *Journal of the*

- International Phonetics Association* 36(1), 59-81.
- Hangin, Gombojab (1980), The mongolian titles Jinong and Sigej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0, No. 3, 255-266.
- Joseph, Andrew Jonathan (2018), *The historical phonology of Manchu dialects*, Cornel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Kim, H. (2001), A phonetically based account of phonological stop assibilation, *Phonology* 18, 81-108.
- Kim, Seonmin (2017), *Ginseng and borderland: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1636-1912*, Oakland·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chael, May T. (2012/2020), 『칭기스의 교환: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원제: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권용철 역) 파주: 사계절
- Möllendorff, P. G. von (1892), *A Manchu grammar*, Shanghai: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 Norman, Jerry (1977), The evolution of Proto-Tungusic *t to Manchu 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21, No. 3/4, 229-233.
- Norman, Jerry (2013), *A comprehensive Manchu-English dictiona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shkov, B. K. (1963), Sintaksis man'čžurskogo prostogo predloženiija [Syntax of the simple sentence in Manchu language], Moskva 1950 (in Russian): Author's abstract of the Doctorate dissertation.
- Poppe, Nicholas (1966), On some ancient mongolian loanwords in Tungu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11, No. 3, 187-198.
- Porter, David C. (2018), *Ethnic and status identity in Qing China: the Hanjun eight banners*,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Rawski, Evelyn S. (1998/2010),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원제: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구범진 역) 서울: 까치글방.
- Rigger, Shelley (1996), “Voices of Manchu identity, 1635–1935”, in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86–214.
- Rowe, William T.(2009/2014),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원제: China’s last empires: the great Qing] (기세찬 역) 서울: 너머북스.
- Schuessler, Axel(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ABC Chinese dictiona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inor, D.(1968), *La langue Mandjoue*, (W. Fuchs etc., Tungusologie, Leiden).
- Telfer, Corey S(2006), *Coronalization as assibilation*, University of Calgary thesis.
- Tsintsius, Vera(1949), *Sravnitel’naya Fonetika Tunguso–Man’chzhurskikh Yazikov* [Comparative Phonetics of the Manchu–Tungus Languages] Leningrad: Nauka.
- Wadley, Stephen(2014), Manchu transliteration of Chinese names and its implications, *Scripta*, Vol. 6, 97–119.
- Wang, Shuo(2008), Qing imperial women: empresses, concubines, and Aisin Gioro daughters, (Edit. Anne Walthall), in *Servants of the dynasty: place wome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ng, Shuqing (1982), *Qingdai de gongzhu (Qing princesses)*, Gugong bowuyuan yuankan 3, 31–38.

Abstract

The Revision of *Man-wen yuan-dang* to *Man-wen lao-dang*: With Focus on Qing Taizong Era

Hyunjung Kim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Man-wen yuan-dang* into *Man-wen lao-dang* which covers the reign of Qing Taizu (Nurhaci) to the first year of the Chongde reign of Qing Taizong (Hong Taiji).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sivel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s in the Joseon-related texts. We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and phonological phenomena and secondly analy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derived from it.

In particular, the revisions show the tendency of Hong Taiji to centralize power to rule the country and to rebuild Qing's position in relation with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Ming and Joseon.

Linguistically, *Man-wen yuan-dang* is suitable for studying the changes in Manchu script because it is a mixture of old Manchu

script, new Manchu script and transitional Manchu script. This study suggests the advanced principles of transcription of old Manchu scrip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Phonologically, *Man-wen yuan-dang* includes the vowel replacement, deletion and addition, monophthongization, mixture of b and f, palatalization, deletion of the final 'n', assimilation. The consonants of words borrowed from Chinese in *Man-wen yuan-dang* largely reflect pronunciations without retroflex and pronunciations in the process of palatalization. Regarding palatalization, *Man-wen yuan-dang* shows the completion or the ongoing process of palatalization, but *Man-wen lao-dang* shows non-palatalized form. *Man-wen lao-dang* seems to be more conservative about the notation of borrowing Chinese words. Morphologically, participle tense endings and negation marker in *Man-wen lao-dang* have been merged into single words. Syntactically, phrases in *Man-wen lao-dang* are grammatically more correct than those in *Man-wen yuan-dang*.

Man-wen yuan-dang adds people's names and titles in dense small letter text that records official events so that it becomes identical to *Man-wen lao-dang*. It appears to have supplemented accurate and specific descriptions for the compilation of *Man-wen lao-dang*.

The historical implications found in other parts can be largely be summed up as the centralization of power, the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e formation of Manchurian identity.

First of all, Hong Taiji attempts to express himself as 'bi(I)' by correcting 'be(we)' so that he centralizes his authority and avoids sharing power with the other three *Beiles*. Secondly, the term '*Solhoi Han*' is rewritten as '*Solhoi Wang*' which is the title used in the Chinese imperial system. While the title of emperor 'Han' is given to

the Qing emperor, the lower title of king ‘*Wang*’ is given to the Joseon king. Thus showing the lower status of the Joseon king in relation to the Qing emperor.

Moreover, it is noteworthy that ‘*aisin gurun* or *wesihun gurun* (Qing)’ starts to raise higher than ‘*coohiyan gurun* (Joseon)’ on the first line. Changing the line and raising the words higher(擡頭) expresses respect. This began to occur in the 9th year of Tiancong, which was when Hong Taiji was about to become the emperor. While the raising of words to show respect of Ming appears as early as 2nd year of Tiancong, raising words to show respect for Joseon appears later. This kind of word raising to show respect is not found in *Man-wen lao-dang*.

By rewriting ‘*Aisin*’ or ‘*Jušen*’ to ‘*Manju*’, the concept of ‘*Manju*’ develops from a political and military group based on Qing’s eight banners system to a national concept with a unique culture of its own.

To sum up, *Man-wen yuan-dang* is presumed to be preliminary work for the compilation of later chronicles including *Man-wen lao-dang* through a number of revisions, and it contains the Qing’s own perception of raising words to show respect for Joseon and Ming, which is not found in *Man-wen lao-dang*.

keywords : Man-wen yuan-dang, Man-wen lao-dang, revision, Hong Taiji, Manju, Manchu, Jurchen

Student Number : 2015-30034

부 록

- [부록 1]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1
- [부록 2]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 청 태종조
..... 60
- [부록 3] 『만문노당』의 미반영 기사: 청 태종조 132
- [부록 4]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 청 태종조 133
- [부록 5] 『만문원당』의 텍스트화 (일부 예) 134

[부록 1]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의 개수

1. 서술 시점 변경

1.1. 흥타이지, 청나라 시점으로 변경

1) 6-4

sure han i sucungga aniya aniya biyai ice jakūn de, amin
beile, jirgalang taiji, ajige taiji, dudu taiji,
yoto taiji, šoto taiji [□□□ cooha be □□□ → de amba cooha be
afabufil], solho gurun de nikan i mao
wen lung be baime cooha [juraka → unggihe].

사건 서술의 시점을 사건 주체의 시각에서 한의 시각으로 바꾸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명 모문룡을 찾으러 군대가 출발했다(cooha juraka)라고 썼다가 juraka를 지우고 unggihe로 고쳐쓴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가 출발했다”는 표현을 “(한이) 군대를 보냈다”로 바뀌적은 것이다.

2) 6-15

han, joo bithe wasimbume hendume, cooha genehe beise, suwe
abkai kesi de,에서 원래 han bithe cooha genehe beise de □□□,
abkai kesi de,라고 써있던 것을 joo와 wasimbume hendume를 나중에
좌측 행간에 추가해 쓰고 beise de □□□에서 de □□□를 지우고
suwe로 고쳐쓰고 있다. 그럼으로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 서술의
시점을 한의 시선으로 바꾸고 있다. “한의 조서를 출병한 버일러들에게
□□□, 천은(天恩)을 입고”라고 된 문장을 “한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출병한 버일러들, 너희가 천은을 입고”(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
당역주회, 2017: 1-18)의 문장으로 바뀌쓰는 효과가 난다.

3) 6-16

마지막 두 문장에서 두 군데 be를 지우고 bi로 고쳐 쓰고 있다. 즉 ‘우리’라고 표현했다가 이를 지우고 ‘나’로 바꿔 쓴 것이다.

4) 6-54

cooha juraka에서 juraka를 지우고 unggihe로 고쳐쓰고 있다. 한의 시점으로 사건 서술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5)

5-1) 6-57

solho i han de를 solho i wang de로 han을 wang으로 고쳐쓰고 있다.

5-2) 6-66

meni han을 meni wang으로 고쳐쓰고 있다.

5-3) 6-67

solgoi han을 solgoi wang로 고치고 있다.

5-4) 6-68

meni han을 모두 meni wang으로 고치고 있다.

5-5) 6-104~105

solho han을 solho i wang으로 고쳐쓰고 aisin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

홍타이지가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꿈에 따라, 이후 건륭제 때 「만문노당」 중초를 위한 개수 작업을 하면서 초반 버전의 후금 aisin gurun이라고 적은 부분을 모두 manju gurun으로 고쳐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 6-155

ishunde [han i] hecen de에서 괄호 안 단어가 원래 wang이었는데 지우고 han으로 고쳐쓰고 있다.

6) 6-77

han을 sure han으로 높여쓰고 있다.

7) 8-223

원래 원당에는 nikan jušen bithe de라고 써있었는데 여기에서 jušen에 동그라미를 치고 「만문노당」에서는 뺐다. 그리고 좌측 행간에 manju bithe를 nikan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만문원당」에서는 manju bithe, nikan bithe de처럼 나타난다. 이는 「만문노당」과 동일하다.

8) 8-223

nenehe [genggiyen han → taidzu] ci,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9) 8-223

[genggiyen → sure] bihe,에서 괄호 안처럼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한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10) 8-223

han i tere [gisun → hese]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1.2. 간접 화법

1) 6-90

suwe dain genefi sain i yabuhao [seme fonjire de, amin] beile, kūrcan baksi be jabubum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yabuhao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체에서 seme를 추가함으로써 간접화법으로 시점을 바꾸고 있고 beile의 이름 amin을 밝혀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 6-145

saikan kiceme uji [seme fafulaha.] (8:3b)에서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간접화법으로 바꾸고 있다.

2. 정보 추가

2.1. 주요 정보

2.1.1. 사건 및 내용, 인명

1) 6-18

yehe de [□□□] dafi에서 dafi 위에 첨가된 문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노당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arahangge jui라고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2) 6-19

만문노당으로 재판찬하기 전, 내용의 명료화를 위해 원당을 개수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단순히 duleke aniya ‘작년’이라고 표기했던 것에서 duleke tasha aniya라고 중간에 tasha를 추가해 연도의 정확성을 꾀하고 있다.

3) 6-26~27

원당 6-26, 6-27은 중복 기사인데, 이 두 페이지는 일부 동일 문장을 토대로 변개되고 있으며 이후 6-89~93에서 다시 중복 기사가 출현한다. 6-26~27의 내용을 요약하면, 6-26은 amin beile와 한의 알현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만문노당」에서는 한, 대 버일러, 망골타이 버일러가 아민

버일러를 맞이할 때 “앞은 옥좌에서부터 마주 맞이해서”라고 나와있는데, 「만문원당」에서는 “앞은 자리에서부터 서서 맞이하지 않고”라고 나와서 아민 버일러에 대한 공경이 덜 나타나 있다. 6-27은 조선 왕의 동생 li geyo가 한과 알현할 때 버일러들과 마찬가지로 예를 따르도록 했다고 전한다. 「만문노당」에서는 조선 왕의 동생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4) 6-36

원래 원당에는 ede karu yuwan du tang de emu bithe라고 써있었는데 수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ede karu [ning] yuwan [i] du tang [yuwan cung hūwan] de emu bithe라고 수신자명을 밝히고 있다. 역시 노당 등의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정보 구체화 등의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5) 6-55

yecen be ejen sindafi tafaka, tereci geren cooha ilhi ilhi dosika, [hecen i dorgi, solho i fu yen hergen i lii wan se be waha, pan guwan hafan tsui ming liyang bucehe, hecen i dorgi cooha be gemu wafi, irgen be olji obuha, tere inenggi, tere i jeo] hecen de indefi,에서 괄호 안의 부분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해 써져 있다. 괄호 안에 대응하는 부분이 원래 원당에는 tere inenggi □□□로 쓰여져 있던 것이 지워져 있다. 성 안 조선인들을 죽였다는 내용으로서 조선에 민감한 정보를 담은 좀더 자세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6) 6-56

ding jeo [i mu ši hafan gin jin jafabufi, ding jeo i irgen dahaha], juwan jakūn de, g'o šan, [han' šan ceng] be daha seci,

괄호 속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쓰여져 있다. 원래는 ding jeo be dahabuha, juwan jakūn de g'o šan be daha seci로 쓰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ding jeo를 따르게 했다고 단순 서술하기보다

ding jeo에서 잡은 관원 이름을 적어주고 그곳의 백성을 따르게 했다고 서술함으로써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뒷부분 역시 인명에서 g'ošān만 적혀있던 것을 han' šan ceng도 추가해서 구체성을 높였다.

7) 6-56

orin emu de cimarilame afafi, uthai emu erin hono ohakū dartai [andande afame gaiha, an jeo hecen i mu ši hafan gin jiyūn bing ši hafan nan i hing, ini beye be i tuwa sindame bucehe, giyūn šeo hafan jang dun, fu ši hafan ciowan šang i, hiyan ling hafan sung tu nan se gemu wabuha,] tere hecen de bihe ba i irgen be daburakū,

dartai gaiha에서 gaiha를 지우고 좌측 행간에 관원 이름들과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적어넣고 있다.

8) 6-62

be Julesi genembi seme, abun, dungnami be, jihe elcin i emgi adabufi takūraha, [manju i tabcin i cooha cang ceng hecen de dosifi, fu ši hafan gin ši žo burulame genere be jafafi waha, manju coohai beise neneme takūraha elcin i bederere onggolo,] janu beiguwan, koboī baksi be geli takūraha, tede unggihe bithe, amba manju gurun i jacin beile i bithe,에서 괄호 속 내용을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세 줄 써넣고 그 중 첫 번째 줄은 지우고 있다. 역시 사건 서술에서 관원의 이름과 함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9) 6-67

ice nadan de, [solho i wang lii dzung, ini tehe ging hecen be waliyafi, juse sargan be gamame, giyang hūwa tun de burulame genehe, amba jui lii yoo, ciowan jeo hecen de burulame genehe, hecen i dorgi irgen ambula burgiha,] solho i jin cang giyūn hergen i emu amba hafan,에서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해 적혀

있다. 노당에는 이를 정리해 아래와 같이 ice nadan de 앞으로 내용을 이동시켰다.

solho i wang lii dzung, ini tehe ging hecen be (4:10a) waliyafi, juse sargan be gamame, giyang hūwa tun de burulame genehe, amba jui lii yoo, ciowan jeo hecen de burulame genehe, hecen i dorgi irgen ambula burgiha,] ice nadan de, solho i jin cang giyūn hergen i emu amba hafan,

조선의 왕 인조가 성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강화섬으로 도망쳤으며 소현세자도 전주성으로 도망쳐 갔다는 조선에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

10-1) 6-71

“조선의 한이 말하길(solho i han hendume)”를 “조선의 왕 이종(李儆)이 말하길(solho i wang lii dzung hendume,)”로 고쳐쓰고 있다.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10-2) 6-72

solho han gisun dahafi를 solho i wang lii dzung dahafi,로 고쳐쓰고 있다.

11) 6-74

버일러라고만 썼다가 “아민(amin)” 버일러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 6-132

juwan de, solho de elcin genehe fujiyang [lio hing dzo], tsanjiyang

inggūldai [emgi solho wang lii dzung, ini deo be bederebuhe seme baniha arame, fujiyang šen jeng hū, piyoo lan (7:6b) ing be takūrafi, baci tucire doroi jaka benjime] isinjiha,

원래 원당은 단순히 “잉굴다이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괄호 안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선 인조와 그의 동생이 돌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부장 두 명을 파견하고 공물을 보내며 도착했다라는 구체적인 인명과 사건 서술이 추가됐다.

13) 6-136

solho i elcin [šen jeng hū, piyoo lan ing se] genere d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함으로써 조선의 사신이 누구였는지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4) 6-136

[dain de jafaha giyang gung liyei, piyoo lan ing] juwe hafan i juwe jui de emte puse noho etuku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써넣음으로써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hafan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다.

15) 6-137

hafan [giyang gung liyei] de uyunju yan menggun unggi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바로 앞에 나온 hafan이 누군지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6) 6-146

solho de [elcin genehe asidarhan, bakiran bithe gajime isinjiha, tere bithe de henduhenggel], wesihun gūnin be wacihiyame saha,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로 써넣고 있다. 이로써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이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원래 괄호 안에 있던 내용은 solho de [takūraha elcin gajihā bithe de]로 보인다.

17) 6-149

[coohiyan gurun i wang lii dzung, piyoo lan ing be takūrafi, i jeo i ba be bederebuhe seme baniha arame, jai bolori doroi baci tucire doroi jaka benjime jihe.] [gajiha bithe de henduhengge] [solhoi giyai ci ~~]에서 첫 번째와 두번째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 두 번째와 세번째 괄호 내용부터는 노당에는 없고 원당에만 실린 내용이다.

18) 7-257

monggo i seter [beile] de buc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직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 7-260

[buhe ubu i ba i dabali enculeme] hecemu golo de [□□□ → 삭제]에서 첫 번째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해 써넣고 있다.

20) 7-262

si šajin be jurceme [be → bata be alime tehe ba be waliyafi] gurihengge,에서 괄호 속 내용을 고쳐씀으로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1) 7-267

[han simiyan de] jihe,에서 온 사람이 han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지명도 보완하고 있다. 즉 동사 행위의 주어와 처소 논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22) 7-408

[tuba be gūnifi], nikan be coohalafi에서 괄호 안 어구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여지고 있다.

23) 7-409

abka gosifi [bucebu] muse [etecibe],에서 첫 번째 괄호 안 단어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는 노당에는 없는 부분이다. 원당에서만 발견된다. 두 번째 괄호 안 단어는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이고 있다.

24) 7-409

[nikan ainu kemuni gelerakū, tere] udu gabtara niyamniyara mangga akū bicibe,에서 괄호 안 어구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여 있다.

25) 7-410

nikan [i dzung je gebungge amban, aisin be] juwan ilan jergi [aisin be → 삭제] gidahabi,에서 첫 번째 괄호 안 어구가 추가되어 있고 두 번째 괄호 안 어구는 삭제되고 첫 번째 수정된 어구에 포함됐다. 명나라 사람의 amban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6) 7-410

[cooha dame jifi afaki sere jakade,] hecen tuwakiyaha [bisire de → 지움] amban hendume,에서 첫 번째 괄호 안 어구를 좌측 행간에 추가하고 있고 두 번째 괄호 안 어구는 지우고 있다. 군대가 먼저 와서 공격하겠다고 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 7-410

[uksin saca etufi geli adarame afambi] seme hendure [jakade], tere gisun de coohai niyalma [afara mujilen akū ofi] gemu samsihabi,에서 괄호 안 어구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쓰여있다. 전쟁의 경과에서 공격하는 쪽의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있다.

28) 8-39

[juwe suwayan i biya]에서 괄호 안 낱자가 본문 위에 박스 안에 쓰여져 있다. 노당에는 없고 원당에서만 발견된다.

29) 8-234

suje orin sunja, mocin juwan nadan, yarga juwan emu, hailun juwan, dambagu emu minggan ninju kiyān gaiha, [tere inenggi ninggun jurgan i yamun, han i cooha genehe amala arame šangnaha be han cooha ci jifi yamun be tuwame tucihe bihe.]에서 괄호 안 내용이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써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30) 8-287

[tere inenggi solgo de genehe baduri takūraha sunai isinjiha, tere inenggi uthai amasi takūraha gisun, baduri be abade han i jakade alaci be naka, solgoi elcin be okdofi amasi bederebu, musei genehe gisun wajihakū oci imbe ainu halbumbi seme takūraha,] juwe ilan de sunja booi sangiyan de deduhe, tere inenggi baisaha, fangde에서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

31) 8-347

[ice nadan de solgo gurun i elcin jang ni be amasi unggihe, bithe de doroi jaka be ainu bilaha ton de tofohon de komso benjimbi seme wakalame arafi unggihe,]에서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써있다.

32) 9-133

[~~tofohon~~ de juwan juwede mafuta, burgoi be solgo de elcin unggihe, tede unggihe bithei] aisin gurun i han i bit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

쳐 써넣고 있다. 날짜를 바꾸고 사진 이름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문체가 다른 것으로 봐서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33)

33-1) 9-238

wang ni [karu] bit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3-2) 9-448

wang ni [karu] bit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4) 9-307

[yarhūi bade] songko faidame genefi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35) 9-307

uheri dehi uyun niyalma [orhoda gurume jihe] be bahafi benji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냥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삼을 캐러 온 사람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36) 9-391

ashan i ambasa [sunja bai dubede] okdofi에서 amban들이 5리 앞까지 가서 맞이했다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37) 9-408

[hengkileme jihe] solgo be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38) 10-22

[juwe biyai] ice juwe de, boigon i jurgan i aliha amban inggūldai be solho i wang ni baru ai [ai] gisun be gisure, mafuta be [solho i

wang ni sargan akū oho sinagan i doroi waliyame gene seme elcin unggihe, terei emgi dorgi jakūn hošoi beile i elcin, tulergi gurun i dehi uyun goloi beise i elcin, han de amba gebu toktobure jalin de solho i wang ni baru hebešeme genehe, tese de unggihe bithei gisun,] aisin gurun i han i bithe,에서 첫 번째 괄호 안 낱짜를 본문 상단 박스 안에 추가하고 있고 두 번째 괄호와 세 번째 괄호를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하고 있다.

39) 10-170

[yenden], sio yan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40) 10-171

ainaha bata jimbi seme dulbadafi langtušabuha de, amban sinde weile, [joriha babe kiceme yaburakū, nimaha nisiha butame yaburahū,] suweni duin hoton i dolo ishunde karcarahū,에서 괄호 안 어구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41) 10-707

elehun [beile]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2) 10-726

[šongkoro] baturu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3) 10-29

원래 원당에 써있던 어구를 지우고 [sinagan i doroi unggihe bithei gisun,]을 나중에 써넣고 있다. 괄호 안 어구의 문체와 붓글씨 색상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

44) 10-93

[inggūldai se] gidafi saciha de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45) 10-93

[uju de] amba mama i baidal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46) 10-93

ere [juwe] niyalma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47) 홍타이지 추가

47-1) 10-680

노당에서는 daicing gurun i amban < >* gelhun akū로 < >* 부분이 황전(黃箋, 노란 띠지)로 가려져 있는데 원당에서는 daicing gurun i amban [hong taiji] gelhun akū처럼 괄호 안 어구가 추가되어 있다. 노당에서는 홍타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황전으로 가려 피휘(避諱)했음을 알 수 있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6-198 등 천총 원년인 6권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47-2) 10-681

10-680과 마찬가지로 노당에는 daicing gurun i amban만 나오는데 원당에서는 daicing gurun i amban [hong taiji]로 괄호 안 어구가 추가되어 있다.

2.2. 훈문

1) 6-67

cooha □□□ de deduhe를 cooha ping šan de isinafi ing iliha,로 좌측 행간에 추가해 고쳐 쓰고 있다. 캠프를 세웠다는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2) 6-89

hanci isinjime katarama acanjifi, [morin ci ebufi] jergileme adafi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해 써넣고 있다. 서술을 생생하게 하면서 뜻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6-90

[juwe amba beile, han i juwe ashan de adame tehe,] amin beile ini faidan de bederefi tehe,에서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써있다. 서술을 생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6-90

hanci [ibefi] niyakūrafi hengkilefi tebeliy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좌측 행간에 써넣고 있다. 사건 서술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6-91

amin beile de niyakūrafi [hengkilefi] tebeliyeme aca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좌측 행간에 써넣고 있다. 서술의 생생함을 살리면서 알현 절차상 빠진 부분을 되살린 것으로 보인다.

6) 6-92

han i [ini beye de etuhe] etuku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음으로써 한이 ‘몸소’ 입은 옷이라는 뜻을 추가했다. 한 ‘자신’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7) 6-93

honin erinde [han] cacari de tucifi [tehe],에서 괄호 안 단어의 위치, 문체와 붓 글씨 색깔이 다른 내용 부분과 다른 것으로 보아 추후에 추가

된 것으로 보인다. 행위의 주체와 동작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텐트에 나온 것이 한이고 텐트에 나와서 앉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8) 6-108

tereci wan kalka [dagilafi], morin erin oho manggi, 괄호 안 단어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9) 6-133

kamcifi [hajilaci], juwe gurun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그런데 원래 원당에 쓰여진 문자는 과도기적 무권점 만문인데 반해, hajilaci는 분명한 유권점 만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쓰여진 시기가 상대적으로 나중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10) 6-155

lakcarakū [ubašame] jidere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뜻을 명료하게 했다.

11) 6-256

solhoi [elcin] isinji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12) 6-269

bi [sehe] s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간접화법의 시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13) 7-239

juwe amba beile [tucifi] yamun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고쳐 써넣고 있다.

14) 7-239

han ama, amin beile i ama, [tere juwe] ahūn deo sain banjimbi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해 씨넝음으로써 뜻을 명료하게 만들고 있다.

15) 7-251

ai [sain] jaka bahafi gamambi,에서 괄호 안 단어가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있다. 물건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6) 7-252 cooha de [yabuha] beis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씨넝음으로써 뜻을 명료화하고 있다.

17) 7-488

solho i [elcin jihe] juwe hafan be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함으로써 뜻을 보완하고 있다.

18) 8-280

musei cooha be [fejile arafi,] bargiyafi gajihakū,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함으로써 뜻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19) 8-274

[manju gurun i sure han,] baduri, cahara, dungnami be [coohiyan gurun de] takūrafi, [aniyadari] emu aniya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함으로써 사건의 주어와 처격 논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 8-274

yarha [sukū] tanggū,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21) 8-274

[mukei ihan i] weihe [emu] tanggū juru,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

고 있다.

22) 8-274

sung lo [ca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23) 8-234

[ineku inenggi] tusiyetu efu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24) 9-117

[solgoi] elcin jihe에서 괄호 안 단어가 추가되고 있다.

25) 9-241

emu beile [komso] cooha gaif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26) 9-391

solgo be [jimbi seme] dorolon yamun i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27) 9-460

[bi] yargiyalame sa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문장의 주어를 밝히고 있다.

28) 10-19

sunja ba i dubede [fudeme] genef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29) 10-19

hiyasa [be unggifi] emu dedume fude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0) 10-85

coohiyan gurun i [wang ni] karu bithe,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31) 10-160

[amba] galangga tampin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2) 10-704

hūda hūdašame [jimbi] s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33) 10-123

[alime] gaijar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4) 10-710

benjime [hengkileme] ji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2.3. 의미 명료화

2.3.1. 운문

1) 6-12~13

○juwan ninggun de, cooha genehe beise, solho i
i jeo hecen be gaiha seme mejige alanjiha,
cooha genehe beise, simiyan i hecen ci juraka
ningguci inenggi juwan ilan de, lenggeri dzung bing guwan,
yasun beiguwan, yecen beiguwan, munggan, ere duin
amban de [□□□ → jakūnju] niyalma be adabufi, juleri

karun gidame unggifi, nikan i [2/3정도 되는 줄을 삭제함] unduri
tehe karun be

gemu bahafi, emu niyalma hono tucifi [mejige → medege]

alanahakū ofi, i jeo hecen i niyalma [mejige라고 썼다가 지움]
donjihakū,

tereci juleri tucike ambasa, jakūnju niyalma uthai

genefi dobori dosifi, hūlhame wan sindafi hecen be

tafafi, tereci musei geren cooha be gajifi

tafambufi gaiha, nikan cooha emu tumen, solho i

cooha juwe tumen bihe, daha seci, ojarahū

ofi gemu waha seme alanjiha;

mejige를 지우고 medege라고 고쳐쓰고 niyalma mejige donjihakū라고
썼다가 mejige를 지우고 있다.

gemu waha seme [□□□] alanjiha에서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 mejige
처럼 보인다.

앞부분엔 mejige로 쓰다가 뒷부분에서 medege로 쓴 이유는 알기 어렵
다.

2) 6-13

ding jeo hoton be dahabuha seme [mejige] medege alanjime에서
mejige를 지우고 medege를 써서 “소식 알리며”로 적고 있다.

3) 6-20

뜻의 명료화를 위해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mende jihe를 mende dain
jihe로 중간에 dain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온 목적이 전쟁이라는 것을 명
확히 하고 있다. 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4) 6-45

nikan i hafan을 nikan gurun i hafan이라고 바꿔서 gurun을 추가함으로써 ‘명나라’라는 뜻을 명료화하고 있다.

5) 6-54

muse de로 써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우고 manju gurun de로 고쳐쓰고 있다. 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의미 명료화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6) 6-55

minggan cooha를 emu minggan cooha로 emu를 추가해 뜻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7) 6-57

geren hafan cooha irgen [ini cisui burgifi,] emkeci akū gemu hecen waliyafi burulahabi에서 뜻을 명료화하기 위해 괄호 안 내용이 추가적으로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8) 6-63

mao wen lung be ini nikan han tuwarakū, caliyān hono burakū kai, [suwe ainu jeku bumbi,] menci ukame genehe mao wen lung be bošome jihe fonde, [suwe hendume,] meni irgen i umai be necihekū be, be inu sambī sehebi,에서 첫 번째 괄호는 뜻을 명료히 하기 위해 두 번째 괄호는 직후에 이어지는 meni의 지칭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됐다.

9) 6-66

jai juwe niyalmai musei elcin janu isinjiha,에서 jai juwe niyalmai [emgi] elcin [genehe] janu isinjiha,로 musei를 emgi로 고쳐쓰고 genehe

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넣고 있다.

10) 6-67

tereci [manju i] cooha Julesi ibeme jidere hafan be okdome genere de에서 cooha를 manju i cooha로 괄호 안 내용을 써 넣어 어디의 군대인지 지칭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11) 6-72

ini yuwan cang giyūn hergen i [uksun] deo에서 괄호 안 uksun을 좌측 행간에 추가해 씌으로써 지칭체의 의미가 명료해졌다.

12) 6-72

jakūn gūsai [coohai] ambasa faidame ilicafi,에서 괄호 안 [cooha i]를 추가함으로써 8기의 “군대”라는 의미를 명료화했다.

13) 6-76

sukū furdehe [suilafi → doroi jaka] benjime에서 “가죽 털옷 싹쓸어 보내며”에서 “가죽 털옷 예물로 보내며”로 고쳐 썼다.

14) 6-77

beise de를 [manju i coohai] beise de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함으로써 지칭체를 명료화했다.

15) 6-79

juwan jakūn de jurambufi [unggihe,] unggihe bithei gisun,에서 괄호 안 unggihe를 추가해 써서, 앞 문장을 끝맺고 뒷 문장과 구분해 줬다.

16) 6-85

wang hendume를 wang ni henduhe로 고쳐 쓰고 있다.

17) 6-85

원당에서 abka na [solho] wang be wakalafi,에서 괄호 안 solho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쓰고 있는데 6-85에서는 조선의 왕을 han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wang이라고 쓰고 있다. 만주를 모두 aisin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manju라고 고쳐쓰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조선 왕을 han이라고 썼던 페이지에서 jušen을 manju로 쓴 것과 다르다. 따라서 jušen을 manju로 고친 페이지가 더 앞선 시기에 쓴 것이고, aisin을 manju로 쓴 것은 보다 후대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 6-87

han [i beye] goro okdorongge joo,에서 괄호 안 내용을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다. 한이 ‘몸소’ 멀리 배웅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beye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19) 6-231

boo [hūwa]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써넣고 있다.

20) 6-245

jecen [i] hafasa be에서 소유격 어미 i를 추가하고 있다.

21) 6-248

원당에만 실린 내용이다. julgeji [ebsi] jihe에서 괄호 안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22) 6-483

gulhun beiguwan [obuha] turgun,에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안 단어가 추가되고 있다.

23) 7-241

[geren] suwe sahao,에서 괄호 안 단어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너희가 여럿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4) 7-242

dzung bing guwan [hergen i] unege jabume, 괄호 속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하고 unege와 jabume 사이에 놓인 내용을 지우고 있다.

25) 7-253

adarama bure [seme bihe bi → sehebi,]에서 괄호 속을 고쳐 써넣었다. 시제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6) 7-261

siden de gemu gaiha,에서 [gemu] siden de gaiha,로 고쳐쓰고 있다.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 7-262

ainu [waliyambi → waliyaha] s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음으로써 시제를 고치고 있다.

28) 7-410

[ere] ninggun biyai에서 괄호 안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29) 7-446

emu tumen gin [ungg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30) 7-488

ere [cooha]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31) 7-498

[tere] inengg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32) 8-51

han soorin de tehe ci [ebsi],+ sunja aniya [otolo] gurun 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33) 8-51

[geren] dzung bing guwan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뜻을 명확히 했다.

34) 8-56

[ice] uyun de,에서 노당에는 괄호 안 ice가 있는데 원당에는 빠져있다. 원당 곳곳에서 ice를 생략한 낱자 표현이 눈에 띈다.

35) 8-64

dehi yan [menggun] buhe,에서 노당에는 괄호 안 단어가 있는데 원당에서는 빠져 있다.

36) 8-125

tuhere an i [weile] gai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음으로써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8-125 다른 부분에는 모두 tuhere an i weile gaiha로 나오고 있으므로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37) 8-126

ginjeo [de biyaluha], jang dooli i nenehe kuren de biyaluha,에서 뒷 부분에 ~de biyaluha가 있어서 앞에서 ginjeo라고만 쓰고 있었다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안 내용을 추가해 써넣고 있다.

38) 8-223

[yooni] arahangg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39) 8-287

ahūn deo [niyalma]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쓰고 있다.

40) 9-459

dain dekdefi [ba] babe nungn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뜻을 보완하고 있다.

41) 10-170

[gemu emu adali], giyan cang hoton i에서 괄호 안 어구를 추가하고 있다.

42) 10-675

[ineku] omšon [biyai] orin sunja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43) 10-692

hanciki [gurun] i sain doro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44) 10-720

bi [tere] medege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5) 10-721

ojoro [ceni] poo, miyoocan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6) 10-10

[emu] mejig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7) 10-11

[mini] jase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8) 10-86

[uthai] geren elcin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49) 10-90

honin i [gese] facuhūn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50) 10-92

gaji [sek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51) 10-92

[jai] dailara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52) 10-93

mocin [bu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53) 10-130

[sini] jakūn golo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54) 10-675

[ineku] omšon [biyai] orin sunja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55) 10-692

hanciki [gurun] i sain doro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2.3.2. 논항

1) 6-20

오기를 바로잡고 논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수도 발견된다. kemuni nikan de dafi에서 kemuni를 kemu ni로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있고 nikan dafi를 nikan de dafi로 논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6-21

논항의 의미역을 바꾼 부분도 발견된다. bayarai kutule [be jafabure be → de bure be]로 고쳐쓰고 있다.

3) 6-43

niyalma holtoci ombi dere에서 niyalma be holtoci ombi dere로 be를 삽입하고 있다. “사람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는 “사람이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목적격 어미 be를 넣음으로써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바뀌서 의미 명료화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논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6-91

han [de] juwe beile [de] buhi be tebeliyeme acaha,에서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하고 있다.

5) 6-156

genehe ukanju [be] bederebumbi seme에서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이 명확해졌다.

6) 6-156

i jeo [de] cooha tehei bici,에서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이 명확해졌다.

7) 6-269

baicara [be] donjifi,에서 괄호 안에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해 좌측 행간에 써넣고 있다. 앞서 ‘동사 어간-시제 어미 + 동사 어간-연결 어미’ 조합에서 노당과 달리 원당에서 두 단어 사이에 be가 빠져있었던 예와 동일한 현상인데 여기에서는 원당에서도 be를 추가하고 있다.

8) 6-274

ere jihe beile [de], meni ergen guwerakū,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9) 7-245

hafan [be] takūrame,에서 괄호 안 목적격 어미 be를 넣음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이 명확해졌다.

10) 7-252

mini ama [de] (30:8b) emken,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 8-124

jang dooli [de] biyaluha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8-125에는 애초에 원당에 jang dooli de biyaluha라고 쓰여져 있다.

12) 8-252

juwan ilan [de]에서 날짜와 함께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해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13) 9-411

abkai hūhuri [de] baha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14) 9-362

tese [de] isinarakū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가 추가되어 논항의 의미역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15) 10-23

erindari jondoro [be] nakafi에서 괄호 안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16) 10-88

gamarakū [de] aibi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하고 있다.

17) 10-90

dube jecen [be] seremšeme에서 괄호 안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18) 10-92

baturu niyalma [be] huwekiyebufi에서 괄호 안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해 써넣고 있다.

19) 10-125

mini ba na [de]에서 괄호 안 어미를 be에서 de로 고쳐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20) 10-132

tung yuwan pu [be] tuwakiyaha에서 괄호 안 목적격 어미 be를 추가하고 있다.

21) 10-282

mafuta, muhu [de]에서 괄호 안 여처격 어미 de를 추가함으로써 논항의 의미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2.4. 수정

2.4.1. 내용

1) 6-12~13

○juwan ninggun de, cooha genehe beise, solho i
i jeo hecen be gaiha seme mejige alanjiha,
cooha genehe beise, simiyan i hecen ci juraka
ningguci inenggi juwan ilan de, lenggeri dzung bing guwan,
yasun beiguwan, yecen beiguwan, munggan, ere duin
amban de [□□□ → jakūnju] niyalma be adabufi, juleri
karun gidame unggifi,
원래 쓰여진 내용을 지우고 jakūnju라고 고쳐 써넣고 있다.

2) 6-18

korsobuha [□□□ → ambula de]로 고쳐쓰고 있는데, 원래 쓰여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3) 6-20

부정의 문법을 잘못 적용했다가 바로잡은 것도 눈에 띈다. dailarangge waka라고 썼다가 dailarangge akū로 바로잡고 있다.

4) 6-39

ula i gurun i beile bujantai에서 beile 부분이 원당에서는 원래 다른 단어였는데 이를 지우고 beile라고 고쳐 써넣었다. 관직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관직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지운 흔적을 분간하기 어렵다.

meni baru에서 meni도 원래 다른 단어를 지우고 meni라고 써넣고 있는데 원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렵다.

5) 6-55

esei sirame에서 esei를 지우고 terei sirame로 고쳐쓰고 있다.

6) 6-57

solho ini jakūn golo be 뒤에 이어지는 두 줄 내용이 지워져있고, 그 자리에 [afafi baha an jeo hoton de duin] indeme morin ulebufi라고 괄호 속 내용을 좌측 행간에 추가해 써넣고 있다.

7) 국호

7-1) 6-59

aisin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 개수 연대를 흥타이지가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꾼 후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7-2) aisin을 지우고 manju로 고쳐썼다.

7-3) 6-80

manju i amban juwete,에서 원래는 jušen juwete amban인데 jušen을

manju로 고치고 amban이라는 직위를 manju 뒤로 이어붙여서 써넣고 있다.

7-4) 6-104~105

solho han을 solho i wang으로 고쳐쓰고 aisin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

7-5) 8-223

jušen을 manju로 고쳐쓰고 있다.

8) 6-61

doroi gūnime jidere jakade meni juwe gurun acaha를 acame jihe로 줄여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9) 6-70

musei를 manju로 고치고 있다.

10) 6-73

bi [□□□ → urunakū] wang ging de isinambi,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우고 urunakū로 고쳐쓰고 있다.

11) 6-74

mini han □□□ ci를 mini han eshen ci로 고쳐쓰고 있다.

12) 6-75

cangšu hergen을 cangšu i jergi로 고쳐쓴 것으로 보인다.

13) 6-80

jai i jeo de [jušen emu niru i sunjata □□□]에서 jai i jeo de

[manju cooha emu minggan,]로 괄호 속 원래 쓰여져 있던 내용을 지우고 고쳐쓰고 있다.

14) 6-80

국가명 다음에 직위명을 쓰는 순서의 일관성을 위해 만주 뒤에 오는 몽골도 amban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

15) 6-92

han ini beye de etuhe etuku emu jergi [□□□ buhe → bufi] etubuhe,에서 두 단어를 지우고 bufi라고 고쳐쓰고 있다.

16) 6-95

원당에 원래 susai [dere dasafi, ihan honin wafi] solho [han] i deo라고 써있던 것이 괄호 안 내용을 지우고 amba sarin dagilafi solho wang ni deo로 고쳐져 쓰여있다.

17) 6-133

ulin be [dere de □□□ → yamun de faidafi],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쓰고 있다.

18) 6-133

원래 terei gajiha bithei gisun이던 부분에서 bithei gisun을 지우고 terei gajiha [bithe de henduhengge,]로 고쳐적었다.

19) 6-136

irgen be [□□□ → bošome] usin weilebur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20) 6-137

기존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좌측 행간마다 써넣고 있다.

21) 6-148

manju gurun i sure han, joo bithe unggifi i jeo i [babe → 원당에는 be만 있음] solho gurun de bederebume bufi, tuwakiyaha jiyanggiyūn cooha be gemu amasi bederebume gajihā, i jeo be tuwakiyaha geren ambasa gemu isinjifi han de acaha manggi, han, geren ambasa de, ini galai arki emte hūntahan omibuha.]에서 괄호 안 내용이 모두 기존 내용을 지우고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써넣어져 있다.

22) 6-256

노당의 내용 전부가 ○ 표시된 독립된 기사로서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해 써넣고 있다.

23) 6-257

han i [□□□ → 지움] šajin be jurce[hengge],에서 juecehengge는 원래 jurceme □□□ 어구였으나 뒷 단어를 지우고 jurceme-의 -me를 지우고 -hengge를 덧붙이고 있다.

24) 7-214

solho [hafan be gunge birai dalinde → i elcin gede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상황 서술을 좀더 명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solho i elcin fudehe genehe로 적었다가 fudehe를 지우고 있는데 fudehe가 있었으면 뜻이 더 명료했을 것으로 보인다.

25) 7-241

emu adali [ilgahakū]에서 괄호 안 내용을 지우고 고쳐 써넣고 있다.

26) 7-258

han be [□□□ → solinjiha] bi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쓰고 있다.

27) 7-259

[sajin be jurceme → 삭제] han [□□□ → i šajin be jurcehengge,]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28) 7-260

jang [i jan]에서 jang과 jan 글자를 분리시키고 중간에 소유격 어미 i 를 삽입하고 있다.

29) 7-262

[□□□ → erei encu gūnin]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30) 7-267

[jirgalang taiji, abtai taiji, sahaliyan taiji → ilan taiji]에서 괄호 속 내용을 고쳐쓰고 있다.

31) 7-276

adarama [ujirakū → akū] se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32) 7-278

cooha gemu wajikini [cooha wajici □□□ → seme gūnifi (30:23a) genehekūbi kai,]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쓰고 있다. 여기에서 gūnifi에서 -fi가 -bi로 나타남으로 무권점 만문으로 쓰여졌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권)이 찍혀진 것으로 봐서 유권점 만문의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과도기적 만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fi를 -bi로 적는 무권점 만문의 특성이 유권점 만문의 권점이 도입된 후에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7-279

geren [taijisa → ambasa]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34) 7-282

[□□□ → jortai] silhidam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35) 7-407

[□□□ → nikan] ba na b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36) 7-409

terei afarangge [coohai → 삭제] bithe [coohai] šajin kooli be에서 첫 번째 괄호 안 coohai를 지우고 그 위치를 두 번째 괄호 안으로 옮겨 좌측 행간에 추가해 쓰고 있다.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7) 7-411

[hokobuhangge → nakabuhangge] waka,에서 괄호 안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

38) 7-411

buceci [□□□ → gasara],에서 괄호 안 쓰여진 어구를 지우고 고쳐쓰고 있다.

39) 7-412

[we] buceme afaki [sembi → serakū,]에서 첫 번째 괄호 안 단어가 본문보다 높게 쓰여지고 문체와 글씨 굵기가 다른 것으로 봐서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 두 번째 괄호는 sembi를 지우고 serakū로 고쳐쓰고 있다.

40) 8-50

노당에는 [sure han i sahaliyan bonio ningguci aniya aniya biyai] ice inenggi,로 나와있는데 원당에는 [aniya biya juwe lamun] ice inenggi,로 나와 있다. 원당에서는 노당의 낱짜 정보가 8-49 페이지에 따로 나와있다.

41) 8-88

han [okdome] jif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42) 8-88

[tengkuwa be] adabuha bi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똑같이 쓴 것을 두 차례 지우고 다시 쓰고 있다.

43) 8-222

[manju i amba cooha] [tere inenggi] baisgal [gebungge bade isinjifi ing iliha manggi, iogi hergen i dahai] baksi nimeme akū oho,에서 첫 번째 괄호 안 어구와 세 번째 괄호 안 내용이 좌측 행간에 추가되어 써 있다. 두 번째 괄호 안 tere inenggi는 원당에는 있지만 노당에서는 빠져 있는데 원당에 동그라미가 쳐있다.

44) 8-223

wan boo [ciowan šu], beidere jurgan i [gufai] [原檔殘缺]

su šu, san lio, jai eden arahangge, tung giyan, lu too, mengdzy, san guwe jy, dai ceng ging be arame deribuhe bihe, dade manju gurun, julgei kooli

doro jurgan be umai sarkū, fukjin mujilen i yabumbihe, dahai baksi julgei jalan jalan i banjiha nikan bithei kooli be, manju [bithe → gisun] i ubaliyambume arafi,

gurun de selgiyefi, manju gurun julgei an kooli doro jurgan donjihakū sahakū gisun be tereci ulhime deribuhe,에서 두 번째 괄호

안 gufai처럼 보이는 글자가 눈에 띄고 세 번째 괄호에서는 bithe가 gisun으로 고쳐져 있다.

45) 8-224

ilihi ilhi [tucinji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46) 8-268

[juwe fulgiyan omšon biya, ice duin de gulu fulgiyan i fanca nirui kamgai be dorji efui jucai be gabtaha, ice sunja de cilin i julergi tesei fejile deduhe, tere dobori, bardai nirui wehe, daimbulu, hele, bojiri nirui manjuga, ere duin niyalma han i keo be hūlhaha, gala tofohon inenggi ci inenggi] ○omšon biyai ice nadan de, han amasi jime [beise] simiyan hecen i dorgi be dasara duka be honin erinde dosika.

[ice jakūn de kubuhe suwayan i jangsan iogi, jui jakdan ini ama hele ohobi seme nirui be daiselame bošombihe jakdan weile bahafi tanggū šušuha dendefi amai emu beiguwan be efuleme beidehe, efulehe turgun jase de emu nirui juwete jafaha be gaifi tenefi halame genere amban be aliyahakū waliyafi jihebi, jai cahara de cooha genefi karun hanci iliha turgunde tanggū šušuha tantaha, jai geli jase de anafu tenefi hehe deduhe turgunde hūlahai weile araha, ini ama dade niru bošoro beiguwan bihe, amala dain de hele ohobi seme iogi obuhabi, nenehe beiguwan gung i beiguwan waka, amala buhe beiguwan gung mujangga seme amai emu beiguwan be efulehe, tere inenggi gabula be hergen efulehe turgun, gabula jihe solho de, ere]에서 괄호 안 내용은 모두 노당에서는 빠져있고 원당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이다. 대강의 내용은 초나홀에 정홍기의 사람들이 화살 쏘고 초닷새에 특정 지역에 묵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solho는 사람 이름으로 보인다.

47) 8-290

emu ubu [bure → benjire]

48) 9-292

jakūn niyalma de [tungdegÜ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49) 9-408

[arki nure dagilafi → sarin] sarilaha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50) 9-413

tucire [□□□ → mejige] jaka mujilen okin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51) 9-418

네 줄 가량을 지우고 juwan biyai orin sunja de mafuta muhu de unggihe bithei gisun을 고쳐 써넣고 있다.

52) 10-19

kijimi → jisami juwan boose [bu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53) 10-26

te han i onco erdemu i tacibuha [alhūdabuha] yargiyan getuken of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54) 10-90

[jurgan] i amban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55) 10-93

노당에는 nikan i pi doo tun i coohai로 나와있는데 월당에서는 nikan i [pi doo i] coohai에서 괄호 안 어구가 추가되고 tun이 빠져 있다.

56) 10-125

minde jidere niyalmai baru [afa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57) 10-159

[□□□ → ineku ice de],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치고 있다.

58) 10-159

[elberi → bai] gecuhari juwe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치고 있다.

59) 10-282

i jeo de orhoda [benebume unggihe]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0) 10-361

hūntahan [taili] emu juru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61) 10-446

[daiming → ming]에서 괄호 안처럼 고쳐 써넣고 있다.

62) 10-675

abka [weceme genere de]에서 괄호 안을 고쳐 써넣고 있다.

63) 10-675

abka [weceme genere de],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4) 10-676

[tob dulimbade soorin i baru] forome iliha,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5) 10-676

[tob dulimbade soorin i baru] forome iliha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6) 10-677

wargi tafukū [be ebufi, ineku tob dulimbade soorin i baru] forome
iliha manggi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7) 10-677

wargi tafukū [be ebufi, ineku tob dulimbade soorin i baru] forome
iliha manggi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넣고 있다.

68) 10-687

enduringge han [hanciki be] hairandara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
넣고 있다.

69) 10-687

enduringge han [hanciki be] hairandara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쳐 써
넣고 있다.

70) 10-691

jafara be [jafa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71) 10-691

jafara be [jafa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2.4.2. 숫자

1) 6-55

emu gusai emte amban을 jakūn amban으로 고쳐쓰고 있다. 한 구사당 1명이니 8기에 따라 8명으로 단순화해서 정리해 쓴 것으로 보인다.

2) 6-80

원래 jušen [emu nirui emte]에서 jušen [manju cooha ilan tanggū]로 고쳐쓰고 있다.

3) 7-214

[emte → juwete] uksin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4) 7-488

orin [ninggun] d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낱짜를 고치고 있다.

5) 8-89

[nadan → uyun halai] gurun i acafi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6) 8-290

juwan [jakūn → nadan] de에서 괄호 속 낱짜를 고치고 있다.

7) 9-133

[tofohon de → juwan juwede mafuta, burgui be solgo de elcin

unggihe, tede ungihe bithei] aisin gurun i han i bit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고쳐 써넣고 있다. 낱자를 바꾸고 사신 이름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8) 9-236

juwan [ilan] de에서 괄호 안 낱자를 juwe에서 ilan으로 고치고 있다.

9) 10-170

ere [duin → sunja] hoton de에서 괄호 안 숫자를 고쳐 써넣고 있다.

10) 10-282

[juwan] uyun de에서 괄호 안 낱자를 고쳐 써넣고 있다.

2.4.3. 지명

1) 6-57

□□□ de에서 지명을 몇 차례 지우고 junghai de라고 고쳐쓰고 있다.

2) 6-64

지명 cang □□□ de를 cang ceng de로 고쳐쓰고 있다.

3) 6-67

cooha □□□ de deduhe를 cooha ping šan de isinafi ing iliha,로 좌측 행간에 추가해 고쳐 쓰고 있다. 단순히 어느 곳에 묵었다는 서술에서 지명을 수정하고 있다.

4) 6-83

musei [□□□] de에서 musei [GÖwaKŠan] de로 이름을 고쳐쓰고 있

다.

5) 7-250

[dung ging] de isinjiha manggi,에서 괄호 안 지명을 고쳐 써넣고 있다.

6) 7-266

[han → yung ping de] jirgalang taiji,에서 han을 지우고 지명을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7) 7-271

yung [ping] de isinaha ci,에서 괄호 안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지명을 보완하고 있다.

8) 7-286

노당에서 jeng giyang으로 나오는 강 이름이 원당에서는 jincan으로 나오고 있다.

2.4.4. 인명

1) 6-87

manjusiri efu라는 인명에서 siri 부분을 고쳐쓰고 있다.

2) 6-100

[lio hing dzol], inggūldai genehe.에서 괄호 안 단어를 지우고 다른 이름을 적어넣고 있다.

3) 6-132

juwan de, solho de elcin genehe fujiyang [lio hing dzol], tsanjiyang inggūldai [emgi solho wang lii dzung, ini deo be bederebuhe seme baniha arame, fujiyang šen jeng hū, piyoo lan ing be takūrafi, baci tucire doroi jaka benjime] isinjiha,

먼저 부장 ‘aita’를 지우고 괄호 안의 이름으로 고쳐 써넣었다. 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이다.

4) 7-289

[lioi šūn keo] be dahabume에서 괄호 안 인명을 2차례 고쳐쓰고 있다. 둘 모두 1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는 외국 인명이라 철자 혼란으로 오기를 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5) 7-487

[sahakai] jung dzung bing guwan, [sun guwe i] u [dzung bing guwan],에서 괄호 안 인명이 원당에는 있는데 노당에는 빠져 있다. 원당에는 해당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으로 봐서 노당 등 후대 역사서에서 빠려고 사전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괄호는 총병관을 고쳐쓰고 있다.

6) 9-411

solho i elcin [libu], seleng [pio lu] be에서 사신의 이름을 고쳐 써넣거나 추가해 써넣고 있다.

7) 10-28

[duluhū]에서 괄호 속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8) 10-70

[songgotu], ere ilan amban,에서 괄호 안 인명을 고쳐쓰고 있다.

9) 10-726

[□□□ → asidarhan] nakcu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2.4.5. 관직명

1) 6-25

boji로 썼다가 지우고 hafan이라고 고쳐쓰고 있다.

2) 6-57

emke □□□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우고 emke yuwanšuwai로 고쳐쓰고 있다. 직위를 고쳐쓴 것으로 보인다.

3) 6-70

그 외 직위명을 고쳐쓴 것으로 보이는데 lio fujiyang, lio gung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모두 lio hing dzo로 고쳐쓰고 있다.

4) 10-27

tusiyetu [jinong]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jinong은 몽골인 벼슬의 명칭이다.

5) 10-28

tuba [jinong]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6) 10-28

dureng [jinong]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 써넣고 있다.

7) 10-159

[gurun i gege → hošoi gungju,]에서 괄호 안 어구를 고침으로써 ‘호

쇼(이) 공주'로 명칭을 수정하고 있다. hošoi gungju는 황제와 그의 황후가 아닌 배우자 사이에 낳은 딸을 가리키며 황제와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리키는 gurun gungju에 이어 두 번째 등급의 공주이다 (Brunnert and Hagelstron, [1912] 1963: 8; Wang Shuqing, 1982: 31; Wang, 2008: 147에서 재인용).

2.4.6. 직위, 인명 동시 수정

1) 6-100

tede [fujiyang lio hing dzo] hendume에서 괄호 안 내용이 고쳐쓰여지고 있다. 직위와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5. 교정

1) 6-18 dailahangge 지우고 밑에 다시 쓰고 있는데 단순 오기로 보인다.

2) 6-20

gamafi 뒤에 목적격 어미 be를 썼다가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된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부동사 어미 -fi 다음에 목적격 어미 be가 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3) 6-100

goidame를 지우고 다시 쓴 것으로 보인다.

4) 6-156

hūwang [hai]에서 괄호 안 단어를 고쳐쓰고 있다.

2.6. 글씨체 다름

1) 6-84

olji dendeme ilifi 부분만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봐서 나중에 노당 등 후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면서 노당과 일치하도록 고쳐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페이지 안에서 olji dendeme ilifi와 han을 wang으로 고쳐쓰거나, aisin을 manju로 고쳐쓴 부분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봐서 이러한 개수가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먼저 wang, manju로 고치는 개수가 있는 후에, 더 나중에 olji dendeme ilifi를 써넣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2) 7-263

[fekuki seme gūnhangge wakao, ere ninggun,]에서 괄호 안 내용은 원당에도 동일하게 쓰여있지만 붓글씨의 색상이나 필체로 볼 때 나머지 부분과 다르다. 나머지 부분과 다른 시기에, 즉 나중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3) 8-271

[1행 han i abalambi sehe alin be, ni enculeme juwan niyalma be gaifi abalaha be han i hiyasa jafafi šajin de alafi] [2행 baidai beiguwan i hergen be efulehe, juwan de aba de genefi gūnggadai be nintehei nirui arsai, kamgai be durci] [3행 efui jucai gabtaha, ese be sunjata inenggi gūniha, susai de šušuha tantaha, juwanta yan weile gaifi gabtaha eje de buhe,] [4행 juwan juwe de cooha jurgan i yoto beile, fiyanggū age, sele, kakduri, ilden, gūsa de emte fujan,] [5행 jalan de emte amban, nirui toome emte janggin, emu nirui tofohoto

yafahan be gaifi haicu julergi] [6행 be abalame genehe, tere inenggi aba de genefi han i gio hulhaha boojiri nirui manjuha, bardai nirui wehe] [7행 daimbulu, hele ere duin niyalma hulhai weile tantaha, šan tokoho, uyun yan weile gaifi han de buhe,]에서 문체와 줄 간격 등으로 볼 때 줄마다 쓰여진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것끼리 모아보면, 1~2행이 일치하고 4~6행이 일치하며 3행과 7행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4) 8-330

3행의 양 옆 줄간격이 매우 좁으나 문체나 붓글씨 색상으로 봐서 다른 부분과 쓰여진 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9-265

마지막 문장인 tuhere an i weile gaiha가 문체로 봤을 때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6) 10-30

[tucibumbi, genggiyen fayangga bulekÜše.] 쓰인 부분의 문체와 붓글씨 색상이 다른 부분과 다른 것으로 봐서 쓰인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는 몽골어 기사인데 어떤 서신인지 알리는 부분과 몽골어 부분의 문체와 붓글씨 색상도 다르다.

7) 10-662

juwan uyun de, [cohiyan gurun be dailambi seme] enduringge han i hesei에서 괄호 안 어구를 좌측 행간에 추가해 적어넣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은 공간에 기사를 모두 적어넣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써넣은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마지막 줄의 필체가 다소 다른 부분과 다르게 보인다.

2.7. 기사 분류

1) 6-62

원당에서는 amba manju gurun~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독립된 기사로
○ 표시해 쓰고 있는데 노당에서는 윗 기사에 합치고 있다.

2) 6-66

원당에서는 elcin takūrafi~로 시작하는 부분이 ○로 독립된 기사로 나
타나고 있지만 노당에서는 윗 기사에 합쳐지고 있다.

2.8. 노당이 증초되면서 변화된 부분

1) 6-235

원당에는 wargi golo kokiraha efujehe dahame,로 나와있는데 노당에
는 wargi golo kokiraha efujehe be dahame,로 나와있어서 원당에는
efujehe dahame 사이에 목적격 어미 be가 없다. 의미와 문법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당에서 be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2) 7-243

jaci yebe, wehe banjihā bicina seme hendumbihe,
solho, muse juwe gurun baibi sain banjire de,에서 두 줄의 앞에 메
모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 줄 위에는 “ara amala”라고 적혀있고 두 번째
줄 앞에는 “ara juleri”라고 적혀 있다. 마치 두 번째 줄로 시작하는 기사
를 먼저 적고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기사를 나중에 적으라는 지시로 읽
힌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가 반영되지 않고 노당도 원당과 동일한 순서
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메모는 다른 버전의 만문당안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 7-286

노당에서는 emu ubu cooha로 나오는데 원당에서는 emu cooha라고만 나오고 있다.

4) 8-5

노당에는 lakcaha be dahame,인데 원당에서는 lakcaha dahame,로 나타난다. 목적격 어미 be가 중간에 삽입되지 않고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5) 8-64

orin yan [menggun] buhe에서 노당에는 괄호 안 단어가 있는데 원당에서는 빠져 있다.

6) 8-125

노당에는 mandun be, jang dooli de인데 원당에는 목적격 어미 be 없이 mandun jang dooli de로 나오고 있다. 노당에서는 논항의 의미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7) 8-223

wan boo [ciowan šu], beidere jurgan i [gufai] [原檔殘缺]

su šu, san lio, jai eden arahangge, tung giyan, lu too, mengdzy, san guwe jy, dai ceng ging be arame deribuhe bihe, dade manju gurun, julgei kooli

doro jurgan be umai sarkū, fukjin mujilen i yabumbihe, dahai baksi julgei jalan jalan i banjaha nikan bithei kooli be, manju [bithe → gisun] i ubaliyambume arafi,

gurun de selgiyefi, manju gurun julgei an kooli doro jurgan donjihakū sahakū gisun be tereci ulhime deribuhe,에서 첫 번째 괄호

안 ciowan šu는 노당에는 있는데 원당에는 빠져 있다.

8) 8-224

tere inenggi werihe bele be emu gūsa i emte amban genefi isinjiha, 라는 마지막 문장에 동그라미가 쳐있는데 노당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삭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9) 10-700

노당에는 gabsihiyan coohai amban loosa인데 원당에는 amban이 빠지고 gabsihiyan coohai loosa로만 나와있다.

2.9. 삭제

1) 6-12~13

○juwan ninggun de, cooha genehe beise, solho i
i jeo hecen be gaiha seme mejige alanjiha,
cooha genehe beise, simiyan i hecen ci juraka
ningguci inenggi juwan ilan de, lenggeri dzung bing guwan,
yasun beiguwan, yecen beiguwan, munggan, ere duin
amban de [□□□ → jakūnju] niyalma be adabufi, juleri
karun gidame unggifi, nikan i [2/3정도 되는 줄을 삭제함] unduri
tehe karun be
gemu bahafi, emu niyalma hono tucifi [mejige → medege]
alanahakū ofi, i jeo hecen i niyalma [mejige라고 썼다가 지움]
donjihakū,
tereci juleri tucike [6-12끝] ambasa, jakūnju niyalma uthai
genefi dobori dosifi, hūlhame wan sindafi hecen be
tafafi, tereci musei geren cooha be gajifi

tafambufi gaiha, nikan cooha emu tumen, solho i
cooha juwe tumen bihe, daha seci, ojarahū
ofi gemu waha seme alanjiha;

네 대신(amban)에 증명한 80명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워졌고, nikan i와 unduri 사이에 긴 줄이 지워져 있는데 명의 도중에 주둔한 정탐병(karun)에 대한 정보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6-54

helen tucibuhekū □□□에서 □□□ 부분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다가 지워졌는데 어떤 글자였는지 알아보기 어렵다.

3) 6-55

[seme □□□ de] siowan cuwan [be □□□, juwan nadan de]에서 siowan cuwan만 남기고 나머지 앞뒤의 괄호 속 내용은 지워져있다.

4) 6-56

원당에 있는 내용이 노당에서 빠진 부분도 눈에 띈다. solho ini jakūn golo be가 노당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afafi baha an jeo hoton de duin indeme morin ulebufi으로 볼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중복이라고 생각해 노당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

5) 6-57

[manju i cooha,] tere inenggi dai tung giyang be doofi deduhe,에서 좌측 행간에 작은 글씨로 써넣은 내용 중에서 대부분을 지우고 manju i cooha만 남기고 있다. giyang 오른쪽 공백에 solho i라고 썼다가 지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iyang(강)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다가 만 것으로 보인다.

6) 6-66

han i hojihon에서 han i를 지우고 hojihon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7) 6-78

hanci [□□□ de] isinjiha manggi에서 원당에는 괄호 안 내용이 있었으나 지워버렸다.

8) 6-78

원당에서는 tede [□□□] duin hafan be waha,에서 괄호 안 내용이 있었으나 지워져버렸다.

9) 6-82

원당에서 ○로 표시된 독립된 기사 2개가 모두 삭제됐다.

10) 6-83

원당에는 ing iliha, [□□□] tere hecen de에서 ing iliha와 tere hecen 사이에 병렬 3줄로 각주를 달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모두 지워져있다.

11) 6-86

solho gurun de mama i medege bi seme, manju coohai eshun beise gemu meni meni fakcafi jihe, ping zang de gashūha ci amasi, manju i cooha bederere de, solho i umai jaka be necihekū, amba jugūn be jafafi cooha bederehe.의 뒷부분 내용을 지우고 있다.

12) 6-87

cooha genehe amin beile, lungsi be [han de] takūrame [gisun],에서 괄호 안 내용을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13) 6-88

u jing ing ni [□□□] hali de iliha,에서 괄호 안 단어를 지우고 있다.

14) 6-89

원당에서 coohai faidan de bederefi, [□□□] morin ci ebufi,에서 괄호 안 어구를 모두 지우고 있다.

15) 6-90

han [□□□ beile] soorin de bederefi tehe에서 괄호 안 글자들이 지워져 있다.

16) 6-93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부분적으로 내용을 지우고 있다. 중간 부분에 지운 내용은 han □□□ bade tehe로 추정된다.

17) 6-94

중간 중간 한 단어씩 2차례 지우고 있다.

18) 6-95 뒤따르는 단어를 지우고 있다.

19) 6-95

원당 마지막 문장인 tereci meni meni bade genehe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

20) 7-249

yabure jurgan fudasihūn kai, muse han i hecen de geneci ojarahū kai, [□□□] solho han i hecen i ebele emu giyang ni bira bi, tere giyang ni bira i cargi dalin be moo i hashalafi poo miyoocan cooha faidahabi, [□□□] juhe tuhekebi sere,에서 두 군데 어구를 지웠는데 굵은 붓으로 지우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지워졌는지 알기 어렵다.

21) 7-251

[yoto taiji] jabum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지우고 있다. 문맥상 대답하는 것이 yoto taiji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운 것으로 보인다.

22) 7-252

namtai fujiyang be [han gaiha yamji] takūraha bihe에서 괄호 안 내용을 지우고 있다. 불필요한 내용으로 생각해 지운 것으로 보인다.

23) 7-253

han hendume, [□□□] sikse inenggi alaha bicina, 괄호 안 내용이 지워져 있다.

24) 10-93

tere mudan de, inggūldai sebe [삭제됨] nikan i pi doo tun i coohai jugūn에서 괄호 안 몇 줄 내용을 모두 지우고 있다.

25) 10-105

coohiyan gurun i wang ni [삭제됨] niyengniyeri doroi alban benjime hengkileme jihe에서 [삭제됨] 부분을 보면, 원래 추가 기호 +와 함께 [bithe, aisin gurun I han de jafaha]이란 어구를 추가했다가 도로 지우고 있다.

26) 10-122

기사의 마지막 줄이 지워졌다.

27) 10-123

10-123까지 나와있는데 10-124에 나오지 않고 생략된 내용이 많다. 다

음에서 괄호 안 어구가 모두 노당에는 있는데 원당에서는 빠져 있다.

2.10. 대두(擡頭)

‘한(han)’이나 ‘하늘(abka)’, ‘부처(fucihi)’에 대한 일반적인 대두 이외에 특징할 만한 대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9-288

aisin gurun이 2단 대두로 가장 높고, coohiyan gurun이 1단 대두로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있다.

2) 9-362~364

wesihun gurun에 대한 대두가 나타나고 있다.

3) 대명 기사

후금(aisin gurun) 또는 만주국(manju gurun)과 대명 제국(daiming gurun)과의 상대적인 대두 순서가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명-청 관계를 통해 조선-청 관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했다. 본문 참조)

2.11. 편집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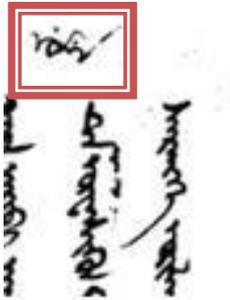
『만문원당』에는 전반적으로 기사의 상단 여백 부분이나 기사 중간에 ara(적어라) 또는 ume(적지 말아라, ume arara의 줄인 말)라고 적힌 지시 사항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항이 『만문노당』에는 일부는 반영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만문노당』에 대한 지시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ara라고 적은 부분



본문 위에 ‘적으시오(ara)’라는 메모를 하고
있음 (원당 6-3)

2) ume라고 적은 부분



본문 위에 ‘적지 마시오(ume arara)’라는
메모를 하고 있음 (원당 6-248)

[부록 2]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대조표: 청 태
종조109)

『원당』 6권		『노당』	비고
6-1	표지 jUwan UyUci sonjoho dangse, □□□ GUlmaHUn sÜrE Han i sÜcUngGa aniYa,		
6-2	표지 fUlaHUn GUlmaHUn sÜrE Han i sÜcUngGa aniYa,		"
6-3		3781의 2—3784의 5 (8권)	
6-4		3784의 6—3786의 4 (8권)	
6-5		3786의 4—3788의 3 (8권)	
6-6		3788의 3—3790의 1 (8권)	
6-7		3790의 1—3792의 1 (8권)	
6-8		3792의 1—3793의 7 (8권)	
6-9		3793의 7—3796의 1 (8권)	
6-10		3796의 2—3798의 5 (8권)	
6-11		3798의 5—3800의 5 (8권)	
6-12		3800의 5—3802의 4 (8권)	
6-13		3802의 4—3804의 7 (8권)	
6-14		3804의 7—3807의 2 (8권)	
6-15		3807의 2—3809의 4 (8권)	
6-16		3809의 4—3811의 2 (8권)	
6-17		3811의 3—3813의 4 (8권)	
6-18		3813의 4—3815의 4 (8권)	
6-19		3815의 4—3817의 4 (8권)	
6-20		3817의 4—3819의 2 (8권)	
6-21		3819의 3—3824의 2 (8권)	
6-22		3824의 2—3826의 1 (8권)	
6-23		3826의 2—3827의 7 (8권)	
6-24		3828의 1—3829의 6 (8권)	

109) 『만문노당』의 텍스트와 최종 개수가 반영된 『만문원당』 텍스트를 비교해 『만문원당』에서 『만문노당』으로 증초되면서 단어나 문구, 문장, 문단이 추가되거나 변경, 삭제된 부분은 비고란에 명시했다. 간혹 『노당』에서 쪽수가 나타나지 않고 비고란에 ‘삭제’라고 나왔다면, 해당 쪽 내용이 모두 『원당』에만 나와있고 『노당』에서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 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권의 3쪽을 예로 들면 이 부분은 『노당』에서 3781의 2—3784의 5에 해당한다. 이는 『노당』 3781쪽의 두 번째 줄에서 3784쪽의 다섯 번째 줄까지를 말한다.

6-25	3829의 7—3831의 5 (8권)	
6-26	3963의 1—3965의 3 (8권)	중복, 변경
6-27	3965의 4—3969의 6 (8권)	중복, 변경
6-28	3831의 5—3833의 5 (8권)	
6-29	3833의 6—3835의 5 (8권)	
6-30	3835의 5—3837의 4 (8권)	
6-31	3837의 4—3839의 4 (8권)	
6-32	3839의 4—3841의 5 (8권)	
6-33	3841의 5—3843의 5 (8권)	
6-34	3843의 5—3845의 4 (8권)	
6-35	3845의 4—3847의 3 (8권)	
6-36	3847의 3—3849의 4 (8권)	
6-37	3849의 4—3851의 3 (8권)	
6-38	3851의 3—3853의 2 (8권)	
6-39	3853의 2—3854의 7 (8권)	
6-40	3855의 1—3856의 6 (8권)	
6-41	3856의 6—3858의 4 (8권)	
6-42	3858의 4—3860의 2 (8권)	
6-43	3860의 2—3861의 6 (8권)	
6-44	3861의 7—3863의 5 (8권)	
6-45	3863의 6—3869의 4 (8권)	
6-46	3869의 5—3871의 6 (8권)	
6-47	3871의 6—3873의 5 (8권)	
6-48	3873의 6—3875의 4 (8권)	
6-49	3875의 4—3877의 3 (8권)	
6-50	3877의 3—3878의 7 (8권)	
6-51	3878의 7—3880의 7 (8권)	
6-52	3880의 7—3882의 6 (8권)	
6-53	3882의 7—3883의 7 (8권)	
6-54	3884의 1—3886의 4 (8권)	
6-55	3886의 4—3889의 1 (8권)	
6-56	3889의 1—3892의 6 (8권)	문구 삭제
6-57	3892의 6—3894의 6 (8권)	
6-58	3894의 6—3896의 7 (8권)	
6-59	3896의 7—3902의 7 (8권)	날짜 다름 (suwayan)
6-60	3902의 7—3904의 7 (8권)	
6-61	3904의 7—3906의 7 (8권)	
6-62	3906의 7—3909의 2 (8권)	
6-63	3909의 2—3911의 2 (8권)	
6-64	3911의 2—3913의 3 (8권)	
6-65	3913의 3—3915의 3 (8권)	

6-66	3915의 3—3917의 2 (8권)	
6-67	3917의 3—3919의 7 (8권)	문단 순서
6-68	3920의 1—3922의 1 (8권)	
6-69	3922의 1—3924의 1 (8권)	
6-70	3924의 1—3926의 1 (8권)	
6-71	3926의 1—3928의 2 (8권)	
6-72	3928의 2—3930의 1 (8권)	
6-73	3930의 1—3931의 7 (8권)	
6-74	3931의 7—3933의 6 (8권)	
6-75	3933의 7—3935의 5 (8권)	
6-76	3935의 5—3937의 4 (8권)	
6-77	3937의 4—3939의 5 (8권)	
6-78	3939의 5—3941의 4 (8권)	
6-79	3941의 4—3943의 4 (8권)	
6-80	3943의 4—3945의 2 (8권)	
6-81	3945의 2—3947의 1 (8권)	
6-82	3947의 2—3948의 2 (8권)	
6-83	3948의 2—3949의 6 (8권)	
6-84	3949의 6—3951의 5 (8권)	
6-85	3951의 5—3953의 4 (8권)	
6-86	3953의 4—3957의 4 (8권)	
6-87	3957의 5—3959의 4 (8권)	
6-88	3959의 5—3961의 5 (8권)	
6-89	3961의 5—3963의 6 (8권)	중복
6-90	3963의 7—3966의 1 (8권)	중복
6-91	3966의 1—3968의 2 (8권)	중복
6-92	3968의 2—3969의 3 (8권)	중복
6-93	3969의 3—3970의 7 (8권)	중복
6-94	3970의 7—3972의 7 (8권)	
6-95	3972의 7—3974의 7 (8권)	
6-96	3974의 7—3976의 2 (8권)	
6-97	3976의 2—3978의 2 (8권)	
6-98	3978의 2—3980의 6 (8권)	
6-99	3980의 6—3983의 4 (8권)	
6-100	3983의 4—3986의 3 (8권)	
6-101	3986의 4—3988의 7 (8권)	
6-102	3988의 7—3991의 4 (8권)	
6-103	3991의 4—3994의 1 (8권)	
6-104	3994의 2—3996의 3 (8권)	
6-105	3996의 3—3998의 3 (8권)	
6-106	3998의 3—4000의 3 (8권)	
6-107	4000의 3—4002의 2 (8권)	

6-108	4002의 2—4008의 2 (8권)	
6-109	4008의 2—4010의 2 (8권)	
6-110	4010의 2—4012의 4 (8권)	추가
6-111	4012의 4—4014의 7 (8권)	
6-112	4014의 7—4017의 1 (8권)	
6-113	4017의 3—4019의 5 (8권)	
6-114	4019의 5—4022의 2 (8권)	
6-115	4022의 2—4024의 6 (8권)	
6-116	4025의 1—4025의 2 (8권)	삭제
6-117	4025의 3—4027의 7 (8권)	
6-118	4027의 7—4030의 3 (8권)	
6-119	4030의 3—4032의 6 (8권)	
6-120	4032의 6—4035의 2 (8권)	
6-121	4035의 3—4037의 4 (8권)	
6-122	4037의 6—4039의 7 (8권)	
6-123	4039의 7—4042의 2 (8권)	
6-124	4042의 2—4044의 4 (8권)	
6-125	4044의 4—4047의 2 (8권)	
6-126	4047의 2—4047의 5 (8권)	
6-127	4051의 1—4052의 5 (8권)	
6-128	4052의 5—4055의 1 (8권)	
6-129	4055의 2—4056의 2 (8권)	
6-130	4056의 2—4057의 7 (8권)	
6-131	4058의 1—4059의 4 (8권)	
6-132	4059의 5—4062의 4 (8권)	
6-133	4062의 4—4064의 3 (8권)	
6-134	4064의 3—4066의 1 (8권)	
6-135	4066의 2—4068의 2 (8권)	
6-136	4068의 2—4070의 4 (8권)	
6-137	4070의 5—4073의 4 (8권)	
6-138	4073의 4—4078의 3 (8권)	
6-139	4078의 5—4080의 7 (8권)	
6-140	4080의 7—4082의 7 (8권)	
6-141	4083의 1—4085의 6 (8권)	
6-142	4085의 6—4088의 4 (8권)	
6-143	4088의 4—4094의 6 (8권)	
6-144	4094의 6—4096의 7 (8권)	
6-145	4097의 1—4099의 7 (8권)	
6-146	4100의 1—4102의 6 (8권)	
6-147	4102의 7—4105의 2 (8권)	
6-148	4105의 2—4107의 4 (8권)	한 단어(be) 변개

6-149		4107의 6—4109의 7 (8권)	삭제
6-150			삭제
6-151		4110의 1—4112의 2 (8권)	삭제
6-152		4112의 2—4114의 6 (8권)	
6-153		4114의 6—4117의 3 (8권)	
6-154		4117의 4—4119의 7 (8권)	
6-155		4120의 1—4122의 7 (8권)	
6-156		4122의 7—4126의 2 (8권)	
6-157		빈 페이지	
6-158		4126의 4—4129의 1 (8권)	
6-159		4129의 2—4130의 3 (8권)	
6-160	빈 페이지		
6-161	표지 sure han i jai aniya		
6-162		4219의 1—4220의 4 (8권)	
6-163		4220의 4—4222의 1 (8권)	
6-164		4222의 1—4223의 5 (8권)	
6-165		4223의 5—4225의 3 (8권)	
6-166		4225의 3—4227의 1 (8권)	
6-167		4227의 1—4228의 5 (8권)	한 단어 (beyede) 변 개
6-168		4228의 7—4229의 7 (8권)	
6-169		4229의 7—4231의 3 (8권)	
6-170		4231의 3—4232의 5 (8권)	
6-171		4232의 6—4234의 3 (8권)	
6-172		4234의 3—4235의 5 (8권)	
6-173		4235의 6—4237의 1 (8권)	
6-174		4237의 1—4238의 4 (8권)	
6-175		4238의 4—4239의 5 (8권)	한 단어 (wesimum e) 변개
6-176		4239의 6—4240의 6 (8권)	
6-177		4240의 7—4242의 2 (8권)	
6-178		4242의 3—4243의 1 (8권)	
6-179		4243의 3—4244의 5 (8권)	
6-180		4244의 5—4245의 6 (8권)	한 단어 (hafubume) 변개
6-181		4245의 6—4247의 1 (8권)	

6-182	4247의 2—4248의 5 (8권)	한 단어 (aimbi) 삭제
6-183	4248의 5—4250의 1 (8권)	한 단어(be) 추가
6-184	4250의 1—4251의 4 (8권)	
6-185	4251의 5—4253의 2 (8권)	
6-186	4253의 2—4254의 7 (8권)	
6-187	4254의 7—4256의 4 (8권)	
6-188	4256의 4—4257의 7 (8권)	
6-189	4257의 7—4259의 3 (8권)	
6-190	4259의 4—4260의 7 (8권)	
6-191	4260의 7—4262의 3 (8권)	한 단어 (bahambi) 변개
6-192	4262의 4—4263의 5 (8권)	
6-193	4263의 5—4264의 7 (8권)	한 단어(ni) 추가
6-194	4264의 7—4266의 2 (8권)	
6-195	4266의 3—4267의 4 (8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196	4267의 5—4268의 7 (8권)	
6-197	4268의 7—4270의 2 (8권)	
6-198	4270의 2—4274의 2 (8권)	한 단어 (hong taiji) 삭제
6-199	4274의 2—4275의 2 (8권)	
6-200	4275의 2—4276의 3 (8권)	
6-201	4276의 3—4277의 5 (8권)	한 단어(be) 추가
6-202	4277의 7—4278의 7 (8권)	
6-203	4278의 7—4280의 3 (8권)	한 단어 (dalin) 삭제
6-204	4280의 4—4281의 7 (8권)	
6-205	4281의 7—4283의 3 (8권)	
6-206	4283의 3—4284의 6 (8권)	어순
6-207	4284의 6—4286의 2 (8권)	
6-208	4286의 2—4287의 5 (8권)	

6-209		4287의 6—4289의 2 (8권)	
6-210		4289의 2—4290의 6 (8권)	
6-211		4291의 1—4292의 5 (8권)	
6-212		4292의 5—4294의 2 (8권)	
6-213		4294의 2—4295의 5 (8권)	한 단어(be) 추가
6-214		4295의 6—4297의 2 (8권)	
6-215		4297의 2—4298의 4 (8권)	
6-216		4298의 4—4300의 1 (8권)	
6-217		4300의 1—4301의 3 (8권)	
6-218		4301의 3—4302의 6 (8권)	
6-219		4302의 6—4304의 1 (8권)	
6-220		4304의 1—4305의 5 (8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221		4305의 6—4306의 7 (8권)	
6-222		4307의 1—4308의 5 (8권)	
6-223		4308의 5—4310의 3 (8권)	
6-224		4310의 3—4310의 5 (8권)	
6-225	표지: 천충이년 天聰二年		
6-226	표지: 윤자당 閏字檔		
6-227	표지: ○sure han i jai aniya sUwayan muduri aniyai dangse orici sonjoho dangse		
6-228	표지: □□□—□□□ orici sŪrE Han i jai aniYa sUwaYan muduri aNiYa ¹¹⁰) DangsE sonjoho dangse		
6-229		4135의 1—4137의 5 (8권)	어순
6-230		4137의 5—4139의 7 (8권)	
6-231		4139의 7—4142의 2 (8권)	
6-232		4142의 2—4144의 3 (8권)	
6-233		4144의 4—4146의 5 (8권)	
6-234		4146의 5—4148의 7 (8권)	
6-235		4148의 7—4151의 6 (8권)	한 단어(be) 추가

6-236		4151의 6—4154의 3 (8권)	
6-237		4154의 3—4156의 5 (8권)	
6-238		4156의 5—4158의 7 (8권)	
6-239		4158의 7—4161의 3 (8권)	
6-240		4161의 4—4163의 7 (8권)	
6-241		4163의 7—4166의 4 (8권)	
6-242		4166의 4—4168의 4 (8권)	
6-243		4168의 5—4171의 2 (8권)	한 단어(hūi lian) 변개
6-244		4171의 2—4176의 1 (8권)	
6-245		4176의 1—4178의 2 (8권)	
6-246		4178의 4—4180의 7 (8권)	
6-247		4180의 7—4182의 4 (8권)	
6-248			삭제
6-249		4182의 6—4183의 4 (8권)	
6-250		4183의 4—4184의 7 (8권)	
6-251	빈 페이지		
6-252		4185의 1—4187의 6 (8권)	일부 문구 잘 안보임
6-253		4187의 6—4189의 7 (8권)	
6-254		4189의 7—4192의 4 (8권)	
6-255		4192의 5—4194의 7 (8권)	한 단어 (bederefi) 변개
6-256		4194의 7—4198의 6 (8권)	
6-257		4198의 6—4200의 7 (8권)	
6-258		4200의 7—4203의 1 (8권)	
6-259		4203의 3—4205의 5 (8권)	
6-260		4205의 5—4208의 6 (8권)	
6-261		4208의 6—4211의 1 (8권)	
6-262		4211의 1—4212의 2 (8권)	
6-263		4212의 2—4214의 1 (8권)	
6-264		4214의 3—4216의 4 (8권)	
6-265		4313의 2—4314의 3 (8권)	삭제
6-266	빈 페이지		
6-267		4314의 5—4315의 7 (8권)	
6-268		4315의 7—4318의 2 (8권)	
6-269		4318의 2—4320의 4 (8권)	
6-270		4320의 4—4322의 6 (8권)	
6-271		4322의 6—4324의 7 (8권)	
6-272		4324의 7—4327의 2 (8권)	

6-273	4327의 2—4329의 2 (8권)	
6-274	4329의 4—4331의 6 (8권)	삭제
6-275	4332의 1—4334의 1 (8권)	삭제
6-276	4334의 1—4336의 2 (8권)	
6-277	4336의 2—4339의 1 (8권)	삭제
6-278	4339의 1—4339의 7 (8권)	삭제
6-279	4339의 7—4341의 5 (8권)	삭제
6-280	4341의 5—4344의 1 (8권)	문구 삭제
6-281	4344의 1—4347의 3 (8권)	
6-282	4347의 3—4349의 7 (8권)	
6-283	4349의 7—4352의 5 (8권)	
6-284	4352의 5—4355의 1 (8권)	
6-285	4355의 1—4357의 3 (8권)	
6-286	4357의 3—4359의 5 (8권)	
6-287	4359의 5—4361의 7 (8권)	문구(ju we amban) 삭제
6-288	4361의 7—4364의 1 (8권)	단어(gege), 문구 삭제
6-289	4364의 1—4365의 7 (8권)	단어(gege, ju we amban) 삭제
6-290	4366의 1—4367의 5 (8권)	문구(ju we amban) 삭제
6-291	4367의 5—4369의 7 (8권)	
6-292	4369의 7—4372의 4 (8권)	문구 삭제, 한 단어 (mini) 변경
6-293	4372의 5—4375의 1 (8권)	문구(ju we amban) 삭제
6-294	4375의 1—4377의 3 (8권)	문구(ju we amban) 삭제
6-295	4377의 3—4379의 4 (8권)	
6-296	4379의 4—4381의 7 (8권)	한 단어

		(emu) 삭제
6-297	4381의 7—4383의 5 (8권)	
6-298	4383의 5—4384의 6 (8권)	
6-299	4441의 1—4442의 1 (9권)	
6-300	4442의 1—4442의 5, 4449의 7—4450의 2 (9권)	
6-301	4450의 2—4452의 2 (9권)	한 단어(be) 추가
6-302	4458의 6—4459의 2 (9권)	
6-303	빈 페이지	
6-304	빈 페이지	
6-305	한자 표지: 천총기사년 天聰己巳年	
6-306	4496의 5—4497의 5 (9권)	삭제
6-307	4497의 5—4498의 5 (9권)	삭제
6-308	4498의 5—4499의 7 (9권)	삭제
6-309	4499의 7—4500의 4 (9권)	삭제
6-310	4500의 4—4501의 7 (9권)	한 단어 (songkoi) 변개
6-311	4501의 7—4503의 6 (9권)	
6-312	4503의 7—4505의 5 (9권)	
6-313	4505의 5—4507의 1 (9권)	
6-314	4507의 1—4508의 3 (9권)	
6-315	4508의 3—4509의 5 (9권)	
6-316	4509의 5—4511의 3 (9권)	
6-317	4511의 3—4513의 4 (9권)	
6-318	4513의 4—4514의 6 (9권)	
6-319	4514의 7—4516의 1 (9권)	
6-320	4516의 1—4517의 7 (9권)	메모 문구 삭제
6-321	4518의 1—4519의 6 (9권)	
6-322	4519의 6—4521의 3 (9권)	한 단어(i) 삭제
6-323	4521의 4—4525의 4 (9권)	
6-324	4525의 4—4527의 2 (9권)	
6-325	4527의 2—4529의 2 (9권)	어순
6-326	4529의 2—4531의 1 (9권)	
6-327	4531의 1—4532의 6 (9권)	문구 삭제
6-328	4532의 6—4534의 6 (9권)	문구 삭제

6-329	4534의 6—4536의 5 (9권)	
6-330	4536의 5—4538의 2 (9권)	
6-331	4538의 2—4539의 1, (9권) 4540의 3—4541의 1	
6-332	4541의 2—4542의 7 (9권)	
6-333	4542의 7—4544의 3 (9권)	삭제, 문구 추가, 한 단 어(hoton) 변개
6-334	4544의 3—4544의 4, (9권) 4548의 3—4549의 5	문구 삭제, 추가
6-335	4549의 5—4551의 5 (9권)	
6-336	4551의 5—4553의 7 (9권)	
6-337	4553의 7—4555의 4 (9권)	
6-338	4555의 4—4555의 6, (9권) 4539의 3—4540의 1, 4544의 2—4544의 3	
6-339	4544의 3—4546의 1 (9권)	한 단어 삭 제
6-340	4546의 1—4546의 5, (9권) 4556의 1—4557의 1	한 단어 (gemu) 삭 제
6-341	4557의 1—4559의 3 (9권)	
6-342	4559의 3—4561의 3 (9권)	삭제, 몽골 어
6-343	4561의 4—4567의 4 (9권)	삭제, 몽골 어
6-344	4567의 4—4569의 2 (9권)	한 단어(be) 추가
6-345	4569의 2—4570의 7 (9권)	
6-346	4570의 7—4572의 5 (9권)	문구 삭제
6-347	4572의 5—4574의 2 (9권)	한 단어 (jergi) 추가
6-348	4574의 2—4575의 6 (9권)	문 구 (k ak d u r i gusai) 삭제
6-349	4575의 6—4577의 2 (9권)	
6-350	4577의 2—4578의 4 (9권)	문구 삭제

6-351	4578의 5—4580의 5 (9권)	한 단어 (hüntahan) 추가
6-352	4580의 7—4582의 6 (9권)	단어(gusai), 문구 삭제
6-353	4582의 6—4584의 6 (9권)	
6-354	4584의 6—4586의 4 (9권)	두 단어 (jafabufi, hiyan) 추가
6-355	4586의 4—4588의 3 (9권)	
6-356	4588의 4—4590의 1 (9권)	
6-357	4590의 1—4591의 5 (9권)	한 단어(be) 추가
6-358	4591의 5—4593의 1 (9권)	
6-359	4593의 1—4594의 5 (9권)	
6-360	4594의 5—4596의 5 (9권)	
6-361	4596의 5—4598의 7 (9권)	
6-362	4598의 7—4600의 4 (9권)	
6-363	4600의 4—4602의 1 (9권)	
6-364	4602의 1—4604의 2 (9권)	메모 삭제
6-365	4604의 4—4606의 4 (9권)	
6-366	4606의 4—4608의 3 (9권)	문구 삭제
6-367	4608의 3—4609의 4 (9권)	문장 삭제
6-368	4613의 2—4614의 6 (9권)	문구 삭제
6-369	4614의 6—4617의 3 (9권)	
6-370	4617의 5—4619의 6 (9권)	
6-371	4619의 6—4622의 4 (9권)	
6-372	4622의 4—4624의 4 (9권)	
6-373	4624의 4—4625의 7 (9권)	삭제
6-374	4625의 7—4627의 7 (9권)	
6-375	4627의 7—4629의 2 (9권)	두 단어 (hong taiji) 삭제
6-376	4629의 3—4630의 6 (9권)	
6-377	4630의 6—4632의 3 (9권)	
6-378	4632의 3—4633의 7 (9권)	
6-379	4633의 7—4635의 3 (9권)	한 단어(i) 추가
6-380	4635의 3—4637의 2 (9권)	
6-381	4637의 2—4639의 6 (9권)	인명 문구

		변개
6-382	4639의 7—4641의 4 (9권)	문구 삭제
6-383	4641의 5—4643의 5 (9권)	
6-384	4643의 5—4645의 6 (9권)	문장 삭제
6-385	4645의 6—4648의 1 (9권)	
6-386	4648의 3—4650의 3 (9권)	
6-387	4650의 4—4652의 1 (9권)	
6-388	4652의 2—4654의 2 (9권)	
6-389	4654의 3—4656의 1 (9권)	문구 삭제
6-390	한자 표지: 조자당 調字 檔	
6-391	빈 페이지	
6-392	4729의 2—4730의 5 (9권)	
6-393	4730의 5—4731의 7 (9권)	
6-394	4732의 1—4732의 2, (9권) 4738의 7—4739의 7	
6-395	4739의 7—4741의 4 (9권)	한 단어 (iogi) 삭제
6-396	4746의 2—4747의 6 (9권)	
6-397	4747의 6—4748의 5 (9권)	
6-398	4748의 7—4750의 5 (9권)	
6-399	4750의 5—4751의 3, (9권) 4752의 7—4753의 2, 4757의 2—4757의 4	
6-400	4757의 5—4758의 6 (9권)	
6-401	4758의 6—4760의 4 (9권)	
6-402	4760의 4—4762의 1 (9권)	
6-403	4762의 2—4763의 5 (9권)	
6-404	4763의 5—4765의 1 (9권)	
6-405	4765의 2—4766의 2 (9권)	
6-406	4766의 2—4767의 5 (9권)	
6-407	4771의 6—4774의 2 (9권)	
6-408	4774의 3—4775의 1 (9권)	
6-409	4775의 3—4777의 3 (9권)	
6-410	4777의 5—4778의 7 (9권)	
6-411	4778의 7—4780의 3 (9권)	
6-412	4780의 3—4780의 5, (9권) 4782의 3—4783의 1	
6-413	4783의 1—4784의 3 (9권)	
6-414	4784의 3—4785의 7 (9권)	
6-415	4791의 2—4792의 7 (9권)	

6-416	4792의 7—4794의 3 (9권)	
6-417	4794의 3—4795의 4 (9권)	
6-418	4805의 1—4806의 3 (9권)	
6-419	4806의 5—4807의 5 (9권)	
6-420	4807의 7—4809의 2 (9권)	한 단어 (wesimbuhe)) 번개
6-421	4809의 2—4809의 5 (9권)	
6-422	4809의 7—4811의 1 (9권)	
6-423	4811의 1—4812의 4 (9권)	
6-424	4812의 4—4813의 4 (9권)	
6-425	4813의 4—4814의 7 (9권)	
6-426	4814의 7—4816의 2 (9권)	
6-427	4816의 3—4817의 3 (9권)	
6-428	4817의 3—4818의 7 (9권)	
6-429	4819의 2—4820의 6 (9권)	
6-430	4820의 6—4822의 3, (9권) 4823의 2—4823의 4	
6-431	4823의 4—4823의 7, (9권) 4827의 2—4827의 5, 4828의 7—4829의 2	
6-432	4833의 2—4834의 4 (9권)	
6-433	4834의 5—4835의 5 (9권)	
6-434	4835의 5—4836의 6 (9권)	
6-435	4836의 6—4838의 2 (9권)	
6-436	4838의 3—4839의 3 (9권)	
6-437	4844의 6—4845의 4 (9권)	
6-438	4857의 3—4859의 2 (9권)	
6-439	4859의 2—4859의 6 (9권)	한 단어 삭 제
6-440	4863의 2—4865의 2 (9권)	한 단어 (gemu) 삭 제
6-441	4865의 2—4865의 3, (9권) 4868의 3—4869의 3	
6-442	4869의 5—4870의 3, (9권) 4877의 2—4878의 5	한 단어 (juwe) 삭제
6-443	4878의 5—4879의 6, 4892의 4—4892의 6 (9권)	

6-444	-	삭제
6-445	5189의 2—5189의 5 (10권)	
6-446	5189의 6—5191의 1 (10권)	
6-447	5191의 1—5192의 4 (10권)	
6-448	5192의 5—5194의 1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49	5194의 1—5195의 3 (10권)	
6-450	5195의 3—5196의 6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51	5197의 1—5198의 3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52	5198의 3—5199의 5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53	5199의 5—5201의 1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54	5201의 2—5202의 5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55	5202의 5—5204의 1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56	5204의 1—5205의 3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57	5205의 3—5206의 7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58	5207의 2—5208의 2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59	5208의 3—5209의 5 (10권)	한 단어 (wesimbufi)

		변개
6-460	5209의 5—5210의 6 (10권)	단 어 (wesimbu-) 변개
6-461	5210의 6—5212의 2 (10권)	
6-462	5212의 2—5213의 5 (10권)	
6-463	5213의 5—5214의 7 (10권)	
6-464	5214의 7—5215의 7 (10권)	
6-465	5216의 2—5217의 4 (10권)	
6-466	5217의 4—5219의 2 (10권)	
6-467	5219의 2—5220의 5 (10권)	
6-468	5220의 6—5222의 2 (10권)	
6-469	5222의 2—5223의 6 (10권)	
6-470	5223의 6—5225의 2 (10권)	
6-471	5225의 2—5226의 3 (10권)	
6-472	5226의 3—5227의 3 (10권)	한 단어 (huwangtao)) 변개
6-473	5227의 4—5228의 5 (10권)	
6-474	5228의 5—5229의 6 (10권)	
6-475	5229의 6—5230의 6 (10권)	
6-476	5230의 7—5231의 7 (10권)	
6-477	5232의 2—5233의 2 (10권)	
6-478	5233의 2—5234의 2 (10권)	
6-479	5234의 4—5235의 4 (10권)	
6-480	5235의 5—5236의 5 (10권)	
6-481	5236의 5—5237의 6 (10권)	
6-482	5237의 6—5238의 7 (10권)	한 단어(de) 추가
6-483	5238의 7—5240의 1 (10권)	
6-484	5240의 1—5241의 1 (10권)	
6-485	5241의 3—5242의 5 (10권)	
6-486	5242의 5—5243의 5 (10권)	
『원당』 7권	『노당』	비고
7-0	한자표지: 월자당 月字檔	
7-1	한자표지: 친총사년 天聰四年	
7-2	sÜrE Han i DUiCi aniya, yüng ping ju de tehe	

	beisei baiTa aCiHiyaHa dangse. (arame wajiha)		
7-3	-		
7-4		4661의 2—4662의 4 (9권)	
7-5		4662의 4—4663의 5 (9권)	
7-6		4663의 5—4665의 4 (9권)	
7-7		4665의 4—4667의 2 (9권)	문구 삭제 및 추가
7-8		4667의 4—4669의 6 (9권)	
7-9		4669의 6—4672의 2 (9권)	
7-10		4672의 4—4674의 3 (9권)	
7-11		4674의 5—4676의 4 (9권)	한 단어(ni) 삭제
7-12		4676의 5—4678의 4 (9권)	
7-13		4678의 6—4680의 1 (9권)	
7-14		4680의 2—4681의 5 (9권)	
7-15			삭제, 몽골 어, 추가
7-16		4683의 1—4684의 1 (9권)	
7-17		4684의 3—4685의 7 (9권)	문 구(buhe bithe) 추가
7-18		4686의 2—4688의 2 (9권)	
7-19		4688의 2—4689의 4 (9권)	
7-20		4689의 4—4691의 1 (9권)	한 단어(si) 변개
7-21		4691의 1—4693의 3 (9권)	
7-22		4693의 5—4695의 4 (9권)	
7-23		4695의 4—4697의 3 (9권)	
7-24		4697의 3—4699의 3 (9권)	
7-25		4699의 3—4704의 6 (9권)	
7-26		4705의 1—4706의 7 (9권)	
7-27		4706의 7—4708의 6 (9권)	한 단어 (ting ling hoo) 변개
7-28		4708의 6—4710의 6 (9권)	
7-29		4710의 6—4712의 7 (9권)	
7-30		4712의 7—4715의 1 (9권)	
7-31		4715의 1—4717의 4 (9권)	
7-32		4717의 5—4719의 5 (9권)	

7-33	4719의 7—4721의 4 (9권)	
7-34	4721의 4—4723의 2 (9권)	
7-35	4723의 2—4724의 7 (9권)	
7-36	4724의 7—4726의 4 (9권)	
7-37	4726의 4—4727의 7 (9권)	
7-38	4727의 7—4728의 7 (9권)	
7-39	4732의 4—4732의 5 (9권)	날짜 문구 삭제, 삭제, 몽골어, 추 가
7-40	4734의 5—4735의 1 (9권)	삭제, 몽골 어
7-41	4735의 1—4736의 5 (9권)	
7-42	4736의 5—4738의 2 (9권)	
7-43	4738의 2—4738의 5, (9권) 4745의 2—4745의 7	
7-44	4751의 5—4752의 5, (9권) 4753의 4—4753의 6	
7-45	4753의 7—4755의 2 (9권)	
7-46	4755의 2—4758의 5 (9권)	
7-47	4758의 5—4758의 7, (9권) 4767의 7—4768의 5	
7-48	4768의 6—4770의 2 (9권)	
7-49	4770의 2—4771의 4 (9권)	
7-50	4780의 7—4782의 1, (9권) 4789의 2—4789의 3	
7-51	4789의 3—4790의 7 (9권)	
7-52	4802의 4—4803의 5 (9권)	
7-53	4803의 6—4804의 6 (9권)	
7-54	4822의 5—4822의 7, (9권) 4824의 2—4824의 5	
7-55	4824의 5—4826의 3 (9권)	
7-56	4826의 4—4826의 7, (9권) 4827의 7—4828의 5	
7-57	4839의 5—4840의 3 (9권)	날짜 문구 삭제
7-58	4840의 3—4841의 7 (9권)	한 단어(i) 삭제
7-59	4841의 7—4843의 4 (9권)	

7-60	4843의 5—4844의 4 (9권)	
7-61	4845의 6—4847의 1 (9권)	
7-62	4847의 1—4848의 4 (9권)	
7-63	4848의 4—4849의 7 (9권)	
7-64	4849의 7—4850의 5, (9권) 4860의 1—4860의 4	
7-65	4860의 6—4861의 2 (9권)	
7-66	4861의 4—4862의 6 (9권)	
7-67	4862의 6—4862의 7, (9권) 4865의 5—4866의 4	
7-68	4866의 6—4867의 7 (9권)	
7-69	4867의 7—4868의 1 (9권)	
7-70	4870의 5—4871의 6 (9권)	
7-71	4875의 2—4876의 5 (9권)	
7-72	4876의 5—4876의 7, (9권) 4880의 1—4880의 5	
7-73	4880의 6—4881의 6 (9권)	
7-74	4881의 7—4882의 7 (9권)	
7-75	4882의 7—4884의 2 (9권)	
7-76	4884의 2—4885의 5 (9권)	
7-77	4885의 5—4887의 1 (9권)	
7-78	4887의 1—4888의 4 (9권)	
7-79	4888의 4—4889의 4 (9권)	
7-80	4889의 6—4890의 7 (9권)	
7-81	4890의 7—4892의 2 (9권)	
7-82	4896의 1—4897의 2 (9권)	
7-83	4897의 2—4897의 6 (9권)	
7-84	4898의 1—4899의 2 (9권)	
7-85	4900의 4—4901의 6 (9권)	
7-86	4902의 7—4904의 3 (9권)	
7-87	4904의 3—4905의 4 (9권)	
7-88	4905의 6—4907의 3 (9권)	
7-89	4907의 3—4908의 7 (9권)	
7-90	4908의 7—4910의 3 (9권)	
7-91	4910의 5—4912의 1 (9권)	
7-92	4912의 1—4913의 3 (9권)	
7-93	4913의 3—4914의 6 (9권)	
7-94	4914의 6—4915의 7 (9권)	
7-95	4920의 4—4921의 7 (9권)	
7-96	4921의 7—4923의 1 (9권)	
7-97	4923의 2—4924의 6 (9권)	

7-98		4924의 6—4925의 7 (9권)	
7-99		4936의 7—4938의 2 (9권)	
7-100		4938의 4—4938의 7, (9권) 4954의 2—4954의 7	
7-101		4954의 7—4956의 6 (9권)	
7-102		4956의 6—4958의 4 (9권)	
7-103		4958의 5—4960의 1 (9권)	
7-104		4970의 4—4971의 6 (9권)	
7-105		4971의 6—4972의 2 (9권) 4981의 2—4982의 1 (10권)	한 단어(be) 추가
7-106		4982의 2—4983의 6 (10권)	한 단어(be) 삭제 및 추 가
7-107		4985의 6—4986의 6 (10권)	
7-108		4987의 1—4988의 5 (10권)	한 단어(de) 추가
7-109		4988의 6—4989의 1 (10권) 4917의 6—4919의 4 (9권)	
7-110		4919의 4—4919의 4, (9권) 4893의 1—4894의 1	
7-111		4894의 3—4895의 1, (9권) 4935의 2—4935의 6	
7-112		4935의 6—4936의 5, (9권) 4963의 1—4964의 2	
7-113		4952의 2—4953의 3 (9권)	
7-114		4989의 3—4990의 5 (10권)	
7-115		4990의 5—4991의 1 (10권)	한 단어 (tere) 변개
7-116		4991의 3—4992의 4 (10권)	
7-117		4992의 4—4993의 6 (10권)	
7-118		4993의 6—4995의 1 (10권)	
7-119		4995의 1—4996의 2 (10권)	한 단어(be) 추가
7-120		4996의 2—4997의 3 (10권)	
7-121	한자표지: 천총사년 天聰 四年		
7-122	빈 페이지		
7-페이지 지 번	[뒷페이지: 7-# 우자당 雨字檔]		

호 없 음			
7-123	표지: tofohon afaha TUwamE wajiga[< wajiha] arambi, morin [+aniYa] jUwE biYa, (aramE wajiHa)		
7-124		4795의 6—4796의 6 (9권)	
7-125		4796의 7—4798의 1 (9권)	
7-126		4798의 1—4799의 3 (9권)	
7-127		4799의 3—4800의 5 (9권)	
7-128		4800의 5—4801의 5 (9권)	
7-129		4801의 5—4802의 2 (9권)	
7-130		4850의 7—4852의 2 (9권)	
7-131		4852의 2—4853의 4 (9권)	
7-132		4853의 4—4854의 7 (9권)	
7-133		4854의 7—4856의 1 (9권)	
7-134		4856의 2—4857의 1 (9권)	
7-135		4946의 2—4947의 1 (9권)	
7-136		4947의 1—4948의 1 (9권)	
7-137		4948의 1—4949의 1 (9권)	
7-138		4949의 2—4950의 3 (9권)	
7-139		4950의 4—4951의 3 (9권)	
7-140		4967의 1—4967의 6 (9권)	
7-141		4967의 6—4968의 6 (9권)	
7-142		4968의 6—4969의 5 (9권)	
7-143		4969의 6—4970의 2 (9권)	
7-144		5021의 2—5022의 3 (10권)	한 단어(i) 삭제
7-145		5022의 3—5023의 5 (10권)	
7-146		5023의 5—5024의 5 (10권)	
7-147		5024의 5—5025의 7 (10권)	
7-148		5025의 7—5026의 7 (10권)	
7-149		5026의 7—5028의 1 (10권)	
7-150		5028의 1—5029의 2 (10권)	
7-151		5029의 2—5030의 3 (10권)	
7-152	빈 페이지		
7-페이지 번호	[7-# 한자표지 운자당 雲字檔]		

호 없 음			
7-153		5243의 7—5244의 1 (10권)	
7-154		5244의 2—5245의 1 (10권)	
7-155		5245의 2—5246의 1 (10권)	
7-156		5246의 2—5246의 4 (10권)	삭제, 몽골 어
7-157			삭제, 몽골 어
7-158			삭제, 몽골 어
7-159	한자 표지: 천충사년 天 聰四年		
7-160	빈페이지		
7-페이지 번호 없 음	[7-# 한자 표지: 등자당 騰字檔]		
7-161	빈페이지		
7-162			삭제
7-163			삭제
7-164			삭제
7-165			삭제
7-166			삭제
7-167			삭제
7-168			삭제
7-169			삭제
7-170			삭제
7-171			삭제
7-172			삭제
7-173			삭제
7-174			삭제
7-175			삭제
7-176	표지: (aramE wajiHa)		
7-페이지 번호 없 음	[7-# 한자 표지: 려자당 呂字檔]		
7-177		4899의 4—4900의 2 (9권)	한 단어(i)

	4902의 1—4902의 2 (9권)	삭제, 강이 름 (durbi) 다름
7-178	4902의 2—4902의 5, (9권) 4916의 2—4916의 3	
7-179	4916의 5—4917의 4, (9권) 4919의 7—4920의 1	
7-180	4920의 1—4920의 2, (9권) 4926의 2—4926의 6	
7-181	4926의 6—4928의 1 (9권)	
7-182	4928의 1—4929의 1 (9권)	
7-183	4933의 2—4934의 5 (9권)	
7-184	4934의 5—4934의 7, (9권) 4939의 2—4939의 4	
7-185	4939의 6—4940의 6 (9권)	
7-186	4940의 6—4942의 1 (9권)	한 단어 (fung yun) 변개
7-187	4942의 2—4943의 3 (9권)	
7-188	4943의 3—4944의 5 (9권)	
7-189	4944의 6—4945의 7 (9권)	
7-190	4951의 5—4951의 7, (9권) 4953의 5—4953의 7, 4960의 3	
7-191	4960의 3—4961의 7 (9권)	
7-192	4961의 7—4962의 6, (9권) 4964의 4—4964의 6	
7-193	4964의 7—4966의 2 (9권)	
7-194	4966의 2—4966의 6, (9권) 4972의 3—4972의 6	
7-195	4972의 6—4974의 4 (9권)	
7-196	4974의 4—4975의 6 (9권) 4984의 1—4984의 2 (10권)	날짜 문구 삭제
7-197	4984의 2—4985의 4 (10권) 4997의 5—4997의 7	
7-198	4997의 7—4999의 3 (10권)	
7-199	4999의 3—5000의 3 (10권)	
7-200	5000의 3—5001의 4 (10권)	한 단어

		(sengguwende) 변개
7-201	5001의 6—5002의 6 (10권)	
7-202	5002의 6—5003의 4 (10권)	숫자 다름
7-203	5003의 5—5005의 1 (10권)	
7-204	5005의 1—5006의 7 (10권)	
7-205	5007의 2—5007의 7 (10권)	
7-206	5008의 1—5009의 1 (10권)	
7-207	5009의 1—5010의 2 (10권)	
7-208	5010의 2—5011의 2 (10권)	
7-209	5011의 2—5012의 5 (10권)	
7-210	5012의 5—5013의 6 (10권)	
7-211	5013의 7—5015의 1 (10권)	
7-212	5015의 1—5016의 1 (10권)	
7-213	5016의 1 (10권)	
7-214	5016의 3—5017의 2 (10권)	
7-215	5017의 4—5018의 5 (10권)	
7-216	5018의 6, (10권) 5030의 5—5031의 1	한 단어 (yungping) 변개
7-217	5031의 3—5032의 2 (10권)	
7-218	5032의 3—5033의 2 (10권)	
7-219	5033의 2—5034의 1 (10권)	
7-220	5034의 2—5035의 1 (10권)	
7-221	5035의 2—5035의 6 (10권)	
7-222	5036의 1—5037의 6 (10권)	
7-223	5037의 6—5038의 5 (10권)	
7-224	5038의 5—5039의 6 (10권)	
7-225	5039의 7—5040의 7 (10권)	
7-226	5040의 7—5041의 5 (10권)	
7-227	5041의 7—5042의 6 (10권)	
7-228	5042의 7—5043의 6 (10권)	
7-229	5043의 6—5044의 6 (10권)	
7-230	5044의 6—5045의 7 (10권)	
7-231	5045의 7—5047의 1 (10권)	
7-232	5047의 1—5047의 7 (10권)	
7-233	5048의 1—5049의 1 (10권)	
7-234	5049의 1—5050의 1 (10권)	
7-235	5050의 1—5051의 1 (10권)	
7-236	5051의 1—5052의 1 (10권)	
7-237	5052의 1—5053의 2 (10권)	

7-238	5053의 2—5054의 5 (10권)	
7-239	5057의 2—5058의 2 (10권)	
7-240	5058의 2—5059의 4 (10권)	
7-241	5059의 5—5060의 5 (10권)	
7-242	5060의 5—5061의 7 (10권)	
7-243	5061의 7—5062의 7 (10권)	
7-244	5062의 7—5063의 6 (10권)	
7-245	5063의 7—5064의 7 (10권)	
7-246	5064의 7—5066의 1 (10권)	
7-247	5066의 1—5067의 2 (10권)	
7-248	5067의 2—5068의 3 (10권)	
7-249	5068의 3—5069의 3 (10권)	
7-250	5069의 3—5070의 5 (10권)	
7-251	5070의 5—5071의 6 (10권)	
7-252	5071의 7—5073의 1 (10권)	
7-253	5073의 2—5073의 7 (10권)	
7-254	5074의 1—5075의 1 (10권)	
7-255	5075의 1—5076의 2 (10권)	
7-256	5076의 2—5077의 2 (10권)	
7-257	5077의 2—5078의 3 (10권)	
7-258	5078의 3—5079의 5 (10권)	
7-259	5079의 6—5080의 6 (10권)	
7-260	5080의 6—5081의 7 (10권)	
7-261	5081의 7—5082의 7 (10권)	
7-262	5082의 7—5084의 1 (10권)	
7-263	5084의 1—5084의 7 (10권)	
7-264	5085의 1—5086의 1 (10권)	
7-265	5086의 1—5087의 2 (10권)	
7-266	5087의 2—5088의 3 (10권)	
7-267	5088의 3—5089의 3 (10권)	
7-268	5089의 3—5090의 3 (10권)	
7-269	5090의 3—5091의 4 (10권)	
7-270	5091의 4—5092의 4 (10권)	
7-271	5092의 4—5093의 5 (10권)	
7-272	5093의 5—5094의 6 (10권)	
7-273	5094의 6—5095의 6 (10권)	
7-274	5095의 6—5097의 1 (10권)	
7-275	5097의 1—5098의 2 (10권)	
7-276	5098의 2—5099의 4 (10권)	
7-277	5099의 4—5100의 6 (10권)	
7-278	5100의 6—5101의 7 (10권)	
7-279	5101의 7—5103의 1 (10권)	

7-280		5103의 1—5104의 2 (10권)	
7-281		5104의 2—5105의 2 (10권)	
7-282		5105의 2—5106의 2 (10권)	
7-283		5106의 3—5107의 2 (10권)	
7-284		5107의 4—5108의 5 (10권)	
7-285		5108의 5—5108의 7 (10권) 5111의 2—5111의 5	
7-286		5111의 7—5112의 7 (10권)	한 단어 (ubu) 추가
7-287		5112의 7—5114의 1 (10권)	
7-288		5114의 1—5115의 1 (10권)	
7-289		5115의 1—5115의 7 (10권)	
7-290		5116의 2—5117의 1 (10권)	
7-291		5117의 1—5118의 2 (10권)	
7-292		5118의 2—5119의 2 (10권)	
7-293		5119의 3—5120의 7 (10권)	
7-294		5121의 1—5122의 4 (10권)	
7-295		5122의 4—5123의 7 (10권)	
7-296		5124의 1—5125의 3 (10권)	
7-297		5125의 3—5126의 6 (10권)	
7-298		5126의 6—5128의 1 (10권)	
7-299		5128의 1—5129의 5 (10권)	
7-300		5129의 5—5131의 2 (10권)	
7-301		5131의 2—5132의 7 (10권)	
7-302		5132의 7—5134의 3 (10권)	
7-303		5134의 3—5136의 1 (10권)	
7-304		5136의 1—5137의 4 (10권)	한 단어 (gaifi) 추가
7-305		5137의 6—5139의 2 (10권)	
7-306		5139의 3—5140의 1 (10권)	
7-307	빈 페이지		
7-308	만주어 표지: 지워져서 잘 안보임		
7-페이지 번호 없음	[7-#] 한자표지: 서자당 暑字檔		
7-309			삭제
7-310		5253의 2—5256의 3 (10권)	
7-311		5256의 3—5257의 5 (10권)	

	5261의 6—5262의 3	
7-312	5262의 3—5264의 5 (10권)	
7-313	5264의 7—5266의 3 (10권) 5267의 4—5268의 1	삭제, 몽골어
7-314	5268의 1—5270의 2 (10권)	
7-315	5270의 2—5272의 4 (10권)	
7-316	5272의 5—5275의 5 (10권)	
7-317	5275의 5—5277의 7 (10권)	
7-318	5277의 7—5279의 2 (10권)	한 단어(i) 삭제
7-319	5279의 2—5281의 4 (10권)	
7-320	5281의 4—5282의 5 (10권)	
7-321	5284의 4—5286의 1 (10권)	
7-322	5286의 1—5287의 5 (10권)	
7-323	5287의 6—5288의 1 (10권) 5294의 4—5294의 5, 5304의 6—5305의 4	날짜 문구 삭제
7-324	5305의 6—5307의 7 (10권)	
7-325	5307의 7—5310의 3 (10권)	
7-326	5310의 3—5311의 3 (10권) 5312의 2—5313의 2	
7-327	5313의 3—5317의 1 (10권)	날짜 문구 삭제
7-328	5317의 1—5319의 4 (10권)	
7-329	5319의 4—5321의 6 (10권)	
7-330	5321의 6—5324의 2 (10권)	
7-331	5324의 3—5325의 5 (10권) 5329의 2—5329의 7	
7-332	5329의 7—5331의 7 (10권)	
7-333	5331의 7—5334의 1 (10권)	
7-334	5334의 1—5336의 2 (10권)	
7-335	5336의 2—5338의 3 (10권)	
7-336	5338의 3—5340의 5 (10권)	
7-337	5340의 7—5343의 1 (10권)	
7-338	5343의 1—5344의 5 (10권)	한 단어 추가
7-339	5344의 7—5347의 1 (10권)	
7-340	5347의 3—5349의 6 (10권)	
7-341	5349의 6—5352의 1 (10권)	한 단어 (arki) 추가

7-342	5352의 1—5354의 1 (10권)	
7-343	5354의 1—5355의 2 (10권)	날짜 문구 삭제
7-344	5355의 2—5358의 1 (10권)	
7-345	5358의 1—5361의 4 (10권)	
7-346	5361의 5—5365의 2 (10권) 5369의 2—5369의 4	
7-347	5369의 4—5372의 7 (10권)	
7-348	5372의 7—5375의 5 (10권)	
7-349	5375의 7—5378의 1 (10권)	
7-350	5378의 2—5380의 3 (10권)	
7-351	5380의 3—5381의 3 (10권)	삭제, 몽골 어
7-352	5384의 2—5387의 2 (10권)	삭제, 몽골 어, 문구 삭 제
7-353	5387의 4—5391의 3 (10권)	어순, 한 단 어 (menggun) 삭제
7-354	5391의 3—5393의 5 (10권)	삭제, 몽골 어
7-355		삭제, 몽골 어
7-356		삭제, 몽골 어
7-357		삭제, 몽골 어
7-358	5402의 1—5403의 3 (10권)	삭제, 몽골 어
7-359		삭제, 몽골 어
7-360	5406의 6—5407의 2 (10권) 5411의 2—5411의 3, 5412의 3—5413의 6	삭제, 몽골 어
7-361	5413의 7—5417의 3 (10권)	
7-362	5417의 4—5419의 7 (10권)	
7-363	5420의 2—5421의 6 (10권)	두 단어

		(ice) 추가
7-364	5421의 6—5423의 6 (10권)	한 단어 (ice) 추가
7-365	5423의 6—5426의 4 (10권)	한 단어 (ice) 추가
7-366	5426의 5—5428의 6 (10권)	
7-367	5428의 6—5430의 7 (10권)	날짜 문구 삭제
7-368	5431의 1—5433의 6 (10권)	
7-369	5433의 6—5434의 7 (10권)	
7-370	5435의 2—5435의 5 (10권)	삭제, 몽골 어
7-371	5438의 3 (10권)	삭제, 몽골 어
7-372	5439의 6 (10권)	삭제, 몽골 어
7-373	5440의 5—5440의 6 (10권)	삭제, 몽골 어
7-374		삭제, 몽골 어
7-375	5444의 4—5446의 2 (10권)	삭제, 몽골 어
7-376		삭제, 몽골 어
7-377	5448의 4—5448의 7 (10권) 5667의 1—5669의 1 (11권)	날짜 문구 삭제
7-378	5669의 1—5672의 6 (11권)	
7-379	5673의 1 (11권)	삭제, 몽골 어
7-380		삭제, 몽골 어
7-381	5675의 4—5678의 2 (11권)	
7-382	5678의 4—5682의 3 (11권)	
7-383	5682의 5—5685의 3 (11권)	
7-384	5685의 3—5686의 2 (11권) 5690의 7—5693의 5	
7-385	5693의 7—5697의 2 (11권)	
7-386	5697의 3—5698의 3 (11권)	삭제, 몽골

		5699의 6—5700의 2	어
7-387		5700의 4—5702의 3 (11권)	
7-388		5705의 2—5707의 6 (11권)	날짜 문구 삭제, 2단어 (ice) 추가
7-389		5708의 1—5710의 4 (11권)	2단어(ice) 추가
7-390		5710의 4—5712의 2 (11권)	삭제, 몽골 어
7-391		5713의 1—5715의 5 (11권)	삭제, 몽골 어, 한 단어 (ni) 추가
7-392		5715의 5—5717의 6 (11권)	
7-393		5717의 6—5720의 2 (11권)	
7-394		5720의 2—5722의 4 (11권)	
7-395		5722의 5—5725의 2 (11권)	
7-396		5725의 4—5728의 2 (11권)	
7-397		5728의 2—5730의 5 (11권)	한 단어 (foloho) 추 가
7-398		5730의 6—5733의 1 (11권)	
7-399		5733의 3, (11권) 5734의 2—5734의 3	삭제, 몽골 어
7-400		5735의 6—5737의 4 (11권)	삭제, 몽골 어
7-401		5737의 4—5738의 6 (11권)	
7-402	7-# → 7-402(페이지 표 시없음) 한자 표지 여자 당 餘字檔		
7-403	한자 표지 천총5년 天聰 五年		
7-404	표지 baicaha		
7-405	표지 sŪrE Han i sUnjaCi aniya ¹¹¹⁾ i dangse, erEbE aramE wajiHa □□□ bitHei [enCu] araHa dangse 天聰五年 bEYE		

	ejEhengGe □□□		
7-406	빈 페이지		
7-407		5451의 2—5452의 2 (10권)	삭제
7-408		5452의 2—5453의 5 (10권)	문구 추가
7-409		5453의 5—5455의 1 (10권)	한 단어 (bu??be) 삭제
7-410		5455의 1—5456의 6 (10권)	
7-411		5456의 6—5457의 7 (10권)	
7-412		5457의 7—5459의 3 (10권)	
7-413		5459의 3—5460의 7 (10권)	
7-414		5461의 2—5463의 3 (10권)	한 단어(be) 추가
7-415		5463의 3—5464의 4 (10권)	삭제
7-416		5464의 6—5466의 5 (10권)	
7-417		5466의 5—5468의 2 (10권)	
7-418		5468의 2—5469의 6 (10권)	
7-419		5469의 7—5471의 5 (10권)	
7-420		5471의 7—5473의 6 (10권)	문구(da de) 추가
7-421		5473의 6—5475의 6 (10권)	문구 삭제
7-422		5475의 6—5477의 4 (10권)	
7-423		5477의 4—5478의 7 (10권)	
7-424		5479의 1—5480의 4 (10권)	
7-425		5480의 4—5482의 1 (10권)	
7-426		5482의 1—5483의 6 (10권)	
7-427		5483의 6—5485의 3 (10권)	
7-428		5485의 3—5486의 7 (10권)	
7-429		5486의 7—5489의 1 (10권)	문구 추가
7-430		5489의 1—5489의 2 (10권) 5495의 2—5497의 4 (11권)	
7-431		5497의 4—5499의 6 (11권)	
7-432		5499의 6—5502의 1 (11권)	문구 삭제 및 추가
7-433		5502의 2—5503의 4 (11권)	
7-434		5503의 4—5504의 7 (11권)	
7-435		5504의 7—5506의 3 (11권)	
7-436		5506의 4—5508의 1 (11권)	
7-437		5508의 1—5509의 3 (11권)	
7-438		5509의 3—5510의 6 (11권)	
7-439		5510의 6—5512의 2 (11권)	

7-440	5512의 2—5513의 7 (11권)	
7-441	5513의 7—5515의 6 (11권)	
7-442	5515의 6—5517의 4 (11권)	
7-443	5517의 5—5519의 2 (11권)	
7-444	5519의 2—5521의 1 (11권)	
7-445	5521의 1—5522의 5 (11권)	
7-446	5522의 5—5524의 3 (11권)	
7-447	5524의 3—5525의 6 (11권)	
7-448	5526의 1—5527의 5 (11권)	
7-449	5527의 5—5529의 4 (11권)	
7-450	5529의 4—5531의 1 (11권)	
7-451	5531의 2—5532의 5 (11권)	
7-452	5532의 6—5533의 6 (11권)	
7-453	5534의 1—5535의 4 (11권)	
7-454	5535의 4—5537의 3 (11권)	
7-455	5537의 4—5538의 7 (11권)	
7-456	5538의 7—5540의 3 (11권)	
7-457	5540의 3—5540의 4 (11권) 5543의 2—5544의 6	문구 삭제
7-458	5544의 6—5546의 2 (11권)	한 단어(i) 변개
7-459	5546의 2—5548의 2 (11권)	
7-460	5548의 2—5549의 7 (11권)	
7-461	5549의 7—5551의 6 (11권)	
7-462	5552의 1—5553의 4 (11권)	
7-463	5553의 5—5554의 7 (11권)	
7-464	5554의 7—5556의 3 (11권)	
7-465	5556의 4—5557의 5 (11권)	
7-466	5557의 6—5559의 2 (11권)	
7-467	5559의 2—5561의 1 (11권)	
7-468	5561의 2—5563의 1 (11권)	
7-469	5563의 2—5564의 7 (11권)	
7-470	5565의 1—5566의 5 (11권)	
7-471	5566의 5—5568의 1 (11권)	
7-472	5568의 1—5569의 6 (11권)	
7-473	5569의 6—5571의 2 (11권)	
7-474	5571의 2—5572의 7 (11권)	
7-475	5572의 7—5574의 7 (11권)	
7-476	5574의 7—5576의 5 (11권)	
7-477	5576의 5—5578의 4 (11권)	
7-478	5578의 4—5580의 3 (11권)	
7-479	5580의 3—5581의 4 (11권)	한 단어

		(manggi) 삭제
7-480	5581의 5—5583의 1 (11권)	
7-481	5583의 1—5585의 1 (11권)	
7-482	5585의 3—5586의 6 (11권)	
7-483	5586의 6—5588의 4 (11권)	
7-484	5588의 4—5590의 4 (11권)	
7-485	5590의 4—5591의 6 (11권)	
7-486	5591의 6—5593의 4 (11권)	
7-487	5593의 4—5595의 1 (11권)	문구 삭제
7-488	5595의 1—5596의 6 (11권)	
7-489	5596의 6—5598의 3 (11권)	
7-490	5598의 3—5599의 7 (11권)	
7-491	한자 표지: 천충오년 天聰五年	
7-492	빈페이지	
7-페이지 번호 없음	7-# 한자 표지: □자당 □字檔	
7-493	표지 sŪrE Han i sUnjaCi aniya Dangse, 天聰五年 kooli bitHe i niYalma enCU ejEHe dangse □□□ (aramE wajiha,)	
7-494	5603의 2—5605의 2 (11권)	
7-495	5605의 2—5607의 1 (11권)	
7-496	5607의 1—5608의 3 (11권)	
7-497	5608의 5—5610의 7 (11권)	
7-498	5610의 7—5613의 7 (11권)	
7-499	5613의 7—5616의 4 (11권)	
7-500	5616의 4—5618의 6 (11권)	
7-501	5618의 6—5619의 4 (11권)	
7-502	5619의 6—5621의 7 (11권)	
7-503	5621의 7—5624의 4 (11권)	
7-504	5624의 4—5627의 1 (11권)	한 단어 (bithe) 삭제
7-505	5627의 1—5629의 3 (11권)	

7-506		5629의 3—5631의 5 (11권)	
7-507		5631의 5—5634의 1 (11권)	
7-508		5634의 1—5636의 1 (11권)	
7-509		5636의 1—5638의 3 (11권)	
7-510		5638의 3—5640의 7 (11권)	
7-511		5640의 7—5643의 2 (11권)	한 단어(be) 추가
7-512		5643의 2—5645의 5 (11권)	
7-513		5645의 6—5647의 6 (11권)	
7-514		5647의 6—5649의 5 (11권)	
7-515		5649의 5—5651의 5 (11권)	
7-516		5655의 2—5657의 3 (11권)	한 단어 (hong taiji) 삭제
7-517		5657의 3—5659의 6 (11권)	
7-518		5659의 6—5660의 2 (11권)	
7-519		5660의 4—5662의 4 (11권)	
7-520		5662의 5—5664의 6 (11권)	
7-521		5664의 7—5666의 6 (11권)	
『원당』 8권		『노당』	비고
8-페이지 번호 없음	8-# 한자표지 성자당 成 字檔		
8-1	표지 baicaha		
8-2	표지 nikan de unggihe jiHe bithe		
8-3		4442의 7—4445의 4 (9권)	
8-4		4445의 4—4448의 4 (9권)	
8-5		4448의 4—4449의 5, (9권) 4452의 4—4453의 6	한 단어(be) 추가
8-6		4453의 7—4456의 5 (9권)	
8-7		4456의 6—4458의 4 (9권)	
8-8		4459의 4—4461의 7 (9권)	
8-9		4461의 7—4463의 1, (9권) 4464의 2—4465의 3	
8-10		4465의 3—4467의 6 (9권)	
8-11		4467의 6—4470의 3 (9권)	
8-12		4470의 4—4472의 4 (9권)	
8-13		4472의 5—4474의 7 (9권)	

8-14	4474의 7—4476의 6 (9권)	
8-15	4479의 2—4481의 5 (9권)	
8-16	4481의 5—4484의 3 (9권)	
8-17	4484의 3—4487의 2 (9권)	
8-18	4487의 2—4489의 5 (9권)	
8-19	4489의 7—4491의 6 (9권)	
8-20	4491의 7—4493의 1 (9권)	
8-21	4493의 3—4495의 6 (9권)	
8-22	4495의 6—4496의 3 (9권)	
8-23	5140의 3—5142의 2 (10권)	날짜 문구 삭제
8-24	5142의 4—5144의 7 (10권)	한 단어 (hong taiji) 삭제
8-25	5145의 1—5147의 2 (10권)	
8-26	5147의 3—5148의 7 (10권)	
8-27	5151의 2—5154의 4 (10권)	날짜 문구 삭제
8-28	5154의 6—5157의 2 (10권)	
8-29	5157의 2—5158의 5 (10권)	날짜 문구 삭제
8-30	5158의 5—5161의 6 (10권)	
8-31	5161의 6—5165의 3 (10권)	
8-32	5165의 5—5168의 6 (10권)	
8-33	5169의 1—5172의 5 (10권)	날짜 문구 삭제
8-34	5172의 5—5175의 4 (10권)	
8-35	5175의 4—5178의 1 (10권)	날짜 문구 삭제
8-36	5178의 2—5180의 6 (10권)	
8-37	5180의 7—5183의 2 (10권)	
8-38	5183의 2—5185의 5 (10권)	
8-39	5257의 7—5259의 7 (10권)	날짜 문구 삭제
8-40	5259의 7—5260의 5 (10권) 5282의 7—5284의 2	
8-41	5284의 2 (10권)	
8-42	5284의 2, (10권) 5291의 2—5294의 2	동일문구 2 번 씌, 삭제
8-43	5294의 7—5298의 1 (10권)	

8-44		5298의 1—5300의 7 (10권)	
8-45		5300의 7—5303의 2 (10권)	한 단어(be) 추가
8-46		5303의 4—5304의 4, 5311의 5—5311의 7 (10권) 5686의 4—5687의 7 (11권)	
8-47		5687의 7—5690의 5 (11권)	
8-48			삭제
8-페이지 지번 호없음	[8-# 한자표지 지자당 地字檔]		
8-49	표지 天聰六年 süre han i ningguCi aniYa, sahaliYan bonio, [+aniya, aniya] biYa ejehe dangse. juwe biya, ilan biya, Duin biya, sunja biya, ninggun biya, naDan biya, jakūn biya, uyUn biya, jUwan biya, omšon biya, jorhon[<jorgon] biya,		
8-50		5743의 2—5746의 7 (11권)	날짜 문구 추가 및 삭 제
8-51		5746의 7—5750의 6 (11권)	
8-52		5750의 6—5755의 3 (11권)	
8-53		5755의 3—5760의 2 (11권)	두 단어(be) 추가
8-54		5760의 2—5766의 1 (11권)	한 단어 (ice) 추가
8-55		5766의 1—5771의 6 (11권)	한 단어 (ice) 추가
8-56		5771의 7—5777의 4 (11권)	한 단어

		(ice) 추가
8-57	5777의 4—5782의 1 (11권)	
8-58	5782의 2—5786의 4 (11권)	중복
8-59	5786의 4—5790의 2 (11권)	중복
8-60	5795의 2—5799의 2 (11권)	한 단어 (menggūn) 추가
8-61	5799의 2—5803의 6 (11권)	
8-62	5803의 6—5808의 1 (11권)	
8-63	5808의 1—5812의 5 (11권)	
8-64	5812의 5—5817의 4 (11권)	세 단어 (menggūn) 추가
8-65	5817의 4—5822의 3 (11권)	두 단어 (menggūn) 추가
8-66	5822의 3—5826의 4 (11권)	
8-67	5826의 4—5830의 4 (11권)	한 단어 (jurcehekū) 추가
8-68	5830의 4—5834의 5 (11권)	
8-69	5834의 5—5838의 6 (11권)	
8-70	5838의 6—5842의 5 (11권)	
8-71	5842의 5—5846의 6 (11권)	
8-72	5846의 6—5850의 5 (11권)	
8-73	5850의 5—5852의 6 (11권) 5855의 2—5856의 4	
8-74	5856의 4—5859의 5 (11권)	
8-75	5859의 6—5863의 3 (11권)	
8-76	5863의 3—5867의 3 (11권)	
8-77	5867의 3—5871의 1 (11권)	
8-78	5871의 1—5874의 6 (11권)	
8-79	5874의 6—5878의 2 (11권)	한 단어 (gidaha) 추 가
8-80	5878의 2—5882의 2 (11권)	
8-81	5882의 2—5886의 5 (11권)	중복, 한 단 어(bodome) 추가

8-82	5886의 5—5889의 4 (11권)	중복
8-83	5889의 4—5893의 5 (11권)	일부 중복
8-84	5893의 5—5896의 5 (11권) 5899의 2—5900의 2	
8-85	5900의 2—5903의 6 (11권)	
8-86	5903의 6—5907의 5 (11권)	
8-87	5907의 5—5912의 1 (11권)	
8-88	5912의 2—5916의 3 (11권)	
8-89	5916의 3—5920의 7 (11권)	
8-90	5920의 7—5924의 5 (11권)	한 단어 (gajiha) 변 개
8-91	5924의 5—5928의 1 (11권)	
8-92	5928의 1—5931의 4 (11권)	
8-93	5931의 4—5935의 6 (11권)	한 단어 (ing) 변개
8-94	5935의 7—5940의 1 (11권)	
8-95	5940의 1—5943의 7 (11권)	
8-96	5943의 7—5948의 1 (11권)	
8-97	5948의 3—5949의 2 (11권)	한글 중복, 삭제
8-98	5953의 2—5957의 1 (11권)	날짜 문구 삭제
8-99	5957의 3—5959의 7 (11권)	단어 추가
8-100	5960의 2—5963의 1 (11권)	단어 추가
8-101	5963의 1—5966의 4 (11권)	중복
8-102	5966의 5—5970의 6 (11권)	중복
8-103	5970의 6—5973의 7 (11권)	한 단어 삭 제
8-104	5974의 1—5976의 5 (11권)	단어 삭제
8-105	5976의 7—5981의 4 (11권)	어순
8-106	5981의 4—5985의 2 (11권)	한 단어 (tehe) 추가
8-107	5985의 2—5989의 2 (11권)	
8-108	5989의 2—5992의 6 (11권)	수정: gulu → kubuhe
8-109	5992의 7—5996의 7 (11권)	한 단어 (kubuhe) 변개

8-110	5996의 7—6000의 2 (11권)	
8-111	6000의 3—6004의 1 (11권)	
8-112	6004의 1—6005의 7 (11권) 6009의 2—6010의 6	
8-113	6010의 6—6014의 3 (11권)	
8-114	6014의 3—6018의 6 (11권)	한 단어씩 삭제(de) 및 추가(tehe)
8-115	6018의 6—6021의 5 (11권)	
8-116	6021의 6—6024의 5 (11권)	
8-117	6024의 6—6027의 5 (11권)	한 단어 삭 제
8-118	6027의 5—6030의 3 (11권)	
8-119	6030의 5—6034의 1 (11권)	
8-120	6034의 1—6036의 7 (11권)	
8-121	6036의 7—6041의 2 (11권)	
8-122	6041의 2—6044의 3 (11권)	중복, 문구 삭제
8-123	6044의 3—6045의 4 (11권)	중복
8-124	6045의 6—6048의 6 (11권)	
8-125	6048의 6—6051의 7 (11권)	한 단어(be) 추가
8-126	6051의 7—6055의 2 (11권)	
8-127	6055의 2—6056의 6 (11권)	
8-128	6061의 2—6063의 7 (12권)	중복
8-129	6063의 7—6067의 2 (12권)	중복, 두 단 어(guise, jang liyan) 추가
8-130	6067의 2—6070의 3 (12권)	한 단어 (ice) 추가
8-131	6070의 5—6073의 2 (12권)	한 단어 (ihan) 삭제
8-132	6073의 4—6075의 7 (12권)	중복
8-133	6075의 7—6078의 5 (12권)	중복
8-134	6078의 5—6080의 3 (12권)	
8-135	6080의 5—6082의 6 (12권)	
8-136	6082의 6—6084의 3 (12권)	
8-137	6084의 5—6088의 1 (12권)	날짜 문구

		삭제
8-138	6088의 1—6092의 1 (12권)	
8-139	6092의 3—6093의 1 (12권)	삭제, 몽골어
8-140	6095의 5—6099의 2 (12권)	삭제, 몽골어
8-141	6099의 2—6102의 1 (12권)	
8-142	6102의 1—6104의 7 (12권)	한 단어 (indehe) 변경
8-143	6104의 7—6108의 2 (12권)	
8-144	6108의 2—6111의 2 (12권)	
8-145	6111의 3—6114의 7 (12권)	한 단어(de) 추가
8-146	6115의 1—6116의 6 (12권) 6119의 2—6121의 3	
8-147	6121의 3—6125의 2 (12권)	
8-148	6125의 2—6129의 1 (12권)	
8-149	6129의 1—6133의 1 (12권)	
8-150	6133의 2—6136의 1 (12권)	
8-151	6136의 1—6139의 5 (12권)	
8-152	6139의 5—6143의 2 (12권)	문구 삭제 (tusiyetuhan)
8-153	6143의 2—6147의 1 (12권)	
8-154	6147의 1—6150의 6 (12권)	
8-155	6150의 6—6154의 7 (12권)	
8-156	6154의 7—6158의 6 (12권)	중복
8-157	6158의 6—6162의 4 (12권)	중복
8-158	6162의 5—6166의 4 (12권)	
8-159	6166의 6—6170의 2 (12권)	
8-160	6170의 2—6173의 6 (12권)	중복
8-161	6173의 6—6174의 5 (12권)	중복
8-162	6177의 2—6181의 4 (12권)	중복, 문구 삭제 (juwelamun) 및 한 단어 (hiya) 추가
8-163	6181의 4—6184의 2 (12권)	중복

8-164	6184의 2—6187의 4 (12권)	중복
8-165	6187의 4—6191의 3 (12권)	2단어(ice) 추가
8-166	6191의 3—6195의 3 (12권)	한 단어(be) 추가
8-167	6195의 3—6198의 6 (12권)	
8-168	6198의 6—6202의 5 (12권)	
8-169	6202의 7—6206의 4 (12권)	
8-170	6206의 6—6211의 2 (12권)	
8-171	6211의 3—6214의 4 (12권)	
8-172	6214의 5—6217의 1 (12권)	
8-173	6221의 2—6224의 3 (12권)	
8-174	6224의 3—6227의 6 (12권)	
8-175	6227의 6—6231의 3 (12권)	중복
8-176	6231의 4—6234의 7 (12권)	중복
8-177	6234의 7—6238의 6 (12권)	중복
8-178	6238의 6—6241의 7 (12권)	중복
8-179	6242의 2—6245의 5 (12권)	
8-180	6245의 5—6249의 3 (12권)	
8-181	6249의 4—6253의 1 (12권)	
8-182	6253의 1—6256의 7 (12권)	
8-183	6256의 7—6260의 5 (12권)	
8-184	6260의 5—6264의 4 (12권)	
8-185	6264의 4—6265의 6 (12권) 6269의 2—6271의 5	
8-186	6271의 5—6274의 1 (12권)	한 단어(be) 추가
8-187	6274의 1—6276의 4 (12권)	
8-188	6276의 4—6278의 6 (12권)	
8-189	6279의 1—6282의 4 (12권)	
8-190	6282의 4—6285의 3 (12권)	
8-191	6285의 4—6289의 1 (12권)	
8-192	6289의 2—6291의 7 (12권)	
8-193	6292의 2—6295의 3 (12권)	
8-194	6295의 3—6298의 4 (12권)	
8-195	6298의 6—6303의 1 (12권)	
8-196	6303의 1—6306의 4 (12권)	한 단어 삭 제
8-197	6306의 4—6308의 7 (12권)	삭제, 단어 변개
8-198	6309의 1—6310의 4 (12권)	단어, 문구

	6313의 2—6314의 3	삭제
8-199	6314의 4—6317의 5 (12권)	단어, 문구 삭제
8-200	6317의 5—6320의 4 (12권)	
8-201	6320의 5—6323의 3 (12권)	
8-202	6323의 3—6325의 6 (12권)	
8-203	6325의 7—6328의 5 (12권)	
8-204	6328의 6—6331의 5 (12권)	
8-205	6331의 5—6334의 4 (12권)	
8-206	6334의 4—6336의 6 (12권)	
8-207	6336의 6—6340의 4 (12권)	단어 (han beise) 삭제
8-208	6340의 6—6343의 5 (12권)	
8-209	6343의 6—6346의 5 (12권)	한 단어 (tanggū) 추 가
8-210	6346의 5—6349의 6 (12권)	
8-211	6349의 6—6353의 1 (12권)	
8-212	6353의 1—6355의 7 (12권)	
8-213	6355의 7—6358의 6 (12권)	
8-214	6358의 7—6359의 4 (12권)	
8-215	6365의 1—6368의 1 (12권)	문구 삭제 및 단어 추 가
8-216	6368의 1—6371의 2 (12권)	삭제
8-217	6371의 3—6374의 3 (12권)	문구 삭제
8-218	6374의 3—6376의 4 (12권)	삭제, 한 단 어(de) 추가
8-219		삭제
8-220		삭제
8-221	6376의 6—6379의 6 (12권)	삭제
8-222	6380의 1—6383의 5 (12권)	문구 삭제
8-223	6383의 5—6387의 2 (12권)	단어 삭제 및 추가
8-224	6387의 3—6391의 5 (12권)	삭제
8-225	6391의 7—6395의 5 (12권)	한 단어 (beile) 추가
8-226	6395의 7—6399의 2 (12권)	삭제
8-227	6399의 4—6401의 3 (12권)	
8-228	6401의 5—6404의 7 (12권)	문구 삭제

8-229	6404의 7—6407의 7 (12권)	
8-230	6411의 1—6414의 4 (12권)	문구 삭제
8-231	6414의 4—6417의 7 (12권)	
8-232	6417의 7—6421의 5 (12권)	
8-233	6421의 5—6425의 4 (12권)	
8-234	6425의 5—6427의 2 (12권)	삭제
8-235	6427의 2—6429의 6 (12권)	삭제, 한 단어(be) 추가
8-236	6429의 7—6432의 2 (12권)	삭제
8-237	6432의 4—6433의 1 (12권)	삭제
8-238		삭제
8-239		삭제
8-240		삭제
8-241		삭제
8-242	6433의 3—6434의 1 (12권)	삭제
8-243	6434의 1—6437의 6 (12권)	
8-244	6438의 1—6441의 3 (12권)	삭제
8-245	6441의 3—6444의 3 (12권)	일부 단어 삭제
8-246	6444의 5—6447의 7 (12권)	
8-247	6448의 2—6448의 4 (12권)	
8-248	6448의 6—6449의 1 (12권)	
8-249	6449의 3—6455의 6 (12권)	삭제, 한 단어(ice) 추가
8-250	6455의 6—6459의 5 (12권)	한 단어(emgeri) 삭제
8-251	6459의 5—6459의 6 (12권)	삭제
8-252	6460의 1—6461의 4 (12권)	삭제, 숫자 다름
8-253	6461의 6—6466의 1 (12권)	한 단어 삭제
8-254		삭제
8-255	6469의 2—6471의 4 (12권)	삭제
8-256	6471의 4—6474의 4 (12권)	삭제
8-257	6474의 4—6477의 3 (12권)	
8-258	6477의 4—6480의 1 (12권)	
8-259	6480의 2—6483의 4 (12권)	
8-260	6483의 4—6487의 2 (12권)	

8-261	6487의 3—6490의 6 (12권)	
8-262	6490의 6—6494의 2 (12권)	
8-263	6494의 4—6496의 1 (12권)	삭제
8-264	6496의 3—6499의 2 (12권)	삭제
8-265	6499의 2—6501의 7 (12권)	
8-266	6502의 2—6505의 6 (12권)	삭제
8-267	6505의 6—6506의 5 (12권)	
8-268	6509의 2—6509의 4 (12권)	삭제
8-269	6509의 6—6513의 5 (12권)	
8-270		삭제
8-271	6514의 5—6515의 3 (12권) 6513의 7—6514의 3	삭제
8-272	6515의 7—6517의 3 (12권)	삭제, 추가
8-273	6517의 3—6518의 1 (12권)	삭제
8-274	6519의 1—6520의 5 (12권)	
8-275	6518의 3—6518의 6 (12권) 6520의 7—6521의 2	
8-276	6521의 4—6524의 4 (12권)	단어, 문구 삭제 및 추가
8-277	6524의 4—6527의 6 (12권)	일부 단어 삭제
8-278	6527의 6—6530의 6 (12권)	
8-279	6531의 1—6533의 3 (12권)	삭제
8-280	6533의 3—6537의 3 (12권)	일부 단어 삭제
8-281	6537의 3—6540의 5 (12권)	삭제
8-282	6540의 6—6542의 7 (12권)	삭제
8-283		삭제
8-284	6543의 2—6546의 5 (12권)	한 단어 (ice) 추가
8-285	6546의 5—6549의 2 (12권)	삭제
8-286	6549의 3—6551의 6 (12권)	삭제
8-287	6551의 6—6552의 7 (12권)	삭제
8-288		삭제
8-289	6553의 2—6554의 3 (12권)	단어, 문구 삭제
8-290	6554의 5—6558의 3 (12권)	
8-291	6558의 3—6558의 6 (12권)	
8-292		삭제

8-293		6559의 1—6559의 7 (12권)	
8-294	빈 페이지		
8-295	표지 天聰六年 sure han i ningguci sahaliyan bonio aniya, aniya biya ejehe dangse, dahaha monggo beise i hengkileme jihe, gaiha ·buhe·fudehe sarilaha bithe,		
8-296	표지 tukiyEme aramE wajiha, ○sure han i ningguci sahaliyan bonio aniya, aniya biya ejehe dangse, dahaha mongGo beise i hengkileme jihe, gaiha·buhe·fudehe·sarila ha bithe.		
8-297			삭제
8-298			삭제
8-299			삭제
8-300			삭제
8-301			삭제
8-302			삭제
8-303			삭제
8-304			삭제
8-305			삭제
8-306			삭제
8-307			삭제
8-308			삭제

8-309		삭제
8-310		삭제
8-311		삭제
8-312		삭제
8-313		삭제
8-314		삭제
8-315		삭제
8-316		삭제
8-317		삭제
8-318		삭제
8-319		삭제
8-320		삭제
8-321		삭제
8-322		삭제
8-323		삭제
8-324		삭제
8-325		삭제
8-326		삭제
8-327		삭제
8-328		삭제
8-329		삭제
8-330		삭제
8-331		삭제
8-332		삭제
8-333		삭제
8-334		삭제
8-335		삭제
8-336		삭제
8-337		삭제
8-338		삭제
8-339		삭제
8-340		삭제
8-341		삭제
8-342		삭제
8-343		삭제
8-344		삭제
8-345		삭제
8-346		삭제
8-347	5782의 4—5783의 1 (11권)	중복, 삭제, 어순, 한 단 어

		(faksidame) 추가
8-348	5783의 1—5785의 4 (11권)	중복, 문구 삭제 및 추 가
8-349	5785의 4—5787의 7 (11권)	중복, 한 단 어(inu) 추 가
8-350	5787의 7—5789의 7 (11권)	중복
8-351	5789의 7—5790의 2 (11권)	중복, 삭제
8-352		삭제
8-353		삭제
8-354	5882의 5—5884의 6 (11권)	중복, 단어, 문구 삭제 및 추가
8-355	5884의 6—5887의 2 (11권)	중복, 단어, 문구 삭제 및 추가
8-356	5887의 2—5889의 5 (11권)	중복, 단어 삭제
8-357	5889의 5, (11권) 5899의 2—5899의 5	일부 중복, 삭제
8-358	5899의 5—5900의 7 (11권)	삭제
8-359		삭제
8-360		삭제
8-361		삭제
8-362		삭제
8-363		삭제
8-364		삭제
8-365		삭제
8-366	5948의 3—5948의 4 (11권)	한글 중복, 삭제
8-367		삭제
8-368		삭제
8-369	5965의 3—5965의 7 (11권)	중복, 삭제
8-370	5966의 1—5967의 5 (11권)	중복, 문구 삭제 및 변 개
8-371		삭제

8-372		삭제
8-373		삭제
8-374		삭제
8-375		삭제
8-376		삭제
8-377	6042의 7—6044의 6 (11권)	중복, 단어 문구 삭제 및 변경
8-378		삭제
8-379		삭제
8-380	6062의 4—6064의 1 (12권)	중복, 어순, 한 단어 (menggun) 삭제
8-381	6064의 1—6064의 3 (12권)	중복, 단어 문구 삭제 및 추가
8-382		삭제
8-383	5790의 4—5791의 5 (11권)	삭제, 한 단 어(manju) 변개
8-384	6073의 4—6074의 5 (12권)	중복, 삭제 및 추가, 변 개
8-385	6074의 6—6076의 4 (12권)	중복
8-386	6076의 4—6076의 5 (12권)	중복, 한 단 어(sehe) 삭 제
8-387		삭제
8-388		삭제
8-389		삭제
8-390		삭제
8-391		삭제
8-392		삭제
8-393		삭제
8-394		삭제
8-395		삭제
8-396		삭제
8-397		삭제

8-398		삭제
8-399		삭제
8-400		삭제
8-401		삭제
8-402		삭제
8-403		삭제
8-404	6156의 5, (12권) 6157의 3—6157의 4, 6158의 4—6158의 7, 6159의 4	중복, 삭제, 변개
8-405	6160의 5—6161의 7 (12권)	중복, 삭제 및 추가
8-406	6163의 1—6164의 1 (12권)	삭제 및 추 가, 변개
8-407		삭제
8-408		삭제
8-409		삭제
8-410	6172의 7—6174의 4 (12권)	중복, 문구 삭제 및 변 개
8-411	6179의 4—6180의 1 (12권)	중복, 문구 삭제, 단어 변개
8-412	6180의 1—6180의 2 (12권) 6181의 3—6182의 5	중복, 삭제 및 추가, 변 개
8-413	6182의 5—6184의 5 (12권)	중복, 삭제, 변개
8-414	6184의 5—6186의 7 (12권)	중복, 일부 단어, 문구 삭제 및 추 가
8-415	6186의 7 (12권)	중복, 삭제
8-416		삭제
8-417		삭제
8-418		삭제
8-419		삭제
8-420		삭제

8-421		삭제
8-422		삭제
8-423		삭제
8-424		삭제
8-425		삭제
8-426		삭제
8-427		삭제
8-428	6230의 2—6231의 3 (12권)	일부 문장 삭제 및 추 가, 중복
8-429	6231의 3—6233의 4 (12권)	일부 문장 추가, 중복
8-430	6233의 4—6235의 4 (12권)	중복
8-431	6235의 4—6237의 5 (12권)	중복
8-432	6237의 5—6239의 7 (12권)	중복, 한 단 어 변개 (muteburak ū)
8-433	6239의 7—6240의 1 (12권)	중복, 문구 삭제, 삭제
8-434		삭제
8-435		삭제
8-436		삭제
8-437		삭제
8-438		삭제
8-439		삭제
8-440		삭제
8-441	6279의 1—6280의 3 (12권)	삭제
8-442	6280의 3—6281의 2 (12권)	삭제
8-443		삭제
8-444		삭제
8-445		삭제
9권	『노당』	비고
9-1	한자 만주어 표지 天聰 九年 sure han i uyuci aniya niohon ulgiyan aniya biyai ice de sahaliyan singgeri inenggici ejehe dangse,	

	aniya biya·juwe biya·ilan biya·duin biya·sunja biya·ninggun biya·nadan biya·jakūn biya·uyun biya·juwan b i y a · o m š o n biya·jorhūn[< jorgon] biya, bi,		
9-2	orin uyun de ←taidzu genggiyen han de fei doroī hiošun tume ← han geren beise ambasa be gaifi aisin menggun i suhe emu tumen, jiha juwan tumen, ihan honin wafi waliyaha,		
9-3~486			삭제 (285, 445: 몽골 어)
	『원당』 10권	『노당』	비고
10-0	표지: 일자당 日字檔		
10-1		6575의 2—6577의 5 (13권)	숫자 고침, 일부 단어 및 문구 삭 제 및 추가
10-2		6578의 5—6581의 5 (13권)	
10-3		6581의 5—6584의 1 (13권)	인명 대거 수정
10-4		6584의 2—6587의 2 (13권)	
10-5		6587의 4—6590의 6 (13권)	
10-6		6591의 1—6593의 6 (13권)	
10-7		6594의 1—6596의 3 (13권)	
10-8		6596의 4—6598의 7 (13권)	
10-9		6598의 7—6601의 3 (13권)	
10-10		6601의 5—6603의 6 (13권)	
10-11		6603의 6—6606의 4 (13권)	

10-12		6606의 4—6609의 1 (13권)	
10-13		6609의 1—6611의 7 (13권)	
10-14		6611의 7—6614의 6 (13권)	
10-15		6615의 1—6617의 5 (13권)	
10-16		6617의 5—6620의 2 (13권)	
10-17		6620의 3—6623의 1 (13권)	
10-18		6623의 3—6625의 6 (13권)	
10-19		6625의 6—6626의 6 (13권)	
10-20		6627의 1—6628의 3 (13권)	
10-21	표지 ○sure Han i jUwanci aniya fulGiyān singgeri aniya juwe biyai dangse		
10-22		6631의 2—6634의 5 (13권)	
10-23		6634의 5—6637의 3 (13권)	
10-24		6637의 4—6640의 7 (13권)	
10-25		6640의 7—6643의 5 (13권)	
10-26		6643의 5—6646의 6 (13권)	
10-27		6646의 7—6650의 2 (13권)	
10-28		6650의 2—6653의 3 (13권)	
10-29		6653의 3—6656의 5 (13권)	
10-30		6656의 5—6657의 3 (13권)	삭제, 몽골어
10-31			삭제, 몽골어
10-32		6661의 7—6664의 5 (13권)	
10-33		6664의 5—6667의 4 (13권)	
10-34		6667의 4—6670의 2 (13권)	
10-35		6670의 2—6673의 1 (13권)	
10-36		6673의 1—6673의 2 (13권) 6677의 2—6679의 1	
10-37		6679의 3—6681의 7 (13권)	
10-38		6682의 1—6685의 1 (13권)	
10-39		6685의 1—6688의 1 (13권)	
10-40		6688의 1—6691의 2 (13권)	
10-41		6691의 2—6693의 6 (13권)	
10-42		6693의 6—6696의 4 (13권)	
10-43		6696의 4—6699의 3 (13권)	
10-44		6699의 3—6702의 1 (13권)	
10-45		6702의 1—6705의 4 (13권)	
10-46		6705의 4—6708의 6 (13권)	

10-47		6708의 6—6711의 7 (13권)	
10-48		6711의 7—6715의 3 (13권)	
10-49		6715의 3—6718의 4 (13권)	
10-50		6718의 5—6721의 6 (13권)	
10-51		6721의 6—6725의 2 (13권)	
10-52		6725의 2—6727의 7 (13권)	
10-53		6727의 7—6729의 2 (13권)	
10-54		6733의 2—6735의 5 (13권)	
10-55		6735의 5—6738의 3 (13권)	
10-56		6738의 4—6741의 2 (13권)	
10-57		6741의 2—6743의 7 (13권)	
10-58		6743의 7—6746의 2 (13권)	
10-59		6746의 3—6746의 6 (13권)	
10-60		6747의 1—6750의 1 (13권)	
10-61		6750의 2—6751의 3 (13권)	
10-62		6751의 5—6754의 5 (13권)	
10-63		6754의 5—6757의 7 (13권)	
10-64		6758의 2—6759의 7 (13권)	
10-65		6760의 2—6762의 3 (13권)	
10-66		6762의 5—6766의 2 (13권)	
10-67		6766의 2—6769의 5 (13권)	
10-68	표지 sure han i juwanci aniya □□□ fulgiyan singgeri aniya i ilan biya i dangse.		
10-69		6773의 2—6775의 6 (13권)	
10-70		6775의 7—6778의 4 (13권)	
10-71		6778의 6—6781의 6 (13권)	
10-72		6782의 1—6784의 7 (13권)	
10-73		6784의 7—6787의 5 (13권)	
10-74		6787의 7—6788의 1 (13권)	
10-75		6788의 1—6790의 5 (13권)	
10-76		6790의 6—6791의 5 (13권)	
10-77		6791의 7—6794의 3 (13권)	
10-78		6794의 5—6797의 6 (13권)	
10-79		6798의 1—6799의 4 (13권)	
10-80		6799의 6—6802의 2 (13권)	
10-81		6802의 4—6805의 3 (13권)	
10-82		6805의 4—6807의 4 (13권)	
10-83		6807의 4—6810의 2 (13권)	
10-84		6813의 2—6814의 2 (13권)	

10-85		6814의 4—6816의 3 (13권)	
10-86		6816의 5—6818의 6 (13권)	
10-87		6818의 6—6821의 1 (13권)	
10-88		6821의 1—6821의 5 (13권)	
10-89		6821의 5—6824의 3 (13권)	
10-90		6824의 3—6827의 2 (13권)	
10-91		6827의 2—6829의 6 (13권)	
10-92		6829의 7—6832의 1 (13권)	
10-93		6832의 1—6834의 2 (13권)	
10-94		6834의 2—6834의 6 (13권)	
10-95		6835의 1—6837의 7 (13권)	
10-96		6838의 1—6841의 1 (13권)	
10-97		6841의 1—6844의 1 (13권)	
10-98		6844의 2—6847의 1 (13권)	
10-99		6847의 1—6850의 3 (13권)	
10-100		6850의 3—6853의 4 (13권)	
10-101		6853의 4—6854의 3 (13권)	
10-102		6854의 5—6856의 2 (13권)	
10-103	표지 fulgiyan singgeri aniya duin biya i dangse		
10-104		6861의 2—6863의 5 (13권)	
10-105		6863의 5—6866의 5 (13권)	
10-106		6866의 6—6869의 5 (13권)	
10-107		6869의 5—6872의 6 (13권)	
10-108		6872의 7—6875의 6 (13권)	
10-109	빈 페이지		
10-110		6876의 1—6879의 1 (13권)	
10-111		6879의 3—6879의 6 (13권)	
10-112		6880의 1—6883의 2 (13권)	
10-113		6883의 3—6883의 7 (13권)	
10-114		6884의 2—6887의 6 (13권)	
10-115		6888의 1—6889의 5 (13권)	
10-116		6889의 7—6892의 5 (13권)	
10-117		6892의 5—6893의 3 (13권)	
10-118		6893의 5—6894의 3 (13권) 6897의 2—6899의 1	
10-119		6899의 2—6901의 7 (13권)	
10-120		6906의 1—6908의 3 (13권)	
10-121		6908의 3—6909의 6 (13권)	
10-122		6910의 1—6911의 6 (13권)	

10-123		6912의 1—6914의 5 (13권)	
10-124		6919의 6—6922의 3 (13권)	
10-125		6922의 3—6924의 6 (13권)	
10-126		6924의 6—6927의 3 (13권)	
10-127		6927의 3—6929의 7 (13권)	
10-128		6929의 7—6932의 3 (13권)	
10-129		6932의 3—6934의 6 (13권)	
10-130		6934의 6—6937의 4 (13권)	
10-131		6937의 4—6940의 2 (13권)	
10-132		6940의 2—6943의 1 (13권)	
10-133		6943의 1—6945의 4 (13권)	
10-134		6945의 5—6947의 3 (13권)	
10-135		6951의 2—6952의 6 (13권)	
10-136		6953의 1—6953의 5 (13권)	
10-137		6953의 7—6955의 1 (13권)	
10-138		6955의 3—6956의 1 (13권)	
10-139		6956의 3—6959의 3 (13권)	
10-140		6959의 4 (13권)	
10-141		6959의 6—6962의 5 (13권)	
10-142		6962의 7—6966의 3 (13권)	
10-143		6966의 3—6968의 2 (13권)	
10-144		6968의 4—6971의 3 (13권)	
10-145		6971의 4—6973의 3 (13권)	
10-146		6973의 5—6976의 7 (13권)	
10-147		6976의 7—6980의 5 (13권)	
10-148		6980의 5—6983의 7 (13권)	
10-149		6983의 7—6985의 3 (13권)	
10-150		6985의 5—6988의 7 (13권)	
10-151		6988의 7—6992의 2 (13권)	
10-152		6992의 4—6995의 5 (13권)	
10-153		6995의 7—6998의 1 (13권)	
10-154		6998의 3—6998의 7 (13권)	
10-155	표지 erdemunggei sucungga fulgiyan singgeri aniya, sunja biyai ice de fulgiyan [+niowanggiyan] muduri inenggici ejehe	wesihÜn	

	dangse.		
10-156	표지 wesihÜn erdemunggei sucungga aniya, sunja biyai ice de fulgiyan [+niowanggiyan] muduri inenggici ejehe dangse.		
10-157		7001의 2—7002의 7 (13권)	
10-158		7002의 7—7005의 7 (13권)	
10-159		7006의 2—7008의 3 (13권)	
10-160		7008의 3—7010의 6 (13권)	
10-161		7010의 6—7012의 7 (13권)	
10-162		7013의 2—7015의 6 (13권)	
10-163		7015의 6—7017의 4 (13권)	
10-164		7017의 6—7020의 1 (13권)	
10-165		7020의 1—7022의 4 (13권)	개수 (juwe [←juwan])
10-166		7022의 4—7024의 5 (13권)	
10-167		7024의 7—7027의 2 (13권)	
10-168		7027의 2—7027의 7 (13권)	한 단어 (jidere) 추 가
10-169		7028의 2—7030의 6 (13권)	
10-170		7030의 6—7033의 2 (13권)	
10-171		7033의 2—7035의 4 (13권)	
10-172		7035의 4—7035의 5 (13권) 7039의 2—7042의 4	
10-173		7042의 4—7046의 1 (13권)	
10-174		7046의 1—7047의 5 (13권)	
10-175		7047의 7—7050의 3 (13권)	
10-176		7050의 3—7052의 4 (13권)	
10-177		7052의 4—7054의 4 (13권)	
10-178		7054의 4—7056의 5 (13권)	
10-179		7056의 5—7059의 3 (13권)	
10-180		7059의 4—7061의 4 (13권)	
10-181		7061의 4—7063의 7 (13권)	
10-182		7063의 7—7065의 6 (13권)	

10-183	7069의 2—7071의 7 (13권)	
10-184	7071의 7—7074의 1 (13권)	
10-185	7074의 3—7076의 1 (13권)	
10-186	7076의 2—7078의 3 (13권)	
10-187	7078의 3—7080의 6 (13권)	
10-188	7080의 6—7083의 2 (13권)	
10-189	7083의 2—7085의 6 (13권)	
10-190	7085의 6—7088의 4 (13권)	
10-191	7088의 5—7091의 1 (13권)	
10-192	7091의 1—7092의 7 (13권)	
10-193	7092의 7—7096의 1 (13권)	
10-194	7096의 1—7098의 2 (13권)	
10-195	7098의 2—7100의 5 (13권)	
10-196	7100의 5—7102의 7 (13권)	
10-197	7102의 7—7105의 5 (13권)	
10-198	7105의 5—7107의 4 (13권)	
10-199	7107의 6—7110의 1 (13권)	
10-200	7110의 1—7112의 1 (13권)	
10-201	7112의 3—7112의 4 (13권)	
10-202	7117의 2—7119의 5 (14권)	
10-203	7119의 5—7122의 1 (14권)	
10-204	7122의 3—7124의 3 (14권)	
10-205	7124의 5—7127의 1 (14권)	
10-206	7127의 1—7128의 7 (14권)	
10-207	7128의 7—7130의 4 (14권)	
10-208	7130의 6—7132의 7 (14권)	
10-209	7133의 2—7134의 3 (14권)	
10-210	7134의 4—7138의 6 (14권)	
10-211	7139의 1—7141의 6 (14권)	
10-212	7141의 6—7144의 3 (14권)	
10-213	7144의 5—7147의 5 (14권)	
10-214	7147의 5—7150의 3 (14권)	
10-215	7150의 3—7153의 2 (14권)	
10-216	7153의 2—7155의 5 (14권)	
10-217	7155의 5—7158의 2 (14권)	
10-218	7158의 2—7160의 4 (14권)	
10-219	7160의 5—7163의 1 (14권)	
10-220	7163의 1—7164의 4 (14권) 7167의 2—7168의 1	
10-221	7168의 1—7170의 4 (14권)	
10-222	7170의 4—7171의 4 (14권)	삭제
10-223	7171의 6—7174의 1 (14권)	

10-224		7174의 3—7175의 4 (14권)	
10-225		7175의 6—7176의 5 (14권)	
10-226		7176의 7—7179의 3 (14권)	
10-227		7179의 4—7181의 6 (14권)	
10-228		7181의 6—7185의 1 (14권)	
10-229		7185의 1—7187의 7 (14권)	
10-230		7187의 7—7190의 5 (14권)	
10-231		7190의 6—7191의 4 (14권)	
10-232		7191의 6—7193의 7 (14권)	
10-233		7194의 1—7196의 5 (14권)	
10-234		7196의 5—7199의 3 (14권)	
10-235		7199의 3—7199의 7 (14권)	
10-236		7200의 2—7203의 3 (14권)	
10-237		7203의 3—7203의 6 (14권)	
10-238	표지 ○wesihÜn erdemungge i sucungga aniya, fulgiyan singgeri ○○○ ○○○ ninggun biyai dangse, ice de niowangGiyān inDahūn,		
10-239		7207의 2—7210의 1 (14권)	
10-240		7210의 1—7212의 4 (14권)	
10-241		7212의 6—7214의 7 (14권)	
10-242		7215의 2—7217의 3 (14권)	
10-243		7217의 4—7220의 6 (14권)	
10-244		7220의 6—7224의 4 (14권)	
10-245		7224의 4—7227의 7 (14권)	
10-246		7228의 1—7231의 1 (14권)	
10-247		7231의 1—7233의 5 (14권)	
10-248		7233의 5—7236의 7 (14권)	
10-249		7236의 7—7240의 6 (14권)	
10-250		7241의 1—7244의 2 (14권)	
10-251		7244의 2—7248의 2 (14권)	
10-252		7251의 2—7253의 5 (14권)	
10-253		7253의 5—7255의 7 (14권)	
10-254		7256의 1—7257의 3 (14권)	
10-255		7257의 5—7260의 1 (14권)	
10-256		7260의 2—7262의 3 (14권)	
10-257		7262의 3—7265의 1 (14권)	
10-258		7265의 2—7267의 7 (14권)	

10-259		7267의 7—7270의 7 (14권)	
10-260		7270의 7—7274의 1 (14권)	
10-261		7274의 1—7275의 6 (14권)	
10-262		7275의 7—7278의 4 (14권)	
10-263		7278의 6—7281의 7 (14권)	
10-264		7281의 7—7285의 5 (14권)	
10-265		7285의 5—7287의 5 (14권)	
10-266		7291의 2—7295의 1 (14권)	
10-267		7295의 2—7296의 5 (14권)	
10-268		7296의 7—7299의 6 (14권)	
10-269		7299의 6—7302의 4 (14권)	
10-270		7302의 4—7306의 3 (14권)	
10-271		7306의 3—7309의 3 (14권)	한 문장 순 서바뀜
10-272		7309의 3—7312의 5 (14권)	
10-273		7312의 7—7316의 3 (14권)	
10-274		7316의 3—7319의 7 (14권)	
10-275		7319의 7—7323의 1 (14권)	
10-276		7323의 1—7325의 2 (14권)	
10-277		7325의 4—7328의 3 (14권)	
10-278		7328의 3—7331의 4 (14권)	
10-279		7331의 5—7334의 6 (14권)	
10-280		7334의 6—7336의 7 (14권)	
10-281		7339의 2—7342의 6 (14권)	
10-282		7343의 1—7344의 4 (14권)	
10-283		7344의 6—7346의 7 (14권)	
10-284		7347의 1—7350의 6 (14권)	
10-285		7350의 6—7354의 7 (14권)	
10-286		7354의 7—7358의 3 (14권)	
10-287		7358의 5—7360의 7 (14권)	
10-288		7360의 7—7364의 2 (14권)	
10-289		7364의 2—7367의 7 (14권)	한 단어 (hese) 추가
10-290		7368의 2—7371의 2 (14권)	
10-291		7371의 2—7373의 6 (14권)	
10-292		7374의 1—7377의 6 (14권)	
10-293		7377의 6—7380의 3 (14권)	
10-294		7380의 5—7382의 5 (14권)	
10-295	표지 erdemungge i sucungga fulgiyan singgeri aniya,	○ wesihÜn	

	naDan biyai ice de sahahūn gūlmahūn.		
10-296			삭제
10-297			삭제
10-298			삭제
10-299		7387의 2—7388의 7 (14권)	
10-300		7388의 7—7391의 1 (14권)	
10-301		7391의 2—7393의 7 (14권)	
10-302		7394의 1—7396의 4 (14권)	
10-303		7396의 4—7398의 6 (14권)	
10-304		7398의 6—7401의 5 (14권)	
10-305		7401의 7—7403의 1 (14권)	
10-306		7403의 3—7404의 2 (14권)	
10-307		7404의 4—7406의 4 (14권)	
10-308		7406의 6—7409의 7 (14권)	
10-309		7409의 7—7411의 3 (14권)	
10-310		7411의 5—7412의 3 (14권)	
10-311		7412의 3—7415의 3 (14권)	
10-312		7415의 3—7417의 3 (14권)	
10-313		7421의 2—7423의 3 (14권)	
10-314		7423의 3—7423의 4 (14권)	
10-315		7423의 6—7426의 4 (14권)	
10-316		7426의 4—7428의 6 (14권)	
10-317		7428의 7—7431의 5 (14권)	
10-318		7431의 5—7434의 3 (14권)	
10-319		7434의 3—7437의 2 (14권)	
10-320		7437의 2—7439의 7 (14권)	
10-321		7439의 7—7442의 5 (14권)	
10-322		7442의 5—7445의 4 (14권)	
10-323		7445의 5—7448의 1 (14권)	
10-324		7448의 1—7451의 2 (14권)	
10-325		7451의 2—7454의 7 (14권)	
10-326		7454의 7—7458의 1 (14권)	
10-327		7458의 1—7461의 2 (14권)	
10-328		7461의 2—7463의 4 (14권) 7467의 2—7467의 4	
10-329		7468의 1—7472의 3 (14권)	
10-330		7472의 5—7473의 2 (14권)	
10-331		7473의 4—7476의 2 (14권)	
10-332		7476의 2—7479의 1 (14권)	
10-333		7479의 3—7482의 3 (14권)	
10-334		7482의 3—7485의 5 (14권)	

10-335		7485의 5—7488의 5 (14권)	
10-336		7488의 5—7491의 5 (14권)	
10-337		7491의 6—7493의 6 (14권)	
10-338		7493의 6—7496의 5 (14권)	
10-339		7496의 7—7498의 1 (14권) 7501의 2—7502의 5	
10-340		7502의 6—7505의 6 (14권)	
10-341		7505의 6—7508의 7 (14권)	
10-342		7508의 7—7512의 6 (14권)	
10-343		7512의 6—7518의 2 (14권)	
10-344		7518의 2—7525의 2 (14권)	
10-345		7525의 4—7528의 6 (14권)	
10-346		7528의 6—7531의 6 (14권)	
10-347		7531의 6—7533의 1 (14권)	
10-348		7533의 1—7533의 5 (14권) 7537의 2—7539의 3	
10-349		7539의 5—7543의 1 (14권)	
10-350		7543의 1—7546의 5 (14권)	
10-351		7546의 5—7550의 2 (14권)	
10-352		7550의 3—7554의 1 (14권)	
10-353		7554의 1—7557의 7 (14권)	
10-354		7557의 7—7560의 7 (14권)	
10-355		7561의 2—7564의 1 (14권)	
10-356		7564의 1—7567의 1 (14권)	
10-357		7567의 1—7570의 1 (14권)	
10-358		7570의 1—7573의 3 (14권)	
10-359		7573의 3—7577의 1 (14권)	
10-360		7577의 1—7580의 4 (14권)	
10-361		7580의 4—7582의 7 (14권)	
10-362	표지 ○ wesihÜn erdemunggei sucungga aniya fulgiyan singgeri, jakūn biyai ice de sahaliyan bonio, biya ejehe dangse,		
10-363	표지 (ara) jakūn biyai		
10-364		7585의 2—7585의 5 (14권)	363의 날짜 포함
10-365		7585의 7—7587의 7 (14권)	
10-366		7587의 7—7590의 2 (14권)	

10-367		7590의 2—7592의 6 (14권)	
10-368		7592의 6—7595의 2 (14권)	한 단어 (tuwabufi) 삭제
10-369		7595의 2—7597의 2 (14권)	
10-370		7597의 4—7599의 1 (14권)	
10-371		7599의 3—7601의 2 (14권)	
10-372		7601의 2—7602의 2 (14권)	
10-373		7602의 4—7604의 6 (14권)	
10-374		7604의 7—7606의 1 (14권)	
10-375		7606의 3—7608의 4 (14권)	
10-376		7608의 4—7610의 7 (14권)	
10-377		7610의 7—7613의 1 (14권)	
10-378		7613의 2—7615의 5 (14권)	
10-379		7615의 5—7618의 1 (14권)	
10-380		7618의 2—7620의 5 (14권)	
10-381		7620의 5—7623의 1 (14권)	
10-382		7623의 1—7625의 4 (14권)	
10-383		7625의 4—7627의 6 (14권)	
10-384		7627의 6—7628의 6 (14권)	
10-385		7628의 6—7631의 5 (14권)	
10-386		7631의 7—7633의 6 (14권)	
10-387		7637의 2—7640의 2 (14권)	
10-388		7640의 2—7643의 1 (14권)	
10-389		7643의 2—7645의 6 (14권)	
10-390		7645의 6—7648의 2 (14권)	
10-391		7648의 2—7652의 1 (14권)	
10-392		7652의 3—7654의 7 (14권)	
10-393		7654의 7—7657의 1 (14권)	
10-394		7657의 3—7661의 2 (14권)	
10-395		7661의 2—7661의 6 (14권)	
10-396		7662의 1—7664의 6 (14권)	
10-397		7664의 6—7666의 7 (14권)	
10-398		7667의 2—7669의 2 (14권)	
10-399		7669의 4—7672의 2 (14권)	
10-400		7672의 2—7673의 6 (14권)	
10-페이지 이 지 번호 없음	우자당 宇字檔		
10-401	빈 페이지		

10-402	7679의 2—7681의 5 (15권)	
10-403	7681의 5—7683의 3 (15권)	
10-404	7683의 5—7685의 3 (15권)	
10-405	7685의 4—7687의 7 (15권)	
10-406	7687의 7—7690의 2 (15권)	
10-407	7690의 2—7692의 1 (15권)	
10-408	7692의 2—7694의 4 (15권)	
10-409	7694의 4—7696의 5 (15권)	
10-410	7696의 6—7698의 7 (15권)	
10-411	7698의 7—7701의 3 (15권)	
10-412	7701의 3—7703의 5 (15권)	
10-413	7703의 5—7706의 2 (15권)	
10-414	7706의 2—7708의 5 (15권)	
10-415	7708의 5—7711의 1 (15권)	
10-416	7711의 1—7713의 1 (15권)	
10-417	7713의 1—7715의 1 (15권)	
10-418	7715의 1—7717의 2 (15권)	
10-419	7717의 3—7719의 4 (15권)	
10-420	7719의 4—7721의 4 (15권)	
10-421	7721의 5—7723의 6 (15권)	
10-422	7723의 6—7725의 7 (15권)	
10-423	7725의 7—7728의 1 (15권)	
10-424	7728의 1—7730의 2 (15권)	
10-425	7733의 2—7735의 6 (15권)	
10-426	7735의 6—7738의 4 (15권)	
10-427	7738의 4—7741의 1 (15권)	
10-428	7741의 1—7743의 4 (15권)	
10-429	7743의 4—7745의 6 (15권)	
10-430	7745의 7—7747의 7 (15권)	
10-431	7747의 7—7750의 3 (15권)	
10-432	7750의 4—7752의 4 (15권)	
10-433	7752의 4—7754의 4 (15권)	
10-434	7754의 5—7756의 5 (15권)	
10-435	7756의 6—7759의 2 (15권)	
10-436	7759의 2—7761의 4 (15권)	
10-437	7761의 5—7763의 7 (15권)	
10-438	7764의 1—7766의 4 (15권)	
10-439	7766의 4—7768의 7 (15권)	
10-440	7768의 7—7773의 4 (15권)	
10-441	7773의 4—7775의 6 (15권)	
10-442	7776의 1—7777의 7 (15권) 7781의 2—7781의 5	

10-443		7781의 5—7783의 7 (15권)	
10-444		7783의 7—7786의 1 (15권)	
10-445		7786의 1—7787의 4 (15권)	
10-446		7787의 6—7790의 1 (15권)	
10-447		7790의 1—7792의 1 (15권)	
10-448		7792의 2—7795의 2 (15권)	
10-449		7795의 2—7798의 3 (15권)	
10-450		7798의 3—7802의 2 (15권)	
10-451		7802의 4—7805의 1 (15권)	
10-452		7805의 3—7808의 1 (15권)	
10-453		7808의 1—7809의 6 (15권)	
10-454		7810의 1—7812의 4 (15권)	
10-455		7812의 4—7814의 7 (15권)	
10-456		7814의 7—7817의 5 (15권)	
10-457		7817의 5—7818의 1 (15권)	
10-458		7818의 3—7820의 4 (15권)	
10-459		7820의 4—7822의 7 (15권)	
10-460		7823의 1—7825의 5 (15권)	
10-461		7825의 5—7828의 1 (15권)	
10-462		7828의 1—7830의 6 (15권)	
10-463		7830의 6—7833의 3 (15권)	
10-464		7833의 3—7835의 3 (15권)	
10-465		7835의 3—7837의 2 (15권)	
10-466		7837의 2—7839의 2 (15권)	
10-467		7839의 2—7841의 3 (15권)	
10-468		7841의 3—7843의 3 (15권)	
10-469		7843의 3—7845의 5 (15권)	
10-470		7845의 5—7847의 6 (15권)	
10-471	표지 wesihÜn erdemunggei sucungga fulgiyan singgeri aniya juwan biyai ice de sahaliyan bonio, biya ejehe dangse.		
10-472		7851의 2—7853의 3 (15권)	
10-473		7853의 4—7855의 6 (15권)	
10-474		7855의 6—7858의 1 (15권)	
10-475		7858의 3—7860의 7 (15권)	
10-476		7861의 2—7863의 7 (15권)	
10-477		7864의 2—7866의 6 (15권)	
10-478		7866의 6—7869의 5 (15권)	

10-479	7869의 7—7870의 4 (15권)	
10-480	7870의 6—7872의 1 (15권)	
10-481	7872의 1—7874의 1 (15권)	
10-482	7874의 2—7876의 2 (15권)	
10-483	7876의 4—7878의 7 (15권)	일부 단어 (ice) 추가
10-484	7878의 7—7879의 6 (15권)	
10-485	7880의 1—7881의 3 (15권)	
10-486	7881의 5—7884의 1 (15권)	
10-487	7884의 1—7886의 6 (15권)	
10-488	7886의 6—7889의 3 (15권)	
10-489	7889의 3—7890의 7 (15권)	
10-490	7891의 2—7893의 7 (15권)	
10-491	7893의 7—7895의 7 (15권)	
10-492	7899의 2—7901의 3 (15권)	
10-493	7901의 3—7904의 1 (15권)	
10-494	7904의 1—7906의 5 (15권)	
10-495	7906의 5—7909의 4 (15권)	
10-496	7909의 4—7912의 1 (15권)	
10-497	7912의 1—7914의 3 (15권)	
10-498	7914의 4—7916의 7 (15권)	
10-499	7916의 7—7919의 3 (15권)	
10-500	7919의 3—7921의 5 (15권)	
10-501	7921의 5—7923의 7 (15권)	
10-502	7924의 1—7926의 4 (15권)	
10-503	7926의 4—7929의 1 (15권)	
10-504	7929의 1—7931의 3 (15권)	
10-505	7931의 3—7933의 4 (15권)	
10-506	7933의 5—7935의 7 (15권)	
10-507	7935의 7—7938의 2 (15권)	
10-508	7938의 2—7940의 2 (15권)	
10-509	7940의 3—7942의 4 (15권)	
10-510	7942의 4—7944의 5 (15권)	
10-511	7944의 5—7945의 2 (15권)	
10-512	7949의 2—7951의 5 (15권)	
10-513	7951의 5—7953의 6 (15권)	
10-514	7953의 6—7955의 7 (15권)	
10-515	7955의 7—7958의 2 (15권)	
10-516	7958의 2—7960의 2 (15권)	
10-517	7960의 2—7961의 6 (15권)	
10-518	7962의 1—7964의 3 (15권)	
10-519	7964의 3—7965의 7 (15권)	

10-520		7965의 7—7968의 1 (15권)	
10-521		7968의 1—7970의 4 (15권)	
10-522		7970의 4—7972의 6 (15권)	
10-523		7972의 6—7974의 7 (15권)	
10-524		7974의 7—7977의 3 (15권)	
10-525		7977의 3—7979의 6 (15권)	
10-526		7979의 6—7982의 1 (15권)	
10-527		7982의 1—7984의 1 (15권)	
10-528		7984의 1—7986의 2 (15권)	
10-529		7986의 2—7988의 6 (15권)	
10-530		7988의 6—7991의 4 (15권)	
10-531		7991의 5—7992의 4 (15권)	
10-532		7992의 5—7994의 4 (15권)	
10-533		7994의 4—7996의 3 (15권)	
10-534		7996의 3—7998의 2 (15권)	
10-535		7998의 2—8000의 3 (15권)	
10-536		8000의 3—8001의 1 (15권)	
10-537	빈 페이지		
10-538		8005의 2—8007의 1 (15권)	
10-539		8007의 1—8009의 6 (15권)	
10-540		8009의 6—8012의 6 (15권)	
10-541		8012의 6—8015의 2 (15권)	
10-542		8015의 2—8016의 2 (15권)	
10-543		8016의 4—8018의 5 (15권)	
10-544		8018의 6—8020의 6 (15권)	
10-545		8020의 7—8023의 1 (15권)	
10-546		8023의 1—8025의 3 (15권)	일부 단어 (sirame) 추가
10-547		8025의 3—8027의 5 (15권)	일부 단어 (efiyen) 삭제
10-548		8027의 5—8029의 7 (15권)	
10-549		8029의 7—8031의 3 (15권)	
10-550		8031의 5—8033의 4 (15권)	
10-551		8033의 6—8035의 5 (15권)	
10-552		8035의 5—8037의 5 (15권)	
10-553		8037의 7—8039의 3 (15권)	
10-554	표지 □□□—□□□ [+wesihÜn erdemunggei] sucungga		

	fulgiyan singgeri aniya omšon biya ice de šahūn ihan, biya ejehe dangse.		
10-555	빈 페이지		
10-556	omšon biyai		
10-557		8045의 2—8047의 6 (16권)	앞장 날짜 (omšon biyai) 추가
10-558		8047의 7—8049의 6 (16권)	
10-559		8049의 6—8051의 6 (16권)	
10-560		8051의 6—8053의 5 (16권)	
10-561		8053의 7—8056의 5 (16권)	
10-562		8056의 7—8059의 6 (16권)	
10-563		8059의 6—8063의 2 (16권)	
10-564		8063의 2—8066의 1 (16권)	
10-565		8066의 1—8068의 5 (16권)	
10-566		8068의 5—8071의 3 (16권)	
10-567		8071의 3—8074의 1 (16권)	
10-568		8074의 3—8076의 7 (16권)	
10-569		8076의 7—8080의 2 (16권)	
10-570		8080의 4—8083의 5 (16권)	
10-571		8083의 5—8086의 5 (16권)	
10-572		8086의 7—8090의 2 (16권)	
10-573		8090의 2—8093의 2 (16권)	
10-574		8093의 3—8096의 6 (16권)	
10-575		8096의 6—8100의 1 (16권)	
10-576		8100의 1—8103의 2 (16권)	
10-577		8103의 2—8106의 2 (16권)	
10-578		8106의 4—8109의 3 (16권)	
10-579		8109의 5—8112의 7 (16권)	
10-580		8113의 2—8115의 6 (16권)	
10-581		8115의 6—8119의 2 (16권)	
10-582		8119의 2—8121의 6 (16권)	
10-583		8125의 2—8127의 1 (16권)	
10-584		8127의 1—8129의 1 (16권)	
10-585		8129의 1—8131의 2 (16권)	
10-586		8131의 2—8133의 3 (16권)	일부 단어 (gebu) 추가
10-587		8133의 3—8136의 1 (16권)	일부 단어

		(gebu) 추가
10-588	8136의 1—8138의 7 (16권)	
10-589	8138의 7—8141의 2 (16권)	
10-590	8141의 2—8143의 7 (16권)	
10-591	8143의 7—8146의 4 (16권)	일부 단어 (gebu) 추가
10-592	8146의 4—8148의 7 (16권)	
10-593	8148의 7—8151의 4 (16권)	
10-594	8151의 4—8154의 1 (16권)	일부 단어 (gebu) 추가
10-595	8154의 1—8157의 1 (16권)	
10-596	8157의 1—8160의 1 (16권)	일부 단어 (gebu) 추가
10-597	8160의 1—8163의 5 (16권)	일부 단어 (boo) 추가
10-598	8163의 5—8166의 4 (16권)	
10-599	8166의 4—8169의 5 (16권)	
10-600	8169의 5—8171의 4 (16권)	
	8175의 2—8175의 5	
10-601	8175의 6—8178의 1 (16권)	
10-602	8178의 1—8181의 1 (16권)	노당에서 지 위진 부분 원당에서 불 명료하게 보 임
10-603	8181의 1—8183의 6 (16권)	
10-604	8183의 6—8186의 5 (16권)	노당에서 지 위진 부분 원당에서 불 명료하게 보 임
10-605	8186의 5—8188의 6 (16권)	
10-606	8188의 6—8191의 4 (16권)	
10-607	8191의 4—8193의 3 (16권)	
10-608	8193의 4—8194의 1 (16권)	
10-609	8194의 3—8196의 3 (16권)	
10-610	8196의 4—8198의 6 (16권)	
10-611	8198의 6—8201의 1 (16권)	
10-612	8201의 1—8203의 3 (1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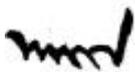
10-613		8203의 3—8205의 6 (16권)	
10-614		8206의 1—8208의 2 (16권)	
10-615		8208의 2—8210의 5 (16권)	
10-616		8210의 5—8212의 7 (16권)	
10-617		8212의 7—8215의 3 (16권)	
10-618		8215의 4—8217의 1 (16권)	
10-619		8217의 3—8219의 2 (16권)	
10-620		8219의 2—8220의 6 (16권)	개수 (원당 hese→노당 hanci)
10-621		8220의 6—8222의 6 (16권)	
10-622		8223의 1—8225의 3 (16권)	
10-623		8225의 3—8227의 6 (16권)	
10-624		8227의 7—8230의 2 (16권)	
10-625		8230의 2—8232의 5 (16권)	일부 단어 (enduringge) 추가
10-626		8232의 5—8235의 1 (16권)	
10-627		8235의 1—8237의 1 (16권)	
10-628		8237의 3—8239의 1 (16권)	
10-629		8239의 3—8241의 2 (16권)	
10-630		8241의 4—8243의 3 (16권)	
10-631		8243의 5—8245의 4 (16권)	
10-632		8249의 2—8251의 5 (16권)	
10-633		8251의 5—8254의 2 (16권)	
10-634		8254의 2—8256의 3 (16권)	
10-635		8256의 4—8258의 4 (16권)	
10-636		8258의 4—8260의 7 (16권)	
10-637		8261의 1—8263의 5 (16권)	
10-638		8263의 5—8265의 6 (16권)	
10-639		8266의 1—8267의 6 (16권)	일부 단어 (ice) 추가
10-640		8267의 6—8269의 7 (16권)	
10-641	빈 페이지		
10-642		8270의 2—8272의 4 (16권)	일부 단어 (bandi) 추 가
10-643		8272의 4—8274의 6 (16권)	
10-644		8274의 6—8277의 3 (16권)	
10-645		8277의 5—8279의 2 (16권)	

10-646	8279의 2—8279의 6 (16권)	
10-647	8280의 1—8282의 2 (16권)	
10-648	8282의 2—8284의 4 (16권)	
10-649	8284의 4—8286의 6 (16권)	
10-650	8286의 6—8287의 1 (16권)	
10-651	8287의 3—8289의 3 (16권)	
10-652	8289의 4—8291의 1 (16권)	
10-653	8291의 1—8292의 3 (16권)	
10-654	8292의 4—8294의 7 (16권)	일부 단어 (niyakūrafi) 추가
10-655	8294의 7—8297의 5 (16권)	
10-656	8297의 5—8299의 1 (16권)	
10-657	8299의 1—8300의 6 (16권)	
10-658	8300의 6—8303의 1 (16권)	
10-659	8303의 1—8305의 5 (16권)	
10-660	8305의 5—8307의 7 (16권)	
10-661	8307의 7—8310의 3 (16권)	
10-662	8310의 3—8313의 7 (16권)	
10-663	8314의 2—8316의 1 (16권)	
10-664	8316의 2—8318의 5 (16권)	
10-665	8318의 5—8321의 3 (16권)	
10-666	8321의 3—8324의 2 (16권)	일부 단어 (benjihe) 추가
10-667	8324의 2—8326의 7 (16권)	
10-668	8326의 7—8329의 4 (16권)	
10-669	8329의 4—8331의 7 (16권)	
10-670	8331의 7—8334의 5 (16권)	
10-671	8334의 5—8337의 3 (16권)	
10-672	8337의 3—8340의 1 (16권)	
10-673	8340의 1—8341의 2 (16권)	
10-674	8346 (16권)	
10-675	8347의 2—8349의 3 (16권)	
10-676	8349의 3—8352의 1 (16권)	
10-677	8352의 1—8354의 4 (16권)	
10-678	8354의 4—8357의 1 (16권)	
10-679	8357의 1—8359의 3 (16권)	
10-680	8359의 3—8361의 4 (16권)	
10-681	8361의 4—8363의 7 (16권)	
10-682	8363의 7—8366의 4 (1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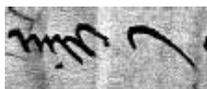
10-683		8366의 4—8368의 6 (16권)	
10-684		8368의 6—8371의 1 (16권)	
10-685		8371의 1—8373의 4 (16권)	
10-686		8373의 4—8375의 2 (16권)	
10-687		8375의 2—8375의 6 (16권)	
10-688		8376의 1—8378의 1 (16권)	
10-689		8378의 1—8380의 3 (16권)	
10-690		8380의 3—8382의 5 (16권)	
10-691		8382의 5—8384의 6 (16권)	
10-692		8384의 7—8387의 1 (16권)	
10-693		8387의 2—8389의 3 (16권)	
10-694		8389의 3—8390의 1 (16권)	
10-695	표지 wesihÜn erdemunggei sucungga fulgiyan singgeri aniya, jorhon[<jorgon] biyai ice de šahūn honin,		
10-696		8393의 2—8395의 2 (16권)	
10-697		8395의 2—8397의 3 (16권)	
10-698		8397의 3—8399의 1 (16권)	
10-699		8399의 3—8401의 2 (16권)	
10-700		8401의 4—8403의 5 (16권)	일부 단어 (amban) 추 가
10-701		8403의 5—8405의 7 (16권)	
10-702		8405의 7—8408의 2 (16권)	
10-703		8408의 2—8411의 2 (16권)	
10-704		8411의 2—8413의 2 (16권)	
10-705		8413의 4—8415의 4 (16권)	
10-706		8415의 4—8417의 4 (16권)	
10-707		8417의 6—8419의 6 (16권)	
10-708		8419의 6—8421의 7 (16권)	
10-709		8422의 2—8424의 4 (16권)	
10-710		8424의 6—8426의 6 (16권)	
10-711		8427의 1—8429의 4 (16권)	
10-712		8429의 4—8431의 7 (16권)	
10-713		8431의 7—8434의 5 (16권)	
10-714		8434의 5—8437의 6 (16권)	
10-715		8437의 6—8440의 4 (16권)	
10-716		8440의 5—8444의 4 (16권)	
10-717		8444의 5—8447의 2 (16권)	

10-718	8447의 2—8450의 1 (16권)	
10-719	8450의 1—8452의 5 (16권)	
10-720	8452의 7—8455의 3 (16권)	
10-721	8455의 3—8458의 1 (16권)	
10-722	8458의 1—8460의 7 (16권)	
10-723	8460의 7—8464의 1 (16권)	
10-724	8464의 1—8466의 7 (16권)	
10-725	8466의 7—8469의 6 (16권)	
10-726	8469의 6—8472의 5 (16권)	
10-727	8472의 5—8475의 6 (16권)	
10-728	8475의 6—8476의 6 (16권)	

110) 본고의 전자원칙에 더해 자음 n자가 왼쪽 점 없이 올 때 이를 N으로 표기한다.



111) 이 경우, y 표기는 유권점자 y에 대응시켜 그대로 y로 표기한다.



[부록 3] 『만문노당』의 미반영 기사: 청 태종조

번호	날짜	「만문원당」
1	천총 1년 11월 28일	(6-149~151)
2	천총 2년 4월 초사흘	(6-248~249)
3	천총 6년 8월 초나흘	(8-234)
4	천총 6년 11월 10일	(8-270)
5	천총 6년 12월 12일	(8-287~289)
6	천총 6년 1월 초이레	(8-347)
7	천총 9년 전체	9권 전체

표 95 『만문노당』의 청 태종조 미반영 기사

[부록 4]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 청 태종조

6권 26~27	=	6권 89~93
8권 58~59	=	8권 347~351
8권 81~83	=	8권 354~357
8권 97	=	8권 366
8권 101~102	=	8권 369~370
8권 122~123	=	8권 377
8권 128~129	=	8권 380~382
8권 132~133	=	8권 384~386
8권 156~157	=	8권 404~405
8권 160~164	=	8권 410~415
8권 175~178	=	8권 428~433

표 96 『만문원당』의 청 태종조 중복기사

[부록 5] 『만문원당』의 텍스트화 (일부 예)

<표기상의 범례>

◻ : ,(침표)

◻◻ : ,(마침표)

B[<A] : 노당에 A로 나오는데 원당에서는 B로 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B[←A] : 노당과 원당 모두 B로 동일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원당에서 개수를 통해 A를 B로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OO] : 원당에서 단어를 행간에 추가해 쓰면서 이를 알려주는 + 표기가 있을 때, +를 쓰고 행간에 추가된 단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OO] : 원당에서 단어가 행간에 추가됐는데 이를 알려주는 + 표기가 없을 때 추가된 행간의 단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 : 1단 대두

⇐ : 2단 대두

[-OO] : 노당엔 있는데 원당에는 없을 때

[> OO] : 노당엔 없는데 원당에는 있을 때

<제6권>

[6-3]

<ara> 1 ○sure han i sUCUnGga fulahūn gūlmahūn aniya aniya biyai ice inenggi, geren beise ambasa

2 bithei[<bithe] cooha[<coohai] hafasa tanggū [+OOOO] sUnjaci Ging wajime, amba yamun de isafi meni meni gūsai[<gūsa]

3 gūsai faiDaha, abka herEme[<gereme] sure han geren beise ambasa be gaifi tangse de genefi abka de

4 ilan jergi niyakūrafi uyun jergi hengkilEHe, tereci bEDerEfi han yamun

de tucifi [+tehe manggi] geren beise

5 ambasa[←ambasai] [+meni meni gūse[<gūsa] gūsai] jergi buDome[< bodome] ilata[←ilan] jergi niyakūrafi uyute[←uyun] jergi hengkilehe, tere hengkilErE de han i juwe

6 ashan de juwe niyalma ilifi emu niyalma tenteke beile tenteke amban aniya se baha seme

7 geren be gaifi hengkilembi seme hūlaha manggi, emu [+hafan] iyakūra[<niyakūra] hengkile seme hūlara be

8 tuwame hengkilehe daci manju gurun i doru [+hengkilere de amba beile amin beile manggŪlt₂ai beile be ilan beile be ahūn seme kundUIEme han i juwe ashan de tebuhe yaya bade inu han i adame tebure dabala fejiLE tebUrakū bihe [+fEi[<fe] yamji] aniya inenggi eiten haCin i efiyEn[<efin] efime maKsime

9 amba sarin sarilambihe, taisui[<taidzu i] sinagan bifi terE aniya fei[<fe] i yamji, aniya inenggi

10 efiyEn[<efin] sebjEn [+kumUn mUDan] bE Deribuhekū sarin sarilaHakū, han damu geren i hengkilere be

11 alime gaiha

[6-4]

<ara> 1 ○sŪrE Han i sUCUngGa aniYa,

2 aniYa biyai iCE jakŪn De,

3 amin bEiLE, jirGalang taiji, ajiGe taiji,

4 dŪDU taiji, yoTo taiji, SIoTo taiji de amba

5 ㊦㊦㊦㊦ cooHa bE GaiBi [afabUfi], solHo GŪrUn de nikan i moo[<mao] WEn

6 lŪng bE baimE CooHa jŪraka ungGihe,

<ara> 7 ○terE inEngGi, fangGina, UnTasi bE [+daiming ni] ning YUwan de [i DUTaN[<du tang]]

8 [YUwan sÜng[<kung] HÛwan DE] takÛraHa, ÛngGiHe bitHe i[<bithei]
 GisUn,
 9 aisin [manju] gÛrUn i
 10 Han i bitHe
 11 YUwan amban[<amba] niYalma de ÜngGiHe, mÛsE jÛwE gÛrUn i
 dain

[6-5]

1 oHongGe, nEnEmE sÛwEni lioDUng[<liyoodung]
 gÛwangnin[<guwangning] De teHe Hafasa
 2 sÛwEni HÛwangDi be abkai DelE bisirE GesE Goro araBi, CEni
 3 bEYE bE abkai niYalmai aDali obUfi
 4 ← abkai banjibUHa mEni mEni HaCini[<hacin i] enCU gÛrUn i Han
 bE Umai
 5 salibUrakÛ GiDaŠara fUsiHÛlara de DoosorakÛ[<dosorakÛ] ofi
 6 ← abka [+DE HabŠaBi Dain DERibUge[<deribuhe], abka] ÜnEngGi
 tonDo ofi, gÛrUn i amban ajiGan bE TUwaHakÛ
 7 WEilEi[<weile i] ÜrU waka bE TUwaBi mEni ÜrU bE ÜrUIEHe,
 aDaramE
 8 ÜrU sECi saHaHÛn Honin aniYa mini jÛwE mafa bE Ümai
 9 WEilE akÛ [+DE] sÛwEni nikan Cooha [+babi[<baibi]] waha, erE
 emU, saHaHÛn mEiHe
 10 aniYa yehe, haDa, Ula, Hoifa, mongGo aCaBi Ümai WEilE

[6-6]

1 akÛ minde Cooha jiHe biHe,
 2 ← abka mimbe ÜrUIEHe, CEmbe wakalaHa, tere fonde sÛwEni nikan
 3 mEnDe dahakÛ, terEi amala HaDai[<hada i] niYalma Geli mEnDe
 Cooha jiHe

4 biHe, tede Geli nikan mEnde DaHakÛ, sUwaYan[<sohon] UIGiYan
 aniYa
 5 be karU HaDa be Dailara jaka de[<jakade] HaDa bE
 6 ← abka mEnde bÛHe, sÛwEni nikan HaDa de dafi, mEmbE albalamE
 7 HaDa i[<hada i] gÛrUn bE amasi HaDa de bEDerEbUHe, mEni
 bEDerEbUHe HaDai[<hada i]
 8 niYalma bE, yEHe sÛCUfi GamaCi sÛwE Ümai Ümai sEHekÛ,
 9 sÛwE siDen i gÛrUn sECi siDEn de tefi tonDoi[<tondo i] TUwaCina,
 10 mEnDe oCi DarakÛ, HaDa De oCi dambi, yEHe oCi ekisaka,

<제7권>

[7-74]

1 erE bitHei emGi, nEnEmE ← Han i GenErE ongGolo
 2 araHa bitHebe[<bithe be] sUwaliYamE ÜngGiHe,
 3 Oorin UYUn DE, amin bEile, ~~abaTai taiji~~, jirGalang taiji,
 4 SIoTo taiji GerEn Cooha bE GaiBi jÛhesi ~~OOOO ni barU~~ [+wasiHÛn]
 5 tabCin GenEHe, GenEHe baCi nikan Han DE takÛrambi sEmE
 6 GamaHa bitHei GisUn,
 7 ← aisin gÛrUn i jaCin bEilEi[<beile i] bitHe,

[7-75]

1 ← Daiming gÛrUn i HÛwangDi DE jafaHa, mEni DaCi Doroi aCaki
 sEmE
 2 GisUrEHengGe ÜnEngGi mÛjilEn i GisUrEHe, bi nEnEmE Cooha DE
 3 jiHekÛ biHe, TE mini jiHengGe inU Doroi jali[<jalin] aCara babe
 4 ambUla GÛnimE jiHe, sÛwE mEmbE jaliDambi sEmE ÜmE GÛnirE,
 5 ÜnEngGi sEmE GisUrEBi HolToCi
 6 ⇐ abka DE GelErakÛn, niYalma bE HolToCi ombi D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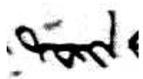
7 ⇐ abka bE HolToCi ombio, be DonjiCi sUYEni[<suweni] ambasa
bitHe
8 WEsimbUmE Doro aCaCi ojarahŪ, nEnEmE aisin i

<제8권>

[8-8]

- 1 ○anaGan i düin¹¹²⁾ biYai orin sUnja De DÜmiN[<du ming] jüng i[<ni] GajiHa bitHe i[<bithei] karU mÜsEi lama De ÜngGiHe bitHei GisUn
- 2 ← aisin gŪrUn i Han i bitHe
- 3 ⇐ Daiming gŪrUn i YUwan amba niYalma De ÜngGiHe,
- 4 amba niYalmai karU bitHe DE aCara Doro bE mimbE Gūni sEHebi, mini gŪniHangGe nEnEmE sain banjiHa
- 5 fonDE, jasEi Dolo nikan i CangGi, jasEi tŪIE jŪŠEn i CangGi sUwaliYan akŪ biCibe dŪbE aCamE
- 6 TEHe HanCi oBi, HŪiHamE jasE DabamE WEilE aramE ŪiHiYEn i baDaraBi, Dain oHo, te mÜsE
- 7 Doro aCaCi jasE bE alDangGa obUki, irGen faKCaBi ama jUi aHŪn DEo UbaDE tubaDE balai
- 8 bi, nEnEHe aDali dŪbE aCamE TEHe DE amasi jŪIEsi jiYansi[<giyansi] UkanjU HŪiHa YabUmE aCaHa
- 9 Doro bE efUIErahŪ, ŪnEngGi aCaCi DalingHo bE sŪwEni jasE obU, sansaHo[<san ca ho] bE mini jasE
- 10 obUrE, erE jŪwE siDEn i ba ŪnTUHun bikini, UkanjU HŪiHa baiCaCi ja, WEilE DaKsa tŪCirakŪ

112) 이 경우(아래 그림), 유권점자 duin과도 자형이 유사하므로 이를 düin으로 전자해야 하는지, duin인지 전자해야 하는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d의 유성을 나타내는 점이 다른 글자와 달리 나중에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이 기사의 다른 글자에서도 Ū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düin으로 전자하는 것이 자형에 근접해 보인다.



11 aCaHa Doro Goro Golmin banjiki, jai Doron i jali[<jalin]

[8-9]

1 ⇐ fÜngnEmE wasimbUHangGe Dabala balai YabUbUCi ojarahÛ
sEHebi, tutTU oCi minDE aisin gÛrUni[<gurun i] Han i Doron

2 araBi Gaji, jai aCara Doroi bÛre Ülin bE sÛwE sEolE, aikabaDE
mimbE CaHar Han i aDali

3 GÛniraHÛ, TErEi aDali obUCi bi ojarahÛ, mini
GÛniHangGe[<günihang] erE, bi Dain nakaBi taiBin

4 banjirEbE[<banjire be] bUYEmE ÜngGi GisUrEmbi, sÛwE inU
ÜngGi tonDoi GisUrE, mÛsE yaya

5 ⇐ abka bE ÜjU DE sinDaBi arGa bE ÜmE yabUbUrE.

6 한 행 비움

7 ÖningGun biYai orin de, elCin GenEHe lama bE GÛiDaHa sEmE,
tÛrUsi bE ÜngGiBi

8 jeCen ni[<i] tai niYalma De jafabUBi casi ÜngGi sege[<sehe] bitHe
i[<bithei] GisUn,

9 ← aisin gÛrUn i Han i bitHe

10 ⇐ daiming gÛrUn i YUwan amba niYalma de ÜngGiHe, bi GÛniCi
Dain inU abkai dekdebUrengGe

11 T₀uttu biCibE, abka inU ai jakabE[<jaka be] banjikini
sEmbiDerE[<sembi dere], eiterECi Dain ai sain

<제9권>

[9-3]

<ara> 1 sure Han i uyuci niohon ulgiyan aniYa, aniYa biyai ice de
sahaliyan singgeri inenggi

2 ← Han geren beise ambasa be gaifi tasha erin de ← Dangse de
genefi ← abka de jiha dejime ilan

- 3 jergi niyakūrafi uyun jergi hengkileme wajiha manggi, ← Han
boode bedereme jifi, wecikÜ de
- 4 hengkilehe, beise ambasa amba yamun de [+faidaha,] ← Han
tucifi sUwayan ise de tehe manggi,
- 5 jakūn gūsai hošoi beise, geren taijise ice dahame jihe dzung bing
güwan šang k'o si be gaifi
- 6 aniya se baha doroi seme ← Han de ilan jergi niyakūrafi
hengkilehe, terei sirame ㊦㊦㊦㊦-i¹¹³) [+nooni]
- 7 korcin i tusiYetu jinong, joriKtu hong taiji, ㊦㊦㊦㊦-i¹¹⁴) [ceni] geren
beise ambasa be gaifi hengkilehe,
- 8 sirame aohan i dureng jinong, cahar, kalkai geren beise ambasa be
gaifi Hengkilehe, terei sirame
- 9 arui ongniot gÜrun i dung daicing geren beise ambasa be gaifi
hengkilehe, terei sirame
- 10 arui korcin i talai darhan, ombu darhan joriKtu geren beise ambasa be
gaifi hengkilehe,
- 11 terei sirame karacin i tumet dei [+geren] tabUnong sa hengkilehe,
terei sirame jergici lakcaha ujui

<제10권>

[10-680]

- 1 [≫○]daicing gÜrun i amban [≫hong taiji] gelhÜn akū
- 2 ← dergi abkai han de niyakūrafi wesimbure gisun, tuweri ten i erin
ofi, sukdon dahūme
- 3 forgošoho seme julgei doro be alhūDame geren be gaifi hacin hacin i
jaka be
- 4 dagilafi erin de acabume ginggÜleme wecembi, tuttu bithe hūlame

113) 神田信夫 외 역(1972: 2)에서는 지워진 부분을 nagün i로 추정하고 있다.

114) 神田信夫 외 역(1972: 2)에서는 지워진 부분을 korcin i로 추정하고 있다.

wajiha manggi,

5 niyakūrahai ilan jergi hengkilehe, jai juwe jergi niyakūrafi ninggŪn
jergi hengkilefi,

6 enduringge ← han dergi ashan de wasihŪn forome iliha, hŪlara hafan
faiDa sehe

7 manggi faidaha, ibe sehe manggi ibehe, niyakūra sehe manggi
niyakūraha, niyakūrame wajiha

8 manggi, dailara turgŪn de[<turgunde]

9 ← abka de wEsimbure bithe be kicungge

10 ← abkai[<abka i] soorin i juleri niyakūrafi hŪlaha, tere bithei gisun,